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Books

제4집 전적 귀중본

제4집 전적 귀중본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Books

국립중앙박물관

思浴温浴冷皆是危道而如调換服
藥之度得也 賢胤年長而未得成
童此殊可怪歎莫非命也奈何奉
許乃至 騰送深省之言推諉因
大孫是鄰人自取古可惡允古人有敗
名而揚弟之聲使之得仕者稱名數
君而報兄仇之所甘心且富

李法原

君在清白江中必有年事矣取札者幾
存道程滯意宗法善兒女及學
子事之云云一在二節以是就學雖受
降之困南從程道報月相成以
成報月計日如之而亦可知也
報之兒心死月計日如之而亦可知也
而引之長之古知在存世結友及
性沒在存世以上古知情緣記告
古知

存道程滯意宗法善兒女及學
子事之云云一在二節以是就學雖受
降之困南從程道報月相成以
成報月計日如之而亦可知也
報之兒心死月計日如之而亦可知也
而引之長之古知在存世結友及
性沒在存世以上古知情緣記告
古知

上狀

雲長 尊兄 座前

中夏毒熱伏惟

道履新春趁勝往日趁世武之訪伏見

手札之賜三復慰語備書

自成初還

起居頗常尤以欣慶也屏助奔轉深當

畫畏熱新晴重碧虛換之勢少可支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집 고고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2집 전적1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3집 전적2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4집 전적 귀중본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5집 금속공예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6집 불교회화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7집 분청사기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8집 중국도자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9집 청자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Books

제4집 전적 귀중본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4집: 전적 귀중본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Rare Books

기획 · 편집	김동우金東宇
원고	강민경姜旻旻 김동우金東宇 김선미金善美 김영철金永喆 김진실金珍實 서운희徐侖希 옥재원玉載源 원혜진元惠眞 이기현李玟眩 이재정李載貞 이태희李泰熹 이효중李孝鐘 정대영鄭大映 허문행許文行(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유호선柳好宣(국립한글박물관)
교정 · 교열	김동우金東宇 김영철金永喆 원혜진元惠眞
북디자인	편집전문회사 꿈과놀다
Planning and Editing	Kim Dongwoo
Contributions	Kang Minkyong, Kim Dongwoo, Kim Seonmi, Kim Youngchul, Kim Jinsil, Seo Yunhee, Ok Jaewon, Won Hyejin, Lee Kihyun, Lee Jaejeong, Lee Tachee, Lee Hyojong, Jung Daeyoung, Heo Moonhaeng, Yu Hoseon
Book Design	Design Play with a Dream

일러두기

- 이 책은 고故 이견희 회장이 기증한 전적 중 귀중본을 주제별로 선별하고 사진과 설명을 수록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부장 김상태)가 제작한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4집 전적 귀중본』이다.
- 도판과 관련해서는 도판번호, 책이름, 간행연도, 등록번호의 순으로 표기하였고 크기는 세로×가로, 단위 cm이다.
- 책의 설명은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였고, 원고 마지막에 집필자명을 적었다.

Note to readers

- This publication, entitled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Rare Books*, was produced by the Archaeology and History Division (Head: Kim Sangta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y selecting valuable items from among the texts donated by the estate of the late Lee Kun-Hee and presenting them along with plates and descriptions.
- The details of each plate are provided in the order of plate number, title of book, publication year, dimensions, and accession number. The dimensions are provided as height by width in centimeters.
- The descriptions of books contain Chinese characters when necessary. At the end of each description is written the name of the writer of the description text.

목차

Contents

발간사

Foreword

4

지정문화재

The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국보 National Treasure

8

보물 Treasure

18

비지정문화재

The U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불교 Buddhism

68

유학 Confucianism

110

역사 History

136

문집 Collection of Works

148

실용서 Practical Books

178

기타 Others

198

도판목록

List of Plates

204

발간사

2021년 4월 28일 고故 이건희李健熙(1942~2020) 삼성 회장 유족은 그의 수집품 중 9,797건 2만 1,69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기증품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자기, 금속, 전적, 서화, 목가구, 석조 그리고 중국 도자 등으로 폭넓고 다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합니다.

‘제4집 귀중본’은 제2·3집에 소개된 전적에서 가치가 있는 귀중본貴重本을 선별하여 사진과 설명을 함께 수록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임진왜란(1592) 이전에 간행된 오래된 책이거나, 유일본과 희귀본을 귀중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책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그 밖의 기증된 전적 중 귀중본을 수록했습니다. 기증된 1만 2,558책에서 극히 일부의 귀중본입니다. 다만 이 책을 발간하여 고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전적의 진면목을 조금이나마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부터 고유한 문화를 이어온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책들을 간행하여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외침과 재난으로 많은 책들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온 나라가 병화兵禍에 휩싸였던 임진왜란은 이전까지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책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선조실록』에는 ‘나라가 보관하고 있던 서적, 실록, 고려의 사초史草, 승정원일기 등이 다 타버렸다’고 전합니다. 때문에 1592년 이전 간행된 책이 귀중본으로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난들을 피해 책들이 전해지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박물관은 이번에 소개된 귀중본 외의 귀중한 중요 전적들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집한 고 이건희 회장님과 아낌없이 기증한 유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품 목록집을 발간하여 기증의 높은 뜻을 잘 알리고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장
윤성용

Foreword

On April 28, 2021, the bereaved family of the late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1942–2020) made a gift of 9,797 items (21,693 pieces) from his estate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donated items are extensive and diverse, encompassing ceramics, metalwork, books, calligraphy, wooden furniture, and stone sculptures dating to the Neolithic Period through the Joseon Dynasty and even Chinese ceramic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conducted a systematic survey of the items and is presenting the results by category in a sequential series of publications under the title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Books presents valuable items from among the texts presented in the second and third volumes (Books 1 and 2) of the publication series. In general, books publishe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1592), unique books for which only one copy exists, and rare books are all classified as valuable books. This catalogue first presents text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the state as National Treasure or Treasure, followed by other valuable books from among the donated texts. Valuable books account for only a fraction of the 12,558 donated volumes. Nevertheless, we are publishing this catalogue to share with the public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llection of books donated by the late chairman.

Koreans of the past handed down their distinct culture since ancient times and developed the nation into a cultural powerhouse through the publication of numerous books. However, many books have been lost due to recurrent invasions and disasters. For example,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a period when the entire nation was embroiled in the horrors of war, struck a particularly disastrous blow against the precious cultural heritage of books that had been preserved to that point. In the *Annals of King Seonjo* (Seonjo sillok), it is recorded, “Books, annals, first drafts of records of th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and the *Daily Record of the Grand Secretariat* (Seungjeongwon ilgi) that had been stored by the government were all burned.” It is therefore understandable why books published before 1592 are so highly valuable. It is fortunate that there are books that survived all the different hardships and continue to be treasured. There are many valuable books among the donated items that have not been included in this catalogue. The museum will continue to work to introduce such valuable books to the public.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late Lee Kun-Hee, who acquired this collection based on his exceptional interest in and affection for cultural heritage, and his bereaved family for their generous gifting of the collection.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series of volumes on the donated item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ims to support the noble intentions of the donation and widely sh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November 2022
Yoon Sung Yong
Director General
National Museum of Korea

葉之為得也 圓胤年長受未得成
童此殊可怪歎莫非命也奉命之奉
許乃至 騰送深為之言維証因

지정문화재

The Designated Cultural Property

국보
National Treasure

보물
Tr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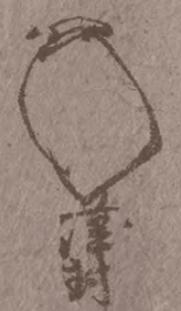
功在法旨法中主父子孝史取托卷哉
存宜福澤意宗法善公忠友學
孝弟之德云一處一節以名就學性學
隨之因南從禮道報お月相成以
成報月計日如之而末可也部有在
報之德心死日計日如男此又何難且
而可引之長之古知在成也結去及
法及在成之也以上古知情結能出
去の

上狀

雲長 尊見 座前

中夏毒熱伏惟

道履新卷趁勝臨日趁世武之訪伏見



1. 감지은니 불공견색신변진언경 권13

紺紙銀泥不空羅索神變眞言經 卷十三

고려 1275년(충렬왕 1)
30.4×905.0cm
국보 건희 00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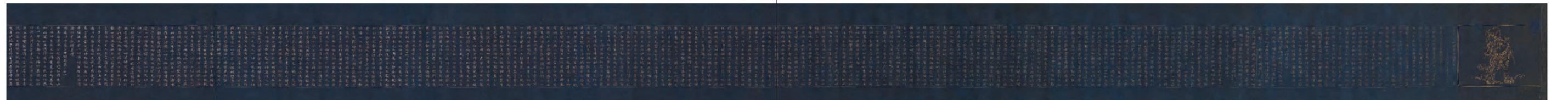
Transcription of the *Amoghapasa Kalparaja Sutra*
(Sutra of mantras for the Supernatural Powers of Amoghapasa), Vol. 13
National Treasure, LKH 00008



도1-1 표지表紙



도1-3 권말卷末 사성기寫成記



도1-2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보리류지菩提流志(?~727)가 한역漢譯한 『불공견색신변진언경』 30권 본 가운데 권13으로, 관음보살의 변화신인 불공견색 관음보살의 진언과 염송법, 화상법 등 비밀수행법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리류지는 남인도의 승려로 본명은 달마류지達摩流志이다.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683년에 장안長安으로 그를 초청해 머물게 하면서 활약한 인물로, 이 때 익히 알려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모다라니신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과 『불공견색신변진언경』 등을 한역했다.

『불공견색신변진언경』은 불공견색 관음보살의 진언眞言과 염송법念誦法, 만다라曼荼羅, 수인手印, 호마법護摩法 등을 비롯한 풍부한 내용을 설한 경으로 총 30권 7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3권은 20품 부편심인진언출세간품溥遍心印眞言出世間品과 21품 부편심인진언세간품溥遍心印眞言世間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편심인 진언과 그 염송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복덕福德을 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1275년 은자대장도감의 사경승 중 한사람이었던 삼중대사三重大師 안체安諦가 검색 종이에 은니銀泥로 필사한 불교경전이다. 금선金線의 윤곽에 신장神將을 그린 변상도와 한 줄에 14자의 글자를 은가루를 이용하여 쓴 경문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권두에는 금니金泥로 검은 권 부동명왕不動明王(동진보살童眞菩薩이라는 견해도 있음)이 유려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는데, 얼굴과 몸이 향하는 방향을 반대로 그림으로써 힘찬 역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본문 제목 끝에는 천자문의 한글자인 ‘慕(모)’자가 있어 천자함千字函(천자문의 순서에 따라 책의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권말의 사성기寫成記 ‘至元十二年乙亥歲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지원십이년을해세고려국왕 발원사성은자대장)은 1275년(충렬왕 1) 왕의 발원으로 은자대장도감에서 사성寫成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 왕이 의해 만들어진 사경이 여러 종 전래되고 있지만 이 책의 간행 시기가 가장 이르고 다른 사경에 비해 체제와 격식, 품위와 기법, 보존상태 등도 단연 가장 뛰어나다. 김영철

2.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1~7

紺紙金泥妙法蓮華經 卷一~七

고려 1330년(충숙왕 17)
28.3×10.2cm
국보 건희 00009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 1~7
National Treasure, LKH 00009



도2-1 표지表紙

감색의 종이에 은니銀泥로 쓴 『묘법연화경』으로 모두 7권 7첩이다. 1330년에 홍산군鴻山郡(현 부여)의 호장戶長(고려시대 해당 고을의 실무 행정을 총괄한 향리들의 우두머리) 이신기李臣起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여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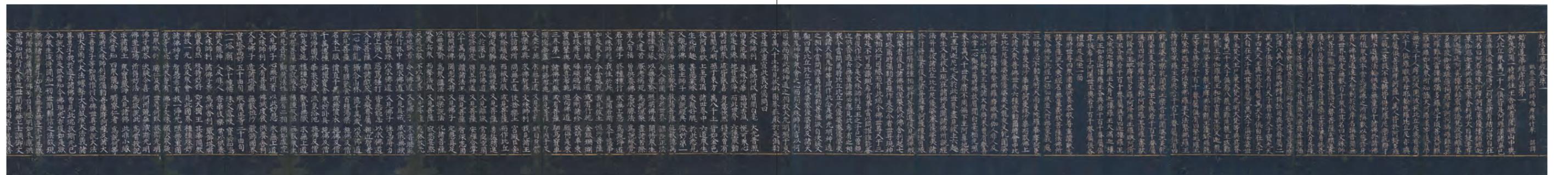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 하는데, 범어梵語로는 ‘*saddharmr-pundarika-sūtra*’이며, 이 뜻은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白蓮과 같은 가르침’이다. 대승大乘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50~220년 이후까지 성립되었다고 한다. 중국에 전해진 『법화경』은 여섯 번에 걸쳐 번역되었는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축법호竺法護(233~310)가 286년에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과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의 『묘법연화경』, 그리고 사나굴다闍那崛多(523~600)와 달마금다達摩笈多(?~619)가 함께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이다. 이 중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유행한 것은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다.

이 사경은 1~7권으로 각 권이 1첩이다. 표지에는 금니로 연꽃이 그려져 있고 중앙에 ‘妙法蓮華經(묘법연화경)’과 권차卷次를 썼다. 1권에는 서품序品과 방편품方便品, 2권에는 비유품譬喻品과 신해품信解品, 3권에는 약초유품藥草喻品, 수기품授記品, 화성유품化城喻品으로 구성되었다. 4권에는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 법사품法師品, 견보탑품見寶塔品,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권지품勸持品, 5권에는 안락행품安樂行品, 중지용출품從地踊出品,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6권에는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축루품囑累品,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7권에는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다라니품陀羅尼品,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이 있다. 이로써 총 28품이다.

제7첩 말미에는 사성기寫成記가 있어 이 사경의 제작연대와 작성자, 사경의 목적을 알 수 있다. 『묘법연화경』의 사경으로서는 연대가 비교적 빠르고 완결이어서 가치가 크다. 김동우



도2-3 권7 권말卷末 사성기寫成記



도2-2 권1 본문本文

3.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고려 1341~1367년(충혜왕 복위 2~공민왕 16) 추정
26.5×639.6cm
국보 건희 00010

Transcription of the "Chapter on the Practices and Vows of Samantabhadra" in the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National Treasure, LKH 0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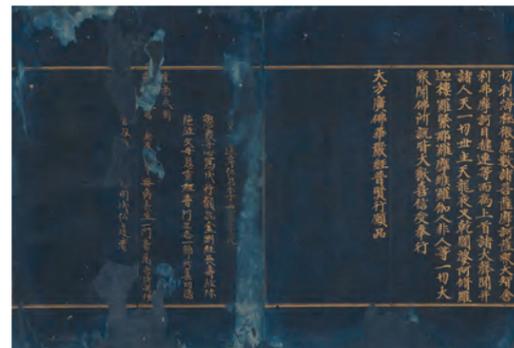
감색의 종이에 금니金泥로 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도 하며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다. 이 경전은 당나라 795~798년에 반야般若가 번역한 40권본이다.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담고 있다. 열 가지 행원은 모든 부처를 공경함[禮敬諸佛], 부처를 찬양함[稱讚如來], 널리 공양함[廣修供養], 잘못을 참회함[懺悔業障], 공덕을 함께 기뻐함[隨喜功德], 설법을 청하고 열심히 배움[請轉法輪], 부처가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함[請佛住世], 항상 부처를 따라 배움[常隨佛學], 항상 중생들을 따름[恒順衆生], 나의 공덕을 남에게 돌림[普皆迴向]이다.

본서는 삼중대광三重大匡 영인군寧仁君 이야선불화李也先不花가 자신의 무병장수와 일가 친족의 평안을 빌기 위해 사성寫成한 『금강경』·『장수경』·『미타경』·『부모은중경』·「보현행원품」 가운데 하나이다.

절첩장折帖裝이며 표지에는 금과 은색으로 꽃무늬가 있다. 그 중앙에 ‘大方廣佛華嚴經行願品(대방광불화엄경행원품)’이라고 금색으로 쓴 제목이 있다. 책 머리에 행원품의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변상도變相圖가 금색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책 끝의 사성기寫成記에 간행연도가 지워져 있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책의 품격이나 기년의 첫 글자가 ‘至(지)’인 것을 볼 때 고려말인 지정至正年間(1341~1367)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변상도 뒷면에 ‘行願品變相文卿畫(행원품변상문경화)’란 글씨가 있어 변상도 작가를 밝히고 있는 점에서 고려시대 사경과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동우



도3-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3-2 권말卷末 사성기寫成記

4. 초조본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49

初雕本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二百四十九

고려 11세기 29.1×768.3cm 국보 건희 00011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Vol. 249, First Goryeo Tripitaka National Treasure, LKH 00011
--	--

고려 현종 때(재위 1009~1031) 부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唐나라의 현장玄奘(602~664)이 한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가운데 제249권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줄여서 ‘대반야경’(이하 대반야경), ‘반야경’이라 한다. 존재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공공사상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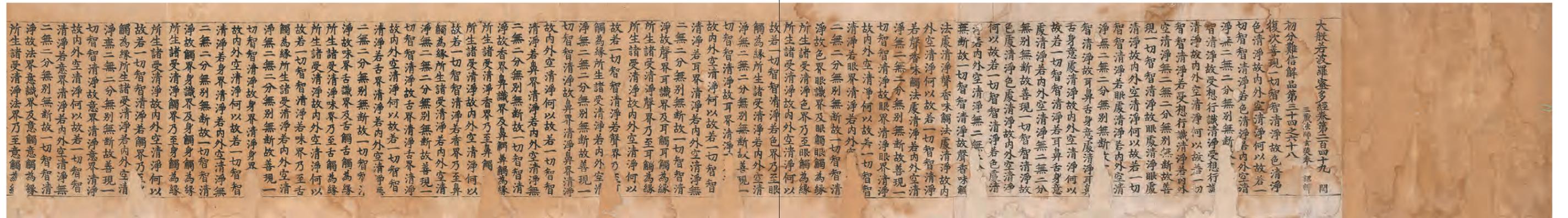
현장은 하남성河南城 낙양洛陽 동쪽의 구씨현緱氏縣 사람으로 속명이 진의陳禪다. 13세에 승려가 되어 이후 장안長安, 성도成都 등을 여행하며 불교 연구에 진력하였으나 한역된 불교 경전의 내용과 계율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연구하기 위해 627년 인도로 떠났다. 인도 전역을 돌며 경전을 연구한 뒤 수집한 불상과 경전을 갖고 645년 귀국했다. 이후 당 태종太宗의 후원을 받아 장안에 머물며 19년 동안 불교 역경譯經에 힘써 『대반야경』을 포함 총 74부

1,335권을 번역하였다.

『대반야경』은 600권 4처處 15회會, 275분分 460여 만자로 구성되었는데, 4처란 이 경전의 설법이 이뤄진 네 곳(왕사성王舍城의 영취산靈鷲山, 사위성舍衛城, 타화자재천왕궁他化自在天王宮, 왕사성 죽림정사竹林精舍), 16회란 16차의 모임을 말한다. 즉 장소는 네 곳을 옮겨고, 모이기를 열여섯 번 하여 만들어진 16경을 모은 경전이란 뜻이다. 본서 권 249권은 1처 1회 부분으로 초분난신해품初分難信解品 제삼십사지육십팔第三十四之六十八이다. 여기서는 공공을 자각하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사람을 보살이라 하고, 보살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실천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으며, 특히 공에 입각한 집착 없는 지혜의 완성 곧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강조했다.

본서는 고려 초조대장경의 일부다. 『대반야경』은 본래 천함天函부터 내함奈函까지의 6개함에 수록되어 있는데, 권 제249는 이중 운함閩函에 해당한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장척한 1권 1축의 권자본卷子本이다. 이 책의 판본은 11~12세기 사이에 간행된 초조대장경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제조대장경(해인사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글자 수가 다르고, 간행 연도를 적은 기록이 없으며, 군데 군데 ‘경竟’자의 마지막 획을 생략하거나 약자略字로 대체하는 등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것)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본문 끝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제조대장경의 ‘장張’자를 대신해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고 있다.

『대반야경』 초조본은 국내를 비롯해 일본 대마도에도 여러 권이 있지만 그 중 본권은 인출 시기가 가장 앞서고 인쇄 및 보존 상태 또한 뛰어나 고려대장경 초기의 원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철



도4-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4-2 권말卷末

5.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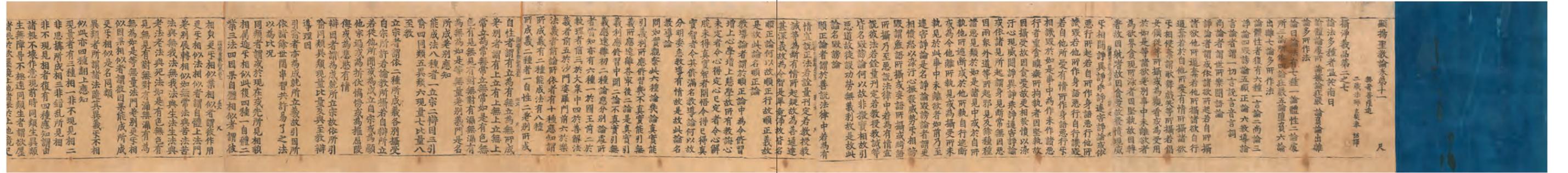
初雕本 顯揚聖教論 卷十一

고려 11세기 28.6×1000.7cm 국보 건희 00012	Acclamation of the Holy Teaching, Vol. 11, First Goryeo Tripitaka National Treasure, LKH 00012
---	--

5세기경 인도의 무착無着(Asanga, 395~470경)이 지은 글을 당唐나라 승려인 현장玄奘(602~664)이 20권으로 한역한 책으로 줄여서 흔히 『현양론』(이하 ‘현양론’) 혹은 『광포중의론廣苞衆義論』이라고도 한다. 『현양론』은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널리 펼치기 위해 저술한 것인데, 모든 존재는 의식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이치를 알고 불도를 닦아야 부처의 지혜를 갖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본서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일부로 고려 현종顯宗(재위 1009~1031)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 인출한 것이다. 무착은 일찍이 상좌부 계통의 화지부化地部 등에 출가하여 수학했고, 이후 중인도의 아유타국阿踰陀國에서 머물면서 불도를 닦았다. 그러나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수록 교리 상의 여러 의구

심을 떨치지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미륵보살에게 유식교학 사상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 밖의 저서로는 『섭대승론攝大乘論』,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등이 전한다. 『현양론』은 미륵의 저서인 『유가사지론』의 구성을 토대로 오분십칠지五分十七地·100권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 천자문 순서에 따라 11품·20권으로 만든 것이다. 본서는 20권 가운데 제11권, 전체 11품 가운데 섭정교품攝淨教品 제이지칠第二之七에 해당한다. 품품의 구성은 『유가사지론』과 비슷한 구조로서 섭사품攝事品으로 시작하여 설결택품攝決擇品으로 끝나지만 중요한 부분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독자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전체 15장으로 닥종이를 사용했다. 감색표지 끝에는 표죽楸竹이 달려 있고, 그 중앙에는 금금·담황淡黃·녹색 3색의 권서卷緒가 매여 있으며, 겉에는 제침題籤이 금서金書되어 있다. 또한 본문이 담긴 지장紙張이 모두 완전하다. 이 판본은 재조본(해인사 대장경각판)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판식板式에 있어서 판제의 권卷·장丈·함차函次를 표시하는 위치가 다르고, 장차張次 표시에 있어서도 초조본의 경우 ‘장丈’자를 쓰는 반면에 재조본은 ‘장張’자를 사용했다. 또 초조본에는 간기를 생략했으나 재조본에는 ‘임인세고려국대장도감봉칙조조壬寅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가 있으며, 판각술板刻術에서도 초조본이 더욱 정교하다. 이 판본은 보존 및 인쇄상태가 뛰어나 고려 초조본 대장경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김영철



도5-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5-2 권말卷末

6. 석보상절 권11

釋譜詳節 卷十一

조선 전기
30.3×20.7cm
보물 건희 00029

Episodes from the Life of Shakyamuni Buddha, Vol. 11
Treasure, LKH 00029

『석보상절』은 수양대군首陽大君(1417~1468)이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1410~1481) 등과 함께 어머니 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6)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모니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엮어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석보釋譜는 석가모니불의 전기, 일대기란 뜻이고 상절詳節은 중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쓴다는 뜻이다.

세종 28년(1446) 세종은 부인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일대기를 펴내게 하였다. 이에 수양대군은 신미, 김수온 등과 함께 중국 남제南齊의 승우僧祐(445~518)가 편찬한 『석가보釋迦譜』와 당唐의 도선道宣(596~667)이 편찬한 『석가씨보釋迦氏譜』를 중심으로 하고 『아미타경』, 『법화경』 등을 참조하여 먼저 한문본 『석보상절』을 편찬한 뒤,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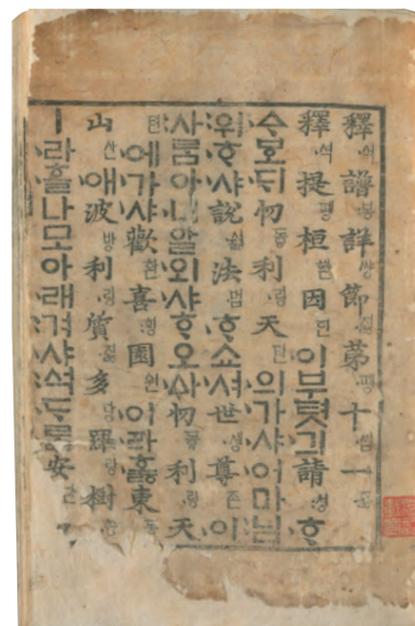
본서의 전체 내용은 석가모니불이 출현했던 부족 석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석가모니불의 전생, 현세에서 탄생, 출가, 깨달음, 설법,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가 주를 이룬다. 석가모니불이 입적

한 후 불법의 전파 등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 석가모니불의 전기와 다른 불경 등도 참고하였다.

권11의 내용은 부처가 도리천에 가서 어머니인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고, 어머니의 전생인 녹모부인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그림이 있는데 석가모니불의 생애를 팔상八相으로 표현한 여덟 가지 장면이다. 팔상은 1) 도솔래의兜率來儀(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내려옴), 2) 비람강생毘藍降生(롬비니 동산에서 탄생), 3) 사문유관四門遊觀(네 성문으로 나가 세상을 관찰함), 4) 유성출가逾城出家(성 넘어 출가), 5) 설산수도雪山修道(설산에서 수도), 6) 수하항마樹下降魔(보리수 아래에서 악마의 항복을 받음), 7) 녹원전법鹿苑轉法(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 8) 쌍림열반雙林涅槃(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이다.

본서의 초간본初刊本은 갑인자甲寅字 한자와 한글 활자로 인쇄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초간본의 복각본復刻本(한 번 새긴 책판을 그대로 본떠 다시 목판에 새겨 발행한 본)이 권11이다. 본문 첫 장에 ‘심재완인沈載完印’이란 소장인이 찍혀 있다. 권11은 전체 52장으로 글은 1장부터 43장까지이며 15장 아래 부분 3분의 1이 결락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44장에 권말서명卷末書名이나 시주질施主秩(각 권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낙장의 흔적이 있어 정확한 간행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후 45장~52장까지는 부처의 일생을 담은 팔상 8장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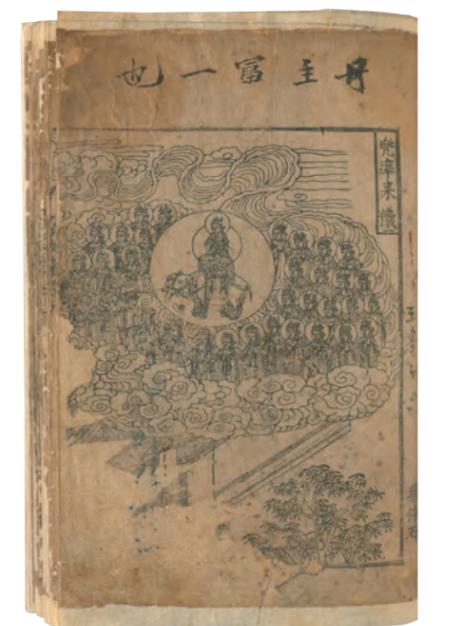
본서는 한글을 반포한 이후 처음으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 활자로 인쇄한 책으로 15세기 중엽의 국어 연구 및 한자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글자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한글로 된 세련된 문장을 구사한 작품으로 후대 고전 소설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불교 선사들의 수행지침서로서 이용되었다. 유교정치를 표방한 조선에서 계속적으로 불교 서적을 간행하였던 역사를 보여주며 불교사 연구에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본 권11은 초간본을 복각한 것으로서 초간본의 특징과 내용을 보여 주어 초간본이 없는 상황에서 권11의 내용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이다. 서윤희



도6-1 권수卷首



도6-2 본문本文



도6-3 도솔래의兜率來儀

7. 묘법연화경 권7

妙法蓮華經 卷七

고려 1240년(고종 27)
36.0×13.3cm
보물 건희 00030
The Saddharma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Vol. 7
Treasure, LKH 0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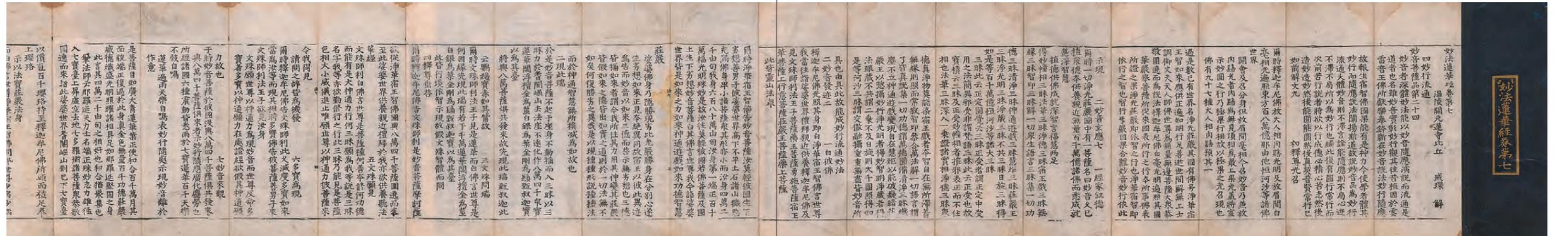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하고 송나라 계환戒環이 주해한 『묘법연화경』을 저본으로 고려 고종 27년(1240)에 간행한 것이다.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불의 40년 설법을 집약한 정수를 담고 있는 경전으로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을 중심 사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줄여서 흔히 '법화경'(이하 『법화경』)이라 한다. 구마라습은 중앙아시아 구자龜兹출신으로 후진後秦 요흥姚興(재위 394~416)의 초청을 받아 401년 장안에 도착해 국사國師로서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에 머물며 불교경전의 번역에 몰두했다. 406년 번역한 『법화경』을 포함하여 409년 생을 마치기 전까지 35부 294권의 불교 경전을 완역

한 것으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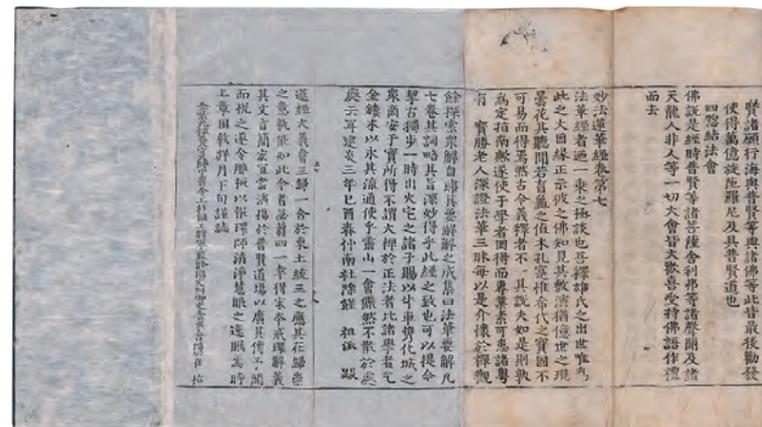
『법화경』 번역본은 크게 축법호竺法護의 『정법화경正法華經』,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 사나굴다闍那崛多·달마굽다達摩笈다가 공역한 『첨품법화경添品法華經』 3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어 읽힌 것은 7권(또는 8권) 28품으로 구성된 구마라습의 한역본이다. 본서는 전 7권 가운데 마지막 권7에 해당하며, 28품 가운데 24품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부터 28품 보현보살권 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모두 5품을 수록하고 있다.

본서는 사찰에서 찍은 목판본으로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절첩장 형태로 만들어졌다. 앞·뒤 검은색 표지는 추후에 개장한 듯 깨끗하고 표제 또한 선명하다. 권수에는 서문이나 발문 등 별다른 기록 없이 바로 경문을 적었다. 본문은 총 36장 구성으로 각 장에는 28행행行 20자字를 배자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인쇄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같은 시기 최이(崔怡, ?~1249)가 발원하여 간행한 총 74면의 복본複本の 권말에는 1129년에 조파祖派가 쓴 원래의 발문과 1240년에 최이가 쓴 글을 비롯해 강복姜福, 덕화德花 등 시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본 판본(72면)에는 인출과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보물로 지정된 불교전대중앙박물관 소장 『법화경』 권6~7, 충북 단양군 소재의 권7과 같은 판본으로 추정되나 권수에 차이가 있다.

『법화경』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판본이 간행되었지만 본서의 경우 재질 및 인쇄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활용가치가 크다. 김영철



도7-1 표지表紙와 본문本文



도7-2 권말卷末

8.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고려 1286년(충렬왕 12)
28.2~3×17.8cm
보물 건희 00031

The Saddhar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Treasure, LKH 00031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을 작은 글자로 목판에 새겨 간행한 소자본이다. 7권 2책으로 7권의 말미에 성민成敏의 발문이 있어 1286년에 그의 제자 조근조근이 전前 호장戶長 이희려李希呂와 발원하여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권1~4의 1책에는 앞에 판화로 찍은 변상도變相圖가 4면에 걸쳐 있고, 이어서 종남산 사문 도선道宣의 서문과 1권 서품서品에서 4권 권지품勸持品까지 수록되어 있다. 권5~7의 2책에는 권5 안락행품安樂行品에서 권7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화경』이 7권 28품으로 간행되었는데 본서도 이에 따른 완질完帙이다.

광곽匡郭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상하간上下間은 15.4~15.6cm이다. 계선界線과 판심版心은 없고, 7행마다 약간의 간격을 두었으며, 행간行間에는 장수 표시가 있다. 이로 보아 원래는 절첩장折帖裝으로 장정하려 했을 듯한 판식板式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형태는 선장線裝이고, 표지도 근래에 개장改張되어 본래는 불복佛腹하려는 불경으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법화경』은 송판본宋板本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것과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판본이 있다. 본서는 1장에 30행 16자를 새긴 소자본이다. 16자본으로는 본서보다 앞서 1236년 제작된 기림사祇林寺 소장본이 있다. 기림사 소장본과 본서는 모두 송판의 영향을 받았다. 판식은 고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복각본은 아니지만 특히 판화로 찍은 변상도에서도 송판 계통의 특징을 볼 수 있다.

7권 말미에 있는 성민의 발문으로 1286년에 성민의 제자 조근이 이희려와 손으로 목판을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본서는 간행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법화경』의 유통과 간행의 변천과정을 밝히는 데 귀한 자료이다. 또한 변상도 판화는 고려 판화사 연구에 큰 자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김동우



도8-1 권수卷首



도8-2 본문本文



도8-2 권말卷末

9. 불조삼경

佛祖三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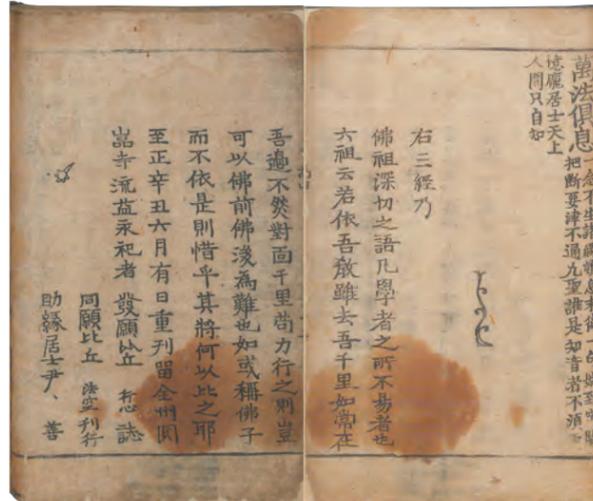
고려 1361년(공민왕 10) · 1384년(우왕 10) 28.2×16.7cm · 27.1×17.0cm 보물 건희 00032 · 00033	The Three Sutras Treasure, LKH 00032 · 00033
---	---

『불조삼경佛祖三經』은 ‘부처와 조사(祖師)(불교에서 한 종파를 열었거나 그 종파의 법맥을 이은 선승(禪僧))가 남긴 세 가지 경전’이라는 뜻으로,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 『불유교경佛遺教經』, 『위산경책滄山警策』의 세 경전을 한 책으로 묶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출가한 승려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 및 마음가짐에 관한 가르침이다.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은 1세기 중인도 출신의 승려로 후한(後漢)의 명제(明帝)가 불법을 구할 때 함께 낙양(洛陽)으로 들어와 『불설사십이장경』을 한역했다고 전한다. 『불설사십이장경』은 불교의 요지를 42장에 걸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전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 경전이다.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이 한역한 『불유교경』은 부처님이 사라쌍수(沙羅雙樹) 사이에서 입멸(入滅)할 때 모든 제자를 위하여 남긴 최후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다. 선종(禪宗) 5가(五家)의 하나인 위양종(禪宗)을 개창한 당나라(唐)의 위산(滄山) 영우(靈祐)(771~853)와 그의 제자 양산(仰山) 혜적(慧寂)(807~883)은 각각 「위산록(滄山錄)」과 「양산록(仰山錄)」을 남겼는데, 이 두 승려의 글들을 모아 『위양록(滄山錄)』이라 하였다. 그중에 위산이 불교를 공부하는 승려에게 짧고 강하게 일깨우는 목적으로 쓴 글을 따로 빼서 엮은 것이 『위산경책』이다.



도9-1 전주 원암사본의 권수卷首와 권말卷末



도9-2 이색 발문본의 권수卷首와 권말卷末

전해오던 세 경전을 송(宋)나라 때 수수(守遂)(1072~1147)가 주해하였고, 그것을 원(元)나라 선승(禪僧) 몽산(蒙山) 덕이(德異)(1231~?)가 직접 서문을 쓰고 편찬한 것이 『불조삼경』이다. 덕이는 고안(高安) 사람으로 성은 노(盧)씨이며, 중국 원나라 시기 한반도의 선종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승려다. 『휴휴암좌선문(休休庵坐禪文)』을 지어 선풍을 크게 떨쳤으며, 『몽산화상수심결(蒙山和尚修心訣)』과 『몽산화상법어(蒙山和尚法語)』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 전하는 대표적인 『불조삼경』 판본은 충혜왕 2년(1341) 정각사(正覺社)본과, 공민왕 10년(1361)의 전주(全州) 원암사(圓巖寺)본과 우왕 10년(1384)의 이색(李穡)발문(發文)본이 있다. 이후 공민왕 10년(1361) 원암사(圓巖寺)본을 번각한 판본계열과 우왕 10년(1384) 이색(李穡)발문(發文)본을 번각한 판본계열 그리고 조선시대 새롭게 나타난 판본계열 등이 모본이 되어 다시 인출되었다.

본서는 고려시대 간행본 중 전주 원암사본과 이색(李穡)발문본이다. 전주 원암사본은 몽산(蒙山) 덕이(德異)가 쓴 서문,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藏經) 본문, 대송진종황제(大宋眞宗皇帝)주유교경(注遺教經) 불유교경(佛遺教經) 본문, 주위산경책(注滄山警策) 서문, 위산경책(滄山警策)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색(李穡)발문본은 여기에 이색(李穡)의 발문이 더해져 있다.

전주 원암사본 말미에 1361년에 전주 원암사에서 행심(行心)의 발원으로 법공(法空)과 윤선(尹善)이 함께하며 책을 간행하였다는 간기(刊記)가 있으며 이색(李穡)발문본은 마지막에 이색(李穡)의 발문을 통하여 1384년 승려 지봉(志峯)과 지도(志道), 각은(覺溫)이 중간(重刊)에 참여하였으며, 시주자는 김씨(金氏)임을 알 수 있다. 이색(李穡)발문본은 원암사본과 다르게 계선(界線)이 있다. 두 책 모두 글자의 새김이 정교하고 인쇄상태가 선명하다.

『불설사십이장경』과 『불유교경』 및 『위산경책』은 모두 전래되던 시기부터 꾸준히 중요한 경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내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전해지는 『불조삼경』의 판본 중에서 고려 시대에 간행된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원혜진



도9-2 이색 발문본의 권수卷首와 권말卷末

10. 나옹화상어록과 나옹화상가송

懶翁和尚語錄 · 懶翁和尚歌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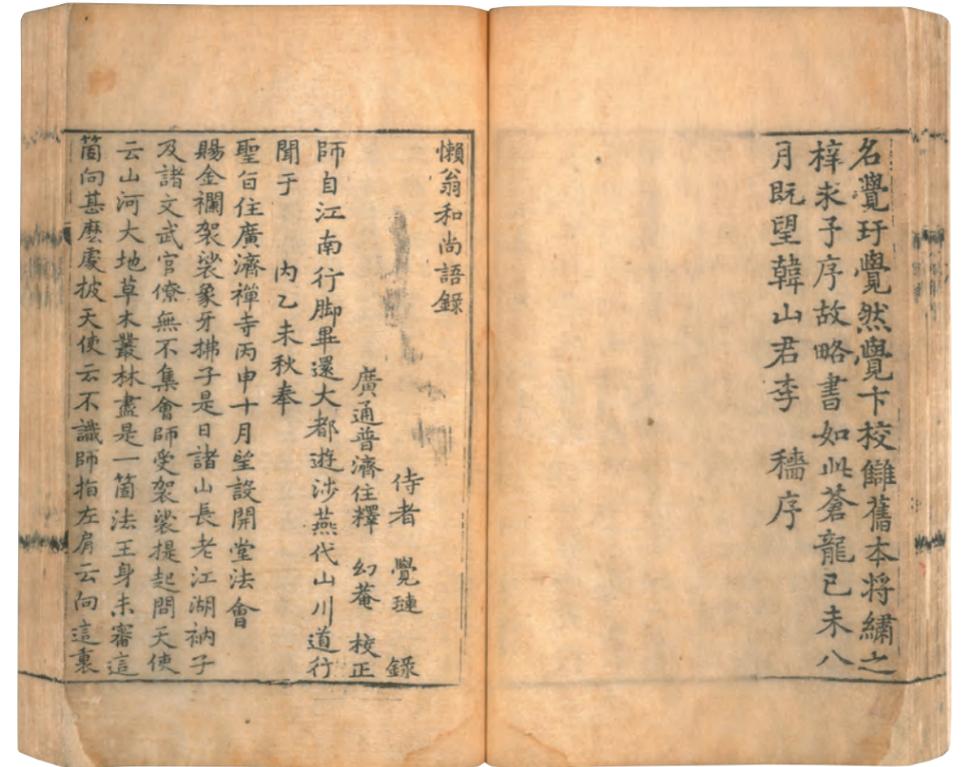
고려 1379년(우왕 5) 25.3×16.3cm 보물 건희 00034	Sermons and Poems by Buddhist Monk Naong Treasure, LKH 00034
--	---

본서는 고려 후기 승려인 혜근惠勤(1320~1376)의 어록語錄과 가송歌頌을 모은 것으로, 혜근의 제자 각련覺蓮과 각뇌覺雷가 집록하고 혼수混脩(1320~1392)가 교정하여 우왕 5년(1379)에 간행한 것이다. 혜근의 호는 나옹懶翁 또는 강월현江月軒이고 성은 아씨牙氏, 속명俗名은 원혜元惠이다. 충혜왕 복위 1년(1340)에 공덕산功德山 묘적암妙寂庵에 있는 요연선사了然禪師를 찾아가 출가하였고, 충혜왕 5년(1344)에 양주 회암사檜巖寺에서 대오大悟하였다. 충목왕 3년(1347)에 중국 원元에 가서 연경燕京에 있는 법원사法源寺에 머무르며 인도 승려 지공指空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중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처림處林, 천암千巖 등에게 또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의 도행이 원 순제順帝(재위 1333-1367)에게 알려져 광제선사廣濟禪寺의 주지가 되었다. 공민왕 7년(1358)에 귀국하여 오대산五臺山 상두암象頭庵에 머물렀다. 공민왕 10년(1361)에 왕명으로 신광사神光寺 주지가 되었으며, 이후 회암사檜巖寺 주지가 되었다. 공민왕 20년(1371)에 왕사王師로 봉해졌다. 우왕 2년(1376)에 밀성密城 영원사塋原寺로 옮겨가다가 여주 신록사神勒寺에서 입적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간화선看話禪의 입장을 취하였고 임제臨濟의 선풍을 도입하였으며, 그의 사상은 우리나라 선종에서 계속 전승되었다. 시호는 선각禪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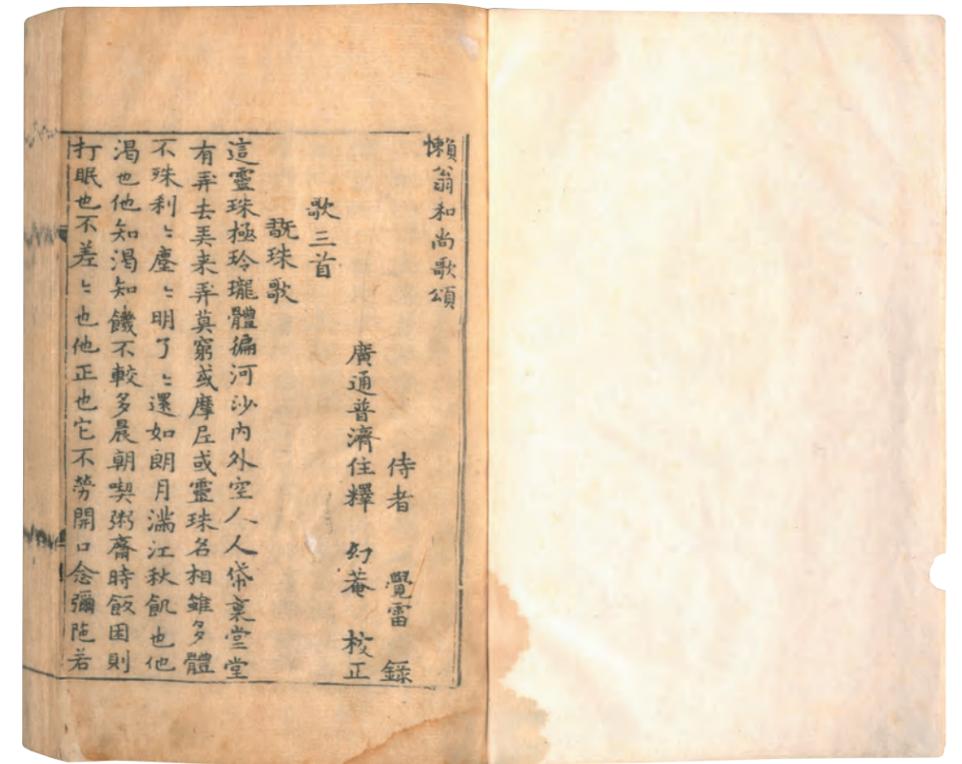
『나옹화상어록』은 혜근의 어록을, 『나옹화상가송』은 혜근이 지은 시를 수록한 것이다. 『나옹화상가송』은 공민왕 12년(1363)에 간행되었다가, 그 후 각운覺雲이 편집하여 1379년 『나옹화상어록』과 합하여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나옹화상어록』에는 백문보白文寶가 지정至正 23년(1363)에 쓴 서문, 각굉覺宏이 쓴 혜근의 행장行狀, 이색이 선광宣光 7년(1375)에 찬하여 회암사에 세운 선각왕사비문禪覺王師碑文, 초서로 쓴 권중화의 서문과 이색이 쓴 어록의 서문이 차례로 실려 있다. 이어서 혜근이 광제선사의 주지가 되어 개당법회開堂法會를 설한 내용을 시작으로, 그의 상당법어上堂法語 · 착어着語 · 수문垂文 · 서장書狀 등 61편이 수록되어 있다. 『나옹화상가송』에는 「가삼수歌三首」라는 제목으로 <완주가翫珠歌> · <백납가百納歌> · <고루가枯盧歌> 3편과 이색李穡이 쓴 <나옹삼가후懶翁三歌後>라는 후기, 「송頌」이라는 제어題語 아래 송 · 계偈 · 찬贊 등이 실려 있다. 『나옹화상어록』은 각련覺蓮이 집록하고 혼수가 교정하였고, 『나옹화상가송』은 각뇌覺雷가 집록하고 혼수가 교정하였다.

본서는 근래에 개장改裝하면서 2권 2책으로 분책되었고, 장철법裝綴法이 4침으로 되어 있다. 『나옹화상어록』의 백문보가 지정 23년(1363)에 쓴 서문 첫 장과 『나옹화상가송』의 마지막 장의 <기오其五>, <발원發願>은 묵서墨書로 보완되어 있다. 본서는 고려 후기와 조선 이후의 선종에 큰 영향을 미친 혜근의 행적과 사상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다. 김선미



도10-1 나옹화상어록 권수卷首



도10-2 나옹화상가송 권수卷首

11.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六~十

고려 1372년(공민왕 21)
24.7×15.5cm
보물 건희 00035

Shurangama Sutra(The Sutra of the Heroic One)
Treasure, LKH 00035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밀교사상密敎思想과 선종사상禪宗思想을 담고 있는 한국불교 근본경전 중의 하나로, 약칭하여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수능엄경首楞嚴經』 또는 『능엄경楞嚴經』(이하 ‘능엄경’)으로 불린다. 『능엄경』은 온갖 번뇌煩惱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요의要義를 설說한 경전으로 『금강경金剛經』·『원각경圓覺經』·『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 강원 사교과四敎科의 하나로 학습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능엄경』은 대부분 당唐나라 때 반자밀제般刺密帝가 한역하고 송宋나라 때 계환戒環이 주해한 주석본이다. 반자밀제는 중인도中人度 사람으로 당나라 때 『능엄경』을 처음 한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송나라 휘종徽宗(재위 1100~1125) 때 임제종의 승려인 계환戒環이 요점을 뽑아 주해한 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널리 간행되었는데 고려말 임제의 선사상이 유행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계환은 월越 소흥紹興 출신으로 온릉溫陵 개원련사開元蓮寺에 있어서 온릉대사溫陵大師로 불리며, 『능엄경』 외에도 선화연간宣和年間(1119~1125)에 『묘법연화경해妙法蓮華經解』 20권을 편찬하여 천태오의天台奧意를 크게 떨쳤다.

본서는 『능엄경』 전체 10권 가운데 권6~10에 해당하며 5권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고, 초록색 표지에 금니로 서명을 썼다. 권10의 본문이 끝난 다음에 발문 2편과 간행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발문은 계환이 주해한 능엄경이 송나라에서 처음 간행되던 해인 1129년에 만안비구萬安比丘 행의行儀가 쓴 것이고, 이어서 고려 공민왕 21년에 필추慈蕤(출가한 불제자를 뜻함) 즉료了가 쓴 발문이 있다.

본서와 동일판본으로는 조병순 소장본 『능엄경』 권6~10(보물, 1981년 지정),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전적인 『능엄경』 권4~7, 8~10(보물, 1987년 지정)이 있으나, 지질紙質이나 인쇄상태, 각자刻字에 마멸磨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서보다 좀 더 뒤에 인쇄印出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서울대 규장각의 가람문고본에도 동일판본의 권1~5가 남아 있는데, 이 책은 다른 시기에 간행된 목판본 권6~10과 합철되어 있다.

본서는 고려시대 간본으로서 14세기 불경 간행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인쇄 문화사적 연구가치가 높다. 지방 사찰이 간행하였고 간행시기와 간행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서지학적 의의가 크고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원혜진



도11-1 권수卷首



도11-2 발문跋文



도11-3 간기刊記

12. 선림보훈

禪林寶訓

고려 1378년(우왕 4) 28.5×17.9cm 보물 건희 00036	Teaching of Zen Buddhism Treasure, LKH 00036
--	---

『선림보훈』은 선법禪法을 닦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문禪門 승려들의 언행을 모은 것으로, 34명 선사禪師의 법어法語 278편이 실려 있다. 본서는 충주 청룡선사靑龍禪寺에서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것이다.

중국 남송南宋의 임제종臨濟宗 승려 대혜大慧 종고宗杲(1089~1163)와 죽암竹庵 사규士珪(1082~1146)가 운거산雲居山 운문사雲門寺 옛터에 토굴을 짓고 20여 년 동안 살면서 고승古頌 100여 편을 지을 때 고승高僧의 가언善言을 모았다. 이후 중국 동오東吳의 사문沙門 정선淨善이 양기楊岐 방회方會(996~1049)와 황룡黃龍 혜남惠南(1002~1180)부터 불조佛照 졸암拙庵(1121~1203)과 간당簡堂 행기行機에 이르는 글 50여 편을 추가로 모아 『선림보훈』을 간행하였다. 본서는 정선이 간행한 『선림보훈』을 저본으로 우리나라에서 복각된 것이다. 본서의 끝 부분의 발문과 간행 기록을 통해 고려 말의 승려 환암幻庵 훈수混修(1320~1392)가 선광宣光 8년(1378)에 발문을 썼고 승려 상위尙偉와 만회萬恢, 우바새優婆塞 고식기高息機와 우바이優婆夷 최성연崔省緣 등이 『선림보훈』을 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충주 청룡선사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권상·하 2권 2책으로 선장의 형태로 장정되었고, 후대에 개장되었다. 표지 우측 하단에 ‘응해應海’라는 소장자 표시가 남아 있으며, 이면에는 많은 낙서가 있다. 권상에 서명書名 다음 행에 ‘동오사문東吳沙門 정선중집淨善重集’이란 글씨가 있어, 이 책이 정선에 의해 다시 편집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권하의 끝 부분에는 중국의 장로선사長蘆禪寺에서 간행할 때의 오문비구吳門比丘 영중永中이 쓴 후기, 중집자重集者 정선의 후서後書가 그대로 있어 중국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선림보훈』의 여러 판본 가운데 간행 기록이 확인되고 판각술과 인쇄가 비교적 정교하여 고려 말기의 지방 사찰본의 간행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불서이다. 또한 고려말기부터 조선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불교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김선미



도12-1 표지表紙와 권수卷首



도12-2 권말卷末



도12-3 간기刊記

13.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고려 1378(우왕 4)
32.9×11.2cm
보물 건희 00037

The Sutra of Erasing Sins and Protecting Children for Longevity
Treasure, LKH 00037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은 동자를 보호하여 죄업을 모두 소멸하고 장수의 법을 설한 밀교 계통의 불경으로 계민국屬實國 불타파리佛陀波利가 한역하였다. 줄여서 『장수경』이라(이하 ‘장수경’) 부른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가 이 불경을 쓰고 외우면 아픈 아이도 병이 낫고, 현세에서 장수하게 되고 고통을 잊는다고 하였다.

불타파리의 중국 이름은 각호覺護로 676년 문수보살을 참배하려고 중국 청량산에 왔다가, 어떤 노인이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을 구하자 본국에 가서 그 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와 번역했다고 전한다.

『장수경』은 문수사리文殊師利가 중생이 죄를 없애고 오래 사는 법을 석가모니불에게 묻자, 석가모니불은 옛날 보광정견여래普光正見如來와 전도비구니顛倒比丘尼가 했던 대화 형식으로 설법을 한 내용이다. 우선 참회해도 멸하기 어려운 다섯 가지 악업인 아버지와 어머니,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과 부처의 몸에 피가 나게 하는 것, 승가僧家の 화합을 깨뜨리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한다. 다음 십이인연十二因緣을 보면 부처를 보게 되고, 부처를 보는 것이 불성佛性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여섯 가지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密과 성불成佛의 계偶를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아이를 잃은 여인을 위해 석가모니불이 설법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본문 끝에서 석가모니불은 이 경을 ‘장수멸죄십이인연불성경長壽滅罪十二因緣佛性經’이라고 하였다.

본서의 첫머리는 훼손되어 변상도부터 시작된다. 기림사 소장의 판본(1342)을 참고하면 훼손된 부분에는 책이름과 역자 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복佛腹에서 발견된 것을 절첩장 형태로 장정하였고, 근래에 표지를 개장하였다. 모두 12장을 이어 붙였고, 각 장의 중앙에는 ‘장張’이란 글자와 장차張次가 있다. 말미에 “무오오월일중각戊午五月日重刻 … 시주비구법흥김신주施主比丘法弘金臣柱”라는 간기刊記가, 뒤표지 안쪽으로 “시주윤원통간선도신잡施主尹源通幹善道人信岑”이란 목서墨書가 있다. 고려본 은증경 가운데 ‘무오戊午’ 간기가 있고 시주명에 법흥, 김신주가 나오는 것이 있어 본서도 같은 해, 즉 1378년에 판각되었다고 본다. 목서는 조선 초기 윤원통과 신잡이 본경을 복장하며 기록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고려말 조선초 불경의 판각과 인출을 보여주는 실례이자 정교한 변상도를 수록하고 있어 고려 판화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김동우



도13-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13-2 본문本文



도13-3 권말卷末

14. 장승법수

藏乘法數

고려 1389년(공양왕 1)
28.2×17.3cm
보물 건희 00038

The Index of Buddhist Sutras
Treasure, LKH 00038

『장승법수』는 중국 원나라 승려 가수可遂가 대장경大藏經에 있는 법수法數(단위의 이름과 수치를 붙인 수로서 일음一音, 이제二諦, 삼관三觀 등을 말함)를 수집하여 1획부터 획수劃數에 따라 각 용어나 단어를 편집하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찬한 일종의 불교용어사전이다. 본서는 원나라 책을 저본底本으로 무학대사無學大師(1327~1405)가 복각復刻한 것이다. 책의 서두에는 지정至正 15년(1355)의 구양현歐陽玄의 서문과 을미乙未년 보은선사報恩禪師 평연宏演의 서문이 있다. 구양현의 서문에 자정사實正使 강공姜公이 가수가 지은 장승법수의 좋은 책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어 저자가 가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석가종파釋迦宗派」라는 종파도 1장이 실렸다. 이어서 「장승법수」, 「대승백법론명수지도大乘百法論名數之圖」, 「팔식심왕제문료간八識心王諸門料簡」, 「제불신토諸佛身土」, 「제승개합통유육종諸乘開合通有六種」, 원각圖覺이 소초疏鈔한 것에 의거한 「서역차방제사판교명수西域此方諸師判教名數」, 「대소승계법도大小乘法圖」, 「수증지위오교개합부동修證地位五教開合不同」의 차례로 도식화 되어 있다. 책의 말미에는 천태엽공서경天台葉恭書竟과 간강서식江胥式이 1355년에 지은 후기와 발문이 있고, 뒤로 무학대사의 중간 경위를 밝힌 이색李穡(1328~1396)의 발문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명명의 행심行深이 퍼낸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가 널리 소개되면서 본서는 다시 간행되지 못했다. 때문에 무학대사가 중간한 판본만 남아있는데, 특히 이색의 발문이 있는 것은 비교적 희귀하다. 김동우



도14-1 서문敍文



도14-2 본문本文



도14-3 권말卷末

15.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고려 1378년(우왕 4)
29.1×939.5cm
보물 건희 00039
The Sutra on Profoundirty of Parents' Kindness
Treasure, LKH 00039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偽經)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출가와 삭발 등 중국의 전통 도덕관과는 차이점이 있어 많은 탄압을 받았다. 특히 북주(北周)의 무제(武帝(재위 560-578))는 ‘효도’를 앞세워 불교를 탄압하였다. 이에 불가(佛家)에서는 『부모은중경』과 같이 효를 강조하는 경전을 만들게 되었다. 『부모은중경』의 명칭은 『은중경』, 『불설부모은중경』, 『불설보부모은중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유통되기 시작하여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널리 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판본이 많이 유포되었다.

본서의 첫 행에는 책이름 있고, 다음 행에는 마치 진짜 불경처럼 구마라습(鳩摩羅什)이라는 역자(譯者)를 표기하였다. 절첩장으로 종이를 이어붙인 부분에는 ‘부모(父母)’라는 간략한 서명과 장차(張次)가 표기되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이 사위국(舍衛國) 왕사성(王舍城)에 머물 때 마른 뼈 무더기에 예배를 한 내용과 관련 판화가 있다. 석가모니불은 아난(阿難)에게 어머니가 아기를 10달 동안 임신하는

과정을 달별로 이야기하고 열 가지의 은혜를 설한다. 그 은혜는 첫째 잉태하여 수호해 주는 은혜, 둘째 낳을 때 고통 받은 은혜, 셋째 아기를 낳고서 근심을 잊는 은혜, 넷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 다섯째 마른자리에 눕게 하는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기른 은혜, 일곱째 더러움을 씻어주는 은혜, 여덟째 먼 길 떠난 자식을 염려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하는 은혜, 열째 끝없이 사랑하는 은혜다. 각 은혜에는 그 내용에 맞는 계승(偈頌)과 판화 그림이 있다. 다음으로 중생들의 불효를 설(說)하고, 부모의 은혜는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백천 번 돌고, 백천 겁 동안 자신의 살과 눈동자를 도려내고, 자신의 심장과 간이 찢리는 아픔을 사양하지 않고, 백천 자루의 칼로 자기의 몸을 찌르거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뼈를 부쉬 골수를 드러내며 백천 개의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거나 뜨거운 무쇠 덩어리를 삼켜도 다 갚지 못한다고 해당 판화 그림과 함께 서술되었다. 이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법과 불효자는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업보, 이 업보를 벗어나는 법이 서술되었다. 이 부분에도 두 장의 관련 판화 그림이 있다. 다음으로 『불설부모은중태골경(佛說父母恩重胎骨經)』이 합본(合本)되었다.

고려시대 『은중경』으로는 기림사 소장(所藏)의 복장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대덕(大德) 4년(1300)의 간본(刊本)이 알려져 있고,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판본으로 본서와 같은 해인 무오(戊午)본이 있다. 대덕본은 상·중·하 3권인데 역사 표기와 판화가 없고, 내용도 차이가 있어 본서와는 다른 계통의 판본이다. 기림사 소장 무오본에는 역사 표기가 없고, 종이를 이어붙인 부분에는 ‘은(恩)’자와 장차(張次)가 있고, 판화 그림의 세부 묘사나 그림과 계승의 배치(배치)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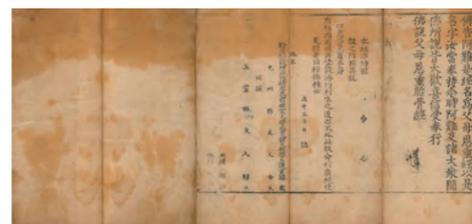
본서는 권말(卷末)에는 “무오오월일지(戊午五月誌)”라는 간기(刊記)와 광주군부인(光州郡夫人) 김씨와 상당군부인(上黨郡夫人) 한씨 등의 시주자(時主者)가 보인다. 따라서 1378년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고, 조선 초기에 간행된 중요한 판본의 모본으로 평가받는다. 김동우



도15-1 권수(卷首)



도15-2 본문(本文)



도15-3 권말(卷末)

16. 월인석보 권21

月印釋譜 卷二十一

조선 1562(명종 17)
33.0×21.0cm(권21상) 32.0×22.7cm(권21하)
보물 건희 00040

Episodes from the Life of Shakyamuni Buddha as
Reflection of the Moon, Vol. 21
Treasure, LKH 00040

『월인석보』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내용을 합하여 새롭게 엮어 편찬한 불경 언해서로 두 책 이름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책명으로 사용하였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首陽大君(1417~1468)은 어머니 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6)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명으로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보상절』을 펴냈다. 이 책을 읽은 세종은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인 『월인천강지곡』을 편찬하였다. 그 사이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고 세조 3년(1457) 장남인 의경세자懿敬世子(1438~1457)가 죽었다. 세조는 세종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앞의 두 책을 합쳐 세조 5년(1459)에 학승인 신미信眉, 수미守眉, 문신인 김수온金守溫(1410~1481) 등 11명과 함께 다시 수정하여 『월인석보』를 새롭게 펴냈다.

본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세조 등이 함께 엮은 『석보상절』을 주석의 형식으로 하였다. 두 책을 합쳤다고 하나 『석보상절』은 추가, 삭제 등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권(책)을 엮는 것과 문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하여 단순하게 합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찬한 책이다. 각 권은 『월인천강지곡』을 먼저 싣고 이어서 주석인 『석보상절』을 싣는 체재로 구성되었다. 『용비어천가』가 노래 한 수마다 주석이 함께 있는 것과 달리 『월인석보』에는 이야기의 단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이 1~50수씩 실려 있다.

권21은 『월인천강지곡』 제21과 『석보상절』 제21을 합쳤다. 『월인천강지곡』 412~429가 실려 있다. 내용은 상권에는 도리천 설법, 지장경 설법, 하권은 불상조성, 육사외도의 석존 비방, 인욕 태자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본서의 초간본은 목판본이다. 총 25권으로 보이지만 현재 초간본은 권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5이고 중간본重刊本 권4, 21, 22 등과 함께 총 20권이다. 권3, 5, 6, 16, 24의 5권이 없다. 권21의 중간본은 지금까지 안동 광흥사판(중종 37, 1542), 순창 무량굴판(명종 17, 1562), 은진 쌍계사판(선조2, 1569) 등의 이본이 전한다.

본 권21은 명종 17년 순창 무량굴판에서 판각한 본이다. 상권의 앞 두 장은 시주자와 관련된 도판이 들어있다. 특히 하권의 본문 마지막에는 권말서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주질이 있다. 상권은 『월인천강지곡』 412~417, 하권은 417~429이 포함되었다.

본서는 『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직후, 훈민정음 보급을 위한 책으로서, 또한 산문자료로서 중요하다. 세주(협주)에는 학습서처럼 사전적 풀이가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 글자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15세기 중엽 국어학, 국문학, 불교학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일반 불경의 순서와 달리 계승이 앞서고 설법이 뒤따르는 우리식 ‘조선대장경’의 효시로서, 훈민정음으로 된 불경 간행으로 얻은 자신감은 본격적인 간경도감 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본 권21은 발간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초간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21의 내용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이며 중간본 다른 판본들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서윤희



도16-1 권수卷首



도16-2 본문本文



도16-3 권말卷末

17. 감지금니 대반야바라밀다경 권175

紺紙金泥大般若波羅蜜多經 卷一百七十五

고려 1055(문종 9)
28.5×510.0cm
보물 건희 00041

Perfection of Transcendental Wisdom, Vol. 175
Treasure, LKH 00041

1055년(문종 9) 금오위대장군金吾衛大將軍 김용범金融範이 선조의 명복과 가족의 안녕을 빌기 위하여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쓴 불교 경전으로, 당나라 현장玄奘(602~664)이 한역한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가운데 권 175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줄여서 ‘대반야경(이하 대반야경)’, ‘반야경’이라고 부른다. 존재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공손사상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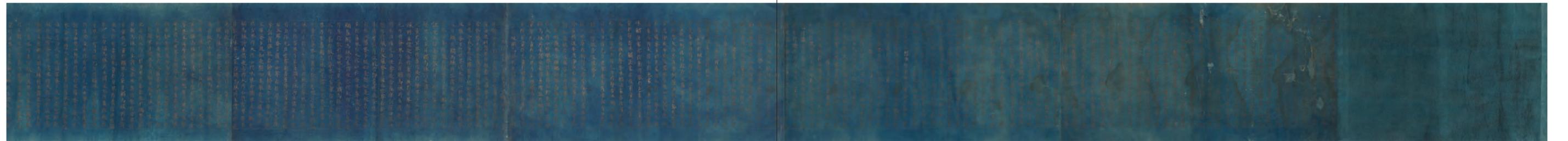
본서를 사경寫經한 김용범에 대해서는 고려 문종 때 금오위대장군을 지냈다는 기록 이외에 별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그가 작성한 권말의 사성기寫成記를 통해 왕의 장수, 국가의 평안과

함께 돌아가신 조부모와 부모의 명복 그리고 형제와 처자식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이 경을 필사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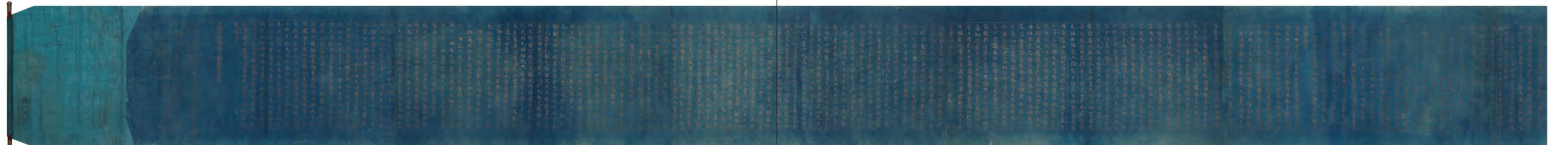
『대반야경』은 600권 4처處 15회會, 275분分 460여 만자로 구성되었는데, 4처란 이 경전의 설법이 이루어진 네 곳(왕사성王舍城의 영취산靈鷲山, 사위성舍衛城, 타화자재천왕궁他化自在天王宮, 왕사성 죽림정사竹林精舍), 16회란 16차의 모임을 말한다. 즉 장소는 네 곳을 옮겼고, 모이기를 열여섯 번 하여 만들어진 16경을 모은 경전이란 뜻이다. 본서 권 175권은 4처 16회 가운데 1처 1회 부분으로 수희회향품隨喜迴向品 제삼십일지오第三十一之五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살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덕이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 공덕으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회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푸른 빛이 도는 종이에 금색으로 글씨를 쓰고, 한 장은 32행으로 각 행에 17자씩 배자하여 기록하였으며, 종이 10장을 연결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1권 1축의 권자본이다. 본 사경의 특징은 표제와 본문의 글씨체가 사뭇 다르고, 권자를 펼치면 권수의 5장에 이르는 상당부분이 탈락되어 경제經題, 역자譯者 표시, 품제品題가 보이지 않으며, 권말에 발원문이 실려 있어 이 책의 사성寫成 시기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서는 권수 부분이 상당 부분 일실되고 검색종이의 염색과 금니가 깨끗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국내에 알려진 고려시대 사경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금자 사경이다. 김영철



도17-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17-2 본문本文과 권말卷末

18.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조선 1447~1450(세종 29~32)
28.2×18.0cm
보물 건희 00042

The Ksitigarbha Pranidhana Sutra(Sutra on the Original Vows of the Ksitigarbha Bodhisattva)
Treasure, LKH 00042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장신앙의 기본경전으로 줄여서 ‘지장경’, ‘지장본원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본서는 조선 왕실에서 태종太宗과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太后, 세종世宗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종 29~32년(1447~1450)에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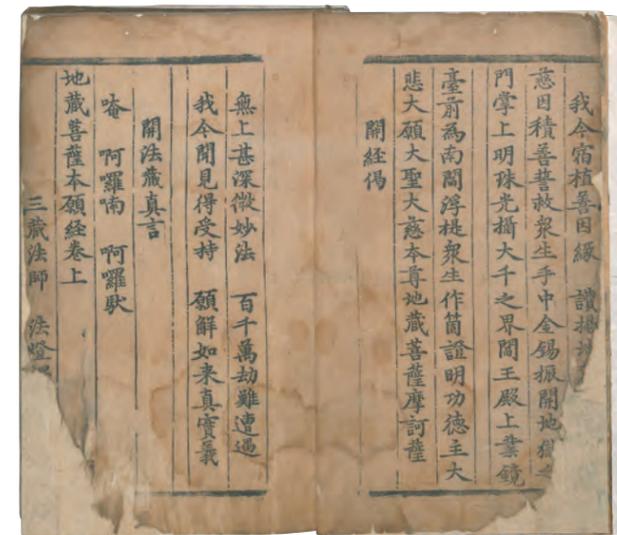
본서에서는 서명書名 다음에 삼장법사三藏法師 법등法燈(?~974)이 있어 법등의 역본이라고 되어있다. 한편으로는 『지장보살본원경』의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의 역본도 전하는데, 위경僞經이라는 설도 있다.

본서는 상·중·하 3권 1책, 13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은 제1품 도리천궁신통품切利天宮神通品에서 제4품 염부중생업감품閻浮衆生業感品, 권중은 제5품 지옥명호품地獄名號品에서 제9품 칭불명호품稱佛名號品, 권하는 제10품 교량보시공덕품校量布施功德品에서 제13품 축루인천품囑累人天品까지이다. 주요 내용은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천도薦度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과 의식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공덕이 열거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행해지는 죽은 부모를 천도하는 재의식齋儀式과 사찰에 흔히 보이는 명부전冥府殿은 바로 이 경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장보살본원경』의 판본은 고려 충혜왕忠惠王 1년(1340) 계룡산鷄籠山 동학사판東鶴寺版 1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시대 간행본으로 23종이 간행되었다. 조선 초기의 엄경嚴敬이 시주한 판본계열, 세종 31년(1449)의 안평대군安平大君 발문본 계열, 단종端宗 1년(1453) 전라도 화암사花巖寺에서 간행한 판본 계열,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새긴 판본 계열, 예종睿宗 1년(1469)에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貞懿公主가 죽은 남편인 안맹담安孟聃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도성암판道成菴版 계열 등 다양한 판본이 모본이 되어 다시 새겨지고 인출되었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엄경이 시주한 판본으로 권중과 권하 사이에 적혀 있는 “...영흥대군永膺大君 양위수무부兩位壽無過”라는 발원문의 내용을 통해 영응대군永膺大君이 군호君號를 받은 세종 29년(1447)에서 세종이 승하한 세종 32년(1450)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선장본線裝本으로 되어 있으나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이고, 5행씩 간격을 둔 절첩형판식折帖形板式이다. 한 면에 6 또는 7행씩 배치되어 반복되고 장차張次가 25행 뒤에 “지상地上 □”로 표시된다. 책의 마지막에 목활자木活字로 찍혀 있는 “시주엄경施主嚴敬”이란 시주자명施主者名과 “차경출대장비밀경 횡자함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이라는 저본 관련 기록을 통해 엄경의 주관으로 인출되었으며, 명명대의 관판대장경인 『홍무남장洪武南藏』에 수록된 지장보살본원경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판각으로 인쇄 상태가 선명하고 본문에 구결토口訣吐가 묵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 및 불교학,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원혜진



도18-1 권수 卷首



도18-2, 3 본문 本文



도18-4 권말 卷末

19.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 언해

牧牛子修心訣 · 四法語 諺解

조선 1467(세조 13)
27.5×16.7cm
보물 건희 00043

Golden Teachings on Mind Cultivation and Four
Dharma-words with Commentaries in Korean
Treasure, LKH 00043

고려시대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1158~1210)이 지은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을 조선 세조世祖 때의 승려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1405~1480)가 국역하여 간행한 것이다. 책이름의 ‘목우자牧牛子’는 지눌의 자호自號이며, ‘수심결修心訣’은 마음을 닦는 중요한 방법을 말한다. 줄여서 『수심결』이라고 한다. 그 뒤에는 신미가 구결하고 국역한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가 뒤에 합철되어 있다.

보조국사 지눌은 『목우자수심결』을 통해 세속화된 불교이념의 폐단에 대해서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막고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밝히고자 하였다. 『목우자수심결』 이외에 대표적인 저술로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이 있다. 신미의 호號는 혜각존자慧覺尊者이며, 출가하기 전에 집현전학사로 있었다. 세조의 불경 번역 사업에 깊이 관여하면서 『목우자수심결』과 『사법어』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 『몽산화상법어夢山和尚法語』 등을 번역하였다.

본서는 지눌의 『목우자수심결』을 세조가 비현합丕顯閣에서 구결口訣하고, 신미가 한글로 번역하여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동시에 신미가 한글로 번역한 『사법어』를 함께 한 책으로 묶었다.

『목우자수심결언해』는 서분序分, 정중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분에서는 수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정중분에서는 9개의 문답형식을 빌어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정혜쌍수定慧雙修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통분에서는 경에서 설한 가르침을 상고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지닐 것을 권한다. 『사법어언해』는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 4편의 법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어에 구결을 달아 원문을 먼저 읽고 번역을 보이는 체재로 되어 있다.

본서는 세조 13년(1467)에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간경도감 언해본이다. 책의 말미에 “成化三年丁亥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雕造(성화3년정해세조선국간경도감봉교조조)”라는 간행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의 끝 부분에 당대當代的 명필가인 안혜安惠, 윤희柳暉, 박경朴耕 등이 글씨를 썼다는 기록이 있다. 저본은 세종 23년(1441) 영해부寧海府의 윤필암閔筆菴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사법어’의 체재를 갖춘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본서는 지금까지도 학습되고 있는 수행지침서로서 널리 읽히고 있으며, 세조가 불경 간행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서로 조선 초기의 불교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본서에는 다른 문헌에 드물게 나타나는 문법적 특성이 보이거나 희귀어가 여러 개 사용되어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표기법이나 문법, 어휘 등 초기의 훈민정음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원혜진



도19-1 · 2 목우자수심결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19-3 · 4 사법어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20. 월인석보 권11·12

月印釋譜 卷十一·十二

조선 1459(세조 5)
32.4×22.8cm(권11) 32.0×22.6cm(권12)
보물 건희 00044

Episodes from the Life of Shakyamuni Buddha as
Reflection of the Moon, Vol. 11·12
Treasure, LKH 00044

『월인석보』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내용을 합하여 새롭게 엮어 편찬한 불경 언해서로 두 책 이름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책명으로 사용하였다.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세조 등이 함께 엮은 『석보상절』을 주석의 형식으로 하였다. 두 책을 합쳤다고 하나 『석보상절』은 추가, 삭제 등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권(책)을 엮는 것과 문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하여 단순하게 합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찬한 책이다. 각 권은 『월인천강지곡』을 먼저 싣고 이어서 주석인 『석보상절』을 싣는 체제로 구성되었다. 『용비어천가』가 노래한 수마다 주석이 함께 있는 것과 달리 『월인석보』에는 이야기의 단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이 1~50수씩 실려 있다.

권11은 『월인천강지곡』 제11과 『석보상절』 제11의 내용으로 『월인천강지곡』 272~275가 대상이다. 『법화경法華經』의 내용이 『석보상절』에서는 권13~21에 나타나지만 『월인석보』에서는 권11~19에 나온다. 『법화경』 권1의 서품서品과 방편품方便品을 내용으로 한다. 서품은 『법화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고, 방편품은 석존이 방편의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성불시키기 위해 출현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권12는 『월인천강지곡』 제12와 『석보상절』 제12의 내용으로 『월인천강지곡』 276~278이 대상이다. 『법화경』 권2의 비유품譬喩品을 내용으로 한다. 비유품은 경전의 내용을 비유를 통해 쉽게 말해준다.

본서의 초간본은 목판본이다. 월인천강지곡 부분은 큰 글씨로 1행에 14자이고 석보상절 부분은 작은 글씨로 1자를 낮추어서 1행 15자이다. 한글 자형도 초창기와 달리 획이 부드럽게 바뀌었으며 방점 및 아래의 모습도 점획으로 바뀌었다. 본 권11, 12는 초간본으로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본 권11, 12는 앞부분 제목, 권말서명 등 앞뒤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없어진 부분이 없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초간본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서윤희



도20-1·2 권1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20-3·4 권12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21. 묘법연화경 권6·7

妙法蓮華經 卷六·七

조선 1482년(성종 13)
34.0×21.9cm (건희 00045)
35.2×22.0cm (건희 00046)
보물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 1-7
Treasure, LKH 00045-00046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불교문화권에서 가장 널리 신봉된 경전이다. 기원 전후 성립한 『법화경法華經』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전래되었고, 6번에 걸쳐 한역漢譯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286년 축법호竺法護가 역출한 『정법화경正法華經』, 406년 구마라습鳩摩羅什이 역출한 『묘법연화경』, 601년 사나굴다闍那崛多·달마굽다達摩笈多가 함께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 3종이다. 이 중 7권(또는 8권) 28품으로 구성된 구마라습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혔다.

건희 45와 46은 1987년에 같이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법화경』은 전 7권 중 권6과 권7을 1책으로 엮은 것이다. 한 면에 8행 13자씩이며, 본문에 표점이 포함되었고 책판 오른쪽 아래에 각수명刻手名이 있다. 각 책의 말미에 목판에 새긴 김수온金守溫(1409~1481)의 발문과 책을 찍은 후 강희명姜希孟(1424~1483)이 직접 쓴 글이 있다. 이 글들을 살펴보면 성종 1년(1470)에 세조世祖의 부인 정희대왕대비貞喜王大妃가 세조世祖와 예종睿宗, 의경세자懿敬世子(후에 덕종德宗으로 추존된 세조의 맏아들이자 예종의 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목판을 새겼다. 이후 성종 13년(1482) 덕종의 부인이자 성종成宗의 어머니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죽은 명숙공주明淑公主(?~1482)의 극락왕생을 위해 인출했음을 알 수 있다.

김동우



도21-1·2 건희 45 권수卷首와 김수온의 발문跋文



도21-3·4 건희 46 권수卷首와 강희명의 발문跋文

22.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0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十

고려 말~조선 초
34.1×1610.8cm
보물 건희 00047

Revised Edition of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Vol. 10
Treasure, LKH 0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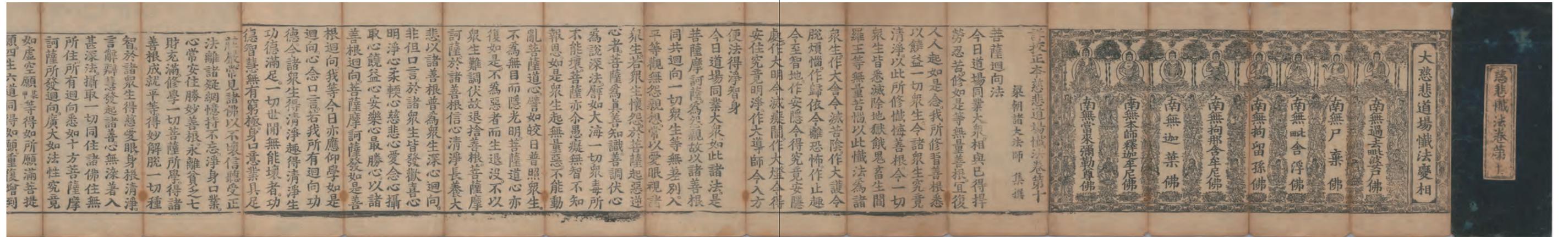
중국 양량나라의 무제武帝(재위 502~549)때 편찬된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비교·검토하여 10권으로 편집한 불교의식집이다. 이 책은 권10에 해당하며,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장방형으로 접어 병풍屏風처럼 만든 절첩장折帖裝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자비도량참법』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교정하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므로 ‘상교정본詳校正本’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조선시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책은 권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부분에 양나라의 여러 법사가 집찬했다[梁朝諸大法師集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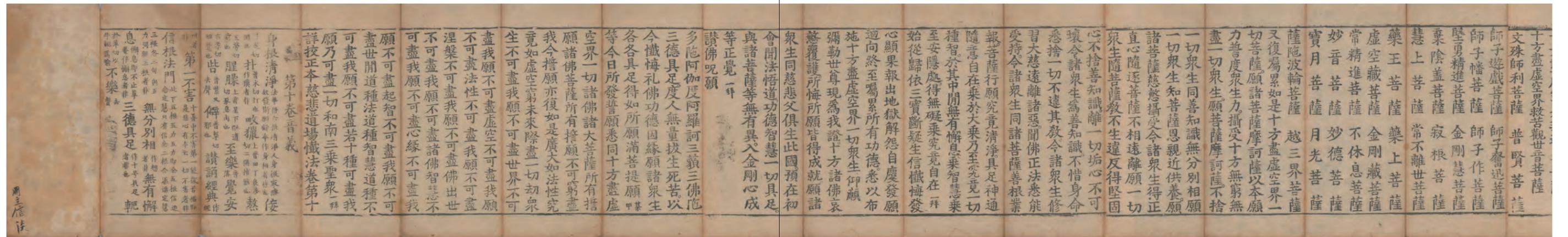
첩의 표제에는 ‘자비참법慈悲懺法’이라 적혀 있다. 첩 앞부분의 변상도變相圖에는 과거칠불過去七佛과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彌勒佛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다음에는 권10 보살회향법菩薩廻向法의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는 음의音義(글자의 음과 뜻)가 수록되어 있다.

간기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려의 태조·정종·목종의 휘諱인 ‘건建’·‘요堯’·‘송禿’자의 일부 글자의 획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에 새긴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앞면 권의 끝부분에 책의 주인 신담信談의 이름이, 뒷면에 “정덕正德 원년(1506년) 10월 신담이 성장嚴將에게 전수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의 목판 인쇄술과 조선시대의 불교 의식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1987년 12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허문행



도22-1 권수卷首



도22-2 권말卷末

23. 대방광원각략소주경 권상의 2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之二

고려 말~조선 초 34.3×19.0cm 보물 건희 00048	Annotated Mahavaipulya purnabudha Sutra (The Complete Enlightenment Sutra), Vol. 1-2 Treasure, LKH 00048
---	--

『대방광원각략소주경』은 당나라 때 불타다라佛陀多羅가 한역한 『원각경圓覺經』을 종밀宗密(780~841)이 간략하게 주해한 것으로 『원각경』의 이해를 위한 주석서로 널리 인정받았다. 송대에도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송판본이 고려로 전래되어 고려에서 재차 복각된 것으로 보인다. 줄여서 『원각경략소圓覺經略疏』, 『원각경소圓覺經疏』라고도 한다.

불타다라는 당나라 말로는 각구覺救라고 부르며, 복인도 계빈闕賓 출신이다. 중국 낙양洛陽 백마사白馬寺에서 지내며 『원각경』을 한역하였다고 전해지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위경偽經이라는 설이 있다. 종밀은 당나라 때의 고승으로 과주果州 서충西充 출신이다. 속성은 하何씨고, 시호는 정혜定慧며, 호는 규봉圭峯이다. 종밀은 『원각경』에서 인간 본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인물로, 선을 바탕으로 회통會通하는 사상적 논증을 펼치며 여러 사상들 간의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짚어내는 비유로 회통사상을 펼쳤다. 그는 『원각경』을 연구하면서 『대방광원각소주경』을 비롯한 『금강경소론찬요金剛經疏論纂要』, 『불설우란분경소佛說盂蘭盆經疏』, 『기신론주소起信論注疏』 등의 저술을 남겼다.

의천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에 “약소4권略疏四卷 혹은 2권二卷”으로 되어 있는데, 본서는 상·하 2권이 각각 1과 2로 분할되어 있는 체제로 전체 2권 4책 중 권상의 2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내용은 부처와 12보살이 주고받는 문답형식으로 모든 번뇌의 근원인 무명無明을 끊고 성불에 이르기 위한 대의를 각 보살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전하는 『대방광원각략소주경』은 총 7종이 있으며, 이 판본들은 송대宋代에 전래된 목판본을 번각한 것과 조선 초기 간경도감에서 판각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송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1판에 20행씩 새긴 것에서, 10행씩 찍어 책으로 만들었으며, 송나라에서 보낸 목판으로 찍어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와 판식板式, 자체字體 등이 비슷하다. 인쇄상태가 선명하고 깨끗한 것으로 보아 불복장佛腹藏의 용도로 추정된다.

본서는 2권 4책 중 권상의 2만 남아 있지만, 송나라 판본을 옮겨 새긴 여말선초의 목판본이란 점에서 원각경 주소본 및 송판계통의 판식을 비교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물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원혜진



도23-1 권수卷首



도23-2 본문本文



도23-3 권말卷末

2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4~7, 8~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四~七, 八~十

조선 전기 26.0×16.7cm 보물 건희 00049	<i>Shurangama Sutra</i> (The Sutra of the Heroic One), Vol. 4~7-Vol. 8~10 Treasure, LKH 00049
-------------------------------------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밀교사상密敎思想과 선종사상禪宗思想을 담고 있는 한국불교 근본경전 중의 하나로 약칭하여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수능엄경首楞嚴經』 또는 『능엄경楞嚴經』(이하 ‘능엄경’)이라고도 한다. 『금강경金剛經』·『원각경圓覺經』·『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함께 조선시대에 불교 강원 사교과四敎科의 하나로 학습되었다. 본서는 전체 10권 3책 중 권4~7과 권8~10, 2책으로 조선 초기에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자밀제般刺密帝는 중인도中人度 사람으로 중국 당나라 때 『능엄경』을 처음 한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중국 송나라 휘종徽宗(재위 1100~1125) 때 임제종의 승려인 계환戒環이 요점을 뽑아 주해한 것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널리 간행되었는데 고려말 임제의 선사상이 유행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계환은 월척 소흥紹興 출신으로 온릉溫陵 개원현사開元蓮寺에 있어서 온릉대사溫陵大師로 불린다. 『능엄경』 외에도 선화연간宣和年間(1119~1125)에 『묘법연화경해妙法蓮華經解』 20권을 편찬하여 천태오의天台奧意를 크게 떨쳤다.

『능엄경』은 전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각 권별로 칠처징심七處徵心, 팔환변견八還辨見, 회귀일혈會歸一歇, 부석제상부析諸相, 육해일망六解一亡, 선택원통選擇圓通, 주심묘용呪心妙用, 지위진수地位進修, 오음망상五陰妄想, 오십종마五十種魔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서분序分은 경전의 서론으로 설법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정설분正說分은 본론으로 견도단見道段·수도단修道段·증도단證道段·조도단助道段으로 나누어지며, 궁극적으로 마음의 실상 및 그 작용을 밝히고, 실제적으로 마음을 깨달으려 할 때의 참선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통분流通分은 경전의 결론 부분이다. 본서는 전10권 중 권4~10으로 부석제상부부터 오십종마까지를 주제로 하며, 본론 일부와 결론 부분이 남아 있다.

『능엄경』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여러 차례 간행되어 배포되었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판본도 매우 다양하다. 본서는 한문본으로 고해 이견희 회장 기증 전적인 『능엄경』 권6~10(보물, 1981년 지정)과 조병순 소장본 『능엄경』 권6~10(보물, 1981년 지정)과 동일한 판본으로 권4·5·6·7과 권8·9·10의 내용을 2책으로 엮었다. 그리고 표지를 덧붙여 장황裝潢하였는데 원래 표지는 『능엄경』 권6~10(보물, 1981년 지정)과 같은 형식으로 초록색 표지에 금니로 서명을 썼다. 권10 본문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쓴 즉유了의 발跋과 권말卷末의 기록을 보면, 고려 공민왕 때 대장군김호大將軍金瑠와 영암군부인최씨靈巖郡夫人崔氏 및 정순옹주이씨貞順翁主李氏 등에 의해서 안성安城 청룡사靑龍寺에서 판각板刻되었으나, 각자刻字에 마멸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 인출印出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권1~3이 없지만, 공민왕 21년(1372)본의 후쇄本으로서 고려 말에서 조선초기로 이어지는 『능엄경』의 판본계열과 그 당시의 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원혜진



도24-1 능엄경 권4-7 권수卷首



도24-2 능엄경 권4-7 본문本文



도24-3·4 능엄경 권8~10 권말卷末과 발문跋文

25. 백지묵서 지장보살본원경

白紙墨書地藏菩薩本願經

조선 1440년(세종 22)
42.3×15.5cm(상권) 43.9×15.5cm(중·하권)
보물 건희 00050

The Ksitigarbha Pranidhana Sutra(Sutra on the Original Vows of the Ksitigarbha Bodhisattva), Vol.1~3
Treasure, LKH 00050

당唐나라의 법등法燈(?~974)이 한역한 『지장보살본원경』을 1440년(세종 22)에 현고사玄高寺의 대선사大禪師 해연海淵이 백지에 먹으로 필사한 불교 경전이다. 『지장보살본원경』은 줄여서 흔히 ‘지장경(이하 지장경)’, ‘지장본원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장보살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고자 노력하여 죄를 짓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평등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큰 뜻을 세운 경전이다.

역자 당나라 승려 법등은 본디 위부魏府사람으로 남당南唐 때 금릉金陵에 있는 청량사淸涼寺에 머물며 불교의 교리를 터득하고 송나라 때에 들어서는 법안종法眼宗의 승려가 되어 청량문개淸涼文蓋 선사의 법을 이어 받았다. 이후 홍주洪州에 있는 쌍림원雙林院의 지주를 역임 했는데 오늘날에는 ‘해령환수계령인解鈴還需系鈴人(방울을 풀려면 방울을 단 사람이 필요하다.)’ 고사로 유명한 인물이



도25-1 불경佛經의 보관保管



도25-2 상권上卷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25-3 중권中卷 권말卷末

다. 경전을 필사한 해연에 대해서는 대선사로 현고사의 주지住持를 지냈다는 기록 이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다. 다만 권말 사성기寫成記를 통해 최천경崔天景 등 22명의 시주자와 함께 위로는 하늘과 땅, 부모·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三途(지옥, 아귀, 축생)을 제도하며, 이 경을 보고 듣는 사람은 모두 보리심菩提心을 내고 죽으면 극락에 같이 태어나기를 기원하기 위해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장경』은 중국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가 번역한 상·하 2권 13품의 한역본과 법등이 번역한 상·중·하 3권 13품으로 구성된 한역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법등의 3권 본이 널리 유통되었다. 본서 또한 법등이 한역한 『지장경』을 저본으로 하는 상·중·하 3권 13품 구성이며, 권상은 제1품 도리천궁신통품兜率天宮神通品에서 제4품 염부중생업감품閻浮衆生業感品, 권중은 제5품 지옥명호품地獄名號品에서 제9품 칭불명호품稱佛名號品, 권하는 제10품 교량보시공덕품校量布施功德品에서 제13품 축루인천품囑累人天品까지이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옥의 여러 모습을 설명하는 동시에 부모나 조상들을 지옥으로부터 천도하여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데 대한 공덕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본서는 상·중·하 3권 3첩으로 절첩장이다. 책의 표지는 감색의 바탕에 은니銀泥의 초화문草花文으로 장식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제첩 양식의 직사각형 안에 경명經名이 금니金泥로 쓰여 있다. 권수에는 변상도 없이 바로 경제經題와 품제品題가 나타나고 있으며 본문은 원나라 조맹부趙孟頫의 서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권중의 말미에는 최천경 등 22인 작성한 사성기가 남아 있어 간행 경위를 짐작케 한다.

이 경전은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세 이익적인 공덕 불경으로 여겨져 왕실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전국의 사찰을 중심으로 30회 이상에 이르는 수많은 판본이 개판開板되었다. 고려시대에 인출된 것을 포함한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24종에 이를 정도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판본만을 본다면 발행처 미상의 1447년(세종 29) 판본과 완주 화암사花岩寺의 1453년(단종 1) 판본, 그리고 1474년(성종 5) 견성사見性寺에서 간행된 판본의 보각판인 1485년(성종 16) 판본 등 6종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밖의 거제 심원사深源寺, 창원 내광사內光寺 판본 등 12종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 사경은 중국의 영락永樂 비단으로 배접된 포갑 속에 쌓여 있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기존 고려시대 왕실이나 귀족들에 의해 간행된 사경과는 달리 일반 평민·천민의 시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 전기의 사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김영철

26. 묘법연화경 권3

妙法蓮華經 卷三

조선 15세기
32.9×11.0cm
보물 건희 0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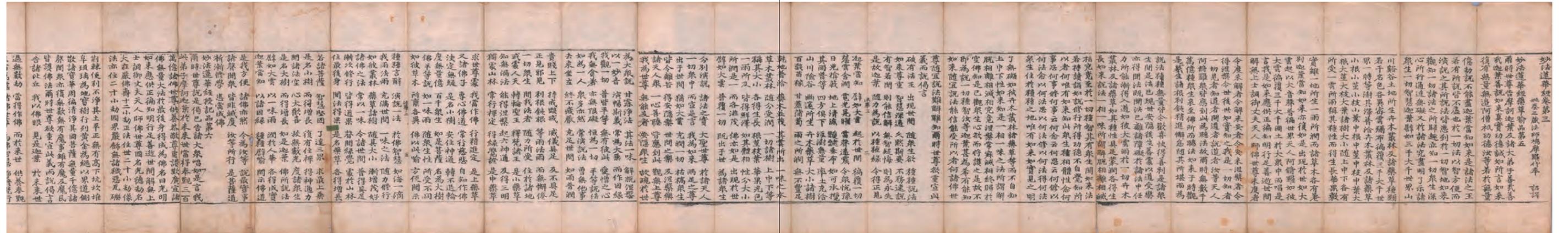
Transcription of the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Vol. 3
Treasure, LKH 00051

『묘법연화경』은 천태종天台宗의 근본 경전으로서 부처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탑상塔像에 신라 진평왕眞平王대(579-632) 법화경法華經(묘법연화경)을 외우는 이름이 전하지 않는 비구가 있었다는 등을 비롯해 여러 기록이 보여 삼국시대부터 널리 유행한 불경이며, 일찍부터 우리나라 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에서 7권(또는 8권) 28품으로 구성된 구마라습鳩摩羅什 번역본이 가장 널리 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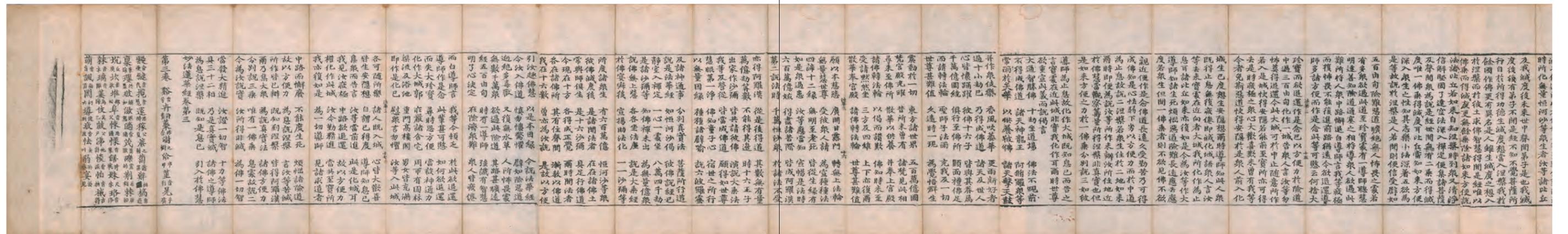
본서는 『법화경』은 전 7권 중 권3이며 불상 안에서 나온 것이라 전해진다. 원표지는 없으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인출된 글자도 선명하다. 본서의 첫행에는 ‘묘법연화경권제삼妙法蓮華經卷第三’이라는 이름이 있고 다음 행에는 역자 구마라습이 표기되었다. 다음으로는 약초유품제오藥草喻品第五, 수기품제육授記品第六, 화성유품제칠화城喻品第七이 차례로 나온다. 인쇄된 종이를 이어 붙인 부분에는 ‘법화삼法華三’과 장차張次가 있는데 17장이 마지막으로 나온다.

간기記記가 보이지 않아 간행 동기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태종 1년(1401)년에 태상왕太王 이성계가 신종대사信聰大師에게 큰 글자로 쓰게 하고, 이를 판에 새겨 인출한 보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서체가 본서에 판각된 것과 동일하다. 즉 본서는 신종대사가 쓴 법화경을 판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본서는 조선 초기의 판각으로 인출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본서는 조선 초기에 불서佛書를 판각하는 과정과 당시 사람들의 불교 신앙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김동우



도26-1 권수권초와 본문본문



도26-2 권말卷末

27. 삼현수간

三賢手簡

조선 1560~1593년(명종 15~선조 26)
38.5×27.5×1.5cm
보물 건희 00052

Albums of Collected Letters of Three Wise Men
Treasure, LKH 00052

16세기의 학자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1534~1599)이 울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과 주고받은 친필 편지를 모은 첩이다. 원元·형亨·이利·정貞 4첩에 모두 98편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편지에는 학문과 처세 등 당시 지식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 나누었던 우정도 살펴볼 수 있다.

『삼현수간』은 1599년(선조 32) 송익필의 아들 송취대宋就大가 모아 정리한 것이다. 송익필의 문집 『구봉집龜峯集』에는 1599년 봄 송취대가 이이·성혼 등과 주고받은 편지를 수습해오자, 송익필이 이를 합해 「현승편玄繩編」이라 명명하고 서문을 지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첩의 본래 제목은 ‘현승편’이었으나, 후대에 세 성현을 기리는 뜻에서 ‘삼현수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편지는 송익필이 성혼에게 보낸 것이 20편, 송익필이 이이에게 보낸 것이 7편, 송익필이 이이와 성혼에게 보낸 것이 1편, 성혼이 송익필에게 보낸 것이 48편, 성혼이 송익필과 그의 동생 송한필에게 함께 보낸 것이 1편, 이이가 송익필에게 보낸 것이 14편, 김장생金長生(1548~1631)과 허공택許公澤 등에게 보낸 7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현수간』의 편지글은 송익필의 문집 『구봉집』, 성혼의 문집 『우계집牛溪集』, 이이의 문집 『울곡전서栗谷全書』 등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편지가 16편, 일부만 실려 있는 것 또한 15편이나 된다. 또한 16세기 성리학에 대한 견해와 조정의 동향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어 철학, 역사 분야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세 성현의 친필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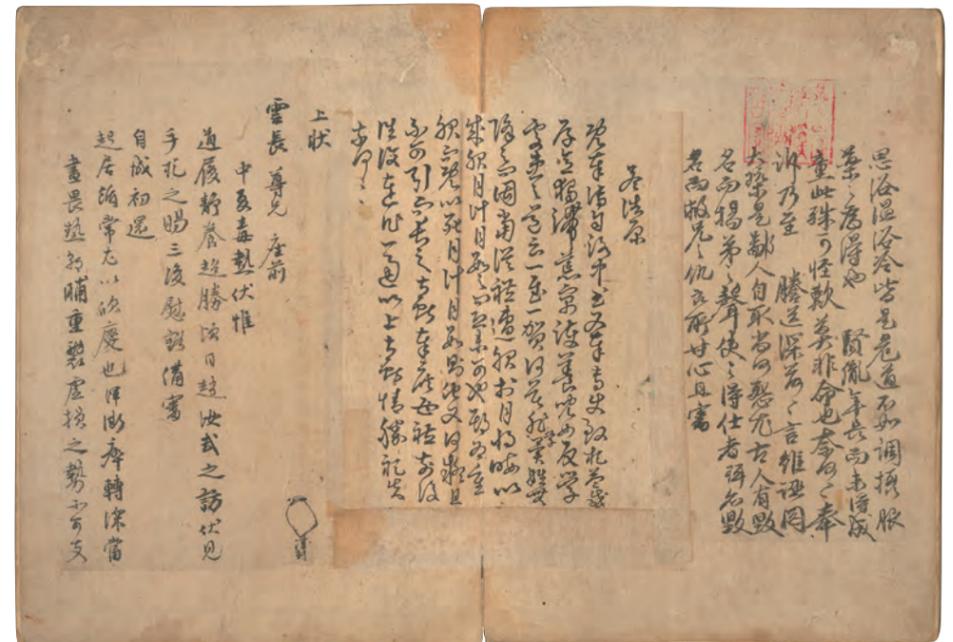
이이·성혼·송익필 세 학자의 긴밀한 교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16세기의 성리학 및 정치·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치가 있어 200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허문행



도27-1 표지表紙(오른쪽부터 원元·형亨·이利·정貞)



도27-2 서문과 성혼의 편지(원元)



도27-3 이이, 송익필, 성혼의 편지(형亨)

28. 감지은니 범망경보살계품

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조선 14~15세기
17.6×428.0cm
보물 건희 00053

Transcription of the "Chapter on the Bodhisattva Precepts" in the *Brahmajala Sutra* (The Sutra of Brahma's Net) Treasure, LKH 00053

『범망경』은 불교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규범이 수록된 경전으로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이다. 신라의 자장慈藏(590~658)은 당나라 불교 유학을 마치고 643년에 귀국하여 황룡사에서 보살계본菩薩戒本을 강의하고 불교 교단의 계율戒律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범망경』이 중요하게 된 것은 자장에게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원효元曉(617~686)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승장勝莊의 『범망경보살계본술기梵網經菩薩戒本述記』, 의직義寂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태현太賢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등의 여러 주해서들이 전한다.

본서에는 긴 사각형 모양의 불패佛牌에 금니로 표제表題를 적은 원래의 표지가 있다. 맨 앞에는 「범망경보살계변상梵網經菩薩戒變相」라는 변상도가 있고, 이어서 「범망경보살계서序」와 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썼다. 다음으로 본문에 해당되는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심지법문품보살계본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을 앞과 뒷면에 걸쳐 필사하였다. 본문이 끝나면 「나옹화상시중懶翁和尚示衆(나옹이 대중에게 보임)」이라는 나옹화상(1320~1376)의 법문法文과 당나라 승려 영가화상의 「영가화상발원문永嘉和尚發願文」이 있다.

나옹화상의 법문으로 본서는 나옹화상의 말년이나 그 이후에 사경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계율을 전하는 범망경을 쓴 사경은 드물고 특히 변상도가 있는 것은 더욱 귀하다. 금니金泥로 표제와 변상도를 그리고 썼고, 은니銀泥로 글자를 썼다. 부분적으로 보완한 곳이 있지만 원표지가 남아 있고 변상도와 글씨가 선명하여, 조선 초기 신앙의 공덕功德을 쌓기 위한 사경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종이 양면에 걸쳐 사경을 했고, 나옹화상과 영가화상의 글을 나란히 수록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 평가된다. 김동우



도28-1 전면전면



도28-2 후면後面

29. 송조표전총류 권6~11

宋朝表牋總類 卷6~11

조선 1403(태종 3)
26.8×18.5cm
보물 건희 00054

Collection of Appeals and Letters to the Emperors of
the Song Dynasty
Treasure, LKH 00054

1403년(태종 3) 중국 송宋의 명신들이 지은 표전表箋 중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 유형별로 분류한 책으로, 조선 왕조 최초의 금속활자 계미자癸未字를 활용해 인출印出했다. 조선 전기 주자술鑄字術과 조판술組版術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표表와 전箋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양식으로, 국가의 길·흉사나 중국과의 외교 문서 등에 활용되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 명明과 표전의 문구文句를 두고 외교적 마찰을 겪었는데, 『송조표전총류』는 국가 차원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활용하기 위해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의 구양수歐陽修(1007~1072), 왕안석王安石(1021~1086), 여정余靖(1000~1064) 등이 지은 표전을 분야별로 수록했는데 모두 6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책은 권6(종묘宗廟·교사郊祀)과 권7(명당明堂·사제祠祭), 제2책은 권8(상위上慰·대행大行)과 권9(정단正旦·동지冬至·춘령春令·하령夏令·추령秋令·동령冬令)로 의례의 대상을 수록하였다. 제3책은 권10(재상宰相)과 권11(참정參政·추밀부사樞密副使)로, 표전을 작성한 관직의 명칭에 따라 수록했다.

이 책은 중국 명신들의 표전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는데, 조선 전기 국가 의례와 외교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명신들의 성명은 대자大字로, 표전의 내용은 소자小字로 인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403년부터 1420년(세종 2)까지만 사용된 조선 왕조 최초의 금속활자 계미자로 간행되었다는 점, 여말선초麗末鮮初 조판술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허문행



도29-1 제1책(권6) 권수卷首



도29-2 제2책(권8) 본문本文



도29-3 제3책(권11) 본문本文

葉之為得也 圓胤年長受未得成
童此殊之怪歎莫非命也奉命之奉
許乃至 騰送深為之言維理因

비지정문화재

The Undesignated Cultural Property

불교
Buddhism

유학
Confucianism

역사
History

문집
Collection of Works

실용서
Practical Books

기타
Others

功在法自法中主父子孝史取托卷哉
存之獨滿意宗法其為友學
也子弟之志云一在一切以名就學
隨之因南從禮道報お月相成以
成報月計日如之而末可也部有在
報之鬼心死月計日如男此又何難且
少可引之長之志所在成世結友及
法及在志之也以上志部情緣記也
志の

上狀

雲長 尊見 座前

中夏毒熱伏惟

道履新卷趁勝隨日趁世武之訪伏見



30. 감지금니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紺紙金泥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고려 1377년(우왕 3)
33.9×346.4cm
건희 10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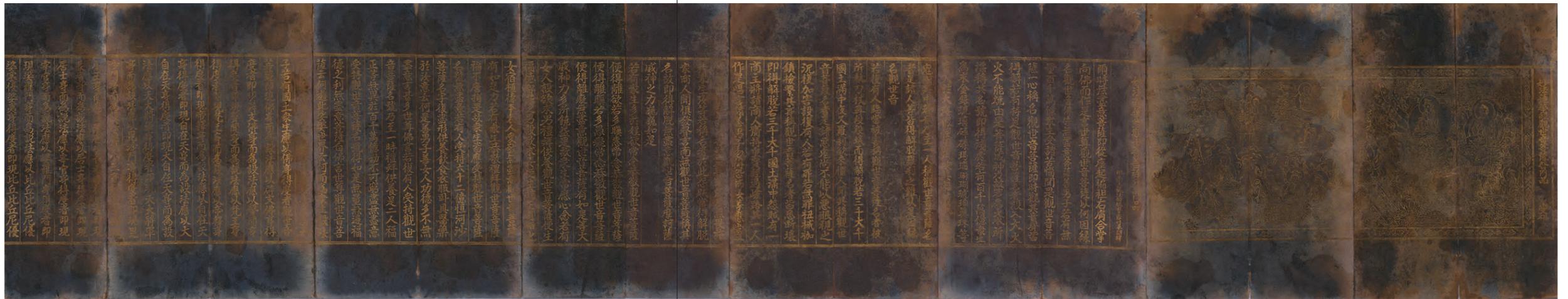
Transcription of the "Chapter on the Universal Gateway of Avalokiteshvara Bodhisattva" in the *Saddarmao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LKH 10638

『묘법연화경』은 『법화경法華經』이라 하는데, 범어梵語로는 ‘*saddharmr-pundarika-sūtra*’이며 이 뜻은 ‘무엇보다도 바른 백련白蓮과 같은 가르침’이다. 대승大乘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50~220년 이후까지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촉법호竺法護가 286년에 번역한 『정법화경正法華經』과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의 『묘법연화경』, 그리고 사나굴다闍那堀多와 달마금다達摩笈多가 함께 번역한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이 전해온다. 이 중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유행한 것은 구마라습의 『묘법연화경』이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석가모니 부처가 무진의보살無盡意菩薩(다함이 없는 의지를 가진 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이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품목이다. 석가모니불은 관세음보살에게 한량없고 끝없는 복덕福徳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이 사경은 선광宣光 7년(1377) 7월에 담양潭陽의 장유선張有善이 발원하여 금자金字로 『묘법연화경』 권7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쓴 것이다. 장유선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처가 지켜주고 중생들의 수복壽福,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 사경했다고 사성기寫成記에 밝혔다. 사경은 석가모니불이 수미단에서 설법하는 장면의 변상도를 시작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 사성기로 구성되었다. 금니金泥로 변상을 그리고 1행에 17자씩 글자를 썼다.

국보로 지정된 같은 연도에 사경한 호림박물관 소장 『백지묵서묘법연화경』이 있다. 이와 함께 사성기를 통해 사경의 제작연대와 사경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고려 후기 묘법연화경을 사경하는 공덕의 유행, 변상도, 사경 형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김동우



도30-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30-2 본문本文과 권말卷末

31.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고려 1339년(충숙왕 복위 8)
5.9×514.2cm
건희 10618

The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LKH 10618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은 지대至大 4년(1311)에 5월에 만들어진 목판본으로 지원至元 5년(1339) 2월에 중대광진성군重匡晉城君 강금강姜金剛 시주하여 인출한 불경이다. 호신護身이나 독송讀誦을 위해 작게 만들어진 수진본袖珍本이다.

『금강경』은 대승大乘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은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이 한역漢譯한 본이다. 그는 원전을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반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재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는 6~7세기쯤 전래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원효元曉(617~686)의 『금강반야경소金剛般若經疏』, 경흥憬興의 『금강반야경요간金剛般若經料簡』 등을 비롯한 12종의 주석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 불경에는 신중상神衆像과 설법상說法像의 변상판화와 함께 일반적으로 경전 앞에 있는 송경의 식誦經儀式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 금강경을 지닌 자는 먼저 반드시 지극한 마음으로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다라니를 염념한 뒤에 팔금강, 사보살의 이름을 계청啓請하여 가는 곳마다 늘 옹호하기를 바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에 이어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팔금강상八金剛像, 사보살상四菩薩像, 발원문과 운하범云何梵이 나온 뒤 금강반야바라밀경 본문이 인쇄되어 있다. 각 품이 끝나면서 계선을 바꾸면서 양梁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501~531)가 정립한 32분分の 제목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강경 본문 뒤로는 조성발원문과, 7개의 실담자 다라니(불정심다라니佛須心陀羅尼, 소보루합주小寶樓閣呪, 실조다파조라주悉怛多波祖羅呪, 소재길상다라니消災吉祥陀羅尼, 대보루합주大寶樓閣呪, 육자주六字呪, 벽제일체천마신주辟除一切天魔神呪)와 10개의 부적 그림과 부적 이름(여의인如意印, 생정토인生淨土印, 염제귀부厭諸鬼符, 피열부避熱符, 퇴온부退溫符, 멸죄성불과滅罪成佛果, 피구

설부避口舌符, 소삼재부消三災符, 능산인탄지태의즉출能產印吞之胎衣卽出, 구산난부救產難符), 그리고 시주자의 발원문이 찍혀 있다.

먼저 조성 발원문에는 “각원覺圓이 비구 달현達玄, 영흥永興, 회영懷英, 천비千備, 희인希印, 행전行全, 종신宗信, 청신사淸信士 이기李琦, 전대동田大同과 옛 연燕나라 땅에서 우연히 고려 승려 홍준洪准이 쓴 소자본 금강경을 보게 되었는데 책의 글자가 작으나 규모가 갖추어져 있어 사람들마다 볼만했다. 인하여 만나기 어려운 것을 만난 다행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장인에게 명하여 목판을 찍어 널리 전파하였다. 우선 이 공덕을 부처님께 회향하고 모든 중생들이 항상 경사가 있고 근심이 없기를 회향한다. 부처님의 밝은 법의 바퀴가 영원히 굴러서, 원하옵건대 나의 선대 부모님과 일체 중생들이 이 금강경의 인연에 힘입어 일찍 반야 지혜를 밝히고 과보의 몸을 다하여 모두 극락국에 태어나 친히 아미타불을 뵈고 함께 보살의 수기를 받게 되길 바란다. 지대 4년(1311) 5월 어느 날”라고 하였고, 시주자의 발원문에는 “중대광 진성군 금강은 앞드려 바라기를 황제의 만만세와 황후마마의 만만세와 태자의 천수를 바라며, 여러 왕과 종실이 각각 오래도록 장수를 누리시며, 문무 관료들은 복록과 지위가 항상 하며, 천하가 태평하고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태양 같은 광명이 빛을 더하고 법의 바퀴가 항상 구르며 제 몸에도 미쳐서 여러 병액과 재난을 만나지 않고, 태어나는 세상마다 큰 자유를 얻어 보살도를 행하고, 불사를 돕고 선양하는데 피곤하거나 싫증내지 않으며, 온갖 중생들이 함께 깨달음(피안)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 금강반야경을 인출했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이 경을 지닌 선인善人들은 한번만 읽어도 곧 본성의 미타불을 깨달아, 함께 유심의 정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至元 5년(1339) 2월 어느 날 기록하다. 시주자 진성군 강금강”이라고 하였다.

이 불경은 보물로 지정된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수진본금강반야바라밀경』과 형태와 내용, 구성이 같다. 다만 화성 봉림사의 『수진본금강반야바라밀경』은 인출 내용이 나오는 지문誌文의 ‘시주진성군강금강施主晉城君姜金姜’ 행 뒤로 ‘동원비구 일참同願比丘 一屈’이란 한 줄이 더 있는데, 본 『금강경』에는 없다.

본 『금강경』은 여러 종이를 이은 절첩본 형태로 접힌 부분의 오염을 제외하고 상태가 매우 좋으며 당시의 이체자와 파자를 사용한 것과 품명品名을 생략한 부분 등이 특징이다. 목판이 조성되어 책이 완성된 시기와 시주자의 발원문이 작성된 시기에 28년의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목판이 여러 번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물로 지정된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腹藏의 『금강경』과도 정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유호선



도31-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도31-2 조성발원문 및 시주자 발원문 권말卷末

32. 금강반야바라밀경 언해

金剛般若波羅密經 諺解

조선 15세기
31.7×21.0cm
건희 10745

The 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
(The Diamond Sutra)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10745

본서는 1464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불경 언해서로,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344~413)이 한역漢譯하여 편찬한 금강경 본문과 육조 六祖 慧能의 해의解義에, 세조가 직접 정음正音으로 구결을 달고 한계희韓繼禧(1423~1482)가 번역, 효령대군孝寧大君(1396~1486), 해초慧超 등이 교정하여 간행한 1책의 목판본이다. 발문 등에는 임오년 9월 9일 세조의 꿈에 세종이 금강경의 사보살과 팔금강의 뜻을 물었고 죽은 의경세자가 꿈에 나타나 세조와 태어난 곳을 문답한 것이 간행 계기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본서의 구성은 금강경을 진상하는 전문箋文과 금강경의 구성을 명하는 교서(진금강심경전進金剛心經箋, 교조조教雕造)로 시작하여 현토구결이 포함된 육조혜능의 금강경 서문 및 언해, 송경의식에 해당하는 진언(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안토지진언安土地眞言, 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 발원문(청팔금강사보살請八金剛四菩薩, 발원문發願文·운하범음何梵)과 계송(개경계開經偈), 금강반야바라밀경 본문과 언해, 다라니(보결진언補闕眞言, 반야무진장진언般若無盡藏眞言, 금강심진언金剛心眞言,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 현토구결이 포함된 육조혜능의 후서 및 언해, 언해본 간행의 경위(번역광전사실翻譯廣轉事實), 효령대군, 해초, 김수은, 한계희, 노사신 등의 발문(금강경발문金剛經跋)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금강심경전」과 발문들을 통해 세조 10년(천순天順 8년, 1464)에 반야심경언해와 함께 발간된 것을 알 수 있고, 『세조실록』 권32 세조 10년 2월 신묘조에도 ‘공조판서 김수은, 인순부윤 한계희, 도승지 노사신 등에게 금강경 번역을 명한 기록[命工曹判書金守溫 仁順府尹 韓繼禧 都承旨 盧思愼 等 譯金剛經]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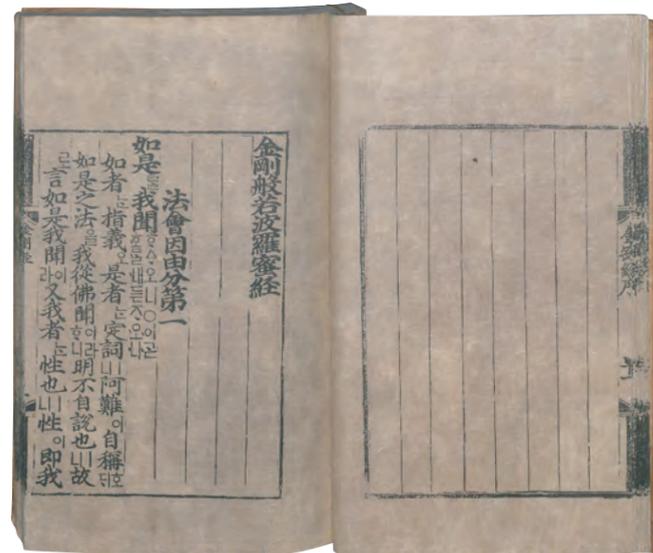
본서의 표제는 청명 임창순이 쓴 ‘금강경언해 상/하金剛經諺解 上/下’로 되어 있고, 표제의 첨지에는 청명靑溟 서쪽이라는 낙관과 두 개의 도장이 찍혀 있다. 아울러 판심제와 장차張次를 각각의 목차를 반영해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금강심경전金剛心經箋, 조조雕造, 금강경서金剛經序, 금강경金剛經, 금강경사, 금강경발 등 각 부분의 제목을 판심제로 적고, 각 부분이 시작되면 목판의 장차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경언해 상의 본문은 1~14품까지가 86장이며 제15지 경공덕분持經功德分부터 32품까지가 153장이다.

현재 영광 불갑사本佛甲寺本이 원간 초쇄본의 유일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 역시 ‘본문’과 ‘육조 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없는 낙장본이며, 1495년에 간행된 중간본은 단권으로 학조學祖의 발문이 있고 간행 경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전하는 다수의 중간본들이 판본에 따라 편차에 차이가 있거나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데 반해, 본서는 북각본임에도 불구하고 원간본의 전체 체재와 내용을 갖춘 완전한 판본으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유호선



도32-1 표지表紙



도32-2 권수卷首



도32-3 본문本文

33.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서설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序說

조선 16세기 35.7×24.9cm 건희 06234	Foreword of the <i>Vajracchedika Prajnaparamita Sutra</i> (The Diamond Sutra) with Commentaries by Five Masters LKH 06234
------------------------------------	--

본서는 함허득통涵虛得通(1376-1433)이 금강경에 대한 당나라 육조혜능六祖慧能의 구결, 송나라 야부천로治父川老의 송과 협주, 당나라 규봉종밀圭峰宗密의 찬요, 예장종경豫章宗鏡의 제강, 양梁山라 상림부대사雙林傳大士의 찬을 모아 편집한 『금강경오가해』에 자신의 해석을 붙여 간행한 책이다. 함허득통은 휘는 기화기화, 호는 득통得通, 처음 이름은 수이守伊 혹은 무준無準이다. 속성은 유씨劉氏이며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죽음으로 21세에 출가를 결심하고 이듬해인 1397년(태조 6) 회암사檜巖寺로 가서 무학자초無學自超에게 출가하였다. 1457년(세조 3) 9월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는 동궁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인출하고 필사하는데, 본서의 금강경 본문 정축자丁丑字의 글자본 역시 세조가 직접 쓴 것이라 전해진다. 본서의 구성을 보면 먼저 상권에 석가와 수보리 및 제자들의 판화인 설법변상도 한 장張과, 세 개의 서문 즉 ①을미육월함허당납수이관수분향근서乙未六月日涵虛堂納守伊盥手焚香謹序, ②조계육조선사서曹溪六祖禪師序, ③예장사문종경제승강요서豫章沙門宗鏡提頌綱要序이 차례로 나온 뒤 ‘금강반야바라밀경상’의 내제內題 아래로 인용 서목(쌍림부대사찬雙林傳大士贊, 육조대감선사六祖大鑒禪師,야부천선사송治父川禪師頌,예장경선사제강豫章鏡禪師提綱,함허당득통설의涵虛堂得通說誼,규봉선사소론찬요圭峯蜜禪師疏論纂要,함허설의涵虛說誼)이 하단에 적혀 있다. 또한 금강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네 단락(변교인연辯教因緣,명경

중제明經宗體,분별처회分別處會 석통문의釋通文義) 등이 나온 뒤 제1법회인유분이 시작되고 제14분까지의 본문이 끝난 뒤, 본서의 간행사항인 ‘전라도 금산군 신안사에서 금강경과 진각혜심의 시문집을 함께 개간했다[時嘉靖十六年丁酉五月日全羅道錦山郡地神陰山身安寺此經及眞覺詩眞寶珠集并改版]’ 내용과 대자로 임금을 축수하는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를 인쇄하고 마지막 면에 시주자 명단이 나온다. 시주질에는 대시주大施主 도기道器 등의 승려와 신도 명단, 판수질板手秩에 승려 이름, 시행자侍行者인 여러 화주化主, 진좌典坐, 별좌別坐, 판화주板化主, 연화질緣化秩의 대공덕주大功德主 등이 적혀 있다.

하권은 15~32분까지의 본문이 끝난 뒤, 양각으로 인쇄한 작성자 명패와 다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부대사’의 변계(변계소집성偏計所執性的 약칭), 의타(의타기성依他起性的 약칭), 원성(원성실성圓性實性的 약칭)과 ‘청량대법안선사清涼大法眼禪師’의 송頌(境空, 智空, 俱空, 流通, 般若無盡藏), ‘육조六祖’의 구결口訣, ‘득통得通’의 결의決疑가 그것이다.

본서의 서지학적 특징은 각 분분의 명칭을 두 칸 아래에서 적고 줄을 바꾸어 대자大字로 금강경 본문이 시작되며, 주석은 한 칸 아래에 양각 명패의 작성자명(야부治父, 종경宗鏡, 규봉圭峯, 육조六祖, 부대사傳大士)으로 시작하며, 야부의 협주는 두 줄의 소자小字로 인쇄하였다.

또한 본서의 소장자는 금강경 본문과 주석에 현토를 달았으며 스스로 공부한 흔적이 세필細筆로 본문의 계선 사이 빈 공간이나 상하 변란에 적혀 있는데, 주로 금강경과 주석 내용을 과목科目을 나누어 정리하거나, 설화운說話云, 고덕송古德頌을 인용한 것 등이며 간혹 보이는 셋근, 무드 |, 부휘, 버드시 등의 한글 표기법에서 조선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1457년(세조 3)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한 복각본으로 뒷장의 비침 현상이 있고 목판의 인쇄가 흐릿하게 된 한두 장을 제외하고 대체로 상태가 깨끗하며, 간기와 시주질이 상권 뒤에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판본[奎中 1694] 역시 본서와 같이 1537년(중종 32)에 중간본을 다시 복각한 판본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본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金剛經의 대표적인 주석서로 무학의 제자이자 세종조의 왕사王師의 존승을 받았던 선승 함허득통의 사상과 조선초 선불교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유호선



도33-1 상권上卷 권수卷首



도33-2 상권上卷 권말卷末



도33-3 하권下卷 권수卷首

34. 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

조선 1528년(중종 23) 34.1×21.9cm 건희 06249	Commentary on the <i>Mahayana sraddhotpada Sastra</i> (Awakening of Faith in the Mahayana LKH 0624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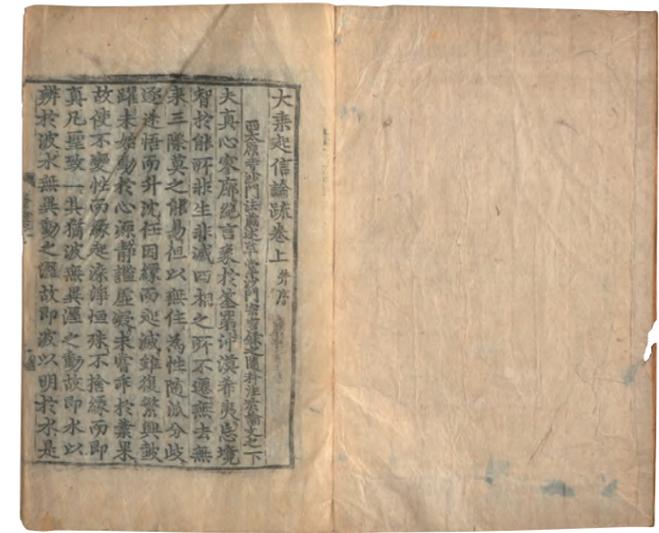
중국 당나라 승려 규봉종밀圭峰宗密(780~841)이 당나라 승려 현수법장賢首法藏(643~712)이 지은 『대승기신론의기大承起信論義記』을 요약, 주해한 책이다. 대승불교의 철학적 본질과 신앙의 의미를 탐구한 저서로, 유심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마음이 세계와 만물의 종극적 원리이며(일심一心)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동력이자 근간임을 논의의 주제로 삼고 있다. 본서는 1528년 전라도全羅道 금산鎭山 신음산身陰山 신안사身安寺에서 간행되었다.

종밀은 호가 규봉이고 속성은 하허이며, 중국 사천성四川省 과주果州 서충西充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배웠으며, 28세인 807년 수주도원遂州道圓을 만나 출가하여 선禪을 익혔다. 이후 청량진관淸涼澄觀의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읽고 크게 감응하여 그의 제자가 되어 화엄학을 배웠다. 821년부터 중남산終南山 규봉 초당사草堂寺에서 여러 저술의 집필에 전념하면서 교선敎禪의 일치를 제창하였는데, 이 시기에 『유식론소唯識論疏』, 『원각경대소圓覺經大疏』, 『사분율소四分律疏』 등과 함께 『대승기신론소』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선종의 계보에 속하면서도 화엄종 제5조에 위치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소』는 『기신론起信論』의 인식에 바탕을 둔 법장의 저서를 참고하면서 그 원문을 큰 글자로, 법장의 본문을 쌍행의 주註로 기재하고 있다. 권두에 “서대원사사문법장술초당사문종밀 록지수과주어논문지하西大原寺沙門法藏述草堂沙門宗密錄之隨科注於論文之下”라는 찬술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상하 2권으로 구성되며 각 권은 다시 일一과 이二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권상지일卷上之一은 누락된 상태이다. 내용은 크게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으로 나뉜다. 경문의 주요 부분인 정종분은 찬술 배경을 담은 인연분因緣分과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的 교리를 강설하는 입의분立義分 및 해석분解釋分, 그리고 사신四信, 오행五行 등의 실천을 강조하는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및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말에는 세조가 1457년 죽은 아들 의경세자懿敬世子(1438~1457)를 위하여 지은 어제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종밀의 집필 기반이 된 『대승기신론의기』는 법장이 원효元曉(617~686)가 주석한 『기신론소』의 영향을 받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을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저자 법장과 주해자 종밀이 기재되어 있어, 서지 정보가 명확하다.

본서는 세조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의경세자를 기리며 간행한 목판 판본을 1528년(중종 23)에 개판해서 간행한 불교 서적이다. 현재까지 여러 판본이 전해진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천순天順 원년(1457) 판각본의 복각 개판본(1528),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신안사身安寺 간행(1528) 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수증사脩証寺 간행(1616) 판본, 대흥사大興寺 소장 대흥사 간행(1636) 판본, 중앙승가대학 소장 운흥사雲興寺 간행(1681) 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보현사普賢寺 간행(1682) 판본 등이 대표적이다. 본서는 고대 동아시아 권역에서 확산된 대승불교의 철학적 원리와 역사적 발달 과정, 사상지형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조선 전기 사회에서의 불교 인식과 목판 인쇄 전통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옥재원



도34-1 권수卷首



도34-2 본문本文



도34-3 권말卷末

35.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

조선 전기 26.8×17.4cm 건희 06270	Mongsanhwasangbeobeoyangnok(Sermons of Buddhist Monk Mongsan)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06270
----------------------------------	--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이하 ‘약록언해’)는 중국 원나라 선승禪僧 몽산 덕이蒙山德異(1231~1308)의 법어法語를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우리말로 토를 달고 번역하여 간행한 언해본이다. 법어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이고, 약록은 간략하게 줄여 적어 놓았다는 의미다.

본 『약록언해』는 모두 54장으로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 「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 「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 「시충상인示聰上人」, 「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 「휴휴암주좌선문休休庵主坐禪文」 등 몽산의 법어 6편과 나옹의 법어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 등 모두 7편을 실었다. 몽산의 법어는 고려의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懶翁 혜근惠勤(1320~1376)이 1350년에 몽산이 거처했던 휴휴암休休庵을 찾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귀국 후 나옹이 약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옹의 법어는 나옹의 법맥을 이은 신미가 언해 과정에서 첨부하였을 것이다. 모두 불가佛家の 선禪 수행 지침서로서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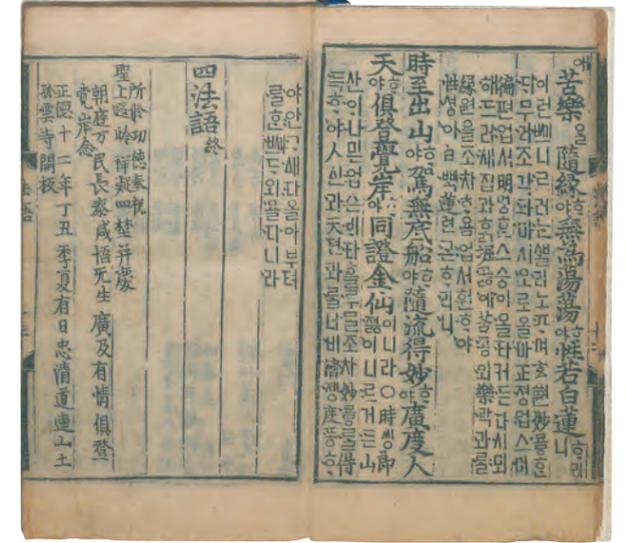
이 『약록언해』 앞에는 『사법어四法語』 13장이 합철되었다. 『사법어』는 1467년(세조 13년) 신미가 몽산의 법어 4편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번역한 책이다. 4편의 법어는 「완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 「동산송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 「몽산화상시중蒙山和尚示衆」, 「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로 구성되었다. 『사법어』는 그 분량이 많지 않아 대개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 또는 『약록』과 합철되고,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았다.

『약록언해』는 1467년(세조 13)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초인본初印本과 5년 뒤인 1472년(성종 3)에 다시 찍은 후인본後印本 등 여러 판본이 전해진다. 1471년 간경도감이 폐지된 후에 찍은 후인본에는 신미가 언해하였다는 표기인 ‘혜각존자신미역해慧覺尊者信眉譯解’와 김수온金守溫(1409~1481)의 발문跋文이 있다. 본 『약록언해』도 앞의 표기와 발문이 없고, 판심제 ‘법어法語’, 흑어미黑魚尾 등이 보여 1467년 초인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합철된 『사법어』는 말미에 정덕正德 12년(1517)에 고운사孤雲寺에서 개판改版하였다는 간기刊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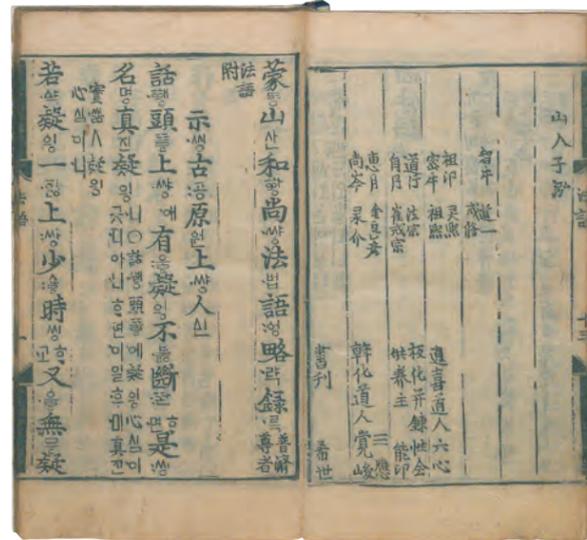
본 『약록언해』는 근래에 표지가 개장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래부터 합철되었던 것을 표지만 개장했는지와 표지를 개장할 때 『약록언해』와 『사법어』가 합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약록언해』와 『사법어』 모두 광곽廣廓의 크기가 다른 장張들이 혼입되었다는 점과 각 책의 표기 방식과 훈민정음의 사용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은 본서의 간행 시기를 조선 전기로 한다. 김동우



도35-1 『사법어』 권수卷首



도35-2 『사법어』 권말卷末



도35-3 『약록언해』 권수卷首



도35-4 『약록언해』 권말卷末

36. 묘법연화경요해 언해

妙法蓮華經了解 諺解

조선 1523년(중종 18)
32.4×22.1cm
건희 06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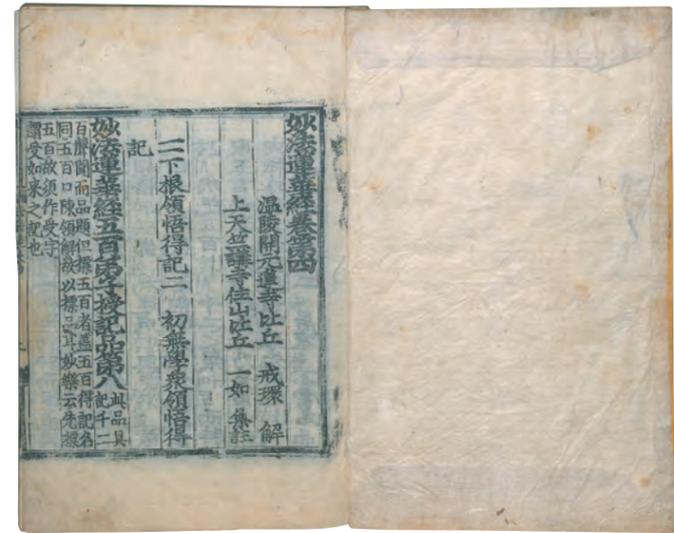
Gyehwan's Annotations on the *Saddharma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06274

『묘법연화경요해 언해』(이하 ‘법화경 언해’)는 계환戒環이 풀이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묘법연화경』에 세조世祖가 구결을 달고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책이다. 『묘법연화경』은 『반야경』, 『화엄경』과 함께 초기 대승불교의 주요 경전이다.

『법화경 언해』의 초간본은 중국 송宋나라 온릉溫陵 개원련사開元蓮寺 승려 계환이 요해了解(분명하게 이해함)한 7권 28품을 저본으로 하고 명나라 일여가 집주한 것을 풀이하여 1463년(세조 9)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초간본은 여러 차례 중간되었는데, 현재 가장 빠른 것은 1523년(중종 18)의 복각본이다.

본 『법화경 언해』는 3책인데 『묘법연화경』 권4, 권6, 권7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각권에 해당되는 「품품」이 차례로 있고, 다음에 음역音譯이 실렸는데, 권6에는 30장이 넘게 빠져 있다. 권7의 122장에 ‘가정이년계미월일지嘉靖二年(1523)癸未月有日誌’라는 간기가 있다. 각수刻手와 시주施主의 이름을 살펴보거나 도각刀刻이 정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찰에서 간행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초간본을 복각하면서 쌍변雙邊이 일부 혼입되었지만 단변單邊으로 바뀌었다. 본문은 큰 글자이며, 한글 토와 구두점이 있으며, 쌍행雙行的 작은 글자로 국한문 혼용하여 한글로 풀이하였다.

본서는 조선 전기에 법화경 신앙이 유행하였다는 불교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초간과 복각이라는 서지적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한글 풀이에서 당시 한글의 표기법과 사용례를 살펴 볼 수 있다. 김동우



도36-1 권4 권수卷首



도36-2 권4 권말卷末



도36-3 권7 간기刊記

37. 묵서아미타발원문

墨書阿彌陀發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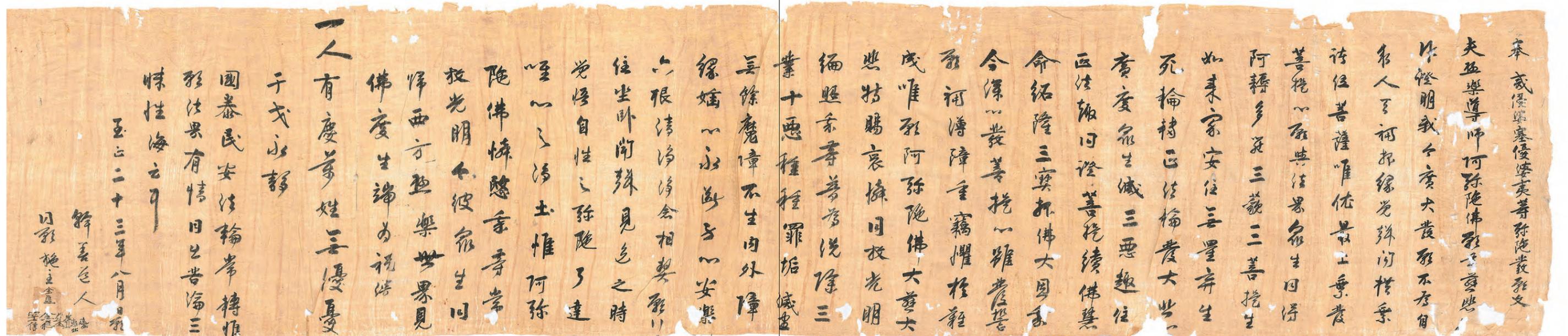
고려 1363년(공민왕 12)
47.2×384.0cm
건희 10626

Written Prayer for Amitabha
LKH 10626

첫 행에 ‘봉 우바새 · 우바이등 미타발원문奉 戒優婆塞優婆夷等 彌陀發願文’란 제목이 있는 지정正正 23년(1363, 공민왕 12)에 쓰인 발원문이다.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 만들어 봉안할 때 발원문을 짓고 불상 안에 넣어둔 것이다. 고려 후기에는 다양한 불교 신앙이 전개되는 가운데 불상, 불화佛畵, 범종 등을 만드는 공덕신앙功德信仰이 성행盛行하였다. 이 중에 고려 후기에 조성한 불상으로 아미타불상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본 발원문은 첫 행의 제목에 이어 ‘부극락도사아미타불夫極樂導師阿彌陀佛’로 시작하는 본문이 29행이 있으며 각 행에는 9~11자씩으로 자수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본문 다음으로 나라의 안녕 등을 지정 23년(1363) 8월에 간선도인幹善道人이 날마다 기원한다는 사성기寫成記가 있다. 그리고 시주자 이름인 ‘김복일金福一’(?), ‘달금達金’, ‘혜북惠北’, ‘허자虛自’(?), ‘달동達空’(?), ‘공신空信’, ‘이주李周’(?), 등이 있다. 또한 ‘이주李周’ 글자 왼편에서 발원문 말미까지의 시주와 발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정한 형식 없이 연속적으로 쓰여 있다. 각 사람이 발원문에 자신의 이름을 쓴 듯 글씨체가 다양하다.

본 발원문은 닥종이에 먹으로 행초行草로 글씨를 썼는데 먹색이 선명한 것도 있으며 바랜 것도 있다. 바랜 것은 갈필渴筆일 가능성도 있다. 비록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발원문이지만, 사성 연도가 확실한 고려시대 발원문이며, 이 시기 아미타신앙의 유행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김동우



도37-1 발원문發願文



도37-2 시주主施主秩

38.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조선 1576년(선조 9)
26.1×17.5cm
건희 06285

Beopjipbyeolhangnokjeoryobyongipsagi(Excerpts from the Dharma Collection and Special Practice Records with Personal Note)
LKH 06285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하 ‘절요’)는 중국 당나라 규봉종밀圭峰宗密(780~841)의 『법집별행록』을 고려 승려 지눌知訥(1158~1210)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덧붙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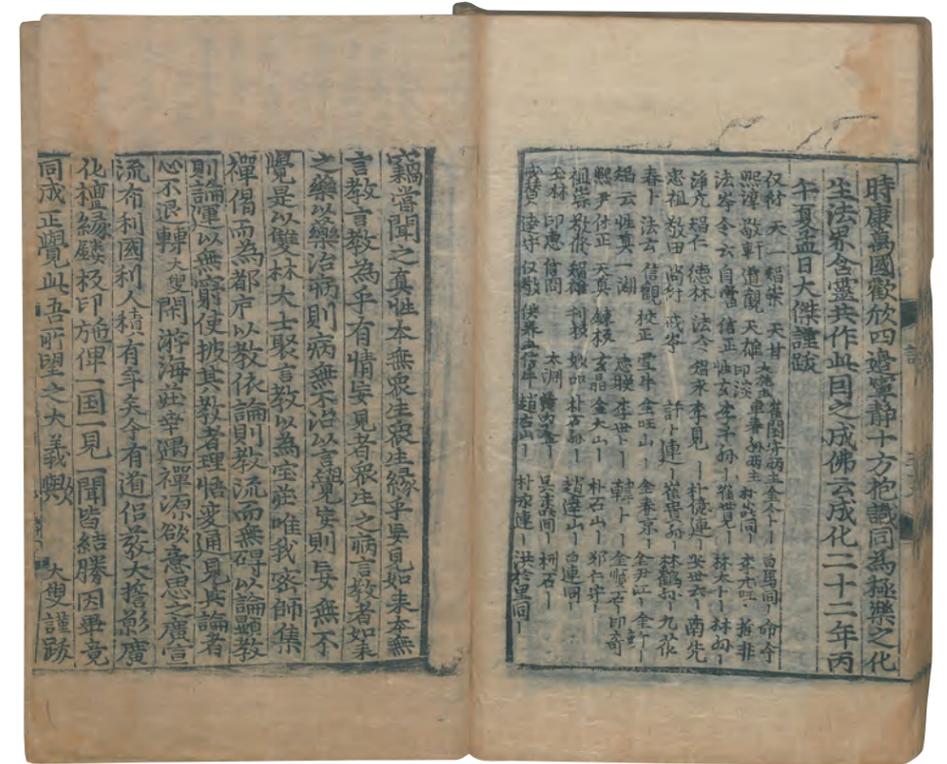
지눌의 속성은 정당, 호는 목우자牧牛子, 시호는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이다. 지눌은 선禪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지혜智慧를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手’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곧 부처’라며 ‘수심修心’을 강조하면서 수심에는 ‘돈오점수頓悟漸修’라는 법을 내세웠다. 즉 마음에서 분명히 깨우친 뒤에 그 깨우친 바를 의지해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당시 선종과 교종의 대립하는 형국에서 선교일치禪教一致의 불교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중국 불교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선 사상을 수립하여 우리 불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절요』는 처음에 지눌의 제자 혜심慧心 간행하였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조선시대 판본으로는 1486년(성종 17) 전라도 무등산 규봉암圭峰庵 개관본을 비롯하여 25종이 넘게 전해지고 있다. 본서는 고옹孤翁이 지은 서문序文과 본문, 성화成化 22년(1486)에 지은 대걸大傑의 발문跋文, 개관하였을 때 지은 듯 한 대수大叟의 발문이 있고, 시주질이 기록되었다. 본문에는 구결 토가 달려있다. 권말卷末의 간기를 통해 만력萬曆 4年(1576, 선조 9)에 속리산 관음사觀音寺에서 개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요』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 종밀의 『법집별행록』의 내용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이다. 그리고 지눌의 선 사상을 살펴보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서지학적으로도 조선시대 판본의 하나로서 『절요』의 간행과 유통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를 지닌다. 김동우



도38-1 권수卷首



도38-2 권말卷末

39.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조선 전기 추정
36.1×23.2cm
건희 06293

Revised Edition of Repentance Ritual of the Great
Compassion
LKH 06293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중국 양나라의 무제(재위 502~549)때 만들어진 참법(懺法) 문헌인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이후 비교·검토하여 10권으로 편집한 불교의식집이다. 이 책은 권6~10에 해당하며, 죽은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절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자비도량참법』의 여러 책을 비교하여 교정하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므로 ‘상교정본(詳校正本)’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책은 모두 2책으로 간행되었으나 현재 권6~10에 해당하는 1책만 남아있다. 각 권의 앞부분에 양나라의 여러 법사가 집찬했다[梁朝諸大法師 集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권6(해원결(解怨結), 권7(자경(自慶)·총발대원(總發大願)·위육도예불(爲六道禮佛), 권8(봉위아수라도일체선신예불(奉阿修羅道一切善神禮佛)·봉위용왕예불(奉龍王禮佛) 등), 권9(육도 중생을 위한 예불 및 발원), 권10(보살회향법(菩薩廻向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권의 마지막에 음의(音義(글자의 음과 뜻))를 붙였다.

고려시대 간행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서는 고려 정종(재위 945-949)의 휘(諱)인 ‘요(堯)’와 검피휘자인 ‘요(饒)’를 결획하였는데, 이 책의 권10에는 ‘요(饒)’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통해 조선 건국 이후 간행된 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언제 인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성종(재위 1469-1494)때 간행된 원각사 소장본(2011년 보물 지정)과 형태와 자체 등이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목판 인쇄술과 불서의 간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불교 의식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허문행



도39-1 권6 해원결(解怨結)



도39-2 권10 보살회향법(菩薩廻向法)

40. 상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78

橡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 卷七十八

고려 1387(우왕 13) 추정
접었을 때 30.9×12.2cm
건희 10484

Transcription of the *Avatamsaka Sutra*(The Flower
Garland Sutra) Vol. 78
LKH 10484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도 부르는 『대방광불화엄경』은 석가모니불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설법한 내용과 선재동자善財童子가 53선지식善知識을 찾아다니는 과정 등을 보살들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서술된 경전이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그 기본 사상은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화엄경』은 번역자에 따라 60권, 80권, 40권으로 나뉜다. 이 중 80권은 우전국于闐國 출신으로 당唐에서 역경譯經에 종사했던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가 번역한 것이다. 이것을 그 이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359~429)의 구역舊譯[진본晉本]과 대비해 신역新譯, 주본周本이라고 불린다.

본 『화엄경』은 신역의 78권 입법계품入法界品 제삼십구지십구第三十九之十九를 갈색 종이에 은가루로 썼다. 불복장佛服藏에서 수습된 듯 곳곳에 습해濕害를 입었고 78권 전문全文의 앞부분만 있고 표지와 뒷부분은 떨어져 없다. 따라서 사성기寫成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앞의 1절과 2절의 난외欄外에 ‘洪武二十年丁卯(1387, 우왕 13)五月日 寫成 施主奉翊大夫典工判書致仕盧有麟(홍무이십년정묘오월일사성 사주봉익대부전공판서치사노유린)’라는 묵서墨書로 이 사경의 제작연대와 시주자의 정보가 있다. 1387년 5월에 봉익대부 전공판서로 치사致仕한 노유린이 시주하여 사경했다는 것이다. 노유린은 1388년에 사경한 보물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권6의 발원문에도 봉익대부 전공판서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묵서와 본 『화엄경』의 지질과 글씨체 제작 형식으로 미루어 1387년의 사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사성기와 표지가 없고 묵서로 알 수 있는 정보이지만, 고려 후기의 사경 공덕 신앙의 일례로서 가치를 평가할만하다. 김동우



도40-1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41. 석보상절 권20·21

釋譜詳節 卷二十·二十一

조선 1447년(세종 29)
34.0×20.8cm
건희 10743(권20) · 10739(권21)

Episodes from the Life of Shakyamuni Buddha,
Vol. 20 · 21
LKH 10743(Vol. 20)·10739(Vol.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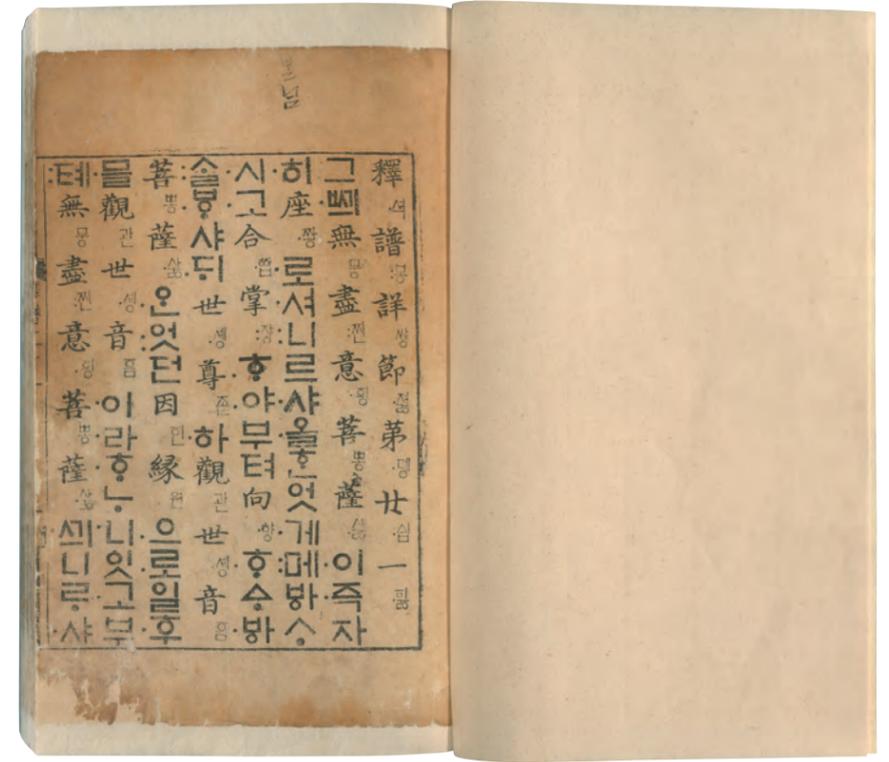
『석보상절』은 수양대군首陽大君(1417~1468)이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 등과 함께 어머니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가모니불의 일대기와 주요 설법을 엮어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이다. 석보釋譜는 석가모니불의 전기, 일대기란 뜻이고 상절詳節은 중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쓴다는 뜻이다.

세종 28년(1446) 세종은 부인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 수양대군에게 석가의 일대기를 펴내게 하였다. 이에 수양대군은 신미, 김수온 등과 함께 중국 남제南齊의 승우僧祐가 편찬한 『석가보釋迦譜』와 당唐의 도선道詵이 편찬한 『석가씨보釋迦氏譜』를 중심으로 하고 『아미타경』, 『법화경』 등을 참조하여 먼저 한문본 『석보상절』을 편찬한 뒤,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석보상절』의 내용은 석가모니불이 출현했던 부족 석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석가모니불의 전생, 현세에서 탄생, 출가, 깨달음, 설법,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가 주를 이룬다. 석가모니불이 입적한 후 불법의 전파 등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 석가모니불의 전기와 다른 불경 등도 참고하였다.

권20의 내용은 『법화경』 권6 제22품 촉루품囑累品(보살들에게 미래세에 할 일을 부촉함), 제23품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약왕보살의 행적을 적은 약왕보살본사품을 잘 받아 지닐 것을 부촉함), 권7 제24품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석가모니불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화현한 묘음보살의 행적을 설명)이다. 권21의 내용은 『법화경』 권7 제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중생이 고난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대화), 제26품 다라니품陀羅尼品(제천선신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들을 수호함), 제27품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아들의 도움으로 불법을 믿게 되는 묘장엄왕 이야기), 제28품 보현보살권발품(보현보살이 법화경을 전파할 것을 서원함)이다.

『석보상절』 권20과 21은 갑인자 한자와 한글 활자로 인쇄된 금속활자본으로 초간본이다. 권 20은 1990년, 권21은 1989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권20은 첫 장이 떨어져 나갔고, 권21은 끝에 63, 64장이 파손되어 종이편의 극히 일부분만 남았다. 권20과 21은 다른 여섯 권의 초간본들과 같이 석보상절의 한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료로 아직까지 복본이 없는 유일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윤희



도41-1 권21 권수卷首



도41-2 권20 본문本文

42. 선원제전집도서

禪源諸詮集都序

조선 1493년(성종 24)
26.2×16.6cm
건희 06305

Seonwonjejunjipdoeo(ChanYuanZhuQuanjidouXu)
LKH 06305

『선원제전집도서』(이하 ‘도서’)는 중국 당唐나라 규봉종밀圭峰宗密(780-841)이 선禪에 관한 글을 모아 『선원제전집』 100여 권을 편찬하였는데 『도서』는 『선원제전집』의 서문과 같은 성격이며, 상·하 2권이다. 종밀은 화엄종의 5조祖이자 선종의 일파인 하택종荷澤宗의 5조이다. 주로 종남산終南山 규봉에 머물면서 활동하였다. 54세 전후에 『도서』를 지었다고 한다.

본 『도서』는 홍주자사겸어사중승洪州刺史兼御史中丞 배휴裴休의 서문과 종밀의 본문 상하권이 있다. 하권에는 보통 사람이 되는 미심중迷+重의 과정과 부처가 되는 오심중悟+中의 과정을 설명한 도식圖式이 있다. 이어서 대중大中 11년(857)에 쓴 계현契玄의 후기後記 판각板刻과 송간기宋刊記, 대수大叟의 발문跋文 판각, 그리고 ‘홍치육년계축칠월유일전라도고산지불명산화암사중각弘治六年癸丑(1493)七月有日全羅道高山地佛名山花岩寺重刻’이라는 간기와 시주자 명단이 있다. 이 간기와 송간기를 통해 송나라판 『도서』를 저본으로 1493년 전라도 화암사에서 중각하여 펴낸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화암사본은 지금까지 알려진 중에 조선의 판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도서』이며, 고려대학교 소장본과 같다.

『도서』는 조선시대 사찰에서 승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재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간행되고 유통될 정도로 불교계에서 중요하게 여긴 책이었다. 본 『도서』는 가장 오래된 조선의 판본인 1493년 화암사본으로 가치가 있다. 김동우



도42-1 권수卷首



도42-2 권말卷末



도42-3 간기刊記

43.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조선 1525(중종 20)
23.3×15.7cm
건희 10715

Essence of Zen Buddhism
LKH 10715

선종禪宗의 실천 방법과 뜻을 모은 책으로 중국 당唐나라의 승려 현각玄覺이 짓고 송宋나라의 승려 행정行靖이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은 1525년 여름 전라도 순천의 대광사大光寺에 소장된 목판으로 인출한 것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 “가정嘉靖 4년 을유년(1525) 여름에 전라도 순천 무후산 대광사에서 개판開板했다”는 내용과, 『선종영가집』 인출에 참여한 시주施主·목수木手·각수刻手の 성명이 목판으로 인쇄되어 있다.

표제 좌측 상단에 책의 이름이 ‘조사가풍祖師家風’이라 쓰여있으나, 내부에는 『선종영가집』으로 인쇄되어 있다. 이 책은 1책에 권 상·하의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권상은 서문과 제1~5장, 권 하는 제6~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은 제1장 모도지의慕道志儀·제2장 계교사의戒橋奢意·제3장 정수삼업淨脩三業·제4장 사마다송奢摩他頌·제5장은 비파사나毗婆舍那이고, 권하는 제6장 우필차승優畢又頌·제7장 삼승점차三乘漸次·제8장 이사불이理事不二·제9장 권우인서勸友人書·제10장 발원문發願文的 순서로 편집되어 있다.

책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서문의 일부가 유실되었으며 책 중간 부분에 얼룩이 남아있다. 표제 우측 하단에 책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전광電光과 석주石舟의 이름이 적혀 있다. 16세기 초반 지방의 인쇄문화 및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허문행



도43-1 권하卷下 본문本文



도43-2 마지막 면

44. 선종영가집 언해

禪宗永嘉集 諺解

조선 1464년(세조 10) 추정
29.8×20.0cm
건희 10738

Essence of Seou Buddhism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10738

중국에서 간행된 선종禪宗 관련 불서佛書인 『선종영가집』을 세조世祖(재위 1455~1468)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언해한 책이다. 권상·하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 상 앞부분에 ‘천순天順 8년 5월 초5일 간경도감刊經都監 도제조都提調 황수신黃守身이 바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1464년(세조 10) 간경도감에서 인출한 책으로 보인다.

세조는 대군 시절 세종世宗(재위 1418~1450)의 명으로 1447년(세종 29) 불서인 『석보상절釋講詳節』을 간행한 바 있으며, 즉위 후인 1459년(세조 5)에 『월인석보月印釋講』를 간행하거나 1461년(세조 7) 불교서적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을 설치할 만큼 불교에 호의적인 국왕이었다. 『선종영가집』은 선종의 중요한 실천 방법과 뜻을 모은 책으로, 세조·신미信眉·효령대군孝寧大君 등이 구결口訣을 달고 언해를 하였다.

『선종영가집』 권상은 책을 편찬하며 세조에게 올린 집전集箋과 제1~5장, 권하는 제6~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상은 제1장 모도지의慕道志儀·제2장 계교사의戒橋誓意·제3장 정수삼업淨脩三業·제4장 사마타송奢摩他頌·제5장은 비파사나毗婆舍那이고, 권하는 제6장 우필차송優畢叉頌·제7장 삼승점차三乘漸次·제8장 이사불이理事不二·제9장 권우인서勸友人書·제10장 발원문發願文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선종영가집』의 본문을 굵고 큰 글씨로 가장 앞에 배치하고 그 아래 제일 작은 글씨로 두 줄씩 음을 달았으며, 다음으로 주석을 본문보다 한 줄 낮게 중간 글씨로 배치하고 그 아래 두 줄씩 언해를 배열하였다. 조선 전기 간경도감의 활동과 목판인쇄 기술, 한글의 창제 이후 활용, 한자와 한글의 조화로운 편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허문행



도44-1 황수신 전문箋文



도44-2 권수卷首와 본문本文

45. 십지경론

十地經論

조선 1557년(명종 12)
33.5×20.9cm
건희 06329

Commentary on the *Dasabhumika Sutra*
LKH 06329

『십지경론』은 『십지경』을 해석한 것으로 『지론』이라 별칭한다. 보살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10지(또는 십주+住)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세친世親이 저술하고 보리류지菩提流支가 한역했다고 전한다. 『십지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중 십지품十地品을 따로 떼어 번역한 경전이다.

세친은 천친天親으로도 불리는 4세기 경의 인도 승려이다. 무착無着的 유식학唯識學을 계승하였고 대승경전을 연구하였다. 보리류지는 남인도 승려로 508년 중국에 들어가 북위北魏 선무제宣武帝의 후원을 받아 역경에 힘썼다.

십지의 첫 번째는 처음으로 불법을 깨닫는 기쁨을 느끼는 환희지歡喜地이다. 두 번째 이구지離垢地는 티끌을 떨어내듯 번뇌를 없애어 깨끗하게 되는 단계이다. 3단계 명지明地에서는 수행의 효과가 밝게 드러난다. 염지焰地는 모든 번뇌를 불로 태워버리는 4단계이다. 다섯 번째 난승지難勝地는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는 경지이다. 6단계는 지혜가 드러나는 경지인 현전지現前地이다. 7단계 원행지遠行地는 인생세간人生世間을 멀리 떠나 부처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고, 8단계는 마음의 동요가 없는 부동지不動地이다. 다음 부처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얻는 제9단계 선혜지善慧地를 지나 불법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비구름과 같다는 10단계 법운지法雲地에 이른다.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십지론은 요약하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불법을 믿고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지경론』은 1242~1243년 대장도감大藏都監이 판각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에 포함되었고, 동국대도서관과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장본으로 1557년(명종 12) 서흥瑞興 성수사星宿寺에서 판각한 본이 있다. 이후 1635년(인조 13년) 순천의 송광사본과 연도 미상의 간본 등이 전해지는데, 모두가 성수사판의 번각과 재번각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십지경론』은 「십지경론초환희지권지삼十地經論初歡喜地卷之三」과 「십지경론이구지제이권지사十地經論離垢地第二卷之四」의 2권 1책만 있다. 보살이 설하는 부분에는 ‘논왈論曰’, ‘경왈經曰’이 사각형의 까만 묵등墨等에 음각백서陰刻白書로 표시되었다. 권지삼 말미에 ‘가정삼육년정사팔월황해도서흥지도덕산성수사간판嘉靖卅六年丁巳八月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김동우



도45-1 권수卷首



도45-2 본문本文과 간기刊記

46. 오대진언

五大眞言

조선 1485년(성종 16) 추정
23.8×17.1cm
건희 10532

Odaejineon(Five Great Mantras)
LKH 10532

본서는 조선 성종 16년(1485) 인수대비(仁粹大妃) 한씨(韓氏)의 명으로 일반 백성들의 진언 송습(誦習)을 위해 중국 당(唐)나라 불공(不空) 등이 한역(漢譯)한 범어 진언에 정음자(正音字)로 음역을 붙여서 간행한 목판본 1책이다. 각종 의식집과 다라니경전에서 가장 영험이 있다고 믿어졌던 진언들을 발췌해 편집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독송을 통한 현세구복(現世求福)을, 수행자들은 수법차제(修法次第)를 위해 간행되었다.

본서의 서지적인 특징은 원 표지와 함께 첫 장에 해당하는 ‘①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 대비심대다라니계청(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導大悲心大陀羅尼啓請)’과 십대원(十大願) 가운데 6개 대원(大願)이 없다.(서울대 규장각도서관 소장 오대진언(奎6749) 등과 비교) 후대에 표지를 개장하고 ‘오대진언경’이라고 제침을 붙였으며 판심제는 ‘오대(五大)’이다. 또한 광곽의 우측 하단에는 재가(在家)신자와 비구 등 시주자의 명패를 음각 혹은 양각으로 새긴 장들이 일부 있다. 얇은 종이로 인해 뒷장의 비침 현상이 있고 자획의 마멸과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후대 복각본임에도 대체로 각법(刻法)이 정교하여 초간본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대진언집은 크게 진언명과 역자명, 계청문, 진언의 순서로 편집되어 있고 진언은 범어 표기와 한글 음역, 한자 음역을 병기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부 남아있는 십대원(十大願)을 시작으로 관세음보살여의주수진언 등 42수진언(手眞言)이 수인도(手印圖), 수인의 영험 그리고 범어, 한글음역, 한자음역이 병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②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에 대비심신묘장구대다라니(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神妙章句大陀羅尼), ③천수천안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千手千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④불설일체여래보변광명염만청정치성사유여의보인심무능승총지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佛說一切如來普遍光明嚴髮清淨熾盛思惟如意寶印心無能勝總持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⑤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⑥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영험약초(靈驗略抄), 학조(學祖)의 발문이 순서대로 인쇄되어 있다.

책의 제목은 오대진언경이나 실제로는 6개의 대다라니가 편집되어 있어 앞의 5개 다라니는 불공의 번역이고 마지막 불정존승다라니는 계빈국(鬲賓國) 삼장사문(三藏沙門) 불타바리(佛陀波利)의 번역이다. 또한 다라니 염송의 영험을 적어놓은 영험약초에는 대비심다라니, 수구즉득다라니, 대불정다라니, 불정존승다라니의 네 개 다라니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본서는 지물과 손가락의 세밀하고 화려한 표현이 돋보이는 42수인도 그리고 진언을 한글로 음역한 최초의 판본으로 방점, 성조, ▽ 등 조선 초기 한글 표기법 등이 특기할 만하며 인수대비와 학조(學祖)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종조 왕실 편찬 불서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유호선



도46-1 42수진언(手眞言)과 수인도(手印圖)



도46-2 범어(梵語)와 음역(音譯)



도46-3 학조(學祖)의 발문(跋文)

47. 월인석보 권17·18

月印釋譜 卷十七·十八

조선 1459년(세조 5) 31.5×21.5cm 건희 10744	Episodes from the Life of Shakyamuni Buddha as Reflection of the Moon, Vol. 17·18 LKH 10744
---	---

『월인석보』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내용을 합하여 새롭게 엮어 편찬한 불경 언해서로 두 책 이름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책명으로 사용하였다.

수양대군首陽大君(1417~1468)은 어머니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의 명으로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석보상절』을 펴냈다. 이 책을 읽은 세종은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는 노래인 『월인천강지곡』을 편찬하였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세조 3년(1457) 세종과 장남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고자 앞의 두 책을 합쳐 세조 5년(1459)에 학승인 신미信眉, 수미守眉, 문신인 김수온金守溫(1409~1481) 등 11명과 함께 다시 수정하여 『월인석보』를 새롭게 펴냈다.

본서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세조 등이 함께 엮은 『석보상절』을 주석의 형식으로 하였다. 두 책을 합쳤다고 하나 『석보상절』은 추가, 삭제 등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권(책)을 엮는 것과 문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하여 단순하게 합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찬한 책이다. 각 권은 『월인천강지곡』을 먼저 싣고 이어서 주석인 『석보상절』을 싣는 체재로 구성되었다. 『용비어천가』가 노래 한 수마다 주석이 함께 있는 것과 달리 『월인석보』에는 이야기의 단

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이 1~50수씩 실려 있다.

권17은 『월인천강지곡』 제17과 『석보상절』 제17을 합쳤고, 『월인천강지곡』 310~317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법화경』 권5의 여래수량품, 분별공덕품, 수희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여래신력품 등을 해설하고 있다. 권18은 『월인천강지곡』 제18과 『석보상절』 제18을 합쳤고, 『월인천강지곡』 318~324가 수록되어 있고, 내용은 『법화경』 권7의 촉루품, 약왕보살분사품, 묘음보살품 등에 대한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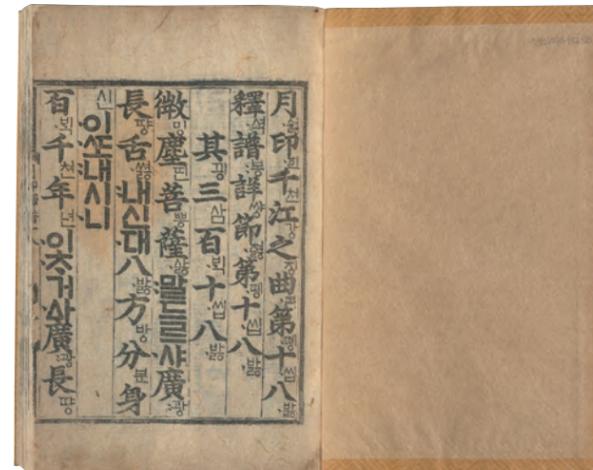
본서의 초간본은 목판본이다. 총 25권으로 보이지만 현재 초간본은 권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5와 중간본 권4, 21, 22 등 총 20권이다. 권3, 5, 6, 16, 24의 5권이 없다. 1983년 보물로 지정된 권17, 18은 2권 1책으로 강원도 홍천의 수타사 인왕문에 있는 사천왕상의 복장유물로 발견되었다. 권17과 18은 2권 1책으로 권17은 전부가 완전하며, 권18은 제87장 하부가 없어졌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권17은 보림사 소장 초간본도 전한다.

본 권17과 18은 위의 수타사본과 보림사본과 같은 초간본으로 보인다. 권17은 권말서명에 총 93장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앞부분 2장이 탈락되어 총 91장이다. 다른 소장본과 비교해보면 『월인천강지곡』 310~317 중 311 중간부터 있다. 권18은 뒤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총 92장이다.

본서는 『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직후 훈민정음 보급을 위한 책으로서, 또한 산문자료로서 중요하다. 세주(협주)에는 학습서처럼 사전적 풀이가 간단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어 글자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다. 15세기 중엽 국어학, 국문학, 불교학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일반 불경의 순서와 달리 계승이 앞서고 설법이 뒤따르는 우리식 ‘조선대장경’의 효시로서, 훈민정음으로 된 불경 간행으로 얻은 자신감은 본격적인 간경도감 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본 권17, 18은 이미 수타사본이 1983년 보물로 지정된 뒤에 공개되었지만 함께 보완될 수 있는 같은 초간본으로서 중요한 자료이다. 서윤희



도47-1 권17 본문本文



도47-2 권18 권수卷首



도47-3 권18 본문本文

48. 월인석보 권7

月印釋譜 卷七

조선 15세기 이후
32.0×21.0cm
건희 10691

Episodes from the Life of Shakyamuni Buddha as
Reflection of the Moon, Vol. 7
LKH 10691

『월인석보』 권7은 『월인천강지곡』 제7과 『석보상절』 제7의 내용으로 아나율, 발제, 난타 등의 출가를 언급하고 『아미타경』 등의 정토 경전을 바탕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초월적인 석가모니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권7은 판각과 인쇄의 품질이 좋지 않아 후에 다시 찍은 중간본으로 보인다. 전체가 다 있지 않고 『용비어천가』 177~196 중간까지 남아 있다. 다른 판본의 권7을 보면 『용비어천가』 177~211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월인천강지곡』 중간까지 수록되어 있는 낙질본이다.

권7은 초간본과 중간본이 함께 남아 있는 권으로서 중간본을 그대로 복각하였다고 하지만 인쇄의 품질이 왕실에서 인쇄한 초간본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초간본과 중간본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서윤희



도48-1 권수卷首



도48-2 본문本文

49.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

六祖大師法寶壇經 諺解

조선 1496년(연산군 2)
34.0×20.8cm
건희 10694

Sixth Patriarch of Chinese Zen Buddhism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10694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이하 ‘단경언해’)는 중국 당나라 혜능선사惠能禪師(638~713)의 어록을 그의 문인門人들이 모아 만든 『육조대사법보단경』(이하 ‘단경’)의 본문에 한글로 구결을 달고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한 책이다.

혜능은 선종禪宗의 6대 조사祖師로 중국의 선종禪宗을 확립시켰다. 그는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깨닫는다는 ‘돈오頓悟’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음 속에 있는 불성佛性을 자각한다는 의미인 ‘돈오견성頓悟見性’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불교관은 우리나라 선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혜능의 선종에 대한 핵심이 『단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290년 원나라 몽산 덕이 蒙山德異에 의해 정리된 본이 널리 유통되었고, 『단경언해』도 덕이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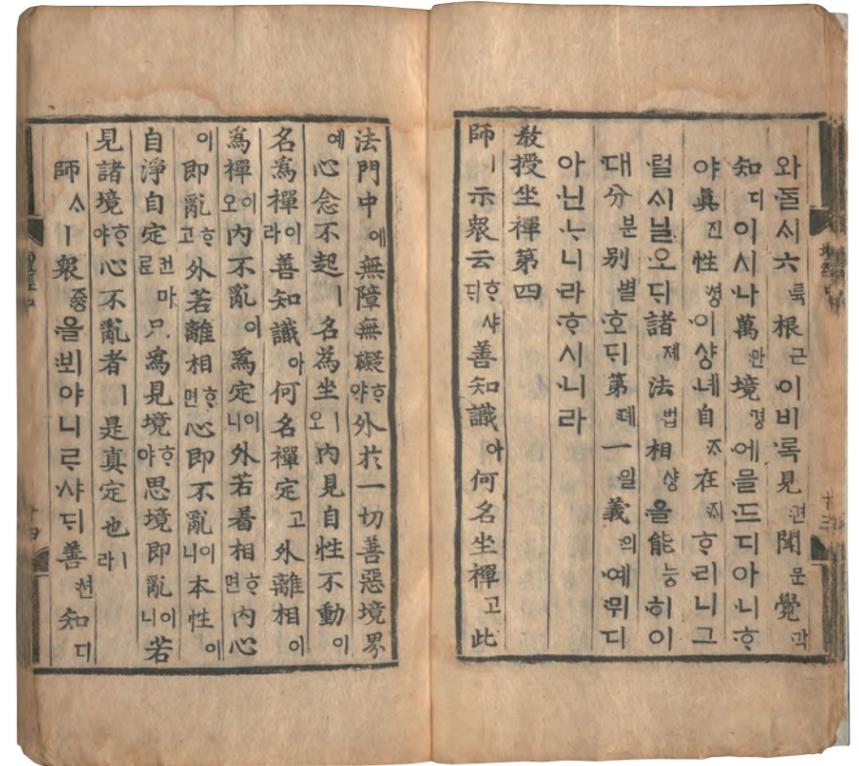
『단경언해』는 본래 3권 3책이라 전해지는데, 본 『단경언해』는 판심제가 ‘단경 상壇經 上’, ‘단경 중壇經 中’의 2권 2책이다. 본서 외에 현전하는 1496년의 원간본 『단경언해』는 2권만 있고, 1551년 간기의 중간본으로 하권이 있을 뿐이다. 다행히 원간본의 간행 경위가 같은 해에 간행된 『진언권공삼단시식문언해眞言權供三壇施食文諺解』의 발문跋文에 기록되었다. 발문에서는 인수대비仁粹大妃에 의해 『단경언해』 300부를 목활자로 찍어 반포했다고 한다. 당대의 고승인 학조學祖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단경언해』의 상권에는 덕이가 1290년에 찬撰한 육조법보단경서六祖法寶壇經序과 혜능의 문인 법해法海의 약서略敍, 오법전의제일悟法傳衣[법을 깨닫고 법의를 받다] 第一과 석공덕정토제이釋功德淨土[공덕과 정토를 풀다] 第二가 있다. 중권에는 정혜일체제삼定慧一體[정과 혜는 하나다] 第三, 교수좌선제사教授坐禪[좌선을 가르치다] 第四, 전향참회제오傳香懺悔[오분향과 참회법을 전하다] 第五, 참청기연제육參請機緣[제자들이(불법에) 참여하고 듣는 인연을 적다] 第六이 이어져있다. 본문에는 작은 한글을 쌍행雙行으로 구결을 달았고, 그것을 국한문 혼용으로 풀이한 글이 본문보다 한 칸 아래에 위치하여 판각되었다.

본 『단경언해』의 한글 표기는 국어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며, 소위 인경목활자引經木活字로 간행되어 서지학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김동우



도48-1 권수卷首



도48-2 본문本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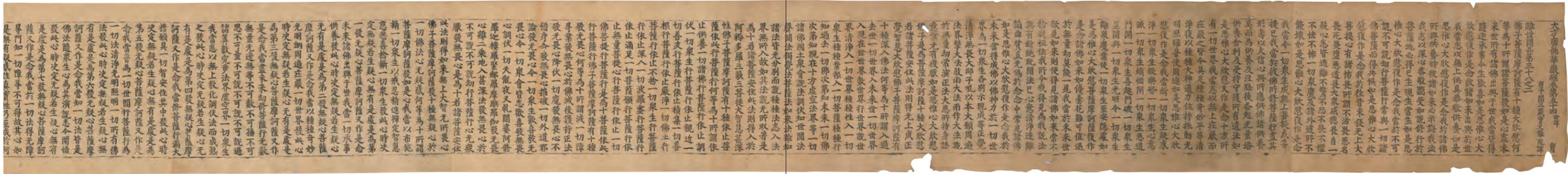
50.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권54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卷五十四

고려 11세기 28.7×1031.0cm 건희 10645	Transcription of the <i>Avatamsaka Sutra</i> (The Flower Garland Sutra) Vol 54, First Goryeo Tripitaka LKH 10645
--------------------------------------	---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도 부르는 『대방광불화엄경』은 현세의 부처인 석가모니불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대중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강설한 내용, 선재동자善財童子가 53선 지식善知識을 찾아다니는 과정 등을 부처님 주위의 수많은 보살들이 삼매三昧에 들며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서술하는 불교 경전이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평소 구술한 내용을 제자 아난阿難이 기억하고 있다가, 석가모니불 사후 그 제자들이 모인 제1차 결집 때 다시금 구술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십지품十地品과 입법계품入法界品의 경우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남아있다. 일설에 의하면 석가모니불 사후 700여 년이 지난 뒤 대승大乘 불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용수龍樹(150?~250?)가 용궁에 들어가서 10만 계승, 48품의 하본下本 『화엄경』을 열람하고 외워서 지상에 가지고 왔다고 한다.



도50-1 권수卷首



도50-2 권말卷末

『대방광불화엄경』은 번역자에 따라 60권, 80권, 40권으로 나뉜다. 이 중 80권은 우전국于闐國 출신으로 당에서 역경譯經에 종사했던 실차난타實叉難陀(652~710)가 번역한 것으로, 그 이전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359~429)의 구역舊譯[진본晉本]과 대비해 신역新譯, 주본周本이라고 불린다. 이 신역 『대방광불화엄경』은 7처處 9회會 39품품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품마다 석가모니불과 여러 불보살이 설하는 장대한 화엄법회華嚴法會가 펼쳐진다. 이 책은 『대방광불화엄경』 중 제8회 이세간품離世間品(53권에서 59권까지)에 해당되는데, 이세간품은 수행하는 법의 여러 단계에 기대어 2,000가지의 인행因行을 밝히고, 그 다음 8가지 모양으로 성불成佛하는 큰 작용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 현종顯宗(재위 1011~1031) 연간에 거란契丹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 판각 인출했던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일부이다. 목판 인쇄한 닥종이를 여러 장 붙여 만들었으며, 양 끝에 빨간 칠을 한 나무 축을 맨 뒤에 말아 넣어 고정시켜서 보관할 때 두루마리처럼 말아둘 수 있도록 한 권자본卷子本이다.

이 책은 단정한 구양순체歐陽詢體 해서로 정서正書한 경전을 목판에 새겨 찍었다. 13세기 제작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과 비교했을 때 글씨가 훨씬 정교하고 목판 한 장의 글자 수가 23행 14자로 재조대장경의 24행 17자와 다르며 간행기록이 없는 등 초조대장경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인쇄 상태와 종이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인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대승불교의 근본根本 경전으로 그 위상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불교사상사와 서예사, 인쇄문화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게다가 처음 책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나무축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려의 도서 형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강민경

51. 근사록

近思錄

조선 1436년(세종 18) 35.8×21.2cm 건희 10619	Geunsalok(Neo-Confusianism Beginner's Book) LKH 1061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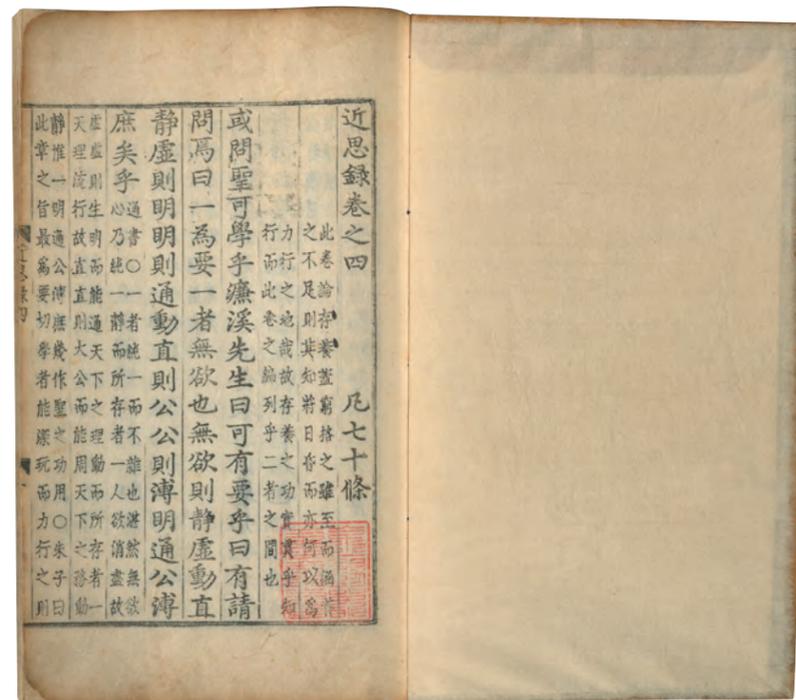
이 책은 주돈이周敦頤(1017~1073), 정호程顥(1032~1185), 정이程頤(1033~1107), 장재張載(1020~1077) 등 이른바 ‘송조사현宋朝四賢’의 저술과 어록에서 중요한 내용을 모아 수집해서 14개 목차로 편집 분류해 만든 것이다. ‘근사近思’라는 제목은 『논어論語』에 “자하子夏가 이르기를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독실히 하고[博學而篤志]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 자신에게 있는 것부터 생각하면[切問而近思] 인仁이 그 중에 있다[仁在其中矣]”는 구절에서 딴 것이다.

이 책은 회암晦庵 주희朱熹(1130~1200)와 동래東萊 여조겸呂祖謙(1137~1181)이 대략 1175년 무렵 같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조겸은 남송南宋 중기의 학자로, 자는 백공伯恭이다. 주희와 친교가 두터웠으며 『동래박의東萊博議』를 남겼다. 주희는 이 책의 후서後序에서 성리학을 처음 익히는 이들을 위한 입문서로 『근사록』을 지었다고 적었다. 그러므로 주희는 이 책을 읽은 뒤에 4자四子(송조사현)의 전집을 읽도록 권했으며, ‘사서四書는 육경六經으로 오르는 다리고 『근사록』은 사서로 오르는 다리다’라는 말을 남겼다. 여기 소개하는 『근사록』은 남송의 학자 섭채葉采가 13세기 중반에 주석과 해설을 달아 만든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를, 15세기 조선에서 갑인자를 활용하여 간행한 금속활자본이다.

『근사록』에는 섭채와 여조겸의 서문, 섭채가 『근사록』을 남송 이종理宗(재위 1224~1264)에게 올리며 지은 「상근사록표上近思錄表」가 맨 앞에 붙어있다. 그리고 본문은 송조사현(또는 도학道學 4선생先生)이 남긴 글이나 그들이 했던 말 중 성리학 사상에 맞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22조항을 발췌해서, 1) 도체道體 2) 위학爲學 3) 치지致知 4) 존양存養 5) 극기克己 6) 가도家道 7) 출처出處 8) 치체治體 9) 치법治法 10) 정사政事 11) 교학敎學 12) 경계警戒 13) 변이단辨異端 14) 관성현觀聖賢 총 14개 목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그리고 섭채가 다른 학자들의 학설에서 뽑아서 각 항목의 내용마다 붙인 주석도 들어있다. 마지막에는 주희의 후서가 실려 있다. 이 책은 그중 존양과 극기를 다루는 권4~권5에 해당한다.

『근사록』은 성리학의 입문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수도 많고 판본도 다양하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근사록』은 조선 초기인 1434년(세종 16) 만든 초주初鑄갑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갑인자는 다른 말로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도 하는데, 세종의 명을 받들어 이천李穡(1376~1451), 김돈金墩(1385~1440), 장영실蔣英實 등이 경연청經筵廳에 있던 『효순사실孝順事實』, 『위선음졸爲善陰鷲』 같은 명본明本 서적의 글자를 본떠서 만든 금속활자이다. 이는 크기가 크고 글자체가 예뻐며 선명하게 찍혀 나왔으므로, 조선시대 내내 똑같은 글씨체의 활자를 여섯 차례나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갑인자본은 대개 임진왜란 이후의 번각본 또는 3주鑄~6주갑인자본으로, 초주갑인자본은 매우 귀하다. 이 『근사록』은 특히 글씨체가 아름다워서 세종대에 활자를 만들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인출한 초주갑인자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15세기 조선에서 성리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화하였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조선 초기 금속활자 인쇄의 양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책에 나오는 글자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 초기 금속활자 및 최근 인사동에서 출토된 금속활자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어, 서지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본이다. 강민경



도51-1 권수卷首



도51-2 본문本文

52. 논어대문

論語大文

조선 1659~1720년(현종~숙종연간) 추정
24.2×18.1cm
건희 10459

Noneo(Analects of Confucius)
LKH 10459

공자의 어록 『논어』의 정문(원문)을 갑인자의 서체로 현종 9년(1668)에 김좌명(1616~1671)이 주조한 무신자(戊申字)로 찍은 책이다. 『논어』의 여러 주석은 생략하고 큰 활자로 원문만 인쇄하여 『논어대문』이라 이름하였다.

표제, 권수제, 판심제 모두 “논어대문”이다. 『논어』 20편의 정문을 상하 2권으로 나누어 상권은 1편 「학이(學而)」에서 10편 「향당(鄉黨)」까지, 하권은 11편 「선진(先進)」부터 20편 「태백(泰伯)」까지 수록하였다. 상권은 31장(張), 하권 39장이다. 편명 아래에는 “학이제일(學而第一) 범십육장(凡十六章)”과 같이 작은 활자로 각 편에 수록된 장수를 기록하였다. 각 편의 첫 번째 장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장은 장의 시작 부분에 원점(○)을 넣어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원문만 수록했으나 일부 소자 쌍행으로 교감주를 넣은 곳이 있다. 난상에는 각 행 위에 구결을 써 넣었다.

이 책은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상삼엽 화문어미와 반곽 10행 17자의 판식으로 보아 현종~숙종 연간(1659~1720)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교의 대표 경전인 『논어』는 조선 시대에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선조실록』 선조 2년(1569년) 4월 19일 기사에 “우리 세종께서 만년에 집주는 보지 않았고, 사서(四書)의 경우, 대문(大文)과 대주(大註)만을 인출하여 보셨다”는 내용이 있어 『논어대문』이 이전에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존본은 대부분은 명나라 성조 영락제(永樂帝(재위 1402~1424))의 칙명으로 호광(胡廣(1370~1418)) 등이 편찬한 『논어집주대전』이며 이처럼 『논어』의 정문만을 인쇄한 책은 매우 드물다. 금속활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을해자본 『논어대문구결』(화산 貴 183 1)과 무신자본 『논어대문』(화산 A8 A6A)이 있으나 고려대학교 소장 무신자본은 10행 18자, 상하내향화문어미(上下內向花紋魚尾)로 이 책과 판식이 다르다. 약재 거래장부 조각으로 추정되는 메모 조각이 책장에 끼어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편찬, 간행되었던 『논어집주』와 달리 『논어』의 정문만을 모아 간행한 금속활자본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드문 희귀본이다. 난상에 쓴 구결은 국어사적으로 중요하며 조선시대 『논어』의 수용과 학습 양상을 연구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재정



도52-1 권수卷首



도52-2 본문本文

53.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대전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조선 1506~1544년(중종재위) 추정
30.1×19.4cm
건희 10500

The Great Meishan Su Family Tradition Heart Study
Collection Seventy Volumes
LKH 10500

중국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가운데 세 사람인 소순蘇洵(1009~1066), 소식蘇軾(1037~1101), 소철蘇轍(1039~1112) 부자 가문인 ‘삼소三蘇’의 글에서 주희의 이학理學에 대비되는 심학心學에 대한 이론과 관련 글들을 수록한 서적이다.

소씨 삼부자인 소순, 소식, 소철은 문장뿐만이 아니라 유儒, 불佛, 도道에 두루 박학하였으며 자신들의 지식체계를 토대로 당대 이학理學과는 대비되는 심학心學을 독자적으로 발전, 심화시켰다. 심학에 대한 삼부자의 글과 이론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명나라 이양경李良卿에 의해 교정이 이루어져 간행되었다. 본서는 중국에서 간행된 동명의 서적을 조선에서 중종 11년(1516)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병자자丙子字로 인쇄한 서적이다.

내용은 권35~38에 해당하는 본문 부분이다. 본문 앞부분의 일부가 없고, ‘상부승상上富丞相’, ‘상회승상上會丞相’순으로 시작되어 ‘남행전집南行前集’으로 끝나고 있다. 결본으로 1책만이 남아있는 본서의 내용에는 소식의 글만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글들은 당송팔대가의 소식을 다룬 전집에서도 수록되는 글이 대부분임이 확인된다. 국내에서 본서와 동일본이 일부 기관에 소장되어 있으나 결본으로 완질이 되지 못하여 전체 구성과 서문, 발문, 제작경위 등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의 동일 서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서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책으로 주희朱熹(1130~1200)로 대표되는 송대 성리학의 이학과는 대비되는 심학에 대한 서적이다. 심학은 후대 양명학陽明學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성리학 중심의 조선 시대에 심학관련 서적이 정부의 공인 하에 간행된 사실은 조선 전기 사상적인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속활자인 병자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기에 책의 문화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본서는 표지가 결락되고 일부 누습으로 오염되기는 하였으나 본문의 상태가 양호하며 소장자가 비점, 밀줄, 권두에 기록을 하는 등 여러 공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여러 인장들이 권수, 권말에 날인되어 있어 소장자나 가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전기 심학과 관련된 서적이 정부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유학사 및 지성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본서의 국내 소장이 소수의 기관에서 완질이 아닌 영본으로 남아 있기에 내용과 서지적 분석에도 본서는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대영



도53-1 본문本文 1



도53-2 본문本文 2

54. 성리대전서절요

性理大全書節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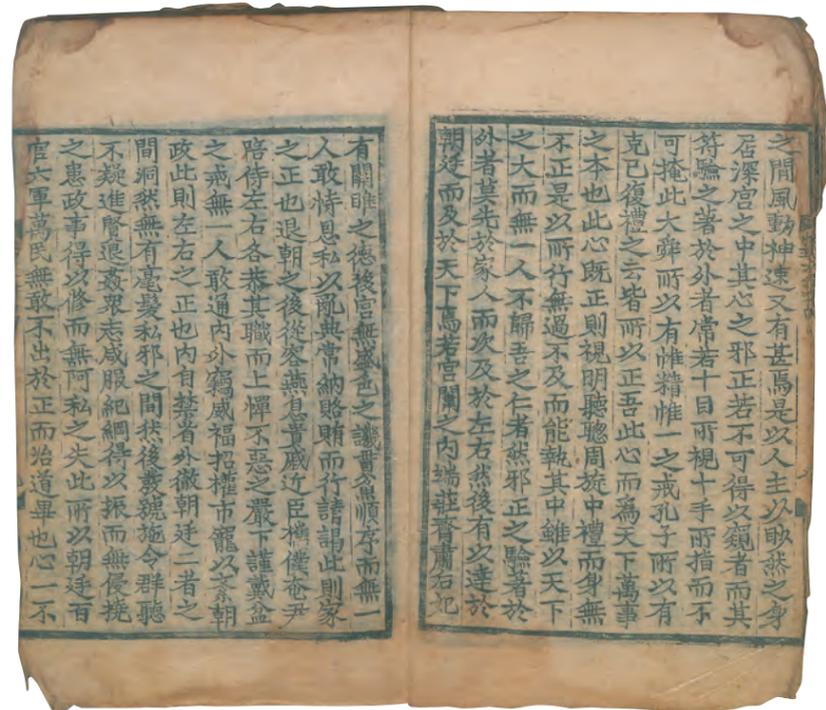
조선 1546년(명종 1) 이후
29.2×19.1cm
건희 10497

Seonglidaejeonjeolyo(Essentials of the Great
Collection of Neo-Confucianism)
LKH 10497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정국金正國(1485~1541)이 명나라에서 편찬한 『성리대전性理大全』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간추려[절요節要]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은 김정국이 중종 33년(1538)에 목활자로 간행한 책으로 번각한 목판본이다.

김정국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은휴恩休이다. 중종 4년(1509)에 별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으며,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로 삭탈관직되었다. 형인 김안국金安國(1478~1543)과 함께 기묘 사림의 핵심 인물로 성리학에 정통한 학자이다. 복직한 다음 해인 중종 33년(1538)에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나주목에 있던 목활자에 부족한 글자와 빠진 글자를 새겨 『성리대전서절요』 4권을 간행하였다.

명나라 성조 영락제永樂帝의 칙명으로 1415년에 한림학사 호광胡廣(1370~1418) 등이 편찬한 『성리대전』은 중국의 여러 유학자의 학설을 모아 편찬한 것으로 70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에 김종국은 『성리대전』 가운데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간추려 『성리대전서절요』를 간행하였다.



도54-1 권3 본문本文

표제는 “성리대전(절요)” 권수제는 “성리대전서절요” 판심제는 “성리대전”이다. 이 책은 김안국이 편찬한 『성리대전서절요』 가운데 권3과 권4로 각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3은 서한西漢 고제高帝부터 오대五代의 풍도馮道까지 역대 인물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을 실었다. 권4에는 송대 인물 범중엄范仲淹, 왕안석王安石, 이강李綱에 대한 평론에 이어 군도君道, 군덕君德, 성학聖學, 저사儲嗣, 군신君臣, 신도臣道, 치도총론治道總論, 예악禮樂, 종묘宗廟, 중법宗法, 시법諡法, 봉건封建, 학교學校, 용인用人, 인재人才, 구현求賢, 간쟁諫諍, 왕백王伯, 상벌賞罰, 절검節儉, 논병論兵, 논형論刑, 이적夷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김정국이 중종 33년(1538)에 나주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목활자본 『성리대전서절요』와 판식과 서체가 같아 목활자본의 번각본으로 추정된다. 간기가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책과 동일한 목판으로 간행한 권4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古1252-18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는 마지막에 목활자본에 수록된 김안국의 서문과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가정嘉靖 병오丙午(1546년)에 목판으로 번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권검權鑑의 발문이 있어 이 책도 이 때 제작한 목판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인쇄 상태로 보아 후쇄본으로 보인다.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4권 2책본(古貴151-1)과 고려대학교 만송문고 소장본 2권 1책(권 1-2, 만송貴-255-1) 1권 1책(만송貴-255A-1)이 있다.

권3에는 중간에 낙장 부분을 필사한 것이 있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권3의 뒷표지 안쪽에는 ‘금구당전가보金構堂傳家寶’라는 목서가 있다. 권4의 마지막 장과 뒤표지 안쪽에는 책주冊主가 연안 이씨임을 알 수 있는 목서가 있다.

『성리대전서절요』는 조선 시대 학자들의 필독서인 『성리대전』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지만 남아 있는 『성리대전서절요』 자체가 흔하지 않으며 특히 권3은 드문 편이다. 이재정



도54-2 권4 본문本文

55. 성학십도

聖學十圖

조선 1741년(영조 17)
34.8×22.1cm
건희 06205

Seonghaksibdo(Ten Illustrations Reoresenting the Principles of Confucianism for King Seonjo(宣祖))
LKH 06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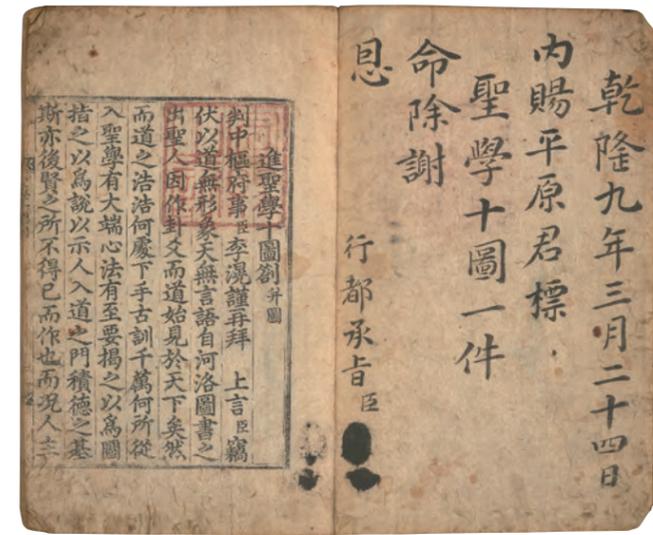
이 책은 조선 성리학의 거목인 유학자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이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으로 있을 때인 1568년(선조 원년), 새로 등극한 임금 선조宣祖(재위 1567~1607)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성리학의 요결要結을 집대성하여 10폭의 그림으로 만들고 진상한 것이다.

이황은 여러 차례 관직에 나갔으나 번번이 사양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가기를 소원했는데, 선조가 즉위한 뒤 예조판서, 우찬성, 대제학 등을 맡기며 신임하자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환으로 다시금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의리의 표현으로서 이 『성학십도』를 지어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맨 앞에 이황이 『성학십도』를 임금께 올리면서 같이 올린 차자箋子가 붙어 있고 그 다음 제1 태극도太極圖부터 제10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까지 10개의 그림과 설명이 이어진다. 이황은 차자에서 임금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마음을 수성修省하기 위해 필요한 ‘경敬’을 내면화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어지는 10개의 그림 중 태극도를 비롯한 6개는 송대 성리학자들이 이미 작성한 것 중에서 골랐고, 1개는 이황이 보완하였으며, 나머지 3개의 그림은 이황이 직접 그렸다. 그리고 끝에는 1681년(숙종 7) 10월에 오도일吳道一(1645~1703)이 지은 발문跋文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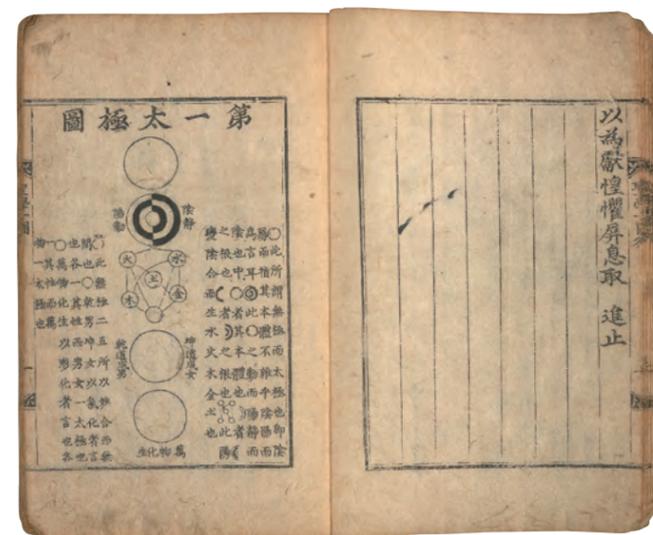
『성학십도』는 성리학의 입문서로 만들어진 데다가 이황이 지었다는 상징성이 있어서, 목판으로 새겨 책으로도 몇 차례 간행되고 병풍으로도 여럿 만들어졌다. 그중에서도 1681년 오도일 발문이 붙은 판본을 1741년(영조 17) 중간重刊한 것이 선본善本으로 꼽힌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 따르면 오도일은 1681년 당시 경연經筵 시독관侍讀官이었는데, 경연에서 숙종에게 진강進講하기 위해 『성학십도』에 이황의 차자를 붙여 간행할 것을 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성학십도』가 간행된다. 여기 실린 『성학십도』는 1741년 중간본을 1744년(영조 23) 영조가 왕실 종친 평원군平原君 이표李標에게 하사한 내사본內賜本이다. 평원군은 선조의 일곱째 아들 인성군仁城君(1588~1628)의 증손자로, 영조에게는 할아버지뻘이 된다. 앞뒤 표지의 능화문이 아름다운데, 간행 당시의 것으로 짐작된다.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내사인內賜印이 선명하다.

이 책은 10폭의 도표와 해설 안에 16세기 조선의 성리학 이해를 집약했다고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18세기 관판官版으로 글자체가 아름답고 각이 좋은 편이며, 왕실에서 나온 내사본이라는 점이 가치를 더한다. 강민경



도55-1 권수卷首

건륭 9년(1744) 3월 24일
평원군 (이)표에게
『성학십도』 1권을 내사하니
은혜에 감사드리는 일은
제하도록 명하노라
행 도승지 신



도55-2 태극도太極圖



도55-3 본문本文

56. 송명신언행록

宋名臣言行錄

조선 1545~1567년(명종재위) 추정
26.3×18.0cm
건희 06419

Songmyeongsineonhangrok(The Chronicle of Wise Men's Sayings and Doing in Song dynasty)
LKH 06419

주희朱熹(1130~1200)가 찬집한 북송北宋 명신名臣의 사적과 주희 외손인 이유무李幼武가 남송南宋의 명신 및 도학자道學者의 행적을 정리한 서적을 합본한 책이다. 주희의 저작인 데다 경세經世 관련 내용이 많아 조선에서도 매우 중시되었다.

주희는 세상 교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북송北宋 명신의 사적을 집록하여 1172년 오조명신언행록五朝名臣言行錄과 삼조명신언행록三朝名臣言行錄을 완성했다. 당시에는 두 책을 합쳐 팔조명신언행록八朝名臣言行錄으로 불렀다. 이유무는 북송 말부터 남송시대의 명신과 성리학자의 사적을 정리하여 황조명신언행속록皇朝名臣言行續錄, 사조명신언행록四朝名臣言行錄, 황조도학명신언행외록皇朝道學名臣言行外錄을 엮어 주희의 저작을 보완했다. 남송 말기부터 ‘송(조)명신언행록宋(朝)名臣言行錄’이란 이름으로 주희의 저작을 전집前集과 후집後集, 이유무의 저작을 속집續集, 별집別集, 외집外集으로 합각하여 출간했다.

오조명신언행록은 10권으로 북송 전기의 다섯 황제, 즉 태조太祖, 태종太宗, 진종眞宗, 인종仁宗, 영종英宗 시기의 명신 58인을 수록했다. 삼조명신언행록은 14권으로 북송 후기의 세 황제 신종神宗, 철종哲宗, 휘종徽宗 시기의 명신 44인을 수록했다. 황조명신언행속록은 8권으로 북송말기부터 남송 초기까지의 명신 29인을 수록했는데, 대다수가 금금과의 전쟁에서 공훈을 남겼거나 절의를 지켜 순사殉死한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조명신언행록은 26권으로 남송의 네 황제, 즉 고종高宗, 효종孝宗, 광종光宗, 영종寧宗 시기의 명신 65인을 수록했다. 그리고 황조도학명신언행외록은 17권으로 북송 및 남송 전시대의 도학자道學者 44인을 수록했다. 총 75권 260인에 달한다. 주

희의 저작인 전집과 후집은 본래 각 인물의 약전을 기술하고 여러 자료에서 채록한 내용을 시대 순으로 열거했다. 또한 해설 또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주를 달아 부기했다. 주희는 채록한 내용의 출전을 명기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현전하지 않는 것도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이유무의 저작은 주희의 저작을 계승하면서도 약전을 수록하지 않고 채록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아 놓은 데다 내용도 선후가 바뀌어 있거나 본래 의미와 다르게 추출한 것도 있어 조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명신언행록』은 주희의 저작인데다 경세 관련 내용이 많아 조선에서도 중시되었다. 경연의 주요 텍스트가 되었으며 정책 결정의 참고로 삼기도 했다, 이황은 “뒤늦게 배움에 뜻을 두는 이는 마땅히 『송명신언행록』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했다. 여러 차례 인쇄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었는데, 현전하는 판본으로는 갑진자본, 을해자본, 무신자본, 인서체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등이 있다. 본서는 갑진자본으로 아직 전질은 확인되지 않으며 낙질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있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 따르면 1536년(중종31) 5월 10일 대제학大提學 김안로金安老가 명신언행록의 간행 및 반포를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후속 논의 과정을 볼 때 출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낙질 1책으로 황조도학명신언행후록皇朝道學名臣言行後錄 권3, 오조명신언행록五祖名臣言行錄 권4, 권5,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조도학명신언행후록은 이유무가 증보한 외집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권3에는 남송대 성리학자 정이程頤가 수록되어 있다. 오조명신언행록은 주희가 찬술한 부분인 전집에 해당하며 권4에는 필사안畢士安, 구준寇準, 고경高瓊, 양억楊億, 왕서王曙 5인의 사적을, 권5에는 왕증王曾, 이적李迪, 노종도魯宗道, 설규薛奎, 채제蔡濟 5인의 사적을 수록했다. 오조명신언행록 제1행의 권차 아래는 ‘전집前集’이라는 표기가 있다. 외집과 전집의 순차가 뒤바뀐 것은 남아있는 잔권을 다시 엮는 과정에서 권수卷數만 보고 잘못 정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권5 왕증의 뒷부분과 이적의 앞부분 사이 몇 엽葉이 빠져 있다. 첫 엽 1~3행 하단에 소장인 3과가 세로로 날인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미상의 주문방인 1과, ‘풍산후인豐山後人’, ‘건재健齋’다. (재)현담문고에도 동일한 소장인이 있는 『황조명신언행외록』 1책(권10~11)이 있다.

조선시대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서적으로 실록은 물론 여러 문집에서도 관련 내용이 산견된다. 최근 완역본이 출간되어 책의 전모를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태희



도56-1 권수卷首



도56-2 본문本文

57. 시전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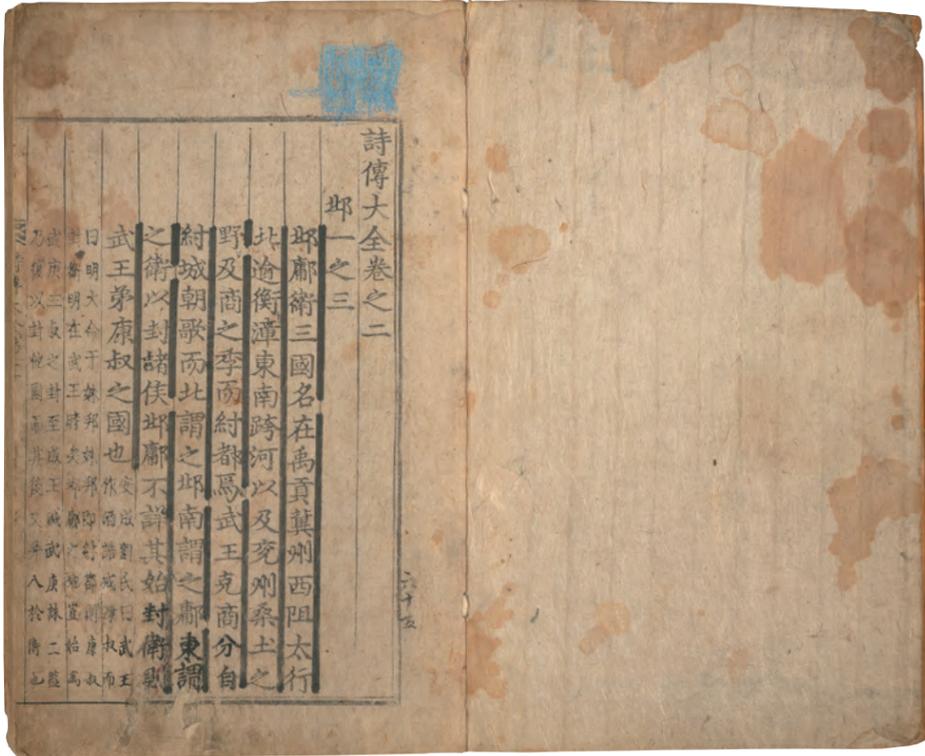
詩傳大全

조선 1623년(인조 1) 추정
35.3×22.7cm
건희 06322

Sijeondaejeon(Complete Guide to the Book of Odes)
LKH 06322

명나라 문신 호광胡廣(1370~1418) 등이 영락제永樂帝(재위 1402~1424)의 칙명으로 편찬한 오경대전五經大全 중 하나인 『시전대전』을 1618년(광해군 10)에 주조한 무오자戊午字로 간행한 책이다. 『시전대전』 권2 「국풍國風」 중 ‘패풍鄘風’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시전대전』은 주자학의 집대성자 송나라 주희朱熹(1130~1200)가 오경五經의 하나인 『시경詩經』을 해설한 『시전詩傳』에 이후 유학자들의 여러 설을 종합하여 편찬하였다.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12월 7일 기록에 태종의 서자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裨(1408~1458)가 북경에서 황제로부터 어제서문御製序文이 붙은 『신수성리대전新修性理大全』과 『사서오경대전』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 때 조선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은 『성리대전』과 『사서대전』, 『오경대전』을 각지에 보내 목판으로 복각하여 배포했으며, 세종 17년(1435)에는 갑인자로 찍은 『시전대전』을 종실과 정부·육조의 당상관과 문신 2품 이상과 6승자에게 내려주었다. 이후 『오경대전』은 『사서대전』, 『성리대전』과 함께 조선 유교 경전의 주류로 여러 차례 목판 또는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표제는 ‘시전詩傳’이며 권수제와 판심제는 ‘시전대전’이다. 이 책은 『시전대전』 권2로 「국풍國風」 중 ‘패풍鄘風’ 1편 백주柏舟에서 19편 채치載馳까지 19편 72장 363구 전체를 수록하였다. 각 편의 마지막에는 ‘백주오장柏舟五章 장육구章六句(백주편은 5장, 각 장은 6구로 구성됨)’과 같이 편명과 장수, 구수를 수록하였다. 이는 현존하는 『시전대전』의 일반적인 편집 방식이다. 대자로 인쇄한 경문과 주석 부분에는 군데군데 구두점을 넣었고, 주석을 제외하고 경문에만 난의 측면에 구결을 붙였다. 조선에서 편찬 간행한 『시전대전』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갑인자본(一簣古貴181.1-H65si-v.19-20)으로 1435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세조 때 을해자乙亥字로 『사서오경대전』을 간행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시전대전』은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간행한 금속활자본(무신자, 임진자본)과 이를 번각한 순조 때의 목판본이 주를 이룬다. 이 『시전대전』은 1618년(광해군 10)에 주조한 무오자로 간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책이 거의 없다. 표지에는 ‘시전詩傳 제2’라는 표제와 함께, ‘국풍國風 패풍, 용鄘, 위衛’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원래는 패풍, 용풍, 위풍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후에 용풍과 위풍을 분리하여 분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동일한 판본의 권17~18이 남아 있다.(一簣古貴181.1-H65sc) 경문과 주석 부분에는 군데군데 구두점을 넣었고, 주석을 제외하고 경문에 구결을 붙인 것도 동일하다. 다만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무오자본 『시전대전』에는 난상에 구결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간 중간 보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무오자본 『시전대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희귀본에 속한다. 특히 경문과 주석에 넣은 구두점이나 경문에 붙인 구결은 구결 연구나 조선 시대 유교 경전의 독서 방식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재정



도57-1 권수卷首



도57-2 본문本文

58.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조선 1402년(태종 2) 추정
23.7×14.6cm
건희 10519

Singanpyojegongjagaeguhae(Saying of Confucius with Commentaries)
LKH 10519

공자 및 공자 제자의 사적을 기록한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원元の 왕광모王廣謀가 구해句解를 단 책으로 뒤에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 1권이 합본되어 있다.

왕광모王廣謀는 자字가 경유景猷로 자세한 사적은 미상이다. 저작으로 『공자가어구해孔子家語句解』, 『성현어론聖賢語論』이 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따르면 『성현어론』은 “예기禮記, 가어家語, 사기史記 등에 실린 공자의 언행을 엮은 것으로 「상로相魯」를 시작으로 총 4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권수에 공자상孔子像을 싣고 소왕사실素王事實을 엮었다.”고 한다. 본서도 「상로相魯」 이하 총 44편이며 권말의 『신간소왕사기』에 공자상을 수록했다.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편자가 본 『성현어론』은 1533년(嘉靖癸巳) 간기를 가진 명대 각본刻本으로 두 책은 권수는 상이하나 동일 서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공자가어구해』와 『성현어론』은 같은 책이며 『소왕사기』 또는 『소왕사실』도 애초에 합본된 형태로 출판,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서는 『신간표제공자가어』 6권과 『신간소왕사기』 1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고전서총목제요』 등 여러 서적이 왕광모의 구해본을 3권본이라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자가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 사이의 문답을 기록한 책으로 최근 공자가어의 일부 내용을 수록한 한대漢代 죽간이 발견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삼국시대(위魏) 왕숙王肅의 위작僞作으로 의심받아 왔다. 그런 까닭에 공자의 사적을 기록했으나 경전의 지위를 얻지 못했으며 주석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왕광모는 『공자가어』 정문正文을 바탕으로 해설이 필요한 구마다 구해句解를 부기했다. 또한 위로 한 단을 두어 각 단락의 핵심어 및 한자음을 기록했다. 명명 하맹춘何孟春은 『공자가어주孔子家語注』 서문에서 왕광모의 구해가 수준이 낮고[庸陋] 허황[荒昧]된 데다 또한 빠진 부분도 많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원문의 축약이 심한데 일례로 권1의 제4 대혼해大婚解는 ‘감불경여敢不敬與’ 뒤로 ‘불경기신不敬其身’부터 400여 자가 빠져있다.

『신간소왕사기』에는 초상 ‘노사구상魯司寇像’을 시작으로 ‘선성기년도先聖紀年圖’(공자 연표), ‘선성세 계도先聖世系圖’와 ‘역대봉시작호도歷代封謚爵號圖’를 비롯하여 역대 공자의 추승 사적, 제사 전범 등을 수록했다.

본서는 명지대학교도서관 소장 보물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와 체제 및 형태가 동일하다. 명지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은 『신간소왕사기』 권말에 박은朴崑(1370 ~ 1422)의 지[右家語古本今天下寶之而吾大東未有板本予得是本命刊于江陵以始後學爲建文四年七月望礪溪朴崑誌]가 있어 1403년(건문4) 박은이 원의 판본을 구해 강릉江陵에서 번각飜刻,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서는 ‘세환곡부世宦曲阜’ 이하 뒷부분이 탈락되어 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동일본으로 추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신간소왕사기』 목록 이후가 결실된 것이 남아있다. 본서는 정작 중국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조선 및 일본에서는 널리 유행했다. 을해자본乙亥字本, 태인泰仁 방각본坊刻本, 흥향향교본興陽鄕校本 등 인쇄본과 함께 다수의 필사본이 전한다.

『공자가어』의 수용 양상과 조선 지식계에서 『공자가어』의 위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며 조선 전기 중국도서의 번각 및 지방 관아의 출판 사업의 실례로서도 중요한 자료다. 이태희



도58-1 권수卷首



도58-2 본문本文



도58-3 노사구상魯司寇像

59. 양현전심록

兩賢傳心錄

조선 1856년(철종 7)
29.6×20.2cm
건희 08710

Yanghyeonjeonsimrok(The Teaching Book of Two Wise Men)
LKH 08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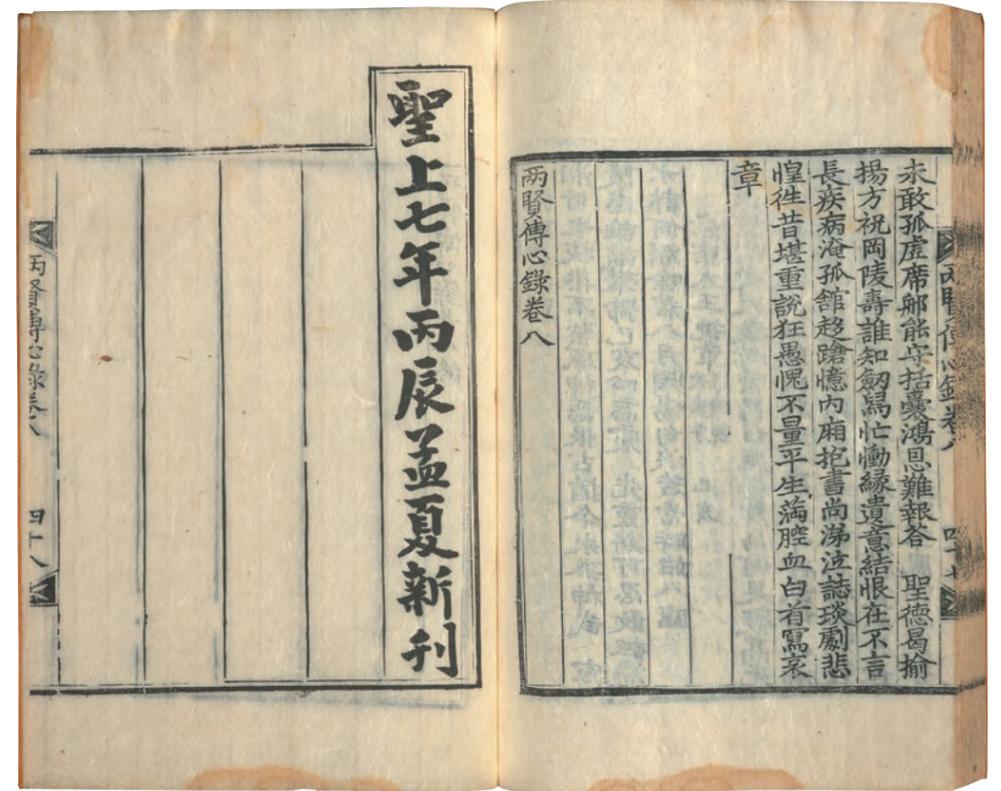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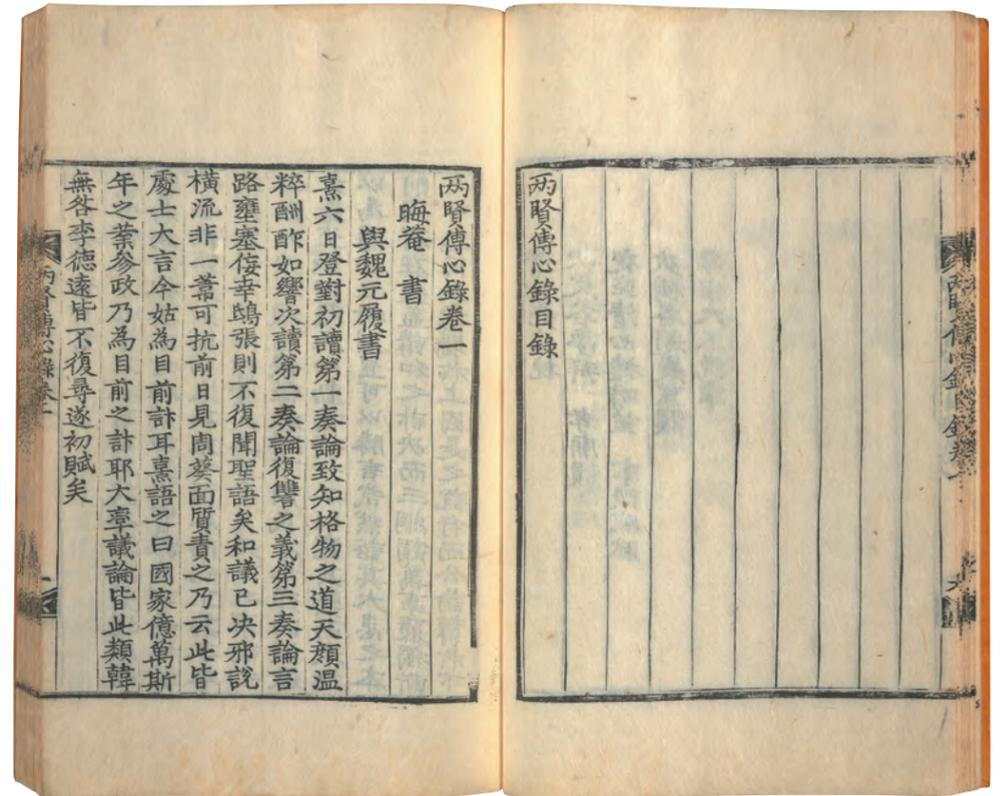
정조(재위 1776~1800)가 왕세손 시절 편찬하고 즉위 후 간행한 『양현전심록』을 1856년(철종 7) 목판으로 중간重刊한 책이다.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 주자朱子(1130~1200)와 조선의 성리학자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1607~1689)의 문집 가운데 시의時義·문학問學 등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권두에 정조가 지은 어제서御製序가 수록되어 있다.

정조는 왕세손 시절 송시열을 주자의 도통道統을 이은 높은 인물로 여겼는데, 두 성현의 문집을 대조해 조응照應할 만한 내용을 뽑고 분류하여 이를 『양현전심록』이라 명명하였다. 정조는 손수 지은 『양현전심록』의 서문에서 “두 현인의 심법心法을 담아 세도世道를 안정시키고 사설邪說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주자와 송시열이 추구했던 성리학의 가르침을 존송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책의 8권 말미에는 ‘성상 7년 병진兩辰 여름에 간행했다’는 기록이 있어, 1856년(철종 7)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55년(철종 6) 경기 유생 임수철任秀喆이 책을 간행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철종은 이를 허락하였는데, 이듬해 왕명에 따라 경기 감영에서 간행한 책으로 보인다.

이 책은 모두 8권 4책이며 원元(권1~2)·형亨(권3~4)·이利(권5~6)·정貞(권7~8)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4는 주자의 문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권1에는 주자가 당시의 학자 위원리魏元履·장식張栻 등과 주고받은 글 18편이, 권2에는 주자가 송나라 황제에게 올린 봉사封事 2편이, 권3에는 봉사 1편과 주차奏簡 7편이, 권4는 의장議狀·설說·서序·시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5~8은 송시열의 문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권5에는 송시열이 박세채朴世采·권상하權尙夏 등과 주고받은 편지가, 권6에는 송시열이 효종孝宗에게 올린 「기축봉사己丑封事」와 「정유봉사丁酉封事」가, 권7에는 「사초구차辭紹裘箚」·「진수당주차進修堂奏簡」등의 글이, 권8에는 지문誌文·비碑·서序·발跋·시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책 곳곳에 정조의 의견을 담은 ‘어정주御定註’가 수록되어 있다. 정조는 송시열의 학문을 매우 존송하였는데, 이 책은 정조의 성리학 및 성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허문행



도59-1 표지表紙(왼쪽부터 원元·형亨·이利·정貞)



도59-2 권수卷首와 간기刊記

60. 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

<p>조선 1766년(영조 42) 33.3×20.5cm 건희 08441</p>	<p><i>Eojeshohakjinam</i>(Guide Book of Elementary Learning written by King Yeongjo(英祖)) LKH 08441</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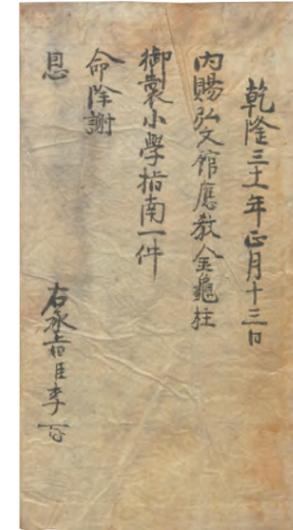
조선 제21대 왕 영조가 『소학』의 제사題辭와 내외편內·外篇의 주요 명제에 대해 풀이[訓義]한 책이다. 갑인자체로 현종 9년(1668)에 주조한 무신자로 1766년에 간행하였다.

영조는 13세(1706년)에 처음 『소학』을 배우고, 28세(1721년)에 두 번째로 강론하였다. 그리고 73세 때인 1766년에 세 번째로 다시 『소학』을 강론한 후 아동들이 『소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영조 자신의 해설을 붙인 『소학지남』을 간행하였다.

표제, 권수제, 판심제 모두 ‘어제소학지남’이다. 책머리에 영조 42년(1766) 정월에 영조가 짓고 좌승지 김화진金華鎭의 글씨로 새긴 「어제소학지남서御製小學指南序」와 영조가 짓고 우부승지 임준任俊의 글씨로 새긴 「어제소학지남소지御製小學指南小識」가 있다. 무신자로 인쇄한 본문은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권은 주자朱子가 쓴 「소학제사小學題辭」 전문을 10개 절로 나누고 절마다 영조의 해설을 붙이고 제사의 내용을 찬양하였다. 하권은 『소학』의 내편과 외편의 편마다 전체적인 취지와 의의를 설명하고 끝에 외편의 편제扁題와 차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혔다. 책 끝에는 유척기兪拓基, 김상로金尙魯, 홍봉한洪鳳漢 등 교정관 14명의 관직과 이름이 실려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어제소학지남』 해제 참조)

내지에 “건륭 31년(1766) 1월 13일 홍문관 응교 김귀주에게 하사한다[乾隆三十一年(1766)正月十三日 內賜弘文館應教 金龜柱 御製小學指南一件 命除謝恩 右承旨 臣 李 (手決)]”라고 쓴 내사기內賜記가 있다. 김귀주(1740~1786)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1745~1805)의 오빠이다. 책의 편제면의 가운데에 제목 ‘어제소학지남御製小學指南’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남북한장판南北漢藏板’, ‘사현각교정思賢閣校正’이라 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42년(1766) 1월 11일 기사에 “상이 직접 사현합교정 남북한장판 10글자를 쓰고 이를 제목 아래에 넣어 인쇄하라 명하였다[上手書思賢閣校正南北漢藏板十字, 命雙書刊印於題目下]”라는 내용이 실려 있어 영조가 직접 지시하고 영조의 글씨를 넣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같은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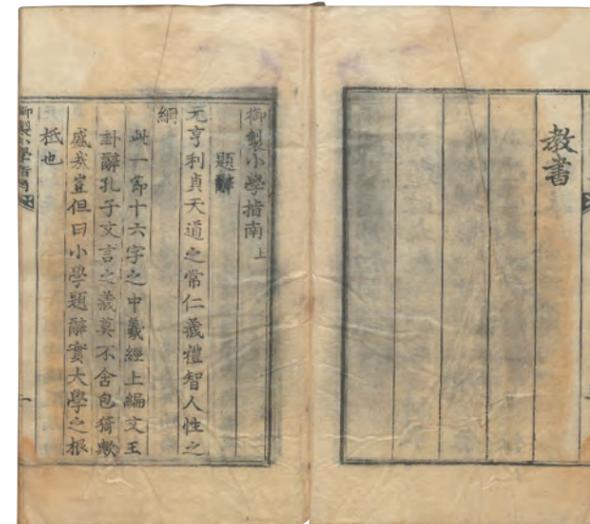
『어제소학지남』은 재위 말년에 영조가 친히 지은 것으로, 영조의 평생 『소학』 공부의 집약되어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은 김귀주에게 하사한다는 내사 기록이 남아 있어 자료 가치가 높다. 이재정



도60-1 내사기內賜記



도60-2 편제면篇題面



도60-3 권수卷首



도60-4 본문本文

61. 예기

禮記

중국 명 1447년(명 영종 정통 12) 추정
31.0×19.4
건희 06335

Yegi(The Book of Rites)
LKH 06335

원나라 유학자 진호陳澠(1261~1341; 자字는 가대可大, 호號는 운장雲莊 또는 북산北山)가 『예기』의 여러 해설을 모아 편찬한 『예기집설禮記集說』의 권2 「단궁檀弓 상上」 부분으로 명나라 초기에 사례감司禮監(환관을 관리하는 최고 관청)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기집설』은 원나라 유학자 진호가 『예기』에 대한 여러 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예기』는 중국 전국戰國 시대에서 한나라 초기 유학자들이 예의禮義에 관해 흠어져있던 논술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중국 고대 예제와 문물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진호는 역시 유학자였던 아버지 진대유陳大猷의 뜻을 이어 『예기』에 대한 제가諸家의 설을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서 원 지치至治 2년(1322)에 『예기집설』을 완성하였다. 명 성조 영락제(재위 1402~1424)의 명으로 호광胡廣(1370~1418) 등이 『오경대전五經大全』을 편찬하면서 진호의 『예기집설』을 『예기』의 저본으로 채택하면서 널리 유행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예기집설』 해제 참조)

표제와 권수제는 ‘예기’, 판심제는 ‘예기집설’이다. 이 책은 『예기집설』 가운데 권2 「단궁 상」 부분이다. 고대의 예제禮制 가운데 가장 어렵고 비중이 컸던 분야는 상례喪禮이다. 『예기』에도 상례와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궁」은 상례에 대한 규정과 각종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정병섭역, 『역주예기집설대전 단궁 상 1』, 학고방, 2013 참조) 경문은 큰 글자로 쓰고 진호의 주석은 한 단 내려서 쌍행 17자로 작은 글자로 새겼다. 경문과 주석에 방점이 있고 붉은 색으로 구결을 썼다. “공의중자지상公儀仲子之喪~심상삼년心喪三年”까지 난상에 『예기집설대전』과 같이 여러 주석이 필사되어 있다.

이 책은 명나라 초기에 간행한 중국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동일한 판본의 『예기집설』 3종이 있다. (奎中 2045, 奎中 3588, 古貴 181.1-J562y. 옥영정, 「규장각 소장 宋, 元, 明初 刊本 조사보고서」, 2009 참조) 이 중 奎中 2045의 권수에 실려 있는 정통正統 12년(1447)에 사례감에서 간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을 통해, 이 책도 같은 시기에 간행한 사례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奎中 2045는 표제가 ‘예기집설’인 점이 이 책과 다르다. ‘공의중자지상公儀仲子之喪~심상삼년心喪三年’까지 난상에 『예기집설대전』과 같이 여러 주석이 필사되어 있는 것과 경문의 오른쪽 측면에 붉은 색으로 구결을 써 넣은 것이 이 책의 특이점이다.

이 책은 국내에 모든책이 남아있는 것이 드문 명나라 초기 사례감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선본이다. 난상의 제가주를 통해 『예기』의 주석 비교를 할 수 있으며 구결을 단 작자와 기록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예기』의 구결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재정



도61-1 권수卷首



도61-2 본문本文

62. 자경편

自警編

조선 1609년(광해군 1)
27.1×18.4cm
건희 06368

Jagyeongpyeon(The Book for Cultivation)
LKH 06368

1224년(가정嘉定 17) 남송南宋의 조선료趙善璿가 당대 임금과 신하들의 모범이 될 만한 언행言行을 모아 편찬한 『자경편』을, 1609년(광해군 1) 2월 평안감영의 추향당秋香堂에서 목활자로 인출印出한 책이다. 『자경편』은 학문류學問類·제가류齊家類·사군류事君類·정사류政事類·습유拾遺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책은 ‘정사류’에 해당하는 1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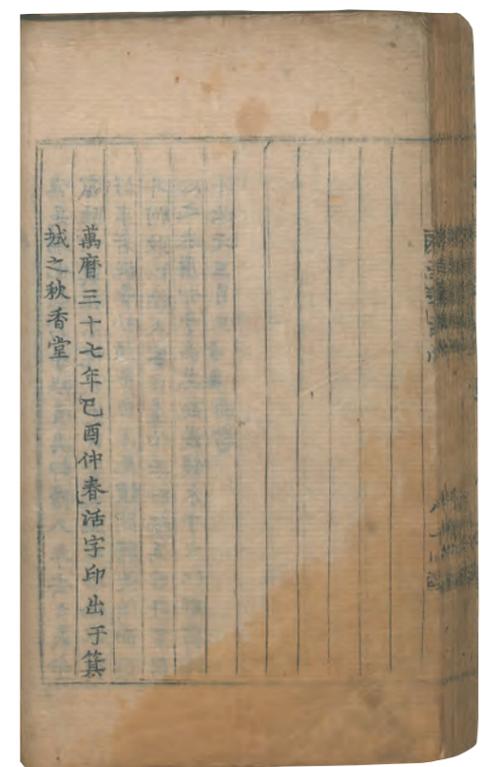
『자경편』은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1441년(세종 23) 세종이 『치평요람治平要覽』의 편찬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1482년(성종 13)에는 왕명에 따라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다. 『자경편』은 이후 지방에서도 여러 차례에 간행되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자경편』은 정사政事·진정鎮靜·신信·통하정通下情·제인濟人·우민부憂民附·구황救荒·구폐救弊·변무辨誣·옥송獄訟·재부財賦·병兵·제승制勝 등의 주제를 84면에 걸쳐 수록하였다. 제 83면에는 조선료의 발문跋文이, 제84면에는 “만력 37년(기유, 1609년) 중춘에 기성(평양)의 추향당에서 활자로 인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판심제에는 책 이름 아래 ‘무戊’라 표기되어 있는데, ‘갑을병정무甲乙丙丁戊’의 순서에 따라 이 책이 5번째 순서의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1609년 평양에서 간행된 『자경편』(추향당자)의 유일본으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동일 판본이며, 17세기 전반 지방의 인쇄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허문행



도62-1 권수卷首



도62-2 간기刊記

63. 주역전의대전

周易傳義大全

중국 명 초기 이후
34.2×21.2cm
건희 06377

Juyoekjeonuidaejeon(Complete Annotations to the Book of Change)
LKH 06377

이 책은 명대明代의 재상 호광胡廣(1370~1418) 등이 주도하여 편찬한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의 명본明本 낙질로, 조선에 유입된 뒤 조선식으로 장정되어 보관된 것이다. 인쇄상태가 아주 훌륭한 미본美本이다.

호광은 한림수찬翰林修撰 · 문언각대학사文淵閣大學士 · 좌춘방대학사左春坊大學士 · 예부상서禮部尙書 등을 역임한 명대의 관료로, 명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재위 1402~1424)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의 업적으로 꼽히는 것이 1414년부터 2년간에 걸쳐 편찬한 『오경대전五經大全』 · 『사서대전四書大全』 · 『성리대전性理大全』이다. 그중 『주역전의대전』은 『오경대전』의 첫 부분에 수록된 것으로, 송대 이후 여러 유학자들의 축적된 학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주역』의 해석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 이는 『주역』을 비롯한 사서오경을 국가적 교과서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관학官學으로써의 성리학을 자리매김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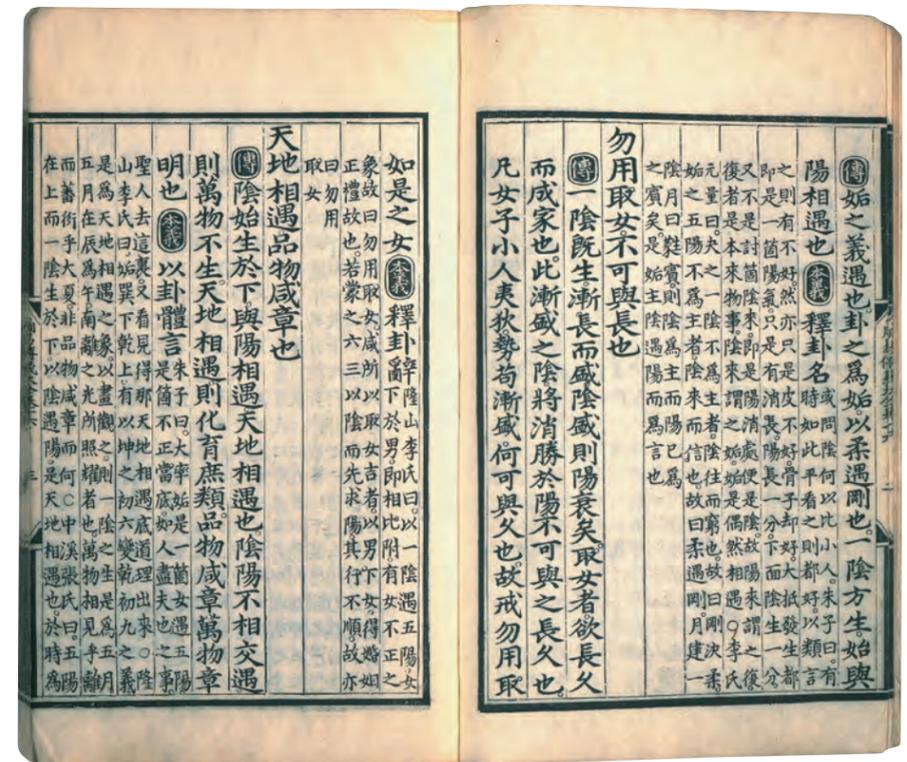
『주역전의대전』은 일반적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권수卷首, 본문에 해당하는 상경上經(乾卦~離卦) · 하경下經(咸卦~未濟卦)의 경문經文, 단전象傳 · 상전象傳 · 문언전文言傳과 계사전繫辭傳 · 설괘전說卦傳 · 서괘전序卦傳 · 잡괘전雜卦傳으로 구성된다. 이 책 권16~17은 그중 하경의 구괘卦부터 혁괘革卦까지, 권20~21은 하경의 손괘巽卦부터 미제괘까지를 담고 있다. 괘의 경문 아래에는 각 괘의 단사象辭 · 상사象辭와 정이의 『이천역전伊川易傳』, 주희朱熹(1130~1200)의 『주역본의周易本義』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송대 이후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기록한 주석이 달려있다.

『주역전의대전』은 명에서 간행된 직후 사신 편으로 조선에 유입된 뒤, 세종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조선판이 아니라 명대 초기 판본이다. 미국 국회도서관에 이와 거의 같은 『주역전의대전』이 소장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를 영락 연간의 판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 소개하는 『주역전의대전』은 그보다 훨씬 인쇄 상태가 양호하고 종이가 좋아서, 호광이 편찬한 직후 인쇄한 내부분內府本일 가능성이 크다. 대개 후기 명본은 자획이 가늘고 기계적인 명조체明朝體가 일반적이는데, 이 책은 자획에 붓글씨 맛이 강해 송판宋板 또는 원판元板을 본떠 판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책의 장정은 조선에서 주로 행했던 오침안정법五針安定法으로 되어있다. 이는 이 책이 조선에 유입된 이후 조선식으로 재장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책에 찍힌 장서인으로도 방증된다. 이 『주역전의대전』의 장서인은 두 방인데, 위는 ‘청천유엄숙첨菁川柳儼叔瞻’, 아래는 ‘임신생갑오연방계묘계적壬申生甲午蓮榜癸卯桂籍’으로 판독된다. 이로 보아 이 책은 유엄柳儼(1692~?)의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책 앞장에 처음 있던 장서인을 잘라낸 위에 다시 찍은 것을 보아, 누군가의 소장본이었던 것을 유엄이 입수한 뒤 옛 장서인을 도려내고 자기 도장을 찍었다 여겨진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현재 남은 수량이 펍 드문 명간본明刊本인 동시에, 18세기 조선의 문신 관료가 소장했다는 내력이 분명하다. 이는 조선 · 명 · 청간 지식교류의 실제 사례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단, 완질이 아닌 날권 2책만 남은 점이 아쉽다. 강민경



도63-1 권수卷首



도63-2 본문本文

64. 고려사

高麗史

조선 33.2×19.5cm 건희 07104	Goryeosa(History of Goryeo dynasty) LKH 07104
-------------------------------	--

본서는 조선 전기 문신 김종서(1383~1453), 정인지(1396~1478) 등이 고려시대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기전체(紀傳體) 역사서로, 고려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이다. 조선이 건국한 후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조준(趙浚, 1346~1405), 정도전(鄭道傳, 1342~1398)에게 명하여 이전 왕조인 고려시대 역사의 편찬을 명하여, 태조 4년(1395)에 『고려국사(高麗國史)』가 편찬되었다. 그러나 편찬 기간이 짧고 조선 개국공신의 주관이 개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편찬을 담당한 정도전이 숙청되는 사건이 있어 태종 14년(1414)에 하륜(河崙, 1347~1416), 남재(南在, 1351~1419), 이숙번(李叔蕃, 1373~1440), 변계량(卞季良, 1369~1430) 등에게 개수(改修)를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에 썼던 용어를 그대로 직서(直書)한다는 원칙으로 세종 6년(1424)에 『수교고려사(誦校高麗史)』가, 세종 24년(1442)에 편년체(編年體)의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이 완성되었으나 반포되지 못하였다. 세종 31년(1449)에 김종서, 정인지 등에게 『고려사전문』을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로 다시 편찬하도록 하여, 문종 1년(1451)에 『고려사(高麗史)』가 완성되었다.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등 총 139권 75책으로 구성되었는데, 본서는 『고려사』 중 권42(세가42)~권44(세가44)와 권91(열전4)~권93(열전6)에 해당된다. 권42는 공민왕 19년(1370), 권43은 공민왕 20년(1371)~21년(1372), 권44는 공민왕 22년(1373)~23년(1374)의 편년기록이다. 권91은 고려시대 신종(神宗)~공양왕(恭讓王)의 아들과 그 후손, 태조(太祖)~공양왕의 공주(公主)에 관한 기록이며, 권92는 홍유(洪儒), 유금필(庾黔弼), 최응(崔凝), 최언위(崔彦爲), 왕유(王儒), 박술희(朴述熙), 최지몽(崔知夢), 왕식렴(王式廉), 박수경(朴守卿), 공직(龔直), 박영규(朴英規), 권93은 서필(徐弼), 최승로(崔承老), 쌍기(雙冀), 최량(崔亮), 한언공(韓彦恭), 유방헌(柳邦憲), 김심언(金審言), 최항(崔沆), 채충순(蔡忠順) 등의 고려 초 인물들의 전기이다.

본서는 을해자(乙亥字)로 인쇄된 주자본(鑄字本)을 저본으로 복각된 목판본인데, 간기가 남아있지 않아 언제 인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고려사』 권42~44에 해당하는 책의 표지 다음 면에는 ‘공주인목덕비(公主仁穆德妃)’라는 글씨와 초상이 그려져 있고 ‘숙종팔년(肅宗八年) 최언위(崔彦爲)’이라는 글씨가 남아있고, 『고려사』 권91~92에 해당하는 책의 표지 다음면에는 ‘남풍훈(南風薰) 호월만천방(好月滿千方) 홍무오년(洪武五年, 1372) 사(寫)’라는 글씨와 남녘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소장자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는 고려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물 등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책이다. 김선미



도64-1 권42 권수(卷首)



도64-2 권91 권수(卷首)



도64-3 유금필(庾黔弼)전(傳)

65. 북정록 北征錄

조선 1468(세조 14)
28.3×18.5cm
건희 10640

Bukjeongrok(The Record of Conquering the
Nuzen(女眞) in the North)
LKH 10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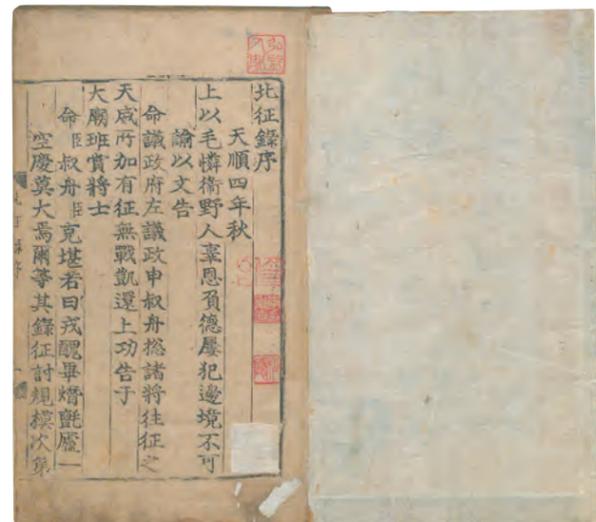
조선 세조 6년(1460) 신숙주申叔舟(1417~1475) 등의 조선군이 육진六鎭의 북쪽에 있는 모련위毛憐衛의 여진족을 정벌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세조의 명으로 세조 7년(1461) 신숙주申叔舟 · 이극감李克堪(1423~1465)이 편찬하였고 세조 14년(1468)에 조석문曹錫文(1413~1477) · 노사신盧思愼(1427~1498) 등이 찬정撰定하였다. 책이름 ‘북정록北征錄’은 ‘북쪽의 여진족을 정벌한 기록’이라는 뜻이다. 신숙주의 자는 범옹泛翁이고, 호는 보한재保閑齋 또는 희현당希賢堂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신숙주는 세종 21년(1439)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이후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을 역임하였고, 세종 24년(1442) 서장관書狀官에 뽑혀 일본을 다녀왔다. 그는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요동遼東에 유배 중이던 명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을 13차례나 왕래하여 음운音韻에 관한 지식을 듣는 등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에 크게 공을 세웠다. 세조世祖가 즉위한 뒤,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병조판서兵曹判書, 대사성大司成, 좌 · 우의정左 · 右議政, 영의정領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 6년(1460)에 강원 · 함길도의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세조실록世祖實錄』 등을 편찬했고 이외에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등의 저서가 있다.

이극감李克堪의 자는 덕여德興이고,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이극감은 세종 26년(1444)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세조의 즉위 이후 그는 좌익공신佐翼功臣 3등에 녹훈되고, 세조 4년(1458)에 동부승지가 되고, 이조참판 ·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세조 6년(1460) 북정北征 때에는 좌승지 · 도승지 등을 역임하면서 정벌에 관한 기무를 관장하였다. 『치평요람治平要覽』 ·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을 교정, 간행하였다.

이 책은 이극감의 서문과 함께 단종 1년(1453)부터 세조 7년(1460) 11월 12일까지 조선과 여진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6권 2책이다. 이 책은 단종 1년(1453) 수양대군이 이른 바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킨 이후 중외병마도통사中外兵馬都統使가 되어 이시에 난을 진압할 때부터 세조7년(1460) 11월 12일 북정을 마치고 온 장사將士들과 만나 활 1부씩 내린 일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세조대 전후 조선과 여진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숙주 등이 왕명으로 북정을 단행하게 된 이유와 경과 등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현재까지 금속활자본(을해자본)으로 세조대의 북정北征을 기록한 책 중에 유일하다. 북정록의 필사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일부 남아 있다. 특히, 이 책은 최현배崔鉉培(1894~1970), 이병직李秉直(1896~1973), 이인영李仁榮(1911~?) 등의 인장이 찍혀 있어 주목된다. 최현배는 호가 외솔로 일제강점기 『우리말본』, 『한글갈』, 『조선민족 갱생의 도』 등을 저술한 학자이자 국어운동가이고, 이병직은 호가 송은松隱으로 해방 이후 국전 초대작가, 국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서화가이며, 이인영은 호가 학산鶴山으로 해방 이후 『국사요론』, 『한국민주관계사의 연구』 등을 저술한 역사학자이자 서지학자이다.

이 책은 세조대의 조선과 여진족의 관계를 여진족의 정벌, 즉 북정北征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한 기록으로 조선 전기 조선의 대여진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여진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명의 외교적 긴장 등이 반영되어 있어, 조선 전기 조선과 명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효중



도65-1 서문序文



도65-2 본문本文



도65-3 권말卷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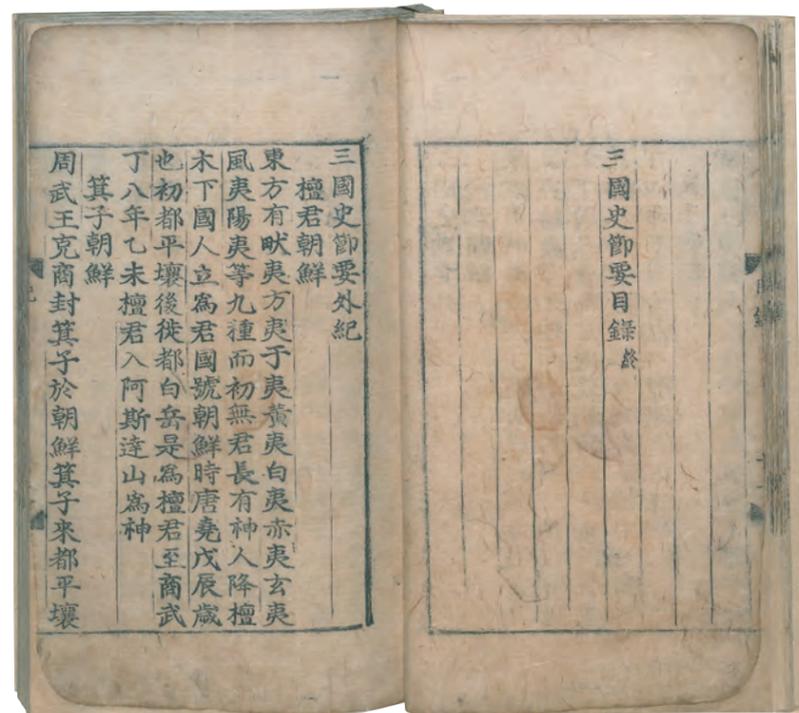
66. 삼국사절요

三國史節要

조선 1476년(성종 7) 31.7×19.7cm 건희 10620	<i>Samguksajeoryo</i> (Essentials of the Three Kingdoms History) LKH 10620
---	---

노사신 盧思愼(1427~1498), 서거정 徐居正(1420~1488), 이파 李坡(1434~1486), 김계창 金季昌(?~1481), 최숙정 崔淑精(1433~1480) 등이 성종 成宗(재위 1469~1494)의 명을 받아 1476년(성종 7)에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로, 단군조선 檀君朝鮮부터 신라말 경순왕 敬順王(재위 927~935)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외기 外紀로 따로 두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본기 本紀 14권에 걸쳐 두며, 삼국의 통사를 기술하였다. 세조 世祖(재위 1455~1468)의 명으로 1458년(세조 4)에 간행되기 시작하여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동국통감 東國通鑑』의 편찬 과정에서 간행된 중간 간행물이기도 하다.

1458년(세조 4) 9월 세조는 우리 역사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삼국과 고려의 역사를 하나의 편년 위에 잡고 소략한 내용을 채워 『동국통감』을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동국통감』은 세조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재위 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하였고 예종 睿宗의 짧은 재위 기간(1468~1469)도 넘겼다. 예종을 이어 즉위한 성종은 신숙주 申叔舟(1417~1475)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국통감』의 편찬 재개를 결정하고 노사신, 서거정, 이파 등에게 찬술을 명하였다. 『동국통감』의 편찬으로 결집한 찬자들은 1476년(성종 7) 12월 『삼국사절요』를 완성하게 되었다. 『삼국사절요』는 외기 1권과 본기 14권으로 구성된 편년체 역사서이다. 외기 1권에는 단군조선



도66-1 권수卷首

부터, 기자조선 箕子朝鮮, 위만조선 衛滿朝鮮, 사군 四郡, 이부 二府, 삼한 三韓으로 이어지는 삼국 이전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이는 『동국사략 東國史略』의 역사인식 체계를 계승한 것이다. 본기 14권에는 신라 新羅, 고구려 高句麗, 백제 百濟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 서술체제는 장편체이나, 서명에서도 파악되듯 형식은 여러 참고서의 기사들을 간단하게 줄여 내용을 찬술한 절요이다.

본서의 전문 箋文은 노사신, 서거정, 이파 3인이 썼고 서문 序文은 서거정이 썼으며, 김계창, 최숙정 등이 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 을해자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 『삼국사기 三國史記』를 저본으로 삼되, 『삼국유사 三國遺事』, 『동국사략 東國史略』,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고려사 高麗史』, 『수이전 殊異傳』 등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저본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서하면서도 신화, 전설, 설화, 민담을 포함하고 천재지변, 봉배 封拜, 종교행사, 풍습, 전란, 축성 등을 아우르면서, 각종 국가의 흥망과 백성의 존속에 관한 사건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삼국 간의 역사를 대등하게 다뤘으며, 특히 전쟁 기사를 필두로 편년체의 형식을 활용해서 기사의 중복을 피했고 기사 사이에 모순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보정하였다. 『삼국사기』와 『동국사략』 각각에 게재된 김부식 金富軾(1075~1151)과 권근 權近(1352~1409)의 사론 史論을 그대로 인용하여,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일을 막았다. 『삼국사절요』의 편찬 전통은 1484년(성종 15) 서거정 등의 주도로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와 합쳐져 편찬된 『구편동국통감 舊編東國通鑑』으로, 이듬해인 1485년(성종 16)에는 사론이 덧붙여 완성된 『신편동국통감 新編東國通鑑』으로 계승되었다. 『삼국사절요』의 단독본은 1482년(성종 13)경 을해자로 간행된 것이 유일한데, 전란 때 전주사고 全州史庫에 보관되어 있어서 소실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본서는 단군조선에서 신라 통일기까지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편년체 통사로, 조선 전기 역사서 편찬 전통을 잇는 대표 성과이며, 당대의 역사 인식과 역사서 편찬 태도를 내재하고 현존하지 않은 문헌 출처 기사를 수록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 범위와 가치를 넘어서는 의의를 갖는다. 옥재원



도66-2 본문本文

67. 이십일도회고시

二十一都懷古詩

조선 19세기 추정
30.1×21.5cm
건희 09654

Isipildohwegosi(The Retrospective Poems on Twenty one Capitals)
LKH 09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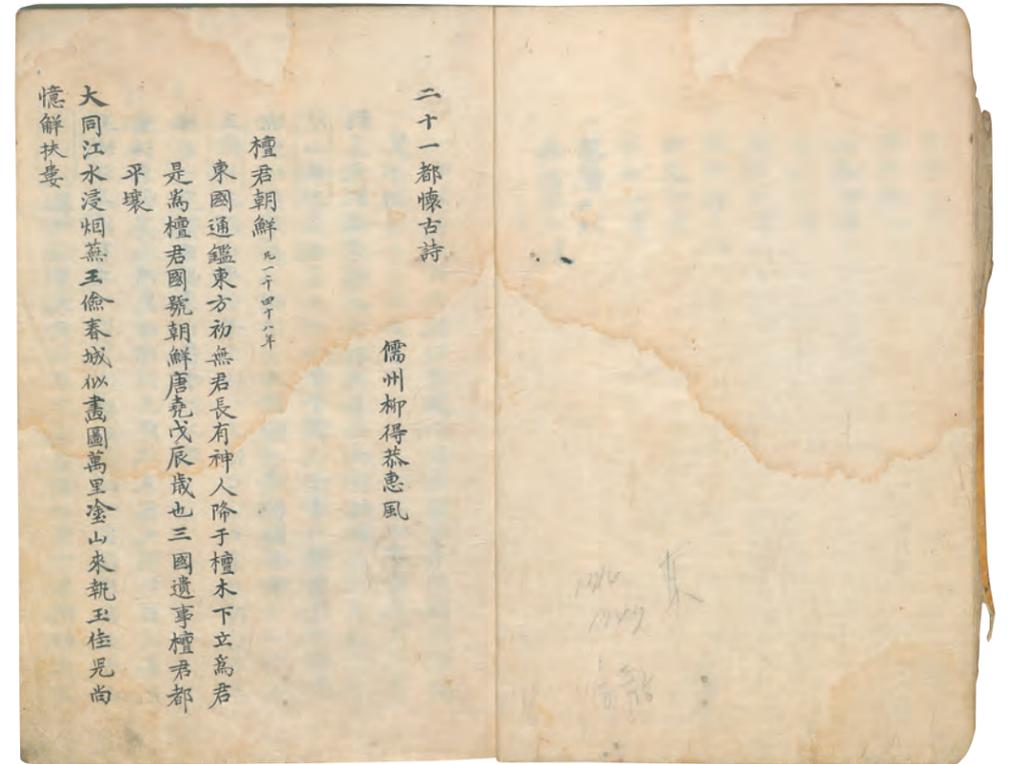
조선 후기 유득공柳得恭(1748~1807)이 지은 칠언절구七言絶句 43수의 한시漢詩이다. 단군의 왕검성부터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까지 역사 속에 등장하는 21개의 도읍을 시로 표현한 작품이다.

저자인 유득공은 조선 정조正祖 때의 학자이자 규장각 검서檢書를 지낸 박학다식한 학자이다. 역사에 뛰어나 『발해고渤海考』를 저술하기도 하였으며, 한시를 비롯한 문학작품에도 능력이 뛰어났다. 본서는 유득공이 31세였던 정조 2(1778)에 역사와 지리 서적을 읽고 참조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1790년 유득공이 중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중국 학자들에게 전해졌으며, 조선에서는 별도로 간행이 되지 않고 필사본으로 전해져 오다 고종 14년(1877)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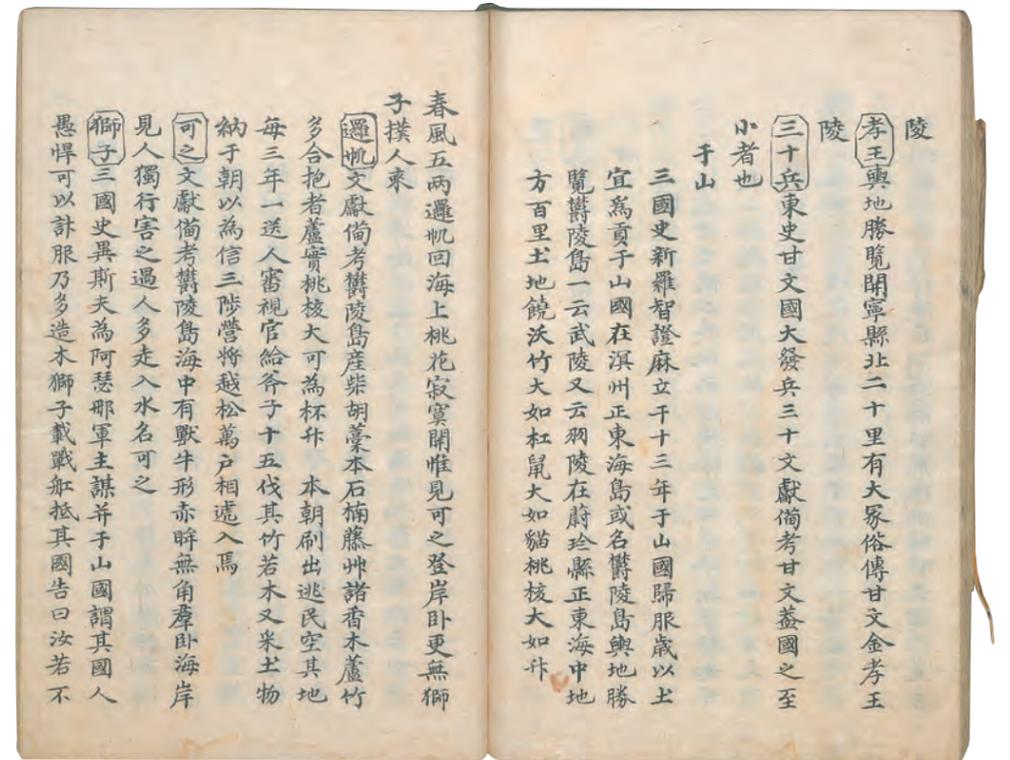
본문은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21개 도읍을 43수의 한시로 읊은 것이다. 수록된 국가와 도읍 내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군조선 왕검성, 기자조선의 평양, 위만조선 평양, 한韓의 금마, 예穢의 강릉, 맥貊의 춘천, 고구려 평양, 보덕報德의 금마저, 비류沸流의 성천, 백제의 부여, 미추홀의 인천, 신라의 경주, 명주의 강릉, 금관의 김해, 대가야의 고령, 감문의 개령, 우산의 울릉도, 탐라의 제주, 후백제의 완산, 태봉의 철원, 고려의 개성이다.

본서는 유득공이 지은 『이십일도회고시』의 일반적인 전파 형태였던 필사본으로 제작되어 있다. 본문에 별도의 필기나 장서인, 장서기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서하여 베껴 옮기는데 목적을 둔 전사본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종 연간의 목판본 이전~19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자료로 추정된다.

본서는 조선 후기 우리 역사를 자주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유득공의 역사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 비단 유득공만이 아니라 당시 실사구시 학자들의 역사인식과 18세기 지성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문헌자료이다. 정대영



도67-1 권수卷首



도67-2 본문本文

68.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조선 1545~1567년(명종재위) 추정
36.0×22.0cm
건희 10697

Jachitonggamgangmok(Evaluation of Major Historical Events in China)
LKH 10697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1130~1200)와 조사연趙師淵 등이 『춘추春秋』의 형식을 빌려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綱과 목目으로 축약·정리한 책으로 조선 세종 때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의 훈의訓義를 더해 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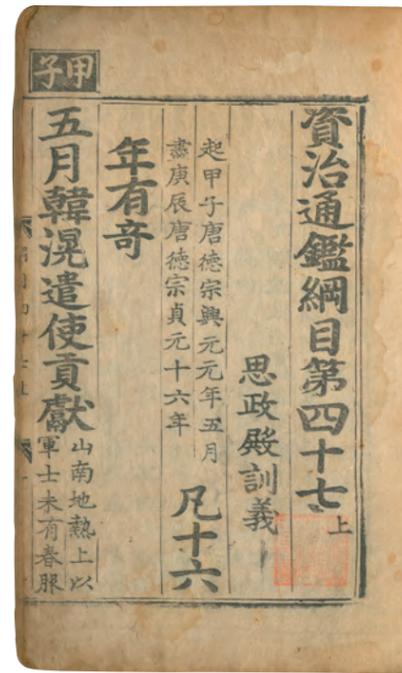
주희는 자字가 원회元晦, 중회仲晦, 호號가 회암晦庵, 회옹晦翁, 운곡노인雲谷老人 등으로 강남동로江南東路 휘주徽州 무원현婺源縣 사람이다. 일찍부터 학문에 두각을 나타내 19세에 진사가 되고 환장각대제검시강煥章閣待制兼侍講, 보문각대제實文閣待制 등을 역임했다. 강학講學과 저술著述 활동에 힘썼으며 송대 유학을 정리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집대성했다. 조사연趙師淵(1150경~1210)은 자가 기도幾道, 호가 놀재訥齋로 송의 종실이다. 주희가 번천서원樊川書院에서 강학講學할 때 제자가 되었다.

북송 때 사마광司馬光 등이 편찬한 『자치통감』은 춘추시대 노魯의 편년체 역사서 『춘추』가 끝나는 기원전 403년부터 오대五代 후주後周 공제恭帝 원년, 즉 959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로 총 294권에 달한다. 위나라 분량이 방대하여 편찬 직후부터 축약본의 편찬이 논의되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을 편찬했고, 남송 때 호안국胡安國(1074~1138)이 사마광이 못 다한 작업을 이어받아 『자치통감거요보유資治通鑑學要補遺』를 편찬했다. 주희는 이상의 작업이 요점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1167년 시작해 1172년 초고를 완성했지만 완성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고, 이를 제자 조사연이 이어받아 완성했다.

주희는 『자치통감』을 간추리며 『춘추』의 형식을 사용했다. 경전의 경문經文에 해당하는 강을 두어 큰 글씨로 표기해 요점을 밝히고 그 뒤에 전傳에 해당하는 목目を 달아 구체적 사실을 기록하는 ‘강목체綱目體’라는 새로운 체제를 적용했다. 또한 앞에 범례凡例를 두어 작성 원칙을 밝혔는데 주요 특징은 정통론 및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른 포폄褒貶을 적용해 성리학적 역사관을 구현했다는 점이다. 간지(세歲)를 광곽匡廓 바깥 위에 두고 매 갑마다 글자를 달리했다. 주자의 서序에서는 갑을 붉은색 글씨로 써서 구분했다고 했으나 본서는 검은 바탕에 백문으로 인쇄했다. 그 아래로 년年(연호 및 연도)을 썼는데, 정통왕조는 간지 아래 바로 연호를 기입하고 그 외의 연호는 작은 글자로 부기해 구분했다. 해당 해에 기술이 없더라도 간지와 연도는 빠짐없이 넣었다. 『춘추』와 같이 글자를 달리 써 포폄의 뜻을 드러냈는데, 예를 들면 삼국시대 위진 교체 기사를 『자치통감』은 “12월 임술 위魏 황제가 진晉에 선위禪位하였다. … 병인 왕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정묘 위 황제는 진류왕陳留王으로 삼고 궁宮을 업鄴에 두었다.[十二月, 壬戌, 魏帝禪位于晉. … 丙寅, 王即皇帝位. … 丁卯, 奉魏帝爲陳留王, 即宮于鄴.]”고 한 반면 본서(권16중)는 강에 “12월 진왕晉王(사마司馬)염炎이 황제를 칭하고 위주魏主를 진류왕陳留王으로 삼았다.”고 하고 목에는 생략된 부분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을 옮겼다. 촉한정통론蜀漢正統論에 따라 위나 진의 임금은 황제라 하지 않고 ‘주主’로 쓰고, 진무제武帝가 황제가 된 것도 ‘즉위했다’고 하지 않고 ‘황제를 칭했다’고 기술했다.

『자치통감강목』은 주자의 저작인데다 성리학적 역사관을 담고 있어 국왕의 치국治國 참고서로서 경연經筵의 주요 텍스트가 되었으며 조선 지식인들의 필독서로 중국사를 바라보는 기본 틀이 되

었다. 이후 세종은 집현전集賢殿 문신들에게 『자치통감』에 이어 『자치통감강목』도 훈의訓義를 작성하게 했는데, 1438년 간행한 사정전훈의본思政殿訓義本이다. 강綱의 큰 글자는 진양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瑋(훗날의 세조世祖)의 글씨로 만든 금속활자 병진자丙辰字를 쓰고 목目의 중간 글자와 훈의 의 작은 글자는 기존의 (초주)갑인자를 사용했다. 훈의의 내용은 인명, 지명 등의 부가 설명, 한자 음 등으로 호삼성의 『자치통감』 주석 등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물로 지정된 현담문고 소장본(권19하)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규장각 등에도 있다. 이후 사정전훈의본은 조선 내에서 『자치통감강목』의 통용본으로서 수요가 많아 여러 차례 증간되었다. 본서는 1438년 간행한 사정전훈의본의 후쇄본으로 병진자와 초주갑인자를 사용했으나 일부 목활자도 섞여있는데, 기존 활자가 마모·유실됨에 따라 일부 활자를 목활자로 보완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임오 촉한蜀漢 경요景耀 5년(262) 8월부터 기해(279) 12월까지를 다룬 권卷 16중中·하下 1책과 갑자 당唐 흥원興元원년(784) 5월부터 임신 정원貞元 8년(792) 12월까지를 다룬 권卷47 상上·중中 1책, 2책 낙질본이다. 첫 엽에 소장인으로 주문방인 1과가 있으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다. 조선 지식인의 경세 및 역사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으로 세종대 역사학 및 조선전기 출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태희



도68-1 권47상 권수卷首



도68-2 권47상 본문本文

69. 제왕운기

帝王韻紀

조선 전기
30.4×18.6cm
건희 06196

Jewangungi(Songs of Emperors and Kings)
LKH 06196

고려 문신인 이승휴李承休(1224~1300)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5언·7언의 운율시 형식으로 지은 역사서이며,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이승휴가 1287년(충렬왕 13)에 쓴 인표引表가 있고, 권말에는 녹사참군사겸장서기승사랑양은령司錄參軍事兼掌書記升仕郎良醞令 정소鄭瑄의 발문跋文, 진주부사晋州副使 이원李源과 안렴사중산대부병부시랑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 안극인安克仁의 후제後題, 조산대부경주유학교수관朝散大夫慶州儒學教授官 이지李輊의 복각 발문 등이 간행 연대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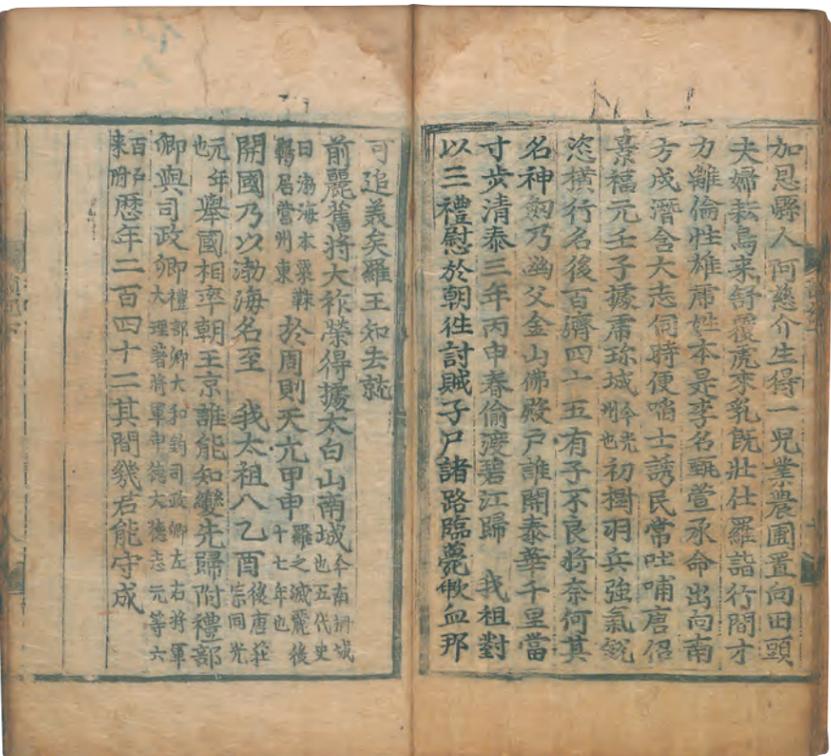
이승휴는 자가 휴휴休休, 호가 동안거사動安居士이며, 경산부京山府 가리현加利縣 사람이다. 1252년(고종 39) 4월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이듬해 몽고의 침략으로 벼슬길이 막혔다. 1264년(원종 4)에야 경흥부서기慶興府書記에 보임되었다가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로 옮겨갔다. 1270년 삼별초가 봉기했을 때 각종 비리와 노역으로 백성들이 당면하게 된 폐해를 토로하였고, 1273년 식목녹사式目錄事로 있으며 공훈 없는 이들의 승진을 비판하였다. 우정언右正言이던 충렬왕忠烈王 때, 시정의 공과를 15개조로 나눠 간쟁하였고, 양광충청도안렴사楊廣忠淸道按廉使로서 비리 관료를 탄핵하고 가산을 적몰하다 원한을 사서 동주부사東州副使로 좌천되는 등 순탄치 않은 관직 생활을 지냈다. 좌천 이후, 삼척현三陟縣으로 돌아가 두타산頭陀山에 용안당容安堂을 짓고 은거하면서 ‘동안거사’, ‘두타산거사’로 자칭하였다. 이 시기에 『제왕운기』를 지었다. 표문에서 드러나듯, 기본 저술 의도는 중국과 우리 역사의 기원을 찾아 서로 비교하며 요점을 취해 쓴 책을 고려 국왕이 왕조 계승에 이로울 지혜로 삼아주기를 간청한 데 있다. 아울러 책의 구성 체계와 서술 기조로 볼 때, 고려가 자주적·독자적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제왕운기』는 당대까지 이어져 온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었다. 상권에서는 중국 신화 시대에서 하夏·은殷·주周 3대와 진秦·한漢 등을 지나 원元에 이르는 역사가 7언으로, 하권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에서는 지리기地理紀 및 조선朝鮮 단군·후조선後朝鮮 기자에서 위만衛滿·한漢 사군四郡·삼한三韓·삼국三國·발해渤海,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7언으로, ‘본조군왕세계연대本朝君王世系年代’에서는 고려 태조太祖 세계 설화로부터 충렬왕忠烈王대까지의 역사가 5언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서는 고려 말인 1360년 경주에서 개판된 『제왕운기』를 후대에 복각한 목판으로 인쇄한 서적이다. 후제에 따르면, 그 목판은 안극인이 소유한 판본을 초안 삼아 이를 다시 새긴 것이다. 본서 외에도 동국대학교 소장본, 한솔제지(주) 소장본 및 개인 소장본 등 여러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제왕운기』는 원나라 간섭기 고려의 사회 상황 속에서, 지식인 이승휴가 자신의 현실 인식과 역사의식을 토대로 중국과 고려의 역사와 강역을 분별하고 발해를 포함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체계를 정립한 역사서라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간행과 관련한 연대 및 경과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서지학적 의미도 크다. 육재원



도69-1 권수卷首



도69-2 본문本文

70. 간곡정선육방옹시집

澗谷精選陸放翁詩集

조선 15세기 이후
22.6×16.0cm
건희 10475

Gangokjeongseonyukbangongsijip(The Collection of
Lu You(陸游)'s Poems)
LKH 10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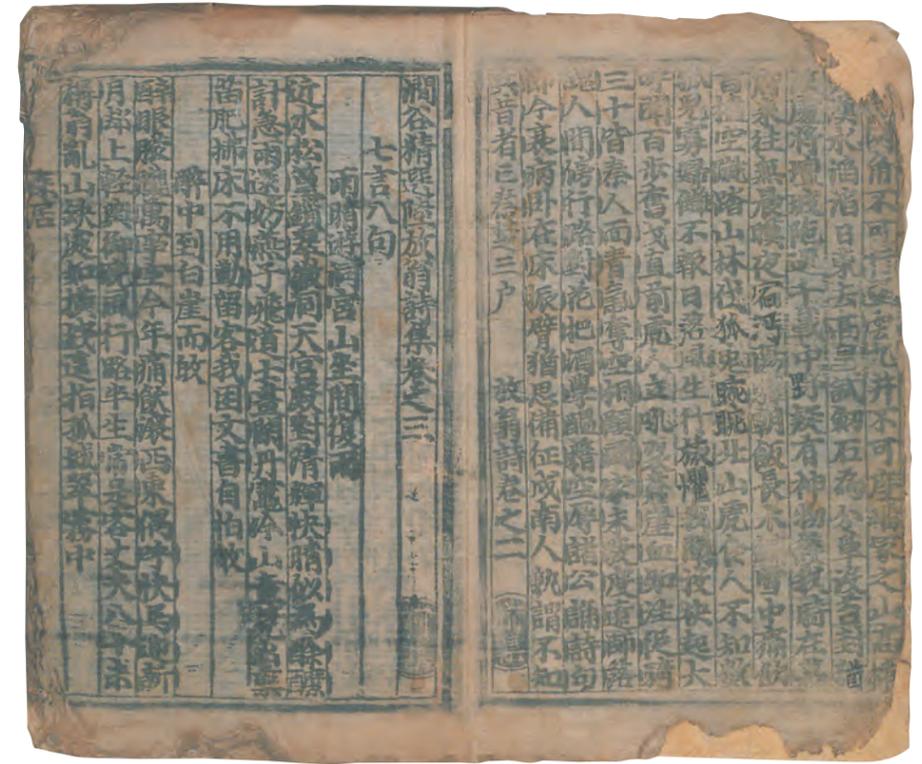
중국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1125~1210)의 시를 모은 것으로, 앞부분인 『전집前集』 권2 이전과 뒷부분인 『후집後集』 권6 이후가 없다.

육유의 자는 무관務觀, 호는 방옹放翁이며, 월주越州 산음山陰(지금의 강소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 사람이다. 음보陰補로 관직에 처음 나아갔으며, 효종孝宗이 즉위하고 난 후 특별히 진사進士를 하사받아 진강통판鎮江通判에 임명되었다. 송 건도乾道 6년(1170) 46세 때 촉蜀 지역으로 들어가 기주통판夔州通判, 사천선무사간판공사겸검법관四川宣撫使幹辦公事兼檢法官, 가주嘉州와 영주榮州의 섭지攝知 등을 역임하였다. 송 순희 5년(1178)에 촉을 떠나 잠시 고향에서 한거하였으며, 송 순희淳熙 13년(1186)에 엄주지부嚴州知府에 임명되었고, 이후 군기소감軍器少監, 예부낭중禮部郎中 등의 관직을 차례로 지냈다. 1190년에 ‘음풍농월吟風弄月’한다는 죄명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송 가정嘉定 3년(1210)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고향에서 지냈다. 많은 시 속에서 북벌北伐을 통해 금에 함락 당한 중원의 회복을 주장하고, 무사안일한 조정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우국적인 심사를 격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저서로는 『검남시고劍南詩稿』, 『위남문집渭南文集』, 『남당서南唐書』, 『입축기入蜀記』, 『노학암필기老學庵筆記』 등이 있다.

이 책의 구체적인 체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집』의 권1과 권2에는 5, 7언 고시가 실려 있으며, 권3에서 권8까지는 7언 율시가, 권9에는 7언 절구가, 마지막 권10에는 5언 절구가 실려 있다. 『후집』의 권1에서 권5까지는 5, 7언 고시가 실려 있으며, 권6에는 7언 율시가, 권7과 마지막 권8에는 7언 절구가 실려 있다. 본서는 전집 권2의 이전, 후집 권6의 이후가 결락되었다.

이 책은 그의 시집인 『검남시고』에서 일부분을 선집한 것으로서, 송대 나기羅椅와 유진옹劉辰翁이 선집한 것을 함께 묶은 것이다. 따라서 앞부분에 『명공묘선육방옹시집名公妙選陸放翁詩集』으로 이름이 되어 있다.(본서에는 없다.) 『전집』은 나기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간곡정선육방옹시집澗谷精選陸放翁詩集』이며, 『후집』은 유진옹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수계정선육방옹시집須溪精選陸放翁詩集』이다. 기록에 의하면 『간곡정선육방옹시집』과 『수계정선육방옹시집』은 원元대까지만 해도 전하고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이 책의 판본으로는 명 홍치弘治 10년(1497) 유경인劉景寅의 각본과 명 가정嘉靖 13년(1534) 황장黃漳의 각본이 있는데, 본서의 원본이 이 중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본서의 판심에 흑구黑口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까지 간행연대를 추산해 볼 수는 있으나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규장각본(想白 古貴 895.115-Y95y-v.1-4, 想白古895.115-Y95g-v.2/6)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규장각본의 마지막에는 성임成任(1421~1484)의 발문이 남아 있어서 판각경위를 알 수 있다. 이상을 볼 때, 본서는 원판本元版本에 근거하여 15세기 이후 다시 판각한 판본으로 짐작된다. 조선 전기에 나온 중국 남송의 시인 육유의 시집 선집으로 성임의 발문을 통해 원판본의 국내 판각 경위의 단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기현



도70-1 전집前集



도70-2 후집後集

71. 당백가시

唐百家詩

조선 1570년(선조 3) 31.0×19.8cm 건희 06245	<i>Dangbaekgasi</i> (One Hundred Poets of the Tang Dynasty) LKH 06245
---	---

명명의 주경朱警(생몰년 미상)이 당唐의 대표적 시인 100명을 선정하고 저자별로 시를 엮어 간행한 책이다.

주경은 자가 동우東愚, 화정현華亭縣 사람으로 자세한 사적은 알 수 없다. 그는 부친의 유지를 이어 받아 가장家藏 서적에서 당시를 모으고 여기에 서헌충徐獻忠(1469~1545)의 『당시품唐詩品』을 참작하여 본 책을 편찬, 1540년(가정嘉靖 19)에 간행했다. ‘시목詩目’ 후에 “선대인先大人이 당대 문예에 관심을 갖고 문장을 각별히 조예가 깊어 송대의 판각본을 수집하여 백가百家를 모았다. 친구 서백정徐伯廷(서헌충)이 『당시품唐詩品』 1권을 써서 장점을 보여주었기에 품목品目を 정리하고 구본舊本 외에 12가家를 넣어 보완하고 서군(서헌충)이 찬집한 것을 뒤에 추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왕안석王安石 또는 송민구宋敏求가 편찬했다고 전하는 『당백가시선唐百家詩選』과는 다른 책이다. 작가별로 초당初唐 21인, 성당盛唐 10인, 중당中唐 27인, 만당晚唐 42인 총 100명의 시를 184권으로 엮었으며 말미에 서헌충의 당시품唐詩品 1권을 덧붙였다. 본 책은 낱길로 장열집張說集 부분이 다. 장열(667~731)은 자가 도제道濟 또는 열지說之로, 일찍부터 문장으로 이름을 떨쳐 동궁교서東宮

校書, 봉각사인鳳閣舍人 등을 거쳤다. 현종玄宗 때 유주도독幽州都督,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 등을 담당했고 세 차례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다. 문장이 엄정하고 특히 비문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집으로 『장언공집張燕公集』 30권이 전한다. 본서는 장열의 문장 가운데 시만 뽑은 것으로 부賦 2수, 삼언고시三言古詩 59수, 칠언고시七言古詩 9수, 오언율시五言律詩 77수, 오언배율五言排律 57수, 칠언율시七言律詩 11수, 오언절구五言絶句 19수, 육언六言 2수, 칠언절구七言絶句 9수로 총 248수를 수록했다.

조선 선조 3년(1570) 교서관校書館에서 금속활자 갑진자甲辰字로 인쇄했다.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 따르면 같은 해 음력 9월 27일에 “교서관에서 당백가시 인쇄를 마쳤다. 먼저 15건을 진상하고 그 나머지는 국용國用으로 150권을 인쇄하여 그 중 10권을 문무루文武樓와 여러 관청諸館府曹에 나누어 두고 나머지 138건은 2품 이상의 종친宗親과 부마駙馬, 삼공三公, 1~2품관, 여섯 승지六承旨, 홍문관弘文館, 주서注書, 한림翰林, 대간臺諫 및 참의參議, 감사監司 등 통정通政 가운데 뛰어난 자들을 골라 반사했다.”고 한다. 일본 류코쿠대학도서관[龍谷大學圖書館]에 17책 완질이 있다. 류코쿠대학 소장본 제1책 속표지에는 내사기[“隆慶四年(1590)九月 日, 內賜平安道觀察使成世章唐百家詩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柳(花押)”]가 있어 『미암일기』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국내에는 완질본이 없으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도서관, 계명대학교동산도서관 등에 낱질이 있다. 본서는 『장열공집』에 수록된 시 대부분을 싣고 있어 장열의 시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岳州(약주)’를 ‘嶽州(약주)’로, ‘相州(상주)’를 ‘湘州(상주)’로, ‘同和八送兗公赴荊州(동화팔송연공부형주)’를 ‘同和人送兗公赴荊州(동화인송연공부형주)’로, ‘奉和聖製幸鳳泉湯應制(봉화성제행봉탕천응제)’를 ‘奉和聖製幸鳳湯泉應制(봉화성제행봉탕천응제)’로 쓰는 등 오자가 다수 있는데 저본의 착오인지 조판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 첫엽에 향로형 소장인 ‘天昊(천호?)’가 찍혀 있다. 명대明代 편찬된 당시唐詩 총서류叢書類 가운데 거질로 조선전기 당시唐詩에 대한 깊은 관심을 살펴 볼 수 있다. 이태희



도71-1 권수卷首



도71-2 본문本文

72. 보한재집

保閑齋集

조선 17세기 이후
26.6×17.8cm
건희 09226

Bohanjaejip(The Collection of Sin Sookju's Works)
LKH 09226

조선 초기 학자 신숙주申叔舟(1417~1475)의 시와 글을 엮어 만든 책이다. 이 책은 신숙주의 아들 신정申暹(?~1482)이 모아 편찬한 것을 성종 18년(1487) 왕명으로 교서관에서 간행하였다. 책이름 ‘보한재집保閑齋集’은 신숙주의 호인 보한재保閑齋를 따서 만든 것으로 ‘신숙주의 문집’을 뜻한다. 신숙주의 자는 범옹泛翁이고, 호는 보한재保閑齋 또는 희현당希賢堂이며,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신숙주는 세종 21년(1439) 친시문과親試文科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이후 집현전集賢殿 부수찬副修撰을 역임하였고, 세종 24년(1442) 서장관書狀官에 뽑혀 일본을 다녀왔다. 그는 성삼문成三問과 함께 요동遼東에 유배 중이던 명의 한림학사 황찬黃瓚을 13차례나 왕래하여 음운音韻에 관한 지식을 듣는 등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에 크게 공을 세웠다. 세조世祖가 즉위한 뒤,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병조판서兵曹判書·대사성大司成·좌·우의정左·右議政·영의정領議政 등을 역임하였다. 세조 6년(1460)에 강원·함길도의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세조실록世祖實錄』 등을 편찬했고 이외에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등의 저서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 책은 표지 제목이 ‘보한재집保閑齋集 리利’로 적혀 있어 4책 중 세 번째 책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권11부터 권15까지 수록되어 있다. 권11에는 칠언고시가 실려 있다. 이 시 중에는 일본의 승려에게 주는 시들이 있어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짐작케 하고 있다. 권12에는 「요해편遼海編」이 실려 있다. 이것은 명나라 사신 예겸倪謙이 조선에 왔을 때 함께 창수唱酬한 시집詩集으로 당시 조선과 명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때 함께 시를 주고받은 예겸倪謙·정인지鄭麟趾·성삼문成三問의 시詩도 포함되어 있다. 권13에는 세조 14년(1468)에 지은 가훈家訓 등이 실려 있다. 권14에는 기문記文, 권15에는 시권詩卷 등에 지은 서문序文이 실려 있다. 특히 권12의 「요해편」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봉사조선창화시권奉使朝鮮倡和詩券』(신수14149, 보물)의 내용과 겹쳐 있어 주목된다.

이 책은 모두 17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숙주의 아들 신정이 모아 편찬한 것을 성종 18년(1487) 왕이 교서관에 명하여 간행하였다. 현재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조 23년(1645)에 7세손 신숙申湏이 영주군수로 있을 때 교서관본 완질을 얻어 간행하였다. 이 책은 초간본을 번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조선 초기, 특히 세종·세조대에 학자 관료로 활약한 신숙주의 문집으로, 당시 정치사 및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신숙주가 일본에 사신단의 서장관으로 다녀온 점이나 명의 사신을 시로 주고받으면서 접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책에 나오는 일본 승려에게 준 시나 명나라 사신 예겸과 주고 받은 시들은 당시 조선과 명, 일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효종



도72-1 예겸倪謙의 시



도72-2 가훈家訓

73. 분류두공부시 언해

分類杜工部詩 諺解

조선 1481년(성종 12)
32.0×18.5cm
건희 10732

Bunryudugongbusieonhae(The Collection of Du Fu(杜甫)'s Poems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10732

성종 12년(1481)에 왕명에 따라 유윤겸(柳允謙(1420~?)) 등이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712~770))의 시를 언해하여 간행한 책으로, 금속활자본(울해자)이다. 언해의 대본은 중국 원나라 때 편찬된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로, 두보의 시 1,647편 전부와 다른 사람의 시 16편에 주석을 달고 풀이한 책이다. 권수제는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인데, 언해가 되어 있으므로 흔히 줄여서 ‘두시언해’라 부른다. 서명의 ‘분류(分類)’는 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데서, ‘두공부(杜工部)’는 두보가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의 벼슬을 한 데서 각각 유래한다. 총 25권 중 본서는 권12에 해당하며 권두의 2장이 결락되었다.

두보의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공부(工部)·노두(老杜)이다. ‘시성(詩聖)’으로 불리며,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꼽힌다. 44세에 안녹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된 지 1년 만에 탈출, 숙종(肅宗)의 행재소(行在所)에 달려갔으므로, 그 공에 의하여 좌승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관군이 장안을 회복하자 조정에서 출사(出仕)하였으나 1년 만에 화주(華州)의 지방관으로 좌천되었으며,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진주(秦州) 등을 거쳐 사천성(四川省)의 성도(成都)에 정착하여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지었다.



도72-2 가운(家訓)

이 무렵에 성도의 절도사 엄무(嚴武)의 막료(幕僚)로서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이로 인해 두공부(杜工部)라고 불리게 되었다. 편찬의 경위는 현재 전하는 중간본 권1 앞에 실려 전하는 조위(曹偉)의 서문에서 알 수 있다. 1481년 가을에 성종이 유윤겸 등에게 명하여 언해가 시작되었고, 책이 완성되자 조위에게 서문을 쓰도록 하였다 한다. 서문을 쓴 일자가 1481년 12월이므로 이때 언해본의 편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분량의 시 언해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세종대(世宗代)에서부터 두시에 대한 주해 작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분류두공부시언해』는 두보의 시 전체에 주석과 언해를 단 책이다. 본문의 체제는 대개 한시 원문을 2구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쌍행(雙行)으로 주석과 언해를 달았다. 한시 원문에는 구결을 달지 않았으며, 원문과 언해문의 모든 한자에도 한자음을 달지 않았는데, 이 점이 이 시기에 간행된 다른 언해 문헌들과의 차이점이다. 다만 주석에는 한글로 구결이 달려 있다. 당시의 구결서나 언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구결에는 방점을 표기하지 않았으나 주석에 국어 문장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은 방점 표기가 나타난다.

본서는 두시의 난해한 곳을 간단히 설명하고 시의(詩意)를 해석하여 제시하는 목적으로 간행되었기에 주석에 시의 창작 배경이나 시기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평점을 달지 않았다. 시의 해석도 시의 뜻을 문장으로 번역하는 데 그쳤으며, 시가 담고 있는 뜻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언해는 국한문(國漢文) 혼용이며, 한자에 한글로 독음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본서는 한글 창제 이후 최초의 시를 언해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많은 분량의 시를 단기간에 주석을 달고 언해한 점에서 당시 한시 공부와 한글 언해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시가 담고 있는 풍부한 어휘와 고풍(古風)의 문체 등은 국어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문헌일 뿐만 아니라, 한시 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15세기의 초간본과 17세기 중간본의 비교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의 언어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인 가치가 크다. 이기현



도72-2 우(雨)·야우(夜雨)

74. 양촌선생문집

陽村先生文集

조선 1674년(현종 14) 이전 추정
24.0×16.7cm
건희 06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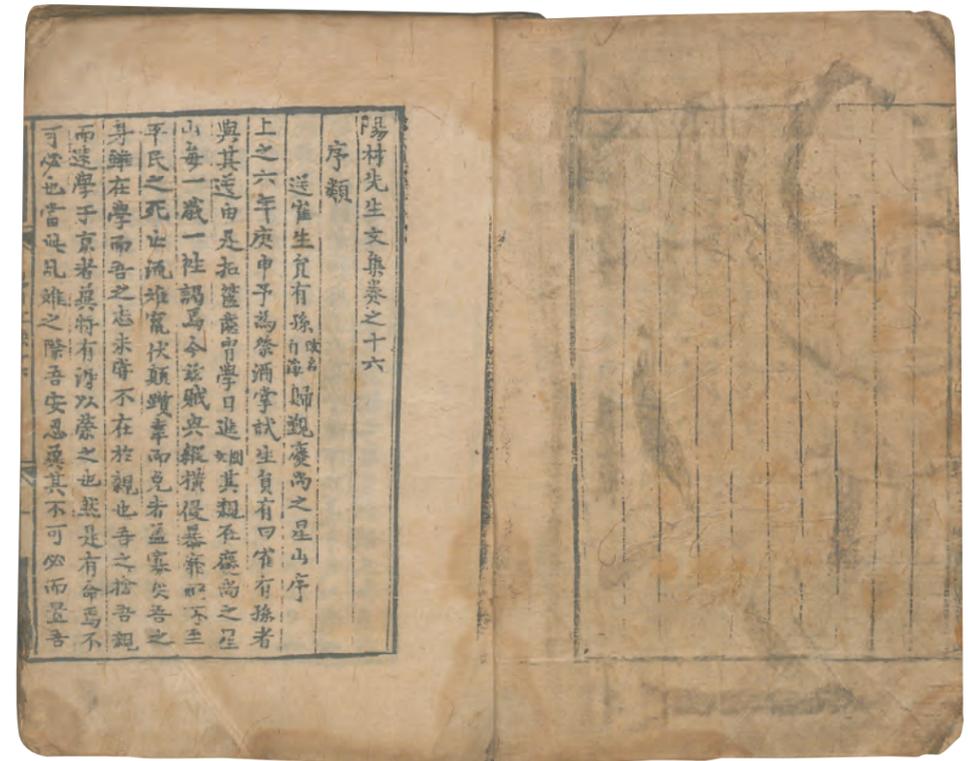
Yangchonseonsaengmunjip(The Collection of Gwon Guen's Works)
LKH 06332

고려말~조선초의 학자 권근(權近(1352~1409)의 시와 글을 엮어 만든 책이다. 이 책은 권근의 아들 권제(權繼(1387~1445)가 세종(世宗) 초에 처음으로 편찬 간행하였다. 책이름 ‘양촌선생문집(陽村先生文集)’은 권근의 호인 양촌(陽村)을 따서 만든 것으로 ‘권근의 문집’이라는 뜻이다.

권근의 자는 가원(可遠) 또는 사숙(思叔)이고, 호는 양촌·소오자(小烏子)이며, 처음 이름은 권진(權晉)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권근은 공민왕(恭愍王) 18년(136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조선 개국 이후에도 관직에 나와 태조 5년(1396) 명과의 외교 문제를 일으켰던 이른 바 표전문제(表箋問題)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정종 때 사병제도(私兵制度)의 혁파를 건의하는 등 정치적 업적을 남겼다. 학문적 업적으로는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 등이 있다. 이밖에 정도전의 척불문자(斥佛文字)인 『불씨잡변(佛氏雜辨)』 등에 주석을 더하기도 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전체 문집 중 권16~19에 해당하는 데 주로 서문(序文)이 실려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정삼봉도전문집서(鄭三峯道傳文集序)」, 「심기리삼편서(心氣理三篇序)」, 「심기리삼편후부서집서(心氣理三篇後附集序)」·「불씨잡변설서(佛氏雜辨說序)」·「향약제생집성방서(鄉藥濟生集成方序)」·「삼국사략서(三國史略序)」 등이 있다.

이 책은 본래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근의 아들 권제가 세종 초에 처음 편찬한 이래 세 가지 판본이 있다. 초각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고, 복각본은 현종 15년(1674) 경상도 진주에서 간행되었다. 또 숙종 44년(1718)에 복각본을 경상도 거창에서 복각하였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양촌집(奎7473-v.1-7)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현종 15년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고려말 조선초의 정치적·사상적 격변기 속에 학문적 성취를 이룬 권근의 문집으로, 이색의 『목은집(牧隱集)』, 정몽주(鄭夢周)의 『포은집(圃隱集)』, 이승인(李崇仁)의 『도은집(陶隱集)』, 정도전(鄭道傳)의 『삼봉집(三峯集)』 등과 함께 조선 초기 지성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서문 중에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국가를 만들어가는 당시 지식인의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효종



도74-1 권수卷首



도74-2 본문本文

75. 어제근팔유곤록

御製近八裕昆錄

조선 1769년(영조 45)
32.0×20.3cm
건희 08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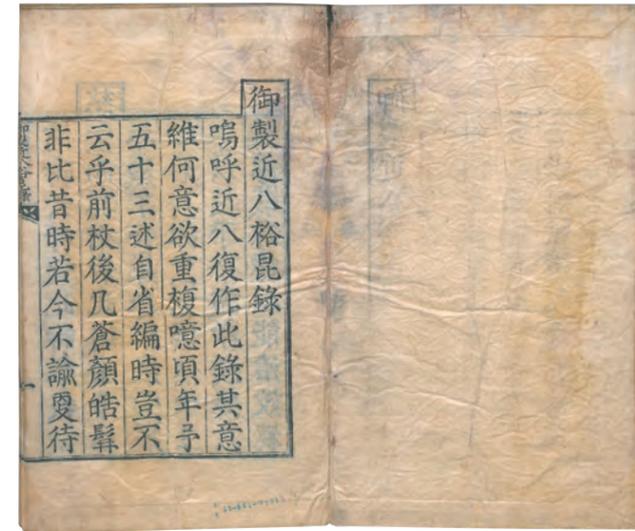
Eojequenpalryugonrok(The Book for Jeongjo(正祖))
written by King Yeongjo(英祖)
LKH 08714

영조英祖(재위 1724~1776)가 76세 되던 1769년(영조 46), 뒷날 정조正祖(재위 1776~1800)가 되는 세손世孫에게 가르침을 남기기 위해 지은 글로 만든 책이다. 영조 자신이 53세 때 『어제자성편御製自省篇』을 지은 지 23년이 지나,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옴을 느끼고 『어제자성편』에 짝하는 책을 만들어 세손에게 유시識示하고자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의 본문은 영조가 세손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치자治者が 수신修身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으며, 끝부분에는 잠箴을 두었는데 그 내용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 군왕君王의 마음가짐을 말한 것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일반적인 고서보다 유달리 글자 크기가 크다. 이는 임금이 세손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목적인 동시에 노년의 임금이 보기에 편하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책의 뒷면에는 ‘교서관간인敎書館刊印 규장각장판奎章閣藏板’이란 간기가 있다. 영조는 이 책을 짓고 목판을 조선시대 경전 인쇄 등을 맡았던 관청 교서관敎書館에서 만들어 인쇄한 뒤, 숙종肅宗(재위 1694~1720)이 왕실의 족보를 비롯한 왕실 관련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관청 규장각奎章閣에 그 목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이때 만든 목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임오화변壬午禍變 이후 영조와 세손을 둘러싼 정치적 동향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또한 종이나 장정 등이 18세기 왕실 출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판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서지학적 비교 연구 또한 가능하다. 강민경



도75-1 권수卷首



도75-2 본문本文



도75-3 간기刊記

76. 어제독서록

御製讀書錄

조선 1767년(영조 43)
34.0×21.0cm
건희 08717

Eojedokseorok(The Book Report written by King
Yeongjo(英祖))
LKH 08717

1767년,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英祖(재위 1724~1776)가 어릴 때부터 73세에 이르기까지 강독講讀한 책의 이름을 적고, 부편附篇에 소대召對할 당시 읽었던 책 이름을 적어 넣은 책으로 1권 1책이다. 영조는 이 책 맨 앞에 붙인 글에서, 자신이 젊었을 때 소대를 하면서 경사經史와 성현의 말을 많이 읽었는데 근자(1767년 언저리)에 들어 독서량이 적어진 것을 걱정해 이 책을 간인刊印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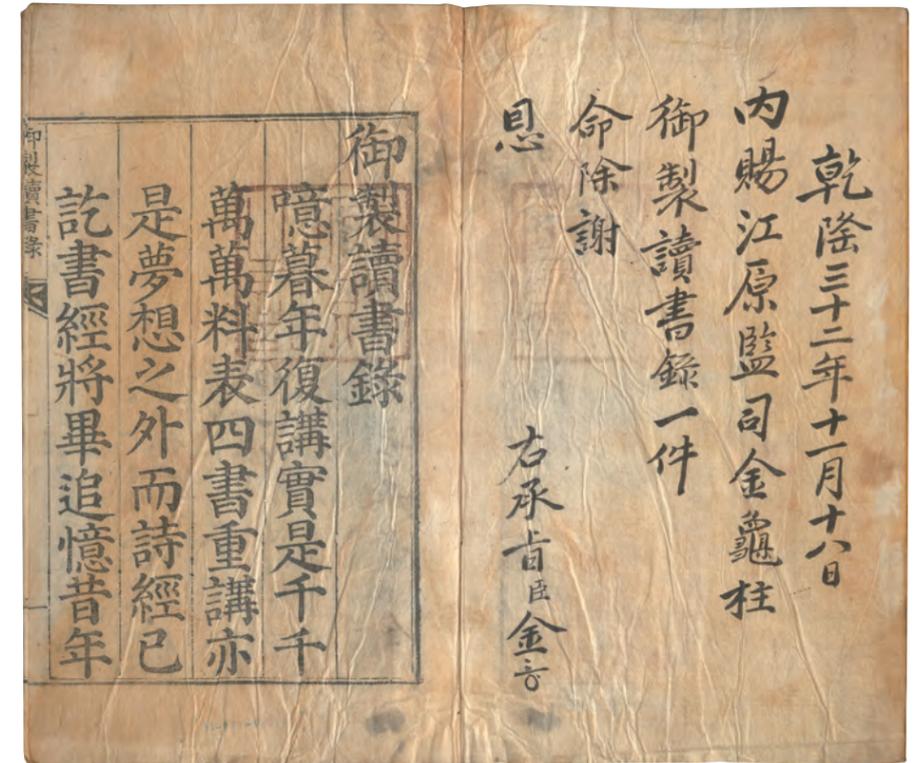
영조가 나이에 따라 자신이 읽고 강론한 책의 이름을 나열하는 식으로 전개된다. 이에 따르면 영조는 8세에 『효경孝經』을 읽은 것부터 시작해 『동몽선습童蒙先習』·『소학小學』·『대학大學』·『논어論語』·『서전書傳』 같은 경전과 『근사록近思錄』 등을 읽었으며, 73세에는 다시 『소학』을 읽었다. 그리고 소대 때는 『강목綱目』, 『자치통감資治通鑑』, 『여사제강麗史提綱』 등을 강론했다고 한다. 책의 내용이나 그를 평가하는 글은 따로 없고, 끝에는 교정에 참여한 김치인金致仁(1716~1790), 채제공蔡濟恭(1720~1799) 등의 명단이 붙어있다.

이 책은 글자 크기가 다른 고서에 비해 크다. 이는 『어제근팔유근록』처럼 영조 말기 왕실에서 발행한 서적의 특징 중 하나인데, 노년의 임금이 친람親覽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닐까 싶다. 간기가 없어 언제 어떻게 간행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어제근팔유근록』의 사례를 참조하면 도서관校書館에서 만들어 인출한 뒤, 규장각奎章閣에 목판을 보관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 책은 1767년 11월 18일 강원감사였던 김구주金龜柱(1740~1786)에게 영조가 하사하였다는 내사기內賜記와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내사인內賜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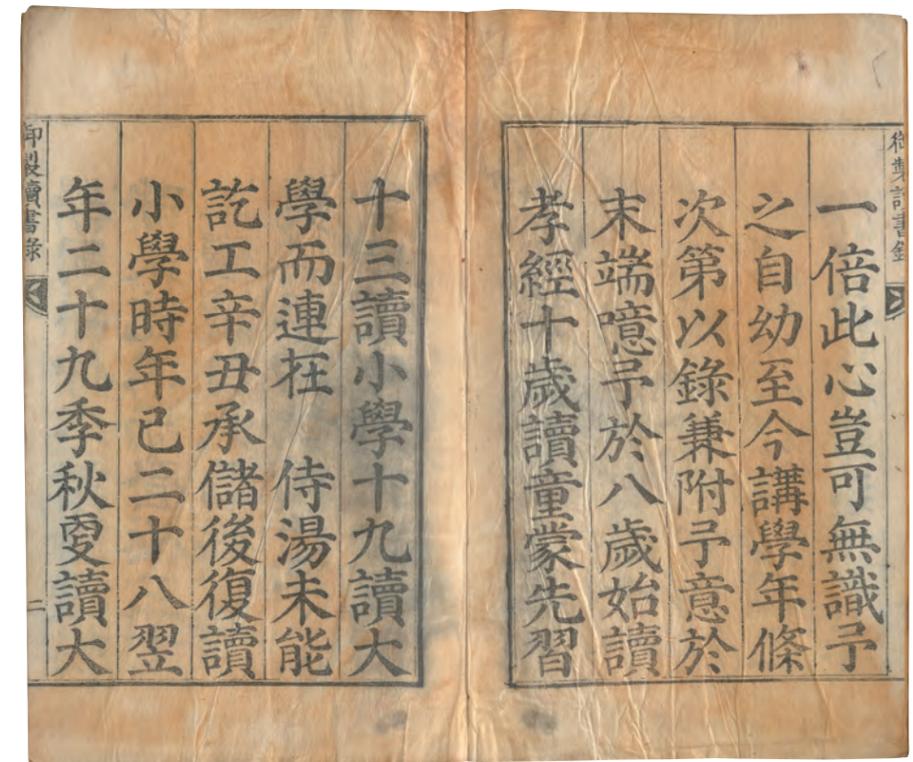
영조는 83세를 살면서 많은 양의 시문과 저작을 남겼다. 이 책은 비록 책 제목의 나열에 그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결여되어 있으나, 영조의 지적的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일단一端을 보여 준다. 또한 종이나 장정 등이 18세기 왕실 출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조의 처남인 김구주에게 하사된 내사본內賜本이라는 점이 그 가치를 더한다. 김구주는 정조 즉위 후 역적으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죽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강민경

내사기 번역

건륭 32년(1767) 11월 18일
강원감사 김구주에서 어제독서록 1권을 내사하니
은혜에 가사드리는 일은 제하도록 명하노라
우승지 신 김(아무개) [수결]



도76-1 내사기內賜記



도76-2 본문本文

77. 이재집

頤齋集

조선 18세기 후기~19세기 전기 추정
31.0×20.3cm
건희 09657

ljaejip(The Collection of Jo Woon's Works)
LKH 09657

조선 후기 문신으로 글씨, 음악, 시에 뛰어났던 조우인曹友仁(1561~1625)의 한시와 여러 글을 수록한 문집으로, 별도의 서문과 발문이 없어 간행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조우인은 본관은 창녕이며 자는 여익汝益, 호는 매호梅湖, 이재頤齋이다. 1605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13년(1621)에는 광해군의 잘못을 풍자한 글로 3년간 옥에 갇혔으며 인조가 등극한 이후 경상도 상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글씨, 음악, 시에 두루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평가받았으며, 가사집인 『이재영언頤齋詠言』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조우인의 시와 여러 글을 모아 간행한 목판본으로 전체 2권 2책 중 1권 1책이 남아 있으며, 권2에 해당한다.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행시기와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내용은 권1에 시 355수가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소疏 2편, 묘갈명 1편, 서書 2편, 기記 5편, 설說 1편, 서序 3편, 지志 1편, 잡저 4편, 인引 2편, 제문 1편, 부賦 5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서 ‘소’ 항목에는 천재지변의 변고에 대한 대책을 상소한 ‘구언소求言疏’, 문경에 방어 요새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대인문경청설관방소代人聞慶請設關防疏’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노산군과 연산군의 후손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는 등 당대 정치와 관련된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서는 서문 및 발문이 없고 간행에 대한 별도의 기록도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시기에 제작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형태서지적인 면만을 보았을 경우 18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면밀한 간행 경위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문은 전표지가 결락되어 있으며 권수면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에 별도의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서는 조선 후기 관료이자 시인이었던 조우인의 시와 상소 등의 문장을 수록한 문집이다. 제작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권1에 수록된 355수의 한시는 조우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며, 권2의 여러 상소와 서간문은 당대 정치와 지성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대영



도77-1 대인문경청설관방소代人聞慶請設關防疏



도77-2 반송설蟠松說

78. 임궽주백가의시집

林祭酒百家衣詩集

고려 1225(고종 12) 또는 조선 1440년(세종 22) 추정
26.5×18.6cm
건희 06365

Imjwaejubaeggaisijip(The Collection of Poems
edited by Im Yoojeong)
LKH 06365

고려 시대 임유정林惟正(1159?~1214?)이 간행한 책으로 중국 등 이전의 시구들을 모아 시를 짓는 집구시 형식의 시집이다. 5언절구(95수), 7언율시(79수), 7언절구(115수) 총 289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편찬자인 임유정은 고려 고종 연간에 활동한 관료로 종3품에 해당하는 국자감 궈주祭酒의 벼슬을 하였기에 책의 서명에 자신의 벼슬을 궈주로 표기하였다. 3권 1책으로 구성된 이 책은 ‘백가의 집’으로도 불리며 임유정이 기존에 있던 시의 시구를 새로 엮어 운율 등을 맞추어 편찬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초간본은 고려 시대 임유정의 사후 그의 원고를 수습하여 간행하였다고 하며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22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학계의 연구결과를 통해 알려져 있다. 본서는 3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문의 권수와 권말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따라서 서문, 발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초간본과 중간본이 학계에 알려져 있으며 중간본은 1440년에 간행한 것으로 서발문이 초간본과 다르다. 본문의 구성은 권1은 5언절구(95수), 권2는 7언율시(79수), 권3은 7언절구(115수)로 289수의 시를 운율에 따라 정교하게 배치하였다.

본서는 한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집구시집으로 1994년 허흥식의 연구를 통해 개인 소장본이 최초로 학계에 소개된 자료이다. 현존하는 자료 또한 총 3종의 소장현황이 알려져 있으며 조선 전기 중간본이 아닌 고려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존재한다. 서문과 발문이 결실된 본서는 중간본과 초간본 중 어떠한 판본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내용 및 교감작업이 향후 요구된다. 일부 결실이 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인쇄가 고르고 뚜렷하여 후쇄본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본문에는 소장자의 필적으로 추정되는 비점과 함께 권두에 시의 운 등이 필사되어 있다.

본서는 학계에 알려진 고려 시대에 편찬된 집구시집으로 한시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기존에 3종이 소장된 것으로 학계에 알려진 동일본 가운데 초간본과 중간본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제작 시기의 비정을 명확히 하게 된다면 인쇄문화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대영



도78-1 춘흥春興 등



도78-2 춘일우서春日偶書 등

79. 주문공교창려선생집

朱文公校昌黎先生集

조선 1610년(광해군 2) 32.8×21.1cm 건희 09759	<i>Jumungonggyochangryeoseonsaengjip</i> (The Collection of Han Yu(韓愈)'s Works) LKH 09759
--	---

중국 당나라 한유(韓愈(768~824)의 시문집詩文集인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을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1130~1200)가 고이(考異)한 책으로, 광해군 2년(1610) 훈련도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원집 40권, 외집 10권으로 총 50권 중 본서는 권15~17에 해당한다.

한유의 자는 퇴지(退之),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그의 선조가 창려(昌黎)땅에 거하였기 때문에 창려백(昌黎伯)에 추봉(追封)되었다. 정원(貞元) 8년(792)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정원 19년(803)에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임명되었는데 궁시(宮市)의 폐단을 알리는 상소를 올려 양산령(陽山令)으로 좌천되었다. 헌종(獻宗) 원화(元和) 12년(817)에 배도(喪度)를 따라 회(淮)를 평정하여 형부시랑(刑部侍郎)으로 승진하였다. 이 때 헌종이 봉상(鳳翔)에서 불골(佛骨)을 궁으로 들이는 일에 대해 반대하는 「불골표(佛骨表)」를 올려 다시 조주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되었다. 목종(穆宗) 때 국자감(國子監)주(酒)가 되었고 병부(兵部), 이조시랑(吏部侍郎)이 되었다. 그의 학문은 육경백가(六經百家)에 관통하여 육조(六朝)이래의 문풍을 반대하여 문필(文筆)이 웅건(雄健)하고 기세(氣勢)가 방박(磅礴)할 것을 제창하여 후세의 고문가로부터 숭앙받았다. 저술로는 『창려선생집昌黎先生集』 40권과 『외집外集』 10권이 전하며, 또 『유문(遺文)』 1권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창려선생집』은 원래 한유의 문인인 이한(李漢)이 40권으로 엮은 문집으로, 외집과 실록(實錄) 외에는 모두 위작이라고 의심되어 왔다. 송대에 이르러 방송경(方崧卿(1135~1194)이 『한집거정(韓集舉正)』을 지으면서 내용의 오류를 고쳐 교정하면서, 다시 문집과 외집, 부록(附錄), 연보(年譜) 등으로 나누어 간행하였다. 이어서 주희도 고이(考異)를 지어 위작 여부를 밝혔는데, 주희가 고이를 편찬한 이후로는 이한이 편집하였던 『창려선생집』은 원본의 자리를 잃게 되고 주자의 고이본(考異本)



도79-1 권수卷首

이 한유의 문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광해군 2년(1610)에 훈련도감에서 이 문집을 간행하게 된 경위를 밝힌 이항복(李恒福)의 「발문(跋文)」에서 임진왜란이 끝난 후 훈련도감의 둔전(屯田) 경영이 어려웠던 때에 군졸들을 동원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의 필체를 본뜬 목활자를 만들고 책을 인쇄하여 파는 방법으로 군비를 충당하였던 사정과 이로써 소실된 서적들을 보충할 수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문집의 구성 내용은 원집의 권1~권10에 부(賦) 4수를 비롯하여 고시(古詩), 연구(聯句), 율시(律詩)를 수록하였다. 제11~40권에는 여러 종류의 글을 문체별로 수록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11~권14는 잡저(雜著), 권14~권15는 서(書), 권15에는 계(啓), 권16~권21은 서(序), 권22는 애사제문(哀辭祭文), 권23에는 제문(祭文)이 수록되었다. 권24~권35는 비지(碑誌)가 실려 있다. 권36는 잡문(雜文), 권37은 장(狀), 권38, 권39는 표문(表文), 권40은 표장(表狀)이 실렸다. 외집(外集)의 권1에는 시와 의(議), 권2는 서(書), 권3은 서(序), 권4는 해(解), 권5는 제(制) 최(崔)호(戶)부(部)주(州)제(制) 등 7편이 수록되었다. 권6~10은 한유가 찬한 『순종실록(順宗實錄)』 5권을 실은 것이다. 권말에는 이항복(李恒福)의 발문이 있고, 간행에 참여한 김수(金睟), 이정(李廷龜), 정석(鄭錫湖)의 이름과 각수(刻手)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은 중국에서도 가장 성행하였던 판본으로 주희(朱熹)가 교정을 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조선본의 편명(篇名)이나 정문(正文)은 중국본과 같지만 주석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조선본의 주석은 『한문고(韓文考異)』와 『오백가주음변창려선생집(五百家註音辨昌黎先生集)』의 주석 대부분을 싣고 있으므로 어느 중국본 한창려집보다도 자세하다. 게다가 어떤 주석은 지금 남아 전하는 여러 판본에는 없는 것도 실려 있다. 조선본은 주희의 『한문고(韓文)』와 위중거(魏仲舉)의 『오백가주본(五百家注本)』을 검하여 취하고 있어서 한유의 글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가장 좋은 판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세종 20년(1438)에 왕명에 따라 이 책이 활자 간행된 바 있으며, 1610년(광해군 2)에 훈련도감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본서는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경오자체(庚午字體)로 인출한 목활자본이다.

『주문공교창려선생집』은 당시에 간행된 『창려선생집』 중 가장 자세하고 상세하게 한유의 시문을 풀이한 주석서로 조선시대 문인들의 한유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본서를 저본으로 한 목판본이 각 도서관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만큼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되었던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간행된 한유 시문집에서 조선시대에 중국 문학이 수용되고 유통되는 양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기현



도79-2 본문本文

80. 증간교정왕장원집주분류동파선생집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集

조선 전기 33.1×21.0cm 건희 10499	The Collection of <i>Su Shi</i> (蘇軾)'s Poems LKH 10499
----------------------------------	---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식蘇軾(1036~1101)의 시를 모아 송나라 장원狀元 왕십봉王十朋(1112~1171)이 분류하고 집주하여 편찬한 것을 조선 전기에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로 인출한 시집으로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2권 1책으로 낙질이다.

소식의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東坡,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의 부친 소순蘇洵과 동생 소철蘇轍과 함께 이른바 ‘3소三蘇’라고 일컬어지며, 이들 부자는 당송8대가唐宋八大家에 속하는 중국의 유명한 문인이다. 송宋 가우嘉祐 2년(1057)에 진사進士가 되어 관직에 올랐지만, 왕안석王安石이 신법新法을 제창提唱하자 이에 반대하여 그 부당함을 극력 상소하다가 항주杭州·호주湖州·황주黃州·혜주惠州·경주瓊州 등지로 밀려다녔다. 황주黃州에서 동파東坡에 집을 짓고 동파거사東坡居士라 자호自號했다. 그의 저술은 『동파집東坡集』 40권, 『동파후집東坡後集』 20권, 『주의奏議』, 『내제집內制集』, 『외제집外制集』, 『응조집應詔集』, 『속집續集』이 있으며 모두 합치면 100권이 넘는다. 그의 저술은 후에 여러 차례 재편되어 전집본全集本, 분류주분分類注本, 편년주분編年注本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책은 대부분이 분류주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이 책이 전래된 이래 세종 연간에 초주갑인자로 간인되었으며, 곧이어 이를 번각한 목판본이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바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연간에 훈련도감에서 목각木刻한 목활자로 간행하였고, 그 후 이 훈련도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목판본이 우리나라에 유통되었다. 본서는 ‘분류주분’에 해당되는 초주갑인자본으로, 이는 송나라 왕십봉王十朋이 집주 분류한 25권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전체 25권 중 본서는 권11, 권 12에 해당한다.



도80-1 권11



도80-2 권12



도80-3 권말卷末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권수에는 왕십봉 등의 서문序文과 목록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1에는 기행紀行, 권2 술회述懷, 영사詠史, 회고懷古, 고적古跡, 시사時事, 권3은 궁전宮殿, 성우省宇, 능묘陵廟, 분영墳塋, 거실居室, 당우堂宇, 권4는 성곽城郭, 벽오壁塢, 전포田圃, 종족宗族, 부녀婦女, 선도仙道, 석노상釋老上, 권5는 석노하釋老下, 사관寺觀, 권6은 탑塔, 절서節序, 몽夢, 월月, 권7은 우설雨雪, 풍뢰風雷, 산악山岳, 권8은 강하江河, 호湖, 천석泉石, 계담溪潭, 권9는 지소池沼, 주즙舟楫, 교량橋梁, 누각樓閣, 정사亭榭, 권10은 원림園林, 과실果實, 연음상燕飲上, 권11은 연음하燕飲下, 시선試選, 서화상書畫上, 권12는 서화하書畫下, 필묵筆墨, 연硯, 음악音樂, 권13은 기용器用, 등촉燈燭, 식물食物, 주酒, 다茶, 금禽, 수獸, 충蟲, 어魚, 죽竹, 목木, 권14는 화花, 채菜, 균심菌草, 권15는 투증投贈, 희증戲贈, 권16은 간기簡寄, 회구상懷舊上, 권17은 회구하懷舊下, 심방尋訪, 수답상酬答上, 권18은 수답중酬答中, 권19는 수답하酬答下, 권20은 혜황惠貺, 송별상送別上, 권21은 송별중送別中, 권22는 송별하送別下, 유별留別, 경하慶賀, 권23은 유상遊賞, 사렵射獵, 제영상題詠上, 권24는 제영하題詠下, 의약醫藥, 복상卜相, 상도傷悼, 절구絶句, 가歌, 행行, 권25는 잡부雜賦가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이 중 권11, 권12에 해당한다.

본서는 조선 세종 때 주조한 초주갑인자로 간인한 금속활자본이다. 권11의 권두에는 낙장落張이 있으며, 권12의 권두서명은 ‘증간교정왕장원집주분류동파선생시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東坡先生詩’이며, 다음 행의 저자표시에는 ‘노릉수계류신옹비점盧陵須溪劉辰翁批點’이 기입되어 있다. 이 책의 찬자는 서문을 쓴 장원 왕십봉이 찬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서명상에도 ‘장원집주분류狀元集註分類’로 기재되어 있어 왕십봉이 찬집하고 유진용이 비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판면에는 계선이 분명하게 보이고, 소자는 두 행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어미가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활자본임을 알 수 있다. 자체字體는 초주갑인자본이 위부인자를 자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습사한 왕희지의 서풍을 방불케 하는 단아 유려한 해서체이다.

이 책은 중국 당송팔대가의 한 명인 소식의 시를 모아 왕십봉이 분류하고 집주하여 편찬한 시집으로 조선 전기에 교서관에서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금속활자본이다. 조선시대의 초주갑인자본을 비롯하여 이를 복각한 목판본 등 여러 판종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부터 널리 식자층에서 널리 읽힌 책이며, 한문학과 인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기현

81. 진산세고

晉山世稿

조선 15세기 이후 26.5×17.0cm 건희 10512	Jinsansego(Collected Works of the Three Generation of Jinsan) LKH 10512
---------------------------------------	--

강희맹姜希孟(1424~1483)이 조부 강희백姜淮伯, 부친 강석덕姜碩德, 형 강희안姜希顔의 글을 모아 4권으로 엮은 시문집이다. 이 책 권4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예서라고 하는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실려 있다.

강희맹의 본관은 진주,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 운송거사雲松居士, 국오菊塢, 만송강萬松岡,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어머니는 영의정 심온沈溫의 딸이다. 강희맹의 이모가 세종의 비 소헌왕후이다. 세종 29년(1447) 장원급제한 뒤 성종 때까지 주요 관직을 거쳐 병조판서, 이조판서, 좌찬성 등을 역임했다. 당대 뛰어난 문장가로 사대부이면서도 주변에서 채집한 농요를 모아 정리한 『농구십사장農誦十四章』을 편찬하였다. 이 글은 농정의 실상을 잘 묘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 3등에 책봉되어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진 것에 연유하여 책 이름을 ‘진산세고’라고 하였다.

본서는 1476년(성종 7) 강희맹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1은 강희맹의 할아버지 강희백의 문집 「통정집通亭集」이다. 강희맹이 쓴 강희백의 행장 1편이 있고 그의 시를 실었다. 권2는 강희맹의 아버지 강석덕의 문집 「완역재玩易齋集」로, 강희맹이 쓴 강석덕의 행장 1편이 있고 본문에 그의 시와 만장, 발문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은 강희맹의 형 강희안의 문집 「인재집仁齋集」으로, 김

수녕金壽寧이 쓴 강희안의 행장 1편이 있고, 본문에 강희안의 시와 글을 수록하였다. 권4는 강희안이 쓴 「양화소록養花小錄」이 있다. 「양화소록」은 조선 전기 시와 글씨와 그림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로 불린 강희안이 손수 화초를 기르면서 알게 된 꽃과 나무의 특성, 품종 재배법을 정리한 기록이다.

본서의 첫머리에는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정창손鄭昌孫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는 김종직金宗直, 서거정徐居正 등 5편의 발문이 실려 있다. 강희맹이 1473년에 세고를 편집하여 함양군수로 있는 김종직에게 부탁하여 함양에서 개판하였으며, 이듬해에 강희맹이 쓴 「양화소록서養花小錄序」가 추가되었고 1476년 책판을 진주로 옮기면서 다시 강희맹이 쓴 「진산세고이진목발晉山世稿移晉牧跋」과 서거정의 「진산세고발晉山世稿跋」이 추가되어 간행되었다. 박영돈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진산세고』는 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본 판본은 앞뒤가 모두 없어 언제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판본 책머리 부분의 신숙주 서문은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중간부터 시작되었고, 최항과 정창손의 서문이 있다. 권1에는 강희백의 행장과 그의 시 93수, 권2에는 강석덕의 행장과 그의 시 42수, 「해동석비원사시집서海東釋禪垣師詩集序」 등의 불교 관련 글, 권3에는 강희안의 행장과 그의 글이 실려 있는데 그의 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권4에는 「양화소록」이 실려 있는데 끝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김종직, 서거정 등의 발문도 없다.

본서는 15세기에 처음 편찬된 책으로 조선시대 조상들의 시문집을 엮은 세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영의정을 지낸 신숙주, 최항, 정창손이 서문을 썼고 관료이자 뛰어난 문장가였던 김종직, 서거정 등이 발문을 썼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 고려말~조선 초에 살았던 강희백의 글은 당시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강석덕의 시문 중 「제몽도원도시권夢桃源圖詩卷」과 「청산백운도사靑山白雲圖辭」는 조선 전기 회화 가운데 대표 작품인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권4에 실린 「양화소록」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원예서이며, 『진산세고』의 간행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강희안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선비화가로서 화초에 관하여 쓴 책은 더욱 귀하다고 할 수 있다. 서윤희



도81-1 권1



도81-2 권2



도81-3 권3



도81-4 권4

82. 초사후어

楚辭後語

조선 전기 27.0×18.7cm 건희 06397	<i>Chosahueo</i> (Chuci Houyu) LKH 06397
----------------------------------	---

이 책은 남송南宋의 학자 주희朱熹(1130~1200)가 풀이를 달아 엮은 『초사楚辭』 주석서의 일부이다. 『초사』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 초楚나라 시인 굴원屈原(B.C.343~277)이 지은 부賦 25편과 굴원의 제자 및 한대漢代 문인들이 굴원의 문체를 본뜨거나 그의 행적을 주세로 읊은 시문을 합해 만든 문학 선집이다.

굴원은 이름이 평平이며 초나라의 방계 왕족으로, 초 회왕懷王 때 삼려대부三闾大夫가 되었으나 간신의 모함을 받아 추방된다. 이에 원통한 심정을 시로 노래하며 강남 일대를 떠돌아다니다가 돌을 꺼안고 먹라수汨羅水에 빠져 죽고 만다. 이후 그의 작품과 그 제자들의 작품을 모아 전한前漢의 유향劉向(B.C.77~6)이 처음 『초사』 16권을 편찬하였다. 이후 몇 편의 주석서가 나왔는데, 이 책은 주희가 기존의 『초사』에서 빠진 부분과 역대 학자의 주석을 집대성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오류를 정정한 집주集注 3부작(『초사집주楚辭集注』, 『초사후어楚辭後語』, 『초사변증楚辭辨證』) 중 『초사후어』 부분이다. 『초사후어』는 조보지晁補之(1053~1110)가 집록輯錄해 만든 『속초사續楚辭』, 『변이소變離騷』 두 책에 실린 작품 52편을 엮은 것이다.

『초사후어』는 6권 1책으로, 각 권에 수록된 작품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권1은 <성상成相> · <괘시侷詩> · <역수가易水歌> · <월인가越人歌> · <해하장중가垓下帳中歌> · <대풍가大風歌> · <홍곡가鴻鶴歌> 이상 7편, 권2에는 <조굴원부弔屈原賦> · <복부服賦> · <호자가狐子歌> · <추풍사秋風辭> · <오손공주가烏孫公主歌> · <장문부長門賦> · <조이세부弔二世賦> · <자도부自悼賦> · <반이소反離騷> 이상 9편, 권3은 <절명사絕命詞> · <사현부思玄賦> · <비분시悲憤詩> · <호가胡笳> 이상 4편, 권4에는 <등루부登樓賦> · <귀거래사歸去來辭> · <명고가鳴皋歌> · <인극引極> · <산중인山中人> · <망중남望終南> · <어산영송신魚山迎送神> · <일만日晩> · <복지부復志賦> · <민기부閔己賦> · <별지부別知賦> · <송풍백訟風伯> · <조전횡弔田橫> · <향라지享羅池> · <금조琴操> 이상 15편, 권5는 <초해고招海賈> · <징구부懲咎賦> · <민생부閔生賦> · <몽귀부夢歸賦> · <조굴원弔屈原> · <조악의弔樂毅> · <걸교문乞巧文> · <승왕손憎王孫> 이상 8편, 권6에는 <유회幽懷> · <서산석書山石> · <기채씨녀寄蔡氏女> · <복호마부服胡麻賦> · <훼벽毀璧> · <추풍삼첩秋風三疊> · <국가鞞歌> · <의초擬招> 이상 8편이다. 이는 굴원 이후의 문학작품 중 굴원의 작품을 본떠서 자신의 뜻을 펼친 글, 그 외에도 명문名文으로 꼽히거나 굴원의 글과 비슷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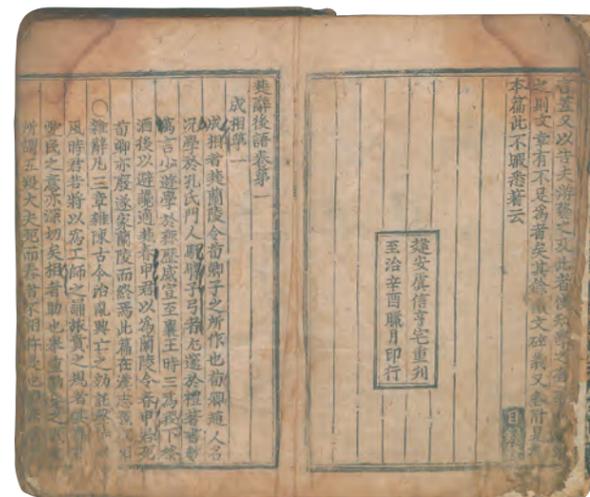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 이래 유독 주희가 집주한 『초사집주』가 널리 유행하였는데, 이는 성리학 수용의 영향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종류의 조선 목판본과 활자본이 전해지지만, 모두 주희의 집주본이며 목차나 내용 또한 거의 동일하다. 이 『초사후어』도 마찬가지인데, 서문 뒤쪽에 ‘건안우신형택중간建安虞信亨宅重刊 지치신유납월인행至治辛酉臘月印行’이라는 목기木記가 있다. 이는 이 책이 중국 원대元代인 1321년(원 영종 원년) 설달 건안建安에서 간행되었다는 의미이다. 건안은 지금의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있던 도시 이름으로 송대 이래 도서 출판이 융성했던 지역이다. 책의 판심版心 위아래로 흑구黑口가 존재하는 등 원판元版의 특징이 부분적으로 엿보이기도 하지만, 이

책 자체는 종이 질이나 인쇄상태로 보아 원대의 판본이 아니라 조선 초기에 번각翻刻해 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개인 소장본 『초사후어』가 주목된다. 이는 『초사후어』와 『초사변증』을 합간合刊한 것으로, 후어 서문 뒤에 역시 “건안우신형택중간 지치신유납월인행建安虞信亨宅重刊 至治辛酉臘月印行”이라는 목기가 있다. 그러나 1454년(단종 2) 밀양에서 간행했다는 간기와 간행자 명단이 변증 말미에 덧붙여있다. 이인영(李仁榮, 1911~?)이 지은 『청분실서목淸芬室書目』에 따르면 이 밀양 간행본 『초사후어』는 1420년(세종 3) 주조한 경자자庚子字로 찍은 간본의 번각본이다. 경자자본은 『세종실록』에 1428년(세종 10)~1429년(세종 11) 사이에 인쇄된 것으로 전하며,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에 영본零本 1책이 전한다. 경자자본 · 밀양 간행본 『초사후어』와 이 책을 비교해 보면, 판의 형식이나 서체가 여기 소개하는 『초사후어』와 거의 같다. 그뿐만 아니라 밀양 간행본과는 글자나 패선界線의 떨어져 나간 부분이 거의 일치해서 동일한 판목으로 인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밀양 간행본 『초사후어』가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경북 성주 개인(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숙명여자대학교, 일본 국회도서관 등에 전하고 있어, 여러 차례 인쇄했던 판본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이 『초사후어』는 비교적 서체의 날렵함이 살아있으므로, 목판의 마모가 일어나기 전 인쇄한 선본善本이다. 참고로 1321년 건안 간행본을 그대로 번각한 판본도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 화산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첫 장의 반쪽이 없어서 필사로 보충했고, 표지가 갈렸다. 표지 오른쪽에 ‘경인庚寅 월月 일日 수修’라고 적혀있는데, 어느 시기의 경인년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초사후어』는 여말선초麗末鮮初 외국과의 서적교류와 내부 유포의 양상을 보여준다. 또 경자자본의 직접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조선 지식인이 중국 문학을 익히는 과정에서 어떤 판본을 주로 접하고 수용하였는지를 알려준다. 임진왜란 이후 간행된 훈련도감자본訓練都監字本 『초사집주』(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中 2171)에도 후어 부분의 서문 뒤에 앞에 소개한 목기와 같은 글이 자리하고 있어, 조선에서 『초사집주』의 원대 판본, 정확히는 그를 바탕으로 한 조선 간행본을 오래도록 『초사』의 정본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강민경



도82-1 권수卷首



도82-2 본문本文

83. 춘정선생문집

春亭先生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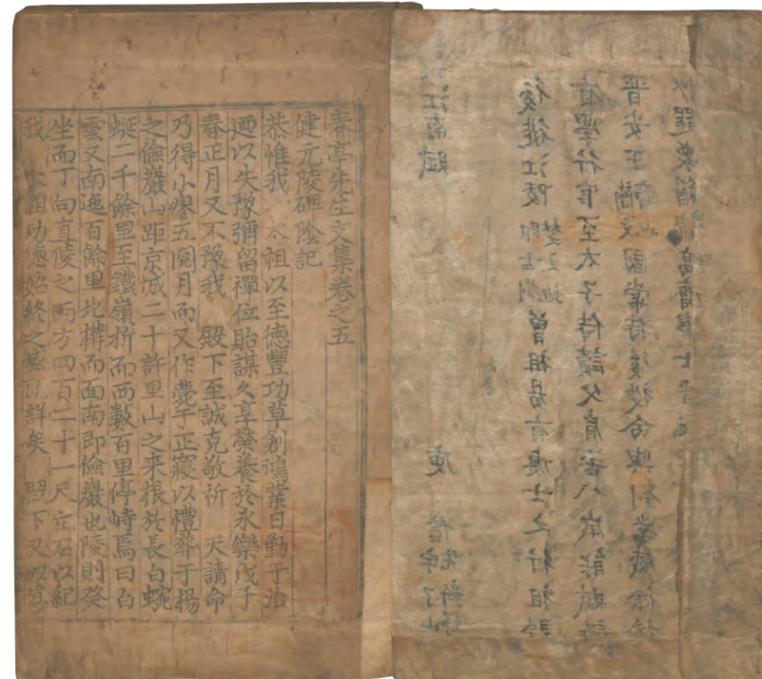
조선 1442년(세종 24) 추정
29.5×18.4cm
건희 10504

Chunjeongseonsaengmunjip(The Collection of Byun Gyeryang's Works)
LKH 10504

변계량(下季良(1369~1430)의 시문집詩文集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저자의 문인 정척(鄭陟(1390~1475)이 유고를 수습하여 편집하고, 같은 문인인 권맹손(權孟孫(1390~1456)이 세종에게 청하여 1442년(세종 24) 밀양에서 간행하였다.

변계량의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 시호(諡號)는 문숙(文肅)이며 밀양(密陽) 사람이다.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이숭인(李崇仁), 권근(權近) 등에게 배웠다. 조선 태종 7년(1407)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예문관(藝文館)대제학(大提學), 성균대사(成均大司成), 의정부(議政府)참찬(參贊), 집현전(集賢殿)대제학(大提學) 등을 지냈다. 변계량의 건의로 집현전(集賢殿)이 설치되었고 초대(初代)의 대제학(大提學)이 되었다. 그는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2대(二代) 20여 년간 문형(文衡)을 맡아 당시의 외교(外交)문장은 모두 변계량의 손에서 나왔다.

편찬경위는 본서 초간본에 붙인 권제(權題)와 안지(安止)의 봉교찬(奉教撰) 서, 발문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정섭이 변계량의 시집을 편집한 것을 세종의 명에 의해 집현전에서 유의손(柳義孫)·김서진(金瑞陳)이 수교(讎校)하여 선사(繕寫)한 뒤에 경상감사 권맹손(權孟孫)이 밀양에서 처음 간행하였다. 그 간역(刊役)은 관찰사의 지휘 아래 도사(都事) 권지(權枝)가 돕고, 밀양도호부사 겸 권농병마단련부사 안질(安質



도83-1 권수卷首

이 주관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서 밀양도호부 유학 교수관 공종주(孔宗周)가 그 간역을 돕고, 성균관 유학 박학문(朴學問)과 박정지(朴楨之)가 교정을 맡아보았으며, 이영춘(李英春) 등 45인의 각수가 판각을 분담하였다. 본서는 총 13권 5책 중 1책으로 권5~7에 해당한다. 그 후 초간본이 거의 유실되자 순조 25년(1825)에 저자를 배향한 거창의 병암서원에서 중간본을 간행했는데, 초간본의 불교와 도교와 관련된 글을 대폭 산삭하여 간행하였다.

문집의 구성 내용은 원집(原集)에는 권1~4에 사(辭) 2수를 비롯하여 오언고시, 칠언고시,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율시, 오언배율, 칠언배율을 수록하고, 그 끝에 가곡(歌曲)과 악장(樂章)을 붙이고 있다. 권5~13에는 여러 종류의 글을 문체별로 수록하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5에는 기(記)·서(序)·잡지(雜著)·설(說)을, 권6, 7에는 봉사(封事)·상서(上書)를, 권8에는 전시대책(殿試對策)·책문제(策問題)·전시책문제(殿試策問題)·교서(敎書), 권9에는 표전(表箋)을, 권10에는 청사(靑詞)를 각각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본에서 초간본의 글을 대량 삭제하여 권차에 차이가 나타난다. 초간본은 권11, 12, 중간본은 권11에 책문(冊文)·제문(祭文)·축문(祝文)을 수록하고, 이어 초간본은 권13, 중간본은 권12에 비지(碑誌)·명(銘)·발(跋)·부록(附錄)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중간본을 간행할 때 초간본에서 삭제한 글은 64건에 이른다. 대부분 불교, 도교 및 제문(祭文) 관계의 글들이다. 따라서 초간본은 총 13권이나 중간본은 12권으로 줄어들었다. 초간의 판식(版式)은 사주쌍변(四角雙邊)에 항자수(行字數)가 11행 21자이고 판심에 흑구(黑口)와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가 각각 위아래에 새겨져 있어 세종조의 간인(刊印) 특징을 보여준다. 글자가 그 당시 유행한 진체(晉體)로 해정하게 필서되고, 새김이 정교하여 지방(刊本)으로는 그 품위가 비교적 돋보인다.

변계량은 조선 초기의 뛰어난 문학가이자 정치가이다. 본서는 조선 초기의 시문학(詩文學)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각종의 표문(表文)은 대명관계연구(對明關係研究) 및 태종(太宗)과 세종(世宗)의 실록(實錄)의 표전(表箋)을 교정하는 1차 자료로서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본서는 중간본에서 산삭된 글을 수록하고 있어 변계량의 학문 세계의 전체를 조망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기현



도83-2 본문本文

84. 포은시고

圃隱詩藁

조선 1608년(선조 41)
33.6×21.0cm
건희 09927

Poensigo(The Collection of Jeong Mongjoo's Works)
LKH 09927

본서는 고려 문신 정몽주鄭夢周(1337~1392)의 문집으로, 조선 선조 41년(1608)에 황주병영黃州兵營에서 간행된 것이다.

정몽주의 본관은 영일迎日, 초명初名은 몽란夢蘭 또는 몽룡夢龍,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이다. 그는 공민왕 9년(1360)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예조정랑禮曹正郎·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부모의 상喪에 여묘살이를 하며 3년 상을 치르자 우왕 2년(1366)에 정려旌闈를 내려 표창하였다. 중국 명明에 6차례 사신으로 파견되었으며, 일본으로 사행使行하여 왜구에 포로로 잡혀간 고려인을 귀환시켰다. 1389년에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공양왕恭讓王을 옹립하였고,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을 지냈다.

그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본떠 가묘家廟를 설치하게 하고 도성 안에 오부학당五部學堂, 지방에 향교鄉校를 세워 유학儒學을 진작시켰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정몽주는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공양왕 4년(1392)에 이방원李芳遠의 문객 조영규趙瑛珪 등에게 살해되었다. 조선 태종 1년(1401)에 권근權近의 요청으로 영의정에 추

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며, 중종 12년(1517)년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포은시고』가 있다.

본서는 정몽주의 연보年譜, 유묵遺墨, 화상畫像과 서序, 행장行狀, 시詩, 잡저雜著, 발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몽주의 아들 정종성鄭宗誠이 정몽주의 유문遺文 303수를 수집하여 세종 21년(1439)에 『포은시고』를 간행하였다(초간본初刊本). 명종 10년(1555)에 개성부에 있는 정몽주의 옛집에 임고서원臨臯書院이 세워지고 선조 8년(1575)에 이 서원이 송양서원崑陽書院으로 사액賜額 되었는데, 이때 『포은시고』도 함께 간행되었다(개성본開城本).

임진왜란으로 개성본의 판목이 소실되자, 황해도 황주병영黃州兵營에서 정몽주의 7대손 황해도병마수군절도사 정응성鄭應聖(1563~1644)이 개성본을 저본으로 판각을 시작하여 1608년에 완료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서, 황주병영본黃州兵營本이다. 황주병영본에는 정몽주의 화상과 유묵이 추가되었다. 화상은 가묘家廟에 소장된 54세 때 진영을 모사한 것이다.

유묵은 <용수편이공봉운用首篇李供奉韻> 2수와 <기둔촌수간寄遁村手簡> 4편이다. <용수편이공봉운>은 개성본을 간행할 때 추가된 시이고, <기둔촌수간>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1542~1607)이 교정한 판본에 <답둔촌서答遁村書>라는 제목으로 습유拾遺에 추가된 시인데, 황주병영본이 간행될 때에 그 원본을 유묵으로 판각한 것이다. 『포은시고』에 정몽주의 화상과 유묵이 수록된 것은 황주병영본이 처음이다.

또한 영락永樂 기축년(1409)에 쓴 변계량卞季良의 서문, 정통正統 2년(1437)에 박신林信이 쓴 서문, 하륜河崙의 서문, 정통 3년(1438)에 권채權採가 쓴 서문, 만력萬曆 을유년(1585)에 노수신盧守愼이 쓴 서문과 정통正統 4년(1439)에 정종성鄭宗誠이 쓴 발문, 가정嘉靖 계사년(1533) 유부柳溥가 쓴 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첫 장 연보 아래에 ‘이理’, ‘이장섭인李章燮印’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포은시고』는 초간본이 나온 이래 14차례나 간행될 정도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판본이 존재하는 문집 중 하나이며 정몽주의 교유 관계, 사행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김선미



도84-1 연보年譜



도84-2 포은선생화상圃隱先生畫像



도84-3 본문本文



도84-4 권말卷末

85. 구급간이방 언해

救急簡易方 諺解

조선 16세기 추정
26.3×18.5cm
건희 10536

Gugeubganibang(Prescriptions for Emergency
Treatment with Commentaries in Korean)
LKH 10536

1489년(성종 20) 내의원 제조 윤호尹壕(1424~1496) 등이 긴급한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모아 편찬한 8권 8책의 의서이다. 이 책은 권7에 해당하는데 1455년 주조된 금속활자 을해자乙亥字를 반각한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며, 처방을 언해諺解하여 많은 백성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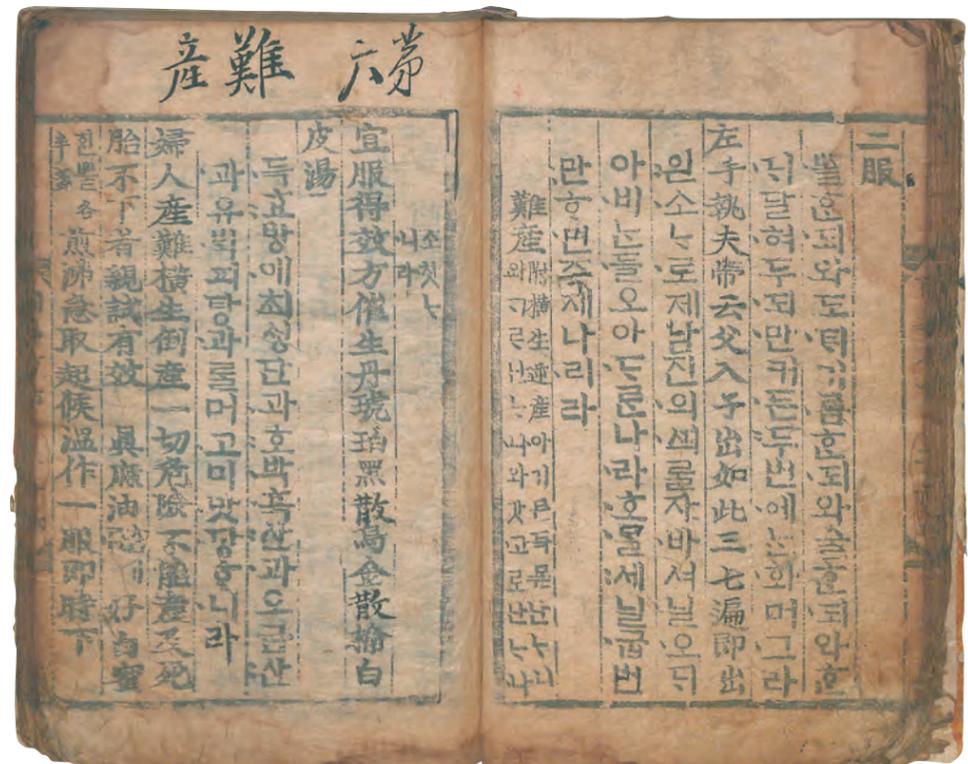
『구급간이방』은 1466년(세조 12) 편찬된 『구급방救急方』을 보완하는 의서였다. 1479년(성종 10) 병조참판 김순명金順命이 ‘세조 때 편찬된 『구급방』에 소개된 약재가 중국의 것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의 의방醫方을 모아 민간에 널리 알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어 1489년에 이르러 편찬이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구급간이방』이 편찬되자 팔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개간開刊할 것을 명하였다.

권7은 「부인문婦人門」으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 관련 질병의 유형을 13가지로 나누고 처방을 기록하였다. 임신중풍妊娠中風 · 임신심복통娠心腹痛 · 임신대소변불통娠大小便不通 · 임신해수娠咳嗽 · 아재복중곡兒在腹中哭 · 자사복중子死腹中 · 난산難産 · 포의불하胎衣不下산후혈부지産後血不止 · 산후혈불하産後血不下 · 산후장출産後腸出 · 유종乳腫 · 유즙불하乳汁不下的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책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얼룩이 곳곳에 남아있다. 책면의 상단에는 질병의 명칭이 필사되어있으며 제24면 · 제43면 · 마지막면 등에 원형의 소장인所藏印이 찍혀있으나 내용이 희미하여 소장자는 알 수 없다. 조선 전기 의학 지식과 인쇄술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으며, 처방이나 약재 등의 언해 사례를 통해 중세 국어의 발전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허문행



도85-1 임신심복통娠心腹痛



도85-2 난산難産

86. 대광익회옥편

大廣益會玉篇

조선 1537년(중종 32) 추정
31.2×20.8cm
건희 06247

Daegwangikhoeokpyeon(Th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LKH 06247

중국 남조南朝 양림의 고야왕顧野王(519~581)이 편찬한 『옥편玉篇』을 송나라 진팽년陳彭年(961~1017) 등이 황제의 명으로 증보한 『대광익회옥편』을 중종 32년(1537) 김해부金海府에서 류성柳星 등이 제작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다.

『옥편』은 양나라 무제武帝 때 학자인 고야왕이 한자의 정확한 뜻과 음을 밝히기 위해 펴낸 것이 시초로, 이후 여러 차례 증보, 개작되었다. 송 대중상부大中祥符 6년(1013)에 편찬된 『대광익회옥편』은 진팽년 등이 황제의 명으로 증보한 것이다. 진팽년의 자는 영년永年으로, 건창군建昌軍 남월南城(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봉신현奉新縣 서쪽) 사람이며, 시호諡號는 문희文僖이다. 태종太宗 옹희雍熙 2년(985)에 진사가 되었으며,大中상부 6년(1013)에 한림학사겸용도각학사翰林學士兼龍圖閣學士로 『옥편』의 주석을 줄이고 글자를 22,700여 자로 대폭 늘려 중수하였다.(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광익회옥편』 해제 참조)

이 책은 중종 29년(1534) 김해도호부사金海都護府使 류성柳星의 발의로 경상 지역에 이 책을 보급하기 위해 김해부에서 중국 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재간행한 것이다.

권수제는 ‘대광익회옥편’이며 표제와 판심제는 알 수 없다. 5권 2책 낙질본으로 1책은 권1~2, 2

책은 권3~5이다. 1책의 권수에 진팽년의 서문이 있으며 서문 마지막에는 ‘영락신묘永樂辛卯(1411) 국절일菊節(日) 신북헌간행新北軒刊行’이라는 간기가 있다. 이어지는 총목總目에는 542개 부수별 목차가 수록되었다. 이어서 「신편정오족주옥편광운지남新編正誤足註玉篇廣韻指南」에서 한자의 제자 원리, 서체, 음운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권1은 55부를 수록하고, 권2는 34부를 수록했다. 2책의 권3은 72부, 권4는 93부, 권5는 58부를 수록하였다. 본문의 형식은 표제어 바로 다음에 반절 표시로 음가를 기록하고 여러 다른 서적을 인용하여 뜻과 어구를 설명하였다. 부수의 시작 부분에는 해당 부수에 속하는 글자 수를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기록하였다.

이 책의 인쇄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동일한 목판본(일산貴3234-11, 고 323-4)이 소장되어 있어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일산貴3234-11은 7권 3책, 고 323-4는 7권 6책으로 책수는 다르지만 두 책 모두 권말에 ‘가정 16년(1537) 정유嘉靖十六年丁酉’에 쓴 김경金璟의 발문과 김해부신간金海府新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책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김경의 발문에 따르면 완질의 중국 판본을 바탕으로 김해부에서 새로 목판으로 새겼다고 하는데 책의 서문에 있는 영락 신묘년(1411)에 신북헌에서 간행했다는 원간기로 보아 이 중국본으로 재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 서문에는 30권으로 되어 있으나 김해부에서 간행한 것은 7권으로 되어 있어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책과 2책의 첫장에는 “영천이씨永川李氏”, “윤량자구閔樛子構”라는 주문방인 두 개가 각각 찍혀 있어 이 책이 이윤량李閔樛(1516~1589)의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윤량의 자는 자구子構, 호는 행암杏巖으로 이현보李賢輔(1467~1555)의 아들이다. 2책 앞표지 안쪽에는 “차람백영借覽伯榮”(백영에게 빌려서 보여 주다)라는 목서가 있다. 백영伯榮은 김부인金富仁(1512~1584)의 자이다. 김부인은 이윤량과 함께 이황의 문인으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웠다. 2책의 뒷표지 안쪽에도 이윤량의 친필로 보이는 글씨가 있다.

완질본은 아니나 조선 중기의 문신 이윤량의 소장인과 동학 김부인에게 책을 빌려주었다는 친필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재정



도86-1 간기刊記와 총목總目



도86-2 권1



도86-3 권3

87. 병학지남

兵學指南

조선 1787년(정조 11)
34.9×23.4cm
건희 07648

Byeonghakjinam(Guide to the Military Arts)
LKH 07648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서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1528~1588)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들여와 그 일부를 발췌 보완하여 편찬한 병서이다. 5권 1책 완결이며, 17세기 이후 조선 연병練兵의 기본 지침서였다.

이 책의 원래 편자는 분명치 않으나, 16세기 말~17세기 중엽 사이에 편찬되었음은 분명하다. 확실히 간행 시기가 나오는 판본은 1686년(숙종 12)의 것이고 이후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다. 여기 소개하는 『병학지남』은 1787년에 정조가 선전관宣傳官 이유경李儒敬(1747~1804)을 시켜 대대적으로 언해諺解 교감한 뒤 어제어필御製御筆 서문을 붙여 장용영에서 다시 간행한 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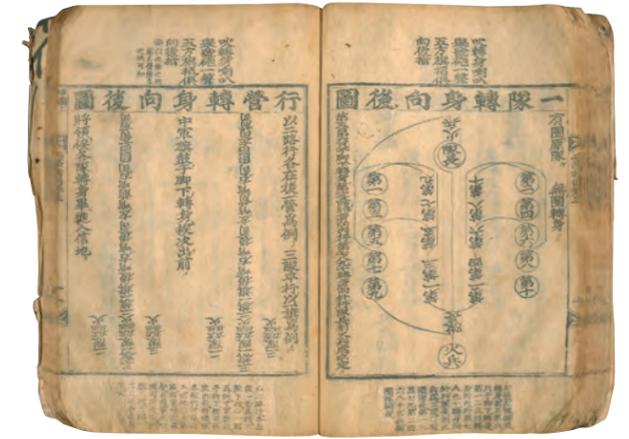
이 책의 본문은 권1 기고정법旗鼓定法·기고총결旗鼓總訣, 권2 영진정구營陣正敎, 권3 영진총도營陣總圖 상편, 권4 영진총도 하편, 권5 장조정식場操程式·성조정식城操程式·수조정식水操程式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군과 수군의 조련, 진을 치는 법, 행군할 때 깃발 등의 신호 사용법 등을 그림을 붙여 해설하고 있으며, 각 권마다 내용을 한글로 풀이하여 달았다. 본문 위에 주석을 인쇄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은 뒷장에 ‘정미신간丁未新刊 장영장판壯營藏板’이란 대자大字 간기刊記가 있어, 장용영본임을 알 수 있다. 장용영본 『병학지남』은 다른 군영軍營에서 중간한 『병학지남』의 모본母本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귀한 편이다. 게다가 이 책의 앞뒤 속표지에는 다른 책에서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표지 안쪽의 간지間紙에는 ‘김흥부金興富 김재의金在億 원原 부사府使’란 목서墨書銘이 있어 아마 망단자望單子같은 문서를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뒷표지 안쪽에는 ‘박신묵朴愼默 을묘乙卯 여중汝中 함중신흥동咸從新興洞 ... 임자壬子 계동桂洞 유문숙가劉文叔家’라는 4명의 명단 목서명이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박신묵은 1788년(정조 13) 운두리雲頭里 권관權官으로 차정差定되었던 인물이며, 다른 3명도 대체로 무관직에 종사했거나 한량閑良(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한 예비 무관)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로 보아 이 『병학지남』은 장용영에서 발간한 직후 무관 가문의 자제가 입수해 읽었음이 거의 분명하다. 본문에 일일이 구결口訣을 달아 놓은 것을 보면 꽤 열심히 보았던 것 같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군사제도 연구의 기초 자료이며, 특히 정조 연간의 군사정책, 무예진흥 등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이본異本이 존재하므로 각 판본의 비교가 가능해 근세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하게 활용된다. 강민경



도87-1 권수卷首



도87-2 영진도營陣圖



도87-3 본문本文



도87-4 간기刊記와 목서墨書

88. 신보휘어

新補彙語

조선 17세기 중기 이후
26.3×16.9cm
건희 07512

Sinbohwiho(Newly updated Encyclopedic)
LKH 07512

본서는 자부子部 유서류類書類에 속하는 책으로 인조 연간 김진金鎭(1585~?)이 중국의 『옥해玉海』를 모방하여 중국 고서에서 전거를 가져와 편찬한 백과사전식 어휘집 『휘어彙語』의 중간본이다. 또한 『신보휘어』는 『신편휘어新編彙語』와 대동소이한 책으로 이밖에도 『소휘小彙』, 『유선類選』, 『사한수어史漢粹語』 등의 이름으로 책의 일부를 골라 축약한 책으로도 유통되었다.

김진의 자자는 군옥君玉 혹은 기중記仲, 호號는 추담秋潭, 훈제訓齊, 영제詠齊,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부사府使 김윤국金潤國의 아들로 1610년 생원시 및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설서說書, 검열檢閱, 봉교奉敎, 정언正言 등을 거쳤다. 1627년 정주목사로 재직할 때 정묘호란이 일어나 능한산성凌漢山城 전투에서 대장으로 항쟁하였으나 포로가 되어 1630년 송환되어 예안현감禮安縣監이 되었으나 항복했다는 이유로 탄핵받은 뒤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 책은 김진이 찬차撰次하여 강목을 만들고 그의 문도들이 편질을 나누어 연구하여 수십 년간 다듬어, 효종 연간인 1652년 경상감영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그 뒤 중간되었다.

본서는 권6~9가 수록된 영본零本 1책이다. 권6~8은 ‘만물문萬物門’으로 인사, 백금百禽, 백수百獸, 인충鱗蟲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권9는 총 4권의 ‘인륜문人倫門’이 시작되는 권이며 이륜彝倫 등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도88-1 권수卷首

서지적인 특징으로는 본서의 겉표지의 표제 ‘휘어彙語’의 목서가 거의 지워져 있고 내표제는 ‘신보휘어新補彙語’ 판심제는 ‘휘어彙語’로 되어 있다. 신보휘어는 전체가 59권 11책 2,819목目으로 유가류儒家類, 사가류史家類, 사가류詞家類, 병가류兵家類, 잡가류雜家類 등 총 119종의 중국 전적에서 표제어와 관련된 고사와 내용을 뽑아 편집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의 『신보휘어』[규6563] 등에 김진의 자서와 범례, 초입군서명鈔人群書名, 목록目錄 등이 실려 있어 전체적인 책의 규모와 간인 과정을 알 수 있다. 즉 김진이 1615년(광해군 7) 조정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백여 종의 책자를 수십 년간 편집하였고 책을 간행할 자금이 없어 영의정 김류金瑔와 우의정 한흥일韓興一, 유경집柳景緝 등의 도움으로 발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규장각 소장 해당 판본의 간행자는 김진의 자서가 누락된 것을 애석하게 여겨 자서를 구해 보입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초입군서명’에는 인용된 서명을 소개하였는데, 유가의 20종(역易, 서시書詩 등), 사가史家の 29종(산해경山海經, 좌전左傳, 국어國語, 사가史記, 한서漢書 등), 사가詞家の 31종(초장楚璋, 신서新書, 논형論衡, 문선文選 등), 병가의 9종(육한六韓, 오자吳子, 소서素書, 심서心書 등), 잡가의 30종(음부경陰符經, 노자老子, 관자管子, 열자列子, 순자荀子, 양자楊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대유목大類目은 ‘건도문乾道門, 곤도문坤道門, 만물문萬物門, 인륜문人倫門, 유도문儒道門, 군도문君道門, 신도부臣道部, 천관문天官門, 지관문地官門, 춘관문春官門, 사례문四禮門, 하관문夏官門, 추관문秋官門, 동관문冬官門, 일용문日用門, 인사문人事門, 복식문服食門’이며 그 아래 3천 여의 소유목小類目을 달고 있다.

본문 구성은 소유목의 표제어를 두 칸 아래에 적은 뒤 고서의 이름을 양각으로 한 글자로 약칭하고 그 아래에 해당 고서의 인용 구절은 두 줄의 세자細字로 적었는데 인용서나 내용이 달라져 단락이 바뀌게 될 때마다 단락의 첫 자를 대자大字로 음각하여 단락이 바뀌게 됨을 표시하였다. 한편 『신보휘어』는 『신편휘어』를 증산增刪한 것이라고 하나 언제 누가 한 것인지 미상이다.

본서는 김진과 문도들이 수십 년 동안 다듬어 완성하여 그 내용이 충실하여 후대로 오면서 편찬되는 중국 고서에 근거한 유서뿐 아니라 한국 고서를 바탕으로 한 유서들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자 조선시대 과거시험 및 작문에 빈번하게 활용된 책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유호선



도88-2 본문本文

89. 신편고금사문류취

新編古今事文類聚

조선 1493(성종 24)
27.0×18.0cm
건희 06326

Sinpyeongogeumsamunryuchwi(Newly updated
Encyclopedic Book of China)
LKH 06326

남송南宋대 축목祝穆이 중국 고대부터 당시當時까지의 여러 문장[事文]을 주제별로 엮은 책인 『사문류취事文類聚』에 원대 부대용富大用, 축연祝淵이 내용을 추가한 책이다.

편자 축목은 자가 화보和甫(和父), 건양建陽 사람으로 주희朱熹에게 수학했으며, 적공랑迪功郎, 흥화군興化軍 함강서원澠江書院의 산장山長을 역임했다. 부대용은 자가 시가時可, 축연은 자가 종례宗禮로 여타의 사적은 미상이다. 축목의 『사문류취』는 전집前集 60권, 후집後集 50권, 속집續集 29권, 별집別集 3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집의 앞에는편찬동기와 경위가 있는 1246년(순우淳祐 병오丙午) 축목의 자서自序가 있다. 축목은 학문의 방법으로서 시문을 암기하는 기문記問을 중시했다. 강학講學을 중시했던 당시 학문적 경향에 대해 “강학은 진실로 공리를 높이 치지만 과거를 고찰하고 현재를 바로잡는 데는 반드시 기문의 박식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의 아름답고 훌륭한 언행을 보며 장편이나 짧은 단락을 처음에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지만 오래 지나면 잊어버려 다시 기억해 낼 수 없었는데, 얼마 뒤 깨달은 바가 있어 그때 마다 간략히 기록해 두었더니 몇 년을 지나자 거질이 완성되었다.”하였다. 이후 원대 부대용이 신집 36권과 외집 15권을 추가하고, 다시 축연이 유집 15권을 덧붙였다. 부대용과 축연이 덧붙인 부분에는 원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편자는 원대 복건福建 건향현建陽縣 마사진麻沙鎮 인쇄소(書坊)가 3인의 저작을 합본하여 『신편고금사문류취新編古今事文類聚』란 이름으로 간행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원대 전기 건녕부建寧府 건양현建陽縣 운장서원각본雲莊書院刻本으로 유집이 빠져 있다.

『예문류취藝文類聚』, 『초학기初學記』 기존 총서류를 참고로 총부總部로 나누고 각기 자목子目을 붙인 뒤 건마다 조례條列를 달았다. 각 조례는 ‘군서요어羣書要語’, ‘고금사실古今事實’, ‘고금문집古今文集’으로 구분했는데, 군서요어는 해당 주제의 정의定義에 해당하고 고금사실은 관련 역사 기록이나 일화이며 고금문집은 관련 문장이다. 일부 주제는 군서요어 뒤에 따로 ‘시구詩句’를 두기도 했다. 각 문장 말미에 작은 글씨로 출전을 밝혔다. 고금문집은 다른 부분과 달리 전문 전체를 옮긴 까닭에 문장의 제목과 저자의 성명을 앞에 두었다. 인용 문장 가운데는 원본이 유실되어 여기에만 남아있는 것도 적지 않다. 단,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도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한다.

성리학적 체계에 따라 편찬한 유사類書였던 까닭에 조선에서도 인쇄본, 필사본, 축약본 등 다양한 형태로 널리 유통되었다. 본서는 성종成宗(재위 1469~1494)의 명으로 1493년 9월 교서관校書館에서 금속활자 경진자庚辰字로 간행한 것이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이에 앞서 1481년 명으로부터 『사문류취』를 선물 받은 뒤 1485년 승정원承政院에서 사인士人 모두 보고 싶어하지만 거질인 까닭에 중국에도 많이 없고 국용도 1부에 불과하다며 인쇄할 것을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매권의 첫머리마다 ‘建安 祝穆 和父編(건안 축목 화보편)’이라는 기문記文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서와 동일한 판본으로는 권두인權斗寅(1643~1719)의 인기印記가 있는 증재 권벌權撥(1478~1548) 증가 소장본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완질은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낙질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

교규장각,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있다.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유행했던 유사類書로 동시대 학문 및 문장전범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일 뿐 아니라 조선전기 출판 및 인쇄문화를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다. 이태희

책	권수	구분	내용		비고
			部	目	
1책	59	전집前集59	상사부喪事部	만장挽章	建安 祝穆 和父編
	60	전집前集60		묘명墓銘	
	61	후집後集01	인륜부人倫部	종족宗族, 성씨姓氏	
	62	후집後集02		성명姓名, 칭호稱號, 명휘名諱, 조부모祖父母, 부모父母 (缺)	
2책	89	후집後集29	화훼부花卉部	(缺) 국화菊花, 구기枸杞	建安 祝穆 和父編
	90	후집後集30		모란牡丹, 작약芍藥	
	91	후집後集31		도화桃花, 행화杏花, 이화梨花, 자미화紫薇花, 해당海棠, 도미화醜釀花, 장미화薔薇花, 흰초화萱草花	
3책	142	별집別集04	문장부文章部	(缺) 작사作史	建安 祝穆 和父編
	143	별집別集05		성제聖製, 문장文章	
	144	별집別集06		문도습文蹈襲, 자의字義	
4책	157	별집別集19	성행부性行部	(缺) 간사姦邪	建安 祝穆 和父編
	158	별집別集20		골계滑稽, 기초譏諷	
	159	별집別集21		참궤譏毀, 경함傾陷	
	160	별집別集22		사진부仕進部	



도89-1 국화菊花



도89-2 관정官政

90. 신편명가지리대전

新編名家地理大全

조선 15세기 추정
29.4×18.5cm
건희 10474

Sinpyeonmyeonggajilidaejeon(Newly Compiled Complete Collection on the Geography)
LKH 10474

『신편명가지리대전』(이하 ‘명가대전’)은 풍수지리에 관련된 책들을 새로 모아 낸 것이다. 1430년 상정소詳定所가 음양학陰陽學을 취재取才할 때 『지리대전』이 쓰인다고 아뢰었고(『세종실록』 세종 12년 3월 18일), 1431년에는 서운관書雲觀이 『지리전서』 몇 종과 『대전』 1부만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다.(『세종실록』 세종 13년 1월 12일) 세조 시절에는 서운관이 『지리대전』이 우리 나라에 없으니 여러 지리서들을 수집하여 수교讎校를 더하고, 널리 인쇄하고 반포하자고 청하였다.(『세조실록』 세조 11년(1465) 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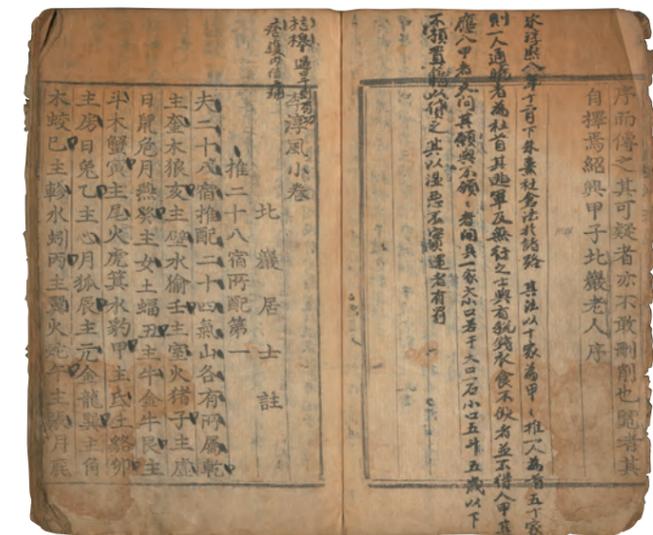
본 『명가대전』에는 간행에 관련 정보가 없지만 금속활자 을해자본이어서 15세기에 교서관校書館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배경도 고려된 셈이다. 또한 책명도 ‘신편’이라 하였으며, 7권만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이순풍소권李淳風小卷』인 것도 하나의 방증이라 하겠다. 『이순풍소권』은 1464년(세조 10) 4월과 9월에 조정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기록이 『세조실록』에 보이므로 이 책이 일찍이 조선에 알려져 있음을 짐작케한다. 이순풍(602~670)은 중국 당唐나라 사람으로 천문학자로서 인덕력麟德曆을 편찬했으며, 풍수지리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본서에는 연도 미상의 갑자甲子년에 북암노인北巖老人이 쓴 서문이 앞에 나오고 『이순풍소권』의 추이십팔수소배제일推二十八宿所配第一에서 추입혈역순수제십推入穴逆順數第十까지 차례로 이어지다가 추사위응대귀천제십사推四位應對貴賤第十四가 나온다. 제11~13까지는 수습과정에서 없어졌고, 제14의 일부를 포함한 뒷부분도 잃어버린 듯하다. 이것은 앞표지 내지에 목서로 『이순풍소권』의 목차가 씌여 있는데, 모두 제20까지이고 그 뒤에도 3편이 더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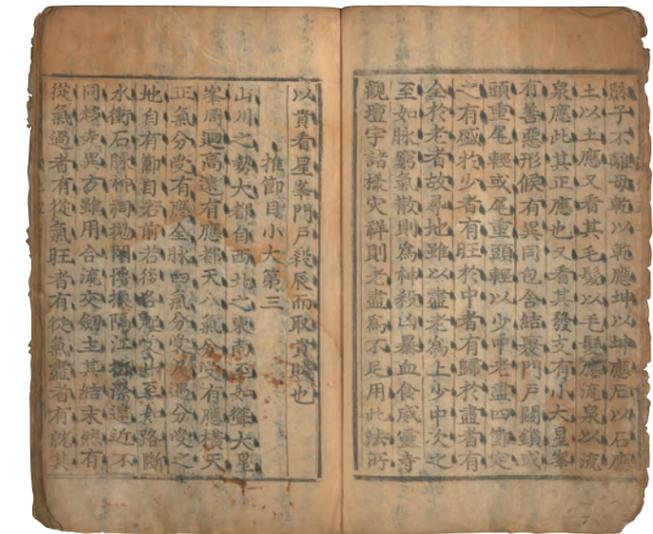
본 『명가대전』은 7권만 있고, 완질의 모습과 간행 시기도 다른 기록이 없어 확정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조선 전기 조정의 수요에 맞게 금속활자로 필요한 책을 간행했음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앞으로 다른 『명가대전』의 출현을 기대한다. 김동우



도90-1 표지 내지와 1면



도90-2 권수卷首



도90-3 본문本文

91. 옥기미의

玉機微義

조선 1554년(명종 9)
31.1×19.4cm
건희 06204

Okgimiui(The Medical Book published in Min
Dynasty)
LKH 06204

중국 명나라의 서언순徐彦純(?~1384)이 편찬, 유종후劉宗厚가 증보한 종합 의학서적으로 1396년 간행되었다. 중국 고대의 의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을 비롯하여 역대 다양한 학자들의 의학에 대한 학설을 50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중국 의학서적을 1554년 무렵 조선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간행한 책이다.

서언순은 원나라 말기~명나라 초기에 활동한 의학자로 자는 용성用誠이며 회계會稽 사람이다. 일찍이 『의학절중醫學折衷』을 편찬하였으며 이후 본서인 『옥미기의』를 비롯하여 『본초발휘本草發揮』 3권을 저술하였다. 『옥미기의』를 증보 편찬한 유종후는 의학자로 오릉陵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의경소학醫經小學』 5권 등 여러 의학서적을 저술하였다. 본래 서언순의 최초 저술에는 중풍, 위증癰證, 상풍傷風 등 17가지로 병을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후 유종후가 기존의 체제를 따르면서도 추가로 33가지의 분류를 더하여 내용을 증보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본서는 『옥미기의』의 목록에 해당하는 책이다. 『옥미기의』는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본 목록을 통해 권1~50에 해당하는 50가지 분류와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문의 앞부분에는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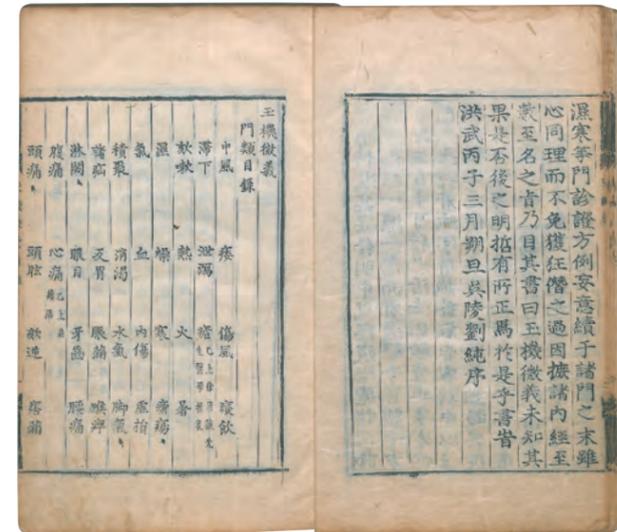
본서는 1396년 중국 명나라에서 간행된 의학서적 『옥미기의』를 조선에서 금속활자로 재간행한 서적이다. 중국 서적에 수록된 서문까지 고루 수록하였으며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표지 이면에 기록된 내사기를 통해 1554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문의 큰 글자는 을해자를 사용하였고, 목차의 중간 크기 글자는 갑진자를 사용하였으며 판심에 흑구가 있는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이다.

본서는 현재 목록 1책만이 남아있는 결본이나 조선 전기 금속활자로 제작된 의학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국내에 현존하는 『옥미기의』는 중국 명나라 판본이거나 일본 재간행본으로 조선전기 금속활자본 『옥미기의』는 본서가 유일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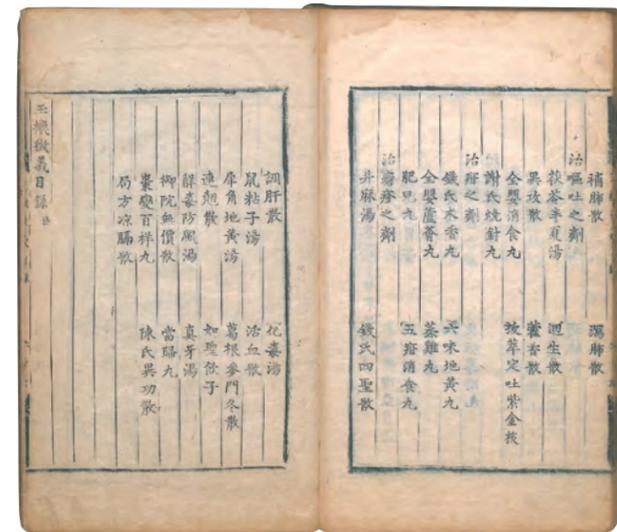
국외에는 일본궁내청서릉부日本宮内廳書陵部に 갑진자와 을해자로 인쇄된 동일서적이 소장되어 있음이 목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소장본 또한 완질본이 아닌 8권 3책만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본서는 조선전기 의학서적의 간행과 인쇄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대영



도91-1 내사기內賜記



도91-2 목록目錄



도91-3 권말卷末

92. 요집

要集

조선 1554년(명종 9) 이전 추정
22.2×13.7cm
건희 06350

Yojip (Selected Essentials on Verified Facts)
LKH 06350

16세기 초반에 조선 정부에서 금속활자(갑진자甲辰字)로 인쇄한 백과사전류 서적이다. 내용은 일상생활에 주로 필요한 약품가격, 국가의 기일, 노비결송정한, 팔도정도(서울에서 각 지역 간의 거리) 등 다양한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어숙권魚叔權이 명종 9(1554)년에 편찬한 백과사전인 『고사촬요』의 편찬에 활용된 책으로 알려져 있다.

본서의 편저자는 미상이다. 편찬경위 역시 서문 및 발문이 존재하지 않아 불분명하다. 다만 금속 활자인 갑진자로 인쇄되었기에 국가에서 주도하여 제작한 책임을 알 수 있으며, 『고사촬요』의 편찬에 활용되었던 책이었기에 『고사촬요』 편찬 이전인 16세기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의 앞과 뒤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은 ‘숙약시준熟藥市准’(조제한 약의 가격) 중간 부분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항목에는 각 약들의 이름과 그 하단에는 가격이 표기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기일日인 ‘국기國忌’, ‘복제식服制式’,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을 비롯하여 끝으로는 ‘팔도정도八道程途’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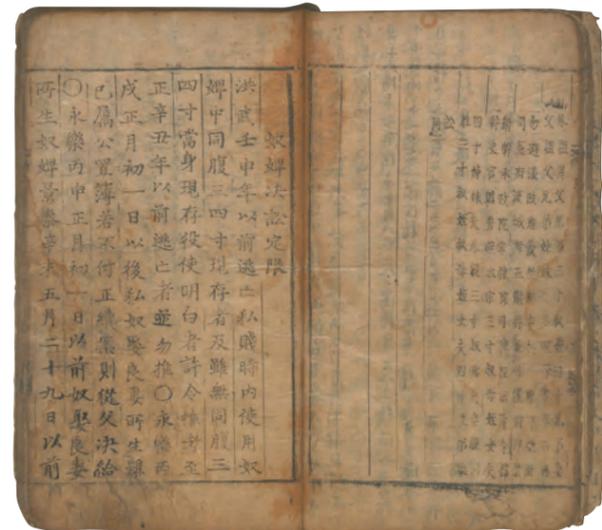
본서는 본문의 전후가 결락 되어 장서인, 장서기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선 전기 백과사전인 ‘유서類書’류 가운데 국가에서 간행한 이른 시기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가에서 당시 중요시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인 주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책의 특징이다. 또한 조선 전기인 1500년대 초의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사적 사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본서는 일부 본문이 결락된 것을 제외한다면 소장상태가 양호하여 본문을 살피는데 무리가 없는 선본이다. 또한 각 면의 뒷장에 소장자로 추정되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어 본문과의 연관성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서는 국내 유일본으로 판단되며, 동일본이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동양문고본은 본문의 전면 일부는 없으나 후면이 온전하여 권미제卷尾題가 ‘요집要集’임이 확인되며 내용 또한 본서와 차이가 없는 동일본이다.

본서는 조선 전기 물가에 대한 경제사연구 및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 사료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동안 『고사촬요』의 참고자료로서 서명만 알려져 왔던 본서는 향후 여러 방면에서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대영



도92-1 국기國忌



도92-2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도92-3 팔도정도八道程途

93.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名稱歌曲

중국 명 1402~1424년 추정
41.9×26.8cm
건희 10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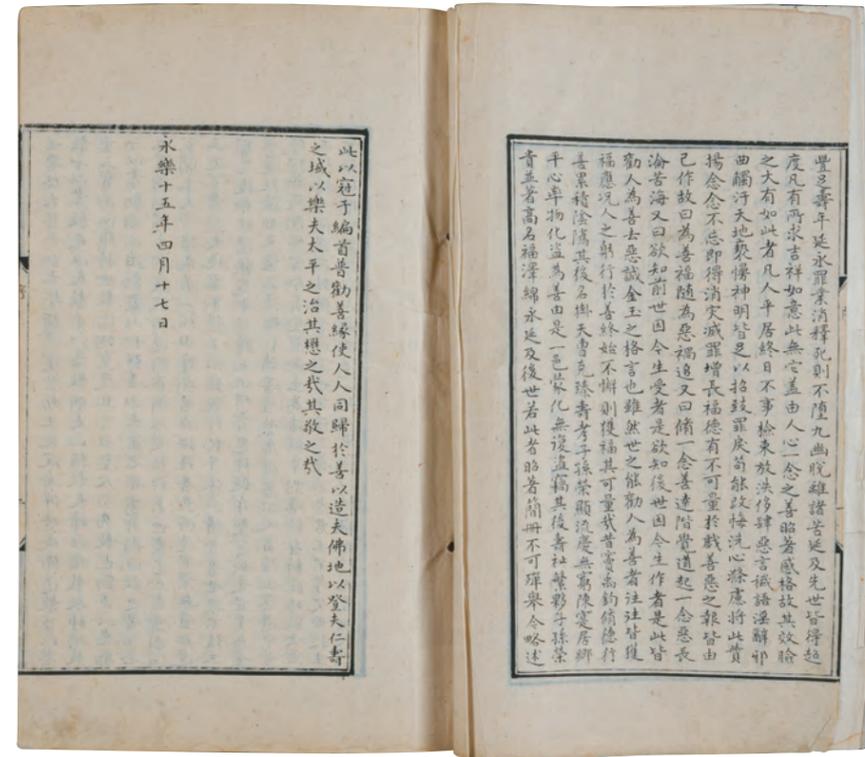
Songs for the Names of Various Buddhas and
Bodhisattvas
LKH 10699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이하 ‘명칭가곡’) 1417년 명나라 영락제 永樂帝(재위 1402~1424)에 의해 편찬된 불교 가사집이다. 책이름대로 불, 세존, 여래, 보살, 존자의 이름을 부르며 음성공양을 하는 것이다. 『명칭가곡』의 서문에는 불, 세존, 여래, 보살, 존자의 명호를 찬하는 자는 선심善心을 기를 수 있다고 했다. 1417년에 47권이었던 『명칭가곡』은 1420년까지 모두 51권으로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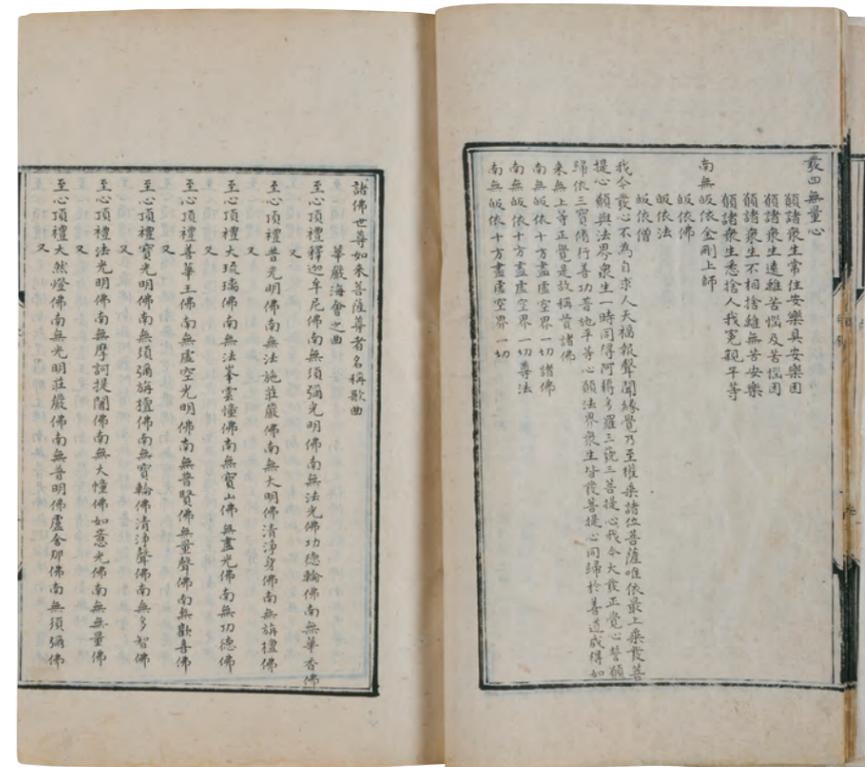
이렇게 간행된 『명칭가곡』은 1417년, 1418년, 1419년 4차례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조선과 명 사이 사신들이 왕래할 때, 『명칭가곡』이 1417년에 100본, 1418년 5월에 300본, 9월에 1,000본 등 조선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마지막으로 1419년에는 30권이였다. 유입된 『명칭가곡』들은 서울과 지방의 여러 사찰에 반포되었고, 그것을 외우는 사람에게 승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기도 했다.

본 『명칭가곡』에는 영락 15년(1417) 4월 17일에 지어진 서문과 또 다른 서문, 목록, 발사무량심發四無量心, 나무반의금강상사南無皈依金剛上師, 그리고 중국 남북지방의 「불명칭가곡佛名稱歌曲」, 「세존명칭가곡世尊名稱歌曲」, 「여래명칭가곡如來名稱歌曲」, 「보살명칭가곡菩薩名稱歌曲」, 「존자명칭가곡尊者名稱歌曲」의 명칭가곡이 북곡과 남곡 순으로 기록되었다. 명칭가곡 뒤로는 오공양五供養, 참회懺悔, 흥선멸악참회興善滅惡懺悔, 대명신주회향大明神呪回向, 십이인연주十二因緣呪, 길상찬吉相贊, 위태천韋駄天, 후서後序 순이다.

이것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여겨지는 속초 보광사 소장 『명칭가곡』의 구성과는 다르지만, 대구의 개인 소장으로 알려진(최순희, 1978,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칭가곡』, 『(월간)문화재』8권 73호 참조)것과는 거의 같다. 여하튼 다른 간기 정보를 알 수 없는 본 『명칭가곡』을 서문에 보이는 1417년의 간행본이라고 판단하는 데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김동우



도93-1 서문序文



도93-2 권수卷首



도93-3 위태천韋駄天 변상

94. 증속회통운부군옥

增續會通韻府羣玉

조선 16세기 중기 추정
34.0×21.3cm
건희 07507

Jeungsokhoitongunbugunok
(Rhyming Dictionary of China)
LKH 07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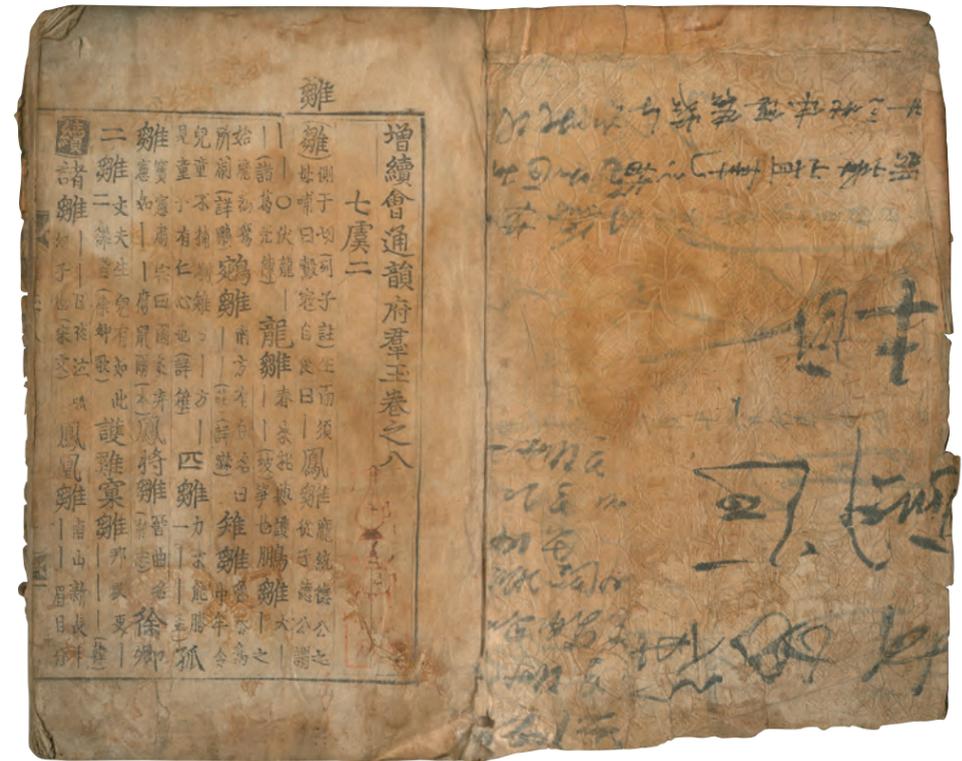
중국 원나라의 처사 음시우陰時遇(자字 시부時夫), 유달幼達(자字 중부中夫) 형제가 저술한 운서 백과사전인 『운부군옥』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여러 서적을 참조하여 내용을 증보하고 더하여 간행한 서적이다.

본서의 최초 제작 시기는 중종 연간인 16세기 중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책은 을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중앙 정부에서 간행하였으며,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을해자본에 기초한 일본 활자본이 1625년 경에 간행되기도 하였다.

본서의 본문은 본래 3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자韻字별로 중국어의 성조에 따라 상성, 평성, 거성, 입성 등의 순으로 백과사전을 배치하고 있다. 기존 『운부군옥』의 내용에서 새롭게 명나라에서 간행된 서적들을 두루 참조하였는데, 원나라 말기에 간행된 『신증설문운부군옥新增說文韻府羣玉』을 기초로 하여 명나라 시기에 간행 『유취고금운부속편類聚古今韻府統編』 등의 서적의 내용을 추가로 편집하여 내용을 보충하여 작성하였다.

본서는 금속활자로 중앙정부에 의해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을해자 전출본, 을해자 후출본, 4주 갑인자인 무신자본, 훈련도감자본의 4종 판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서는 권5, 8, 10, 14에 해당하며 권당 1책으로 4권 4책의 결본이다.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판본으로는 을해자본으로 전출, 후출본 여부는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조선시대 운별로 배열된 백과사전은 1836년에 완간된 『대동운부군옥』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본서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또 다른 형태의 운별로 배열된 백과사전으로 현존하는 소장본 가운데 을해자본은 몇몇 사례만이 알려진 바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서는 조선 전기 백과사전인 『증속회통운부군옥』의 을해자 간행본으로 인쇄사적인 의미 및 조선 전기 백과사전[유서類書] 연구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대영



도94-1 권8



도94-2 권14

95. 선묘보감

宣廟寶鑑

조선 1731년(영조 7) 추정
31.6×21.2cm
건희 07114

Seonmyobogam(Precious Mirror for King Seonjo)
LKH 07114

숙종 6년(1680) 숙종의 명으로 이단하李端夏(1625~1689)가 편찬한 책으로, 『선조실록宣祖實錄』에서 후대에 본보기가 될 만한 선조宣祖(재위 1567~1608)의 말을 추린 것이다. ‘보감寶鑑’이란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지만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일을 적은 책을 의미한다.

숙종 6년(1680) 11월 이단하는 아버지 이식李植(1584~1647)이 인조仁祖(재위 1623~1649)의 명을 받아 『선조실록』의 개수改修를 담당했을 때에 본보기가 될 만한 선조의 말을 추린 책을 만들고자 하다가 미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며, 자신이 그 일을 이어서 『선묘보감』을 편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하였다. 그리고 4년 뒤인 숙종 10년(1684), 이단하는 『선묘보감』 10권 5책을 완성하여 숙종에게 바쳤다. 그러나 당대에 바로 간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영조 7년(1731) 간행한 기록이 있다.

『선묘보감』은 총 10권 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그 중 마지막 책 9~10권에 해당한다. 선조 27년(1594) 정월의 기사부터 시작하여 선조 41년(1608) 2월까지 기사가 수록되어있다. 실록의 기사를 선별하여 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종의 기언체記言體 사서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기언체 사서와는 별개의 체제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

『선묘보감』은 조선 후기에 진행되었던 선조의 추숭과 현창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선묘보감』은 선조를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조선을 구한 임금으로 그 역사적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서인西人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인조대 그 편찬이 시도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며, 연산군대 편찬된 『속국조보감』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보감’류의 편찬이었다. 이 무신자본 『선묘보감』에는 본문 속에 몇 군데 소주小註가 달려있다. 대부분이 본문의 오자誤字를 교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숙종대 이단하가 만든 초본 『선묘보감』을 영조대 인출하면서 오자와 낙자落字를 교정하였기 때문이다. 영조는 의심되는 글자는 『열성어제列聖御製』의 예대로 장후 章 內에 주를 달아 두 줄로 적어두도록 명한 바 있다.(『승정원일기』 영조7년 1월 27일)

『선묘보감』의 완질(10권)은 21건이 전해진다. 모두 무신자본이다. 영조대 인출한 건수는 진상건 5건, 국용건國用件(반사건頒賜件) 50건으로 총 55건이 만들어졌다. 실록이 있었던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보감은 선별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는 문헌으로 편찬하는 당대의 역사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김진실



도95-1 권수卷首



도95-2 본문本文

96. 신묘식년사마방목

辛卯式年司馬榜目

조선 1591년(선조 24) 추정
33.5×22.0cm
건희 10531

Roster of Successful State Examination Candidates
LKH 10531

신묘년(1591, 선조 23)에 치른 식년시式年試 중 사마시司馬試의 합격자 명단이다. 식년시란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과거科擧였다. 자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으로 하여 시행하였고, 사마시는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는 복시覆試였다. 합격 정원은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이었다. 사마방목은 과거 합격자를 기념하기 위해 사후에 책자형태로 간행한 것이다. 시험을 주관한 국가에서 방목을 간행하여 합격자와 관계된 기관이나 지역에 배포하기도 하였고, 민간에서 간행하여 나누어 가진 경우도 있다. 이 방목에는 따로 서序, 발문跋文이 없어 간행 주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권수卷首에는 은문恩門이라고 하여 시험장소와 담당 시험관[좌주座主]의 관직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는 생원시 합격자의 명단이 먼저 나온다. 합격자는 일등 5인, 이등 25인, 삼등 70인으로 성적순으로 등재되어 있다. 생원시 합격자 명단 다음으로 진사시 합격자의 명단이 나열되고 그 수는 생원시와 같다.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권수의 은문에서 성균관과 장악원 2곳으로 나누어 시험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눈 것은 시험 감독관과 응시생 사이의 상피相避를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생원시 합격자 100인, 진사시 합격자 100인의 명단이 등재되어있다. 명단에는 합격자 1인에 대해 3~4행씩을 할애하여 인적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시험을 볼 당시에 신분과 이름, 자字, 생년, 본관, 거주지가 첫 번째 행에 적히고 두 번째 행에는 아버지의 성명과 관직이 기록된다. 세 번째 행에는 가족관계가 적히는데 부모 혹은 조부모의 구존俱存[부모가 모두 살아계심] 여부와 안항雁行[형제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예를 들어 신묘년 식년시 진사시에 장원을 차지한 민여임閔汝任(1559~1627)의 경우 시험을 치를 당시 유학幼學이었고 자는 성지聖之이고 기미년己未年(1559)에 태어났다. 본관은 여주驪州이고 한양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는 통훈대부행문천군수안변진관병마동첨절제사 민사용閔思容이다. 영감하永感下라고 되어 있어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형제는 형 여건汝健, 여신汝信, 여검汝檢 동생 여길汝吉, 여우汝佑, 여전汝侗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방목은 16세기 후반에 시행된 과거의 합격자 명단으로 단순히 이름 이외에도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료이다. 과거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험 이후 작성된 것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한 공인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조선시대 과거제도 뿐 아니라 방목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실



도96-1 권수卷首



도96-2 생원시生員試



도96-3 진사시進士試

97. 좌익원종공신녹권

佐翼原從功臣錄券

조선 1458년(세조 4) 35.7×21.2cm 건희 06210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LKH 062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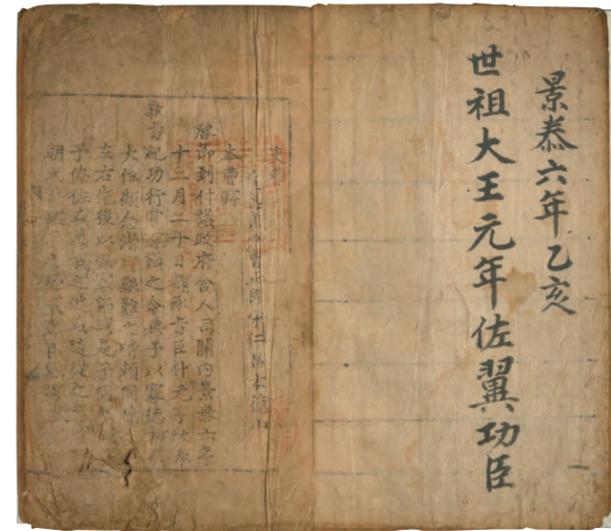
세조 4년(1458) 발급한 좌익원종공신녹권이다. 표제에는 “공신록功臣錄”이라고 되어 있고, 표지의 뒷면에는 “景泰六年世祖大王元年佐翼功臣경태 6년(1455) 세조대왕원년좌익공신”이라고 묵서되어 있지만 이 공신록은 세조 4년 발급된 『좌익원종공신녹권』이다.

좌익공신佐翼功臣은 세조 1년(1455) 단종을 퇴위시키고 세조가 즉위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공신 칭호이다. 세조는 44명의 좌익공신을 책봉한 지 3달 후 왕위 추대에 크고 작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책봉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 때 책봉된 원종공신은 총 2,356명이었다. 이후 세조 4년(1458)에 이들에게 녹권을 인쇄하여 반사頒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수卷首에는 발급기관인 이조吏曹와 녹권의 수급자 정보가 있다. 이 녹권의 수급자는 앞의 세글자는 종이가 접혀있어 확인되지 않지만, 호조정랑戶曹正郎 송인창宋仁昌으로 확인된다. 본관은 덕산德山이다. 수급자의 성명을 쓸 때에 겸직이나 전직의 직함을 모두 쓰고 이름과 본관까지 쓰는 예가 확인된다. 권수 다음으로는 세조가 원종공신을 책봉하라고 내린 교지와 봉명자奉命者, 공신 책봉 경위 등의 내용과 함께 등급별 공신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공신의 포상과 특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등 원종공신은 80명, 2등 원종공신은 836명, 3등 원종공신은 1,430명으로 총 2,356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공신녹권의 발급과 반사를 주관했던 이조가 기재되고 그 다음에는 담당 관원들의 직함과 성씨가 적혀있다.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조선 초기 원종공신 녹권으로, 선장본線裝本으로 제작되어 있다. 조선 초기 발급된 녹권은 권자본卷子本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선장본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공신의 숫자가 늘어나고 내용이 많아서 권자본으로 발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좌익원종공신 총 2,356명의 직책, 신분, 성명까지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실록이나 여타 문집 등에 남아있지 않아 이 녹권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 할 수 있다. 양반을 비롯하여 양인, 중인, 천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좌익원종공신녹권이 4건 정도로 확인되므로 조선 초기 공신 녹권의 작성 및 반사와 관련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좌익원종공신의 명단은 『세조실록』이나 다른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녹권이므로 그 서지 및 자료적 가치 또한 높다. 김진실



도97-1 권수卷首



도97-2 본문本文



도97-3 권말卷末

葉之為得也 圓胤年長受未得成
童此殊之怪歎莫非命也奉命之奉
許乃至 騰送深為之言維証因

도판목록
List of Plates

功在法旨法中主之乎志也取托卷哉
存之獨滿意宗法其為也及學
也事之也云一也一也何名就學性學
隨之因南法禮道報お月相成以
成報月計日如之而末可也部有在
報之鬼心死月計日如男也又何難且
而可引之長之也知在法也結去及
法及在也心之也以上也知情結能也
也

上狀

雲長 尊見 座前

中及毒熱伏惟

道履新卷趁勝法日趁世武之訪伏見



국보 國寶

National Treasure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01	감지은니 불공경색신변진언경 권13紺紙銀泥不空羂索神變眞言經 卷十三 권희 00008	菩提流志(中國 唐) 譯安諦(高麗) 書	筆寫本	忠烈王 1(1275)	卷軸裝, 1卷1軸(16張, 缺帙)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18.3cm, 張크기 30.4×61.0cm, 銀界, 全葉 31行14字 註雙行 全 30.4×905.0cm	函次: 慕變相圖: 神將像. 18.7×38.0cm寫成記: 至元十二年乙亥歲高麗國王發願寫成銀字大藏 (뒷면)三重大師安諦書 不空羂索經第十三卷第十六張慕
02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1~7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一~七 권희 00009	鳩摩羅什(中國 後秦) 譯李臣起(高麗) 寫	筆寫本	忠肅王 17(1330)	折帖裝, 7卷7帖(缺帙) 上下單邊 上下間 19.5cm, 張크기 28.3×61.0cm, 金界, 全葉 36行17字 半折 6行17字 註雙行 28.3×10.2cm	寫成記: 鴻山郡戶長李臣起…天曆三年庚午四月日 臣起誌 同願比丘 正因
03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 권희 00010	般若(中國 唐) 譯李也先不花(高麗) 寫	筆寫本	忠惠王 復位 2~恭愍王 16 (1341~1367) 추정	折帖裝, 1卷1帖(10張)變相圖, 上下雙邊 上下間 19.2cm, 張크기 26.4×68.5cm, 34折, 金界, 全葉 42行17字, 半折 6行17字 全 26.5×639.6cm	變相圖: 行願品變相圖, 毘盧遮那佛, 普賢菩薩, 善財童子. 26.4×38.0cm寫成記: 至□□□□三重大匡寧仁君李也先不花… (뒷면) 行願品變相文卿書
04	초조본 대반야바라밀 다경 권249 初雕本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二百四十九 권희 00011	玄奘(中國 唐) 譯	木板本	高麗 11世紀	卷軸裝, 1卷1軸(23張, 缺帙) 上下單邊 上下間 22.6cm, 張크기 29.1×49.5~51.0cm, 無界, 1張 24行14字 2張이하 25行14字 全 29.1×768.3cm	函次: 閔
05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1 初雕本 顯揚聖教論 卷十一 권희 00012	無着(印度) 造玄奘(中國 唐) 譯	木板本	高麗 11世紀	卷軸裝, 1卷1軸(15張, 缺帙) 上下單邊 上下間 22.6cm, 無界, 22~23行14字 全 28.6×1,000.7cm	函次: 尺

보물 寶物

Treasure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06	석보상절 권11 釋譜詳節 卷十一 권희 00029	首陽大君(朝鮮) 受命編	木板本 (復刻本)	朝鮮 前期	1卷1冊(缺帙)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3×15.8cm, 無界, 8行15字, 上下內向黑魚尾 30.3×20.7cm	變相圖: 兜率來儀, 毘藍降生, 四門遊觀, 逾城出家, 雪山修道, 樹下降魔, 鹿苑轉法, 雙林涅槃
07	묘법연화경 권7 妙法蓮華經 卷七 권희 00030	鳩摩羅什(中國 後秦) 譯戒環(中國 宋) 解	木板本	高宗 27(1240)	折帖裝, 1卷1帖(36張) 上下單邊 上下間 24.3~24.6cm, 張크기 35.7×51.3cm, 72折, 無界, 1張 28行20字 註雙行 36.0×13.3cm	跋: 建炎三年己酉春仲 南社除鐘祖派 跋
08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권희 00031	鳩摩羅什(中國 後秦) 譯	木板本	忠烈王 12(1286)	7卷2冊 (卷1~4)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15.6cm, 無界, 全葉 30行 字數不定 (卷5~7) 上下單邊, 上下間 15.4cm, 無界, 全葉 30行 字數不定 (卷1~4)28.3×17.8cm (卷5~7)28.2×17.8cm	跋: 至元二十三年丙戌(1286) 五月日道人成敏誌
09	불조삼경 佛祖三經 권희 00032	迦葉摩騰·竺法蘭(中國 後漢) 譯鳩摩羅什(中國 後秦) 譯靈祐(中國 唐) 著 守遂(中國 宋) 註 德異(中國 元) 編	木板本	恭愍王 10(1361)~祐王 10(1384)	1冊 四周單邊 半郭 19.5×14.6cm, 無界, 8行 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8.2×16.7cm	序: 至元丙戌(1286)燈節 絕牧兒德異 跋 刊記: 至正辛丑(1361)六月有日重刊 留全州圓嵩寺
	불조삼경 佛祖三經 권희 00033	迦葉摩騰·竺法蘭(中國 後漢) 譯鳩摩羅什(中國 後秦) 譯靈祐(中國 唐) 著 守遂(中國 宋) 註 德異(中國 元) 編	木板本		1冊 四周單邊 半郭 21.2×14.7cm, 有界, 8行 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7.1×17.0cm	序: 至元丙戌(1286)燈節 絕牧兒德異 跋 跋: 靑龍甲子(1384)十月日… 韓山付院君李穉跋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10	나옹화상어록과 나옹화상가송 懶翁和尚語錄·懶翁和尚歌頌 권희 00034	語錄: 覺璉(高麗) 輯錄, 混脩(高麗) 校訂 歌頌: 覺雷(高麗) 輯錄, 混脩(高麗) 校正	木板本	禪王 5(1379)	2冊 左右雙邊 半郭 18.0×12.5cm, 無界, 10行19字, 上下內向黑魚尾 25.3×16.3cm	1책<가송> 後記:懶翁三歌後…李穉書 2책<어록> 序:至正廿三年(1363)秋七月有日… 白文實和父敬序 序:右 王師普濟尊者游歷諸方時… 鷄林君李達表 序: 普濟尊者語錄序…弟子名覺玕覺然覺卞校讎舊本…蒼龍己未(1379) 八月既望韓山君李穉序
11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六~十 권희 00035	般刺密帝(中國 唐) 譯戒環(中國 宋) 解	木板本	恭愍王 21(1372)	5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19.6×13.9cm, 無界, 13行 字數不定, 黑口, 上下向黑魚尾 24.7×15.5cm	跋: 洪武五年壬子(1372)十月日菴菴 卽了跋 跋: 建炎己酉中秋後五日住湖山萬安比丘行儀謹跋 刊記: 功德主 大將軍金湖 靈岩郡夫人崔氏 同願 貞順翁主李氏 安城靑龍寺刊板
12	선림보훈 禪林寶訓 권희 00036	宗果·士珪(中國 宋) 共編 淨善(中國 宋) 重集	木板本	禪王 4(1378)	2卷2冊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6×13.2cm, 有界, 10行20字, 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8.5×17.9cm	後書: 右實訓者…宣光八年戊午(1378)二月書于宴鳴菴 刊記: 募緣 商偉 万愾 助緣 優婆塞 高息機 優婆夷 崔省緣 留板忠州靑龍禪寺
13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권희 00037	佛陀波利(罽賓國) 譯	木板本	禪王 4(1378)	折帖裝, 1帖(12張)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11.2cm, 無界, 1折 6行15字 32.9×11.2cm	刊記: 戊午五月日重刻… 施主比丘法弘金臣柱
14	장승법수 藏乘法數 권희 00038	可逵(中國 元) 輯	木板本	恭讓王 1(1389)	1冊 插圖,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1.7×15.2cm, 有界, 行字數不定, 上下內向黑魚尾 28.2×17.3cm	序: 至正乙未(1355)春二月既望報恩禪師沙門宏演 跋: 無學大師重刊功畢求余跋… 己巳(1389)九月日韓山君李穉跋
15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권희 00039		木板本	禪王 4(1378)	折帖裝, 1帖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21.6~21.8cm, 無界, 1折 6行15字 全 29.0×939.5cm	刊記: 戊午五月日誌
16	월인석보 권21 月印釋譜 卷二十一 권희 00040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復刻本)	明宗 17(1562)	1卷2冊(缺帙)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1.0×17.5cm(권21상) 21.5×18.0cm (권21하), 有界, 7行 14~15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3.0×21.0cm(권21상) 32.0×22.7cm(권21하)	刊記:嘉靖四十一年壬戌(1562)八月十八日全羅道淳昌地無量崛開板 變相圖: 兜率來儀, 雙林涅槃
17	감지금니 대반야바라밀 다경 권175紺紙金泥大方般若波羅蜜多經 卷一百七十五 권희 00041	玄奘(中國 唐) 譯	筆寫本	文宗 9(1055)	卷軸裝, 1卷1軸(10張) 上下單邊 上下間 21.5cm, 張크기 28.7×54.5cm, 有界, 全葉 31行17字 註雙行 全 28.5×510.0cm	寫成記: 菩薩成弟子 南瞻部州高麗國 金吾衛大將軍 大口太子反監門 奉與卒府卒 金融範 君主□壽 家國 一平 及先落祖現後三考□ 成兒將弟 妻□孛□存者無□ 金銀字六百般□ 經也 性沒者成□□□□□日記
18	지장보살본원경 地藏菩薩本願經 권희 00042	法燈(中國 宋) 譯	木板本	世宗 29~32 (1447~1450)	3卷1冊 上下單邊 上下間 23.5cm, 有界, 全葉 25行17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8.2×18.0cm	
19	목우자수심결 및 사범어 언해 牧牛子修心訣·四法語 諺解 권희 00043	知訥(高麗) 著 信眉(朝鮮) 譯	木板本	世祖 13(1467)	1卷1冊 四周雙邊 半郭 18.5×12.6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7.5×16.7cm	刊記: 成化三年丁亥歲(1467)朝鮮國 刊經都監奉教雕造
20	월인석보 권11·12 月印釋譜 卷十一·十二 권희 00044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世祖 5(1459)	2卷2冊 (권11 129張/권12 51張, 缺帙) 四周雙邊 半郭 22.5×17.5cm, 有界, 7行 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2.4×22.8cm (권11) 32.0×22.6cm (권12)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21	묘법연화경 권6·7 妙法蓮華經 卷六·七 건희 00045	鳩摩羅什 (中國 後秦) 譯	木板本	成宗 13(1482)	2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4.0×16.9cm, 有界, 8行13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4.0×21.9cm	跋: 成化六年(1470)夏四月有日… 金守溫奉教謹誌 跋: 時成化十八年(1482)孟冬上浣… 姜希孟敬跋
	묘법연화경 권6·7 妙法蓮華經 卷六·七 건희 00046	鳩摩羅什 (中國 後秦) 譯	木板本	成宗 13(1482)	2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4.0×16.8cm, 有界, 8行13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5.2×22.0cm	跋: 成化六年(1470)夏四月有日… 金守溫奉教謹誌 跋: 時成化十八年(1482)孟冬上浣… 姜希孟敬跋
22	상교정분자비도량참법 권10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十 건희 00047	諸大法師 (中國 梁) 集撰	木板本	麗末鮮初	折帖裝, 1卷1帖(缺帙)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25.8~26.0cm, 無界, 1張 20行13字, 上下向黑魚尾 全 34.1×1610.8cm	變相圖: 八佛相 墨書: 冊主信談(後面)正德元年丙寅 (1506)十月日 晟將元卷傳受信談
23	대방광원각락소주경 권상의2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上之二 건희 00048	佛陀多羅 (中國 唐) 譯 宗密(中國 唐) 解	木板本	麗末鮮初	包背裝, 1卷1冊(缺帙) 四周單邊 全郭 22.2×52.4cm, 有界, 全葉 20行13字 註雙行 34.3×19.0cm	
2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 보살만행수능엄경 권4~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 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 四~十 건희 00049	般刺密帝 (中國 唐) 譯	木板本	朝鮮 初期	7卷2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18.2×13.0cm, 無界, 13行22字, 上下向黑魚尾 26.0×16.7cm	跋: 洪武五年壬子(1372)□□□茲萌 即了跋 跋: 建炎己酉中秋後五日住湖山萬安 比丘行儀謹跋 刊記: 功德主 大將軍金瑚 靈岩郡夫 人崔氏 同願 貞順翁主李氏 安城青 龍寺刊板
25	백지묵서 지장보살본원경 白紙墨書地藏菩薩本願經 건희 00050	法燈(中國 唐) 譯 海淵(朝鮮) 寫	筆寫本	世宗 22(1440)	折帖裝, 3卷3帖 上下雙邊 上下間 28.2cm(卷上) 29.7cm(卷中) 28.6cm(卷下), 張크기 42.3×61.7cm(卷上), 有界, 1張 30行17字(卷中, 下 18字) (卷上) 42.3×15.5cm (卷中, 下) 43.9×15.5cm	寫成記: 正統五年庚申(1440)三月日 書 禪宗前玄高寺住持大禪師海淵…
26	묘법연화경 권3 妙法蓮華經 卷三 건희 00051	鳩摩羅什 (中國 後秦) 譯	木板本	朝鮮 15世紀	折帖裝, 1卷1帖(缺帙) 上下單邊 上下間 22.0cm, 無界, 1張 36行17字 32.9×11.0cm	
27	삼현수간 三賢手簡 건희 00052	宋翼弼·李珥·宋翼 弼·成渾(朝鮮) 著	筆寫本	明宗 15~宣祖 26 (1560~1593)	折帖裝, 4帖 38.5×27.5×1.5cm	4첩 98통의 편지 모음집 원집 23통, 자첩 26통, 이첩 26통, 정첩 23통 총 98통
28	감지은니 범망경보살계품 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건희 00053	鳩摩羅什 (中國 後秦) 譯	筆寫本	朝鮮 14~15世紀	折帖裝, 1帖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12.0cm, 無界, 1折 7行15字 全 17.6×428.0cm	變相圖: 梵網經菩薩戒變相 寫成記: 幹士大然成經所懷書于經末
29	송조표전총류 권6~11 宋朝表箋總類 卷六~十一 건희 00054		金屬 活字本 (癸未字)	太宗 3年(1403)	6卷3冊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3.7×15.4cm, 有界, 8行21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26.8×18.5cm	

불교 佛教 Buddhism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30	감지금니 묘법연화경관세 음보살보문품 紺紙金泥妙法蓮華經觀世 音菩薩普門品 건희 10638	鳩摩羅什 (中國 後秦) 奉詔譯	筆寫本	禩王 3(1377)	折帖裝, 1帖(12張)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20.6cm, 張크기 33.9×23.1cm, 12折2面, 有界, 12行17字 (變相圖) 4面, 全郭 19.2×45.3cm 全 33.9×346.4cm	寫成記: 觀世音菩薩普門 品金字寫成 宣光七年丁巳 (1377)七月日… 潭陽 張有善 變相圖: 法蓮華經觀世音菩 薩普門品變相
31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건희 10618	鳩摩羅什 (中國 後秦) 譯	木板本	忠肅王 復位8(1339)	折帖裝, 1帖(10張) 變相圖, 上下單邊 上下間 5.0cm, 張크기 5.5×54.0cm, 55折11面, 有界, 84行10字 全 5.9×514.1cm	發願文(金剛經): 至大四年 (1311)五月日 發願文(卷末): 至元五年 (1339)二月日…施主 晉城 君姜金剛
32	금강반야바라밀경 언해 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 건희 10745	鳩摩羅什 (中國 後秦) 譯 慧能(中國 唐) 解 世朝(朝鮮) 御定 口訣 韓繼禧(朝鮮) 等 諺解 孝寧大君·海超 (朝鮮) 等 校定	木板本	朝鮮 15世紀	2冊 四周雙邊 半郭 21.1×14.6cm, 有界, 8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1.7×21.0cm	進箋文: 天順八年四月 (1464)初七日…黃守身 等 六祖口訣後序: 元豐七年 (1084)六月十日…羅適 跋: 天順八年(1464)二月 日…孝寧大君 [李]補 跋: 天順八年(1464)春二月 有日…海超 跋: 金守溫 跋: 天順八年(1464)二月一 日…韓繼禧 跋: 盧思慎
33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서설 金剛般若波羅密經五 家解序說 건희 06234	得通 己和(朝鮮) 編	木板本	朝鮮 16世紀	2卷2冊 變相圖, 四周單邊 半郭 26.5×18.6cm, 有界, 9行19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35.7×24.9cm	刊記: 時嘉靖十六年丁酉 (1537, 中宗 32)午月日全羅 道錦山郡地神陰山身安寺此 經及眞覺詩眞實珠集并開板
34	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 건희 06249	法藏(中國 唐) 述 宗密(中國 唐) 錄	木板本	中宗 23(1528)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24.4×16.7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34.1×21.9cm	御製跋: 天順元年(1457, 世 祖 3)十一月二十日跋 刊記: 大明嘉靖七年戊子 (1528, 中宗 23)孟春甲子身 陰山身安寺大乘起信論華嚴 題目開板
35	몽상화상범어악록 언해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건희 06270	德異(中國 元) 著 信眉(朝鮮) 諺解	木板本	朝鮮 前期	1冊 四周雙邊 半郭 21.0×13.5cm, 有界, 7行18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黑魚尾 26.8×17.4cm	刊記: 正德十二年丁丑 (1517, 中宗 12)季夏有日忠 清道連山土孤雲寺開板
36	묘법연화경요해 언해 妙法蓮華經要解彥解 건희 06274	鳩摩羅什(中國 後秦) 譯 戒環(中國 宋) 解 一如(中國 明) 集註	木板本	中宗 18(1523)	3卷3冊(缺帙) 四周單邊(雙邊 混入) 半郭 20.5×18.1cm, 有界, 大字 9行17字 小字雙行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2.4×22.1cm	刊記: 嘉靖二年(1523)癸未 月有日誌
37	묵서아미타발원문 墨書阿彌陀發願文 건희 10626		筆寫本	恭愍王 12(1363)	卷軸裝, 1軸(1張) 無界, 29行9~11字 全 47.2×384.0cm	寫成記: 至正二十三年 (1363)八月日
38	법집법행록절요법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건희 06285	知訥(高麗) 著	木板本	宣祖 9(1576)	1冊 四周單邊 半郭 16.6×13.2cm, 無界, 10行21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26.1×17.5cm	序: 八溪比丘蘿月 堂孤翁述 跋: 成化二十二年丙午 (1486, 成宗 17)夏夏日大傑 謹跋. 大叟謹跋 刊記: 時萬曆四年丙子 (1576, 宣祖 9)季夏俗離山 觀音寺開板 大化衲
39	상교정분자비도량참법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건희 06293	諸大法師 (中國 梁) 集撰	木板本	朝鮮 前期 추정	5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5.4×18.6cm, 有界, 9行15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黑魚尾 36.1×23.2cm	表題: 詳校正本… 板刻標點 版心題: 慈悲懺六, 慈悲懺 七, 慈悲懺八, 慈悲懺九, 慈 悲懺十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40	상지은니 대방광불화엄경 권78 椽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卷七十八 건희 10484	實叉難陀(中國 唐) 奉制譯	筆寫本	禩王 13(1387) 추정	折帖裝, 1卷1帖 16面, 無界, 6行17字 30.9×12.2cm	墨書: 洪武二十年丁卯(1387)五月日寫成 施主奉翊大夫典工判書致仕盧有麟
41	석보상절 권21 釋譜詳節 卷二十一 건희 10739	首陽大君(朝鮮) 編	金屬活字本	世宗 29(1447)	1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2.2×15.8cm, 無界, 8行15字 註雙行, 黑口, 上 또는 下黑魚眉 34.0×20.8cm	版心題: 釋譜
	석보상절 권20 釋譜詳節 卷二十 건희 10743	首陽大君(朝鮮) 編	金屬活字本	世宗 29(1447)	1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2.2×15.8cm, 無界, 8行15字 註雙行, 黑口, 上 또는 下黑魚眉 34.0×20.8cm	版心題: 釋譜
42	선원제전집도서 禪源諸詮集都序 건희 06305	宗密(中國 唐) 述	木板本	成宗 24(1493)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4×13.1cm, 無界, 10行20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26.2×16.6cm	序: 禪源諸詮集都序敍…洪州刺史兼御史中丞裴休述 後記: 後記唐大中十一年丁丑(867)…福州沙門契玄錄 大宋錢塘嚴明男 嚴楷勾當 雕開板 跋: 大叟謹跋 刊記: 弘治六年癸丑(1493, 成宗 24)七月有日全羅道高山地佛名山花岩寺重刊
43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건희 10715	玄覺(中國 唐) 撰 行靖(中國 宋) 註 淨源(中國 宋) 修定科	木板本	中宗 20(1525)	2卷1冊 四周單邊 半郭 18.6×13.0cm, 無界, 10行19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3×15.7cm	刊記: 嘉靖四年乙酉(1525) 孟夏全羅道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板
44	선종영가집 언해 禪宗永嘉集 諺解 건희 10738	玄覺(中國 唐) 撰 行靖(中國 宋) 註 淨原(中國 宋) 修定科 世祖(朝鮮) 御定口訣 信眉(朝鮮) 等譯	木板本	世祖 10(1464) 추정	3卷3冊 四周雙邊 半郭 22.0×14.8cm, 有界, 8行18字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8×20.0cm	序: 涵虛堂讚頌并序 箋: 天順八年(1464)正月初五日…黃守身等上箋 언해본 권상上 · 하下 2책과 선종영가집 1책으로 이루어져 있음.
45	십지경론 十地經論 건희 06329	天親菩薩(印度) 造 菩提流支(中國 北魏) 譯	木板本	明宗 12(1557)	2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1.3×16.0cm, 有界, 8行14字, 大黑口, 上下黑魚尾 33.5×20.9cm	刊記: 嘉靖卅六年丁巳(1557, 明宗 12)八月日黃海道瑞興地高德山星宿寺刊板
46	오대진언 五大真言 건희 10532	不空(中國 唐) 奉詔譯	木板本	成宗 16(1485) 추정	1冊 四周雙邊 半郭 17.0×12.5cm, 有界, 8-9行14-15字 註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23.8×17.1cm	跋: 成化二十一年(1485)乙巳孟夏山人臣學祖謹跋
47	월인석보 권17·18 月印釋譜 卷十七·十八 건희 10744	世宗(朝鮮) 命編 信眉(朝鮮) 等編	木板本	世祖 5(1459)	2卷2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1.9×16.8cm, 有界, 7行9字 註雙行, 黑口, 上 또는 下黑魚眉 31.5×21.5cm	版心題: 月印釋譜
48	월인석보 권7 月印釋譜 卷七 건희 10691	世祖(朝鮮) 命編	木板本	朝鮮 15세기 이후	1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1.2×17.5cm, 有界, 7行14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32.0×21.0cm	版心題: 月印釋譜 表題: 月印釋譜
49	육조대사법보단경 언해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건희 10694	慧能(中國 唐) 著 法海(中國 唐) 集	木活字本(引經字)	燕山君 2(1496)	2卷2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4.2×15.0cm, 有界, 8行17字, 黑口, 上 또는 下黑魚眉 34.0×20.8cm	序: 德口 撰…至元二十七年庚寅(1290)… 略序: 法海集
50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권54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卷五十四 건희 10645	實叉難陀(中國 唐) 譯		高麗 11世紀	卷軸裝, 1卷1軸(22張, 缺帙) 四周單邊, 上下間 22.4cm, 張크기 28.7×46.7cm, 無界, 23行14字 全 28.7×1031.0cm	卷首題: 大方廣佛華嚴經 函次: 育

유학 儒學 Confucianism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51	근사록 近思錄 건희 10619	朱熹(中國 宋), 呂祖謙(中國 宋) 共著	金屬活字本(初鑄甲寅字)	世宗 18(1436)	2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6.3×17.5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黑魚尾 35.8×21.2cm	
52	논어대문 論語大文 건희 10459		金屬活字本(戊申字)	顯宗~肅宗年間(1659-1720) 추정	2卷1冊 四周雙邊 半郭 24.2×18.1cm, 有界, 10行17字, 白口, 上下向3葉花紋魚尾 24.2×18.1cm	
53	대송미산소씨가전심학문집대전 大宋眉山蘇氏家傳心學文集大全 건희 10500	蘇洵(宋) 等著 李良卿(中國 明) 校正	金屬活字本(丙子字)	中宗 재위(1506-1544) 추정	4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3.0×15.4cm, 有界, 11行20字, 花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0.1×19.4cm	表題: 眉山蘇氏集 版心題: 蘇文集
54	성리대전서절요 性理大全書節要 건희 10497	金正國(朝鮮) 節要	木板本(翻刻)	明宗 1(1546) 以後	2卷2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3.0×17.1cm, 有界, 10行19字, 大墨口, 上下墨魚尾 29.2×19.1cm	
55	성학십도 聖學十圖 건희 06205	李滉(朝鮮) 撰	木板本	英祖 17(1741)	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3.8×16.3cm, 有界, 8行16字,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4.8×22.1cm	跋: 辛酉十月…吳道一(1645-1703) 內賜記: 乾隆九年三月二十四日內賜平原君標聖學十圖一件命除謝恩 行都承旨臣李
56	송명신언행록 宋名臣言行錄 건희 06419	李幼武(中國 宋) 纂集	金屬活字本(甲辰字)	明宗재위(1545-1567) 추정	3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0.8×14.8cm, 有界, 12行19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6.3×18.0cm	版心題: 言行外(卷3), 言行前(卷4-5)
57	시전대전 詩傳大全 건희 06322	胡廣(中國 明) 等 奉勅纂修	金屬活字本(戊午字)	仁祖 1(1623) 추정	1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7.0×16.9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35.3×22.7cm	表題: 詩傳 版心題: 詩傳大全
58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건희 10519	王肅(中國 魏) 撰 王廣謀(中國 元) 句解	木板本(元板 翻刻)	太宗 2(1402) 추정	6卷1冊 挿圖,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8.4×11.7cm, 有界, 12行22字 註雙行, 小黑口, 上下下向黑魚尾 23.7×14.6cm	舊刊記: 泰定甲子(1324)秋 蒼巖書院刊行
59	양현전심록 兩賢傳心錄 건희 08710	正祖(朝鮮) 命編 李始源(朝鮮) 等編	木板本	哲宗 7(1856)	8卷4冊 四周雙邊 半郭 20.9×15.4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白口, 上下2葉花紋魚尾 29.6×20.2cm	
60	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 건희 08441	英祖(朝鮮) 御製	金屬活字本(戊申字)	英祖 42(1766)	2卷1冊 四周雙邊 半郭 22.8×14.6cm, 有界, 8行15字, 花口, 上3葉花紋魚尾 33.3×20.5cm	序: 丙戌(1766)…金華鎮(1728-1803)奉敎書 內賜記: 乾隆三十一年(1766)正月十三日 內賜弘文館應敎金龜柱 御製小學指南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李
61	예기 禮記 건희 06335	陳萇(中國 元) 編	木板本(中國)	正統 12(1447) 추정	1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2.0×15.2cm, 有界, 8行14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黑魚尾 31.0×19.4cm	表題: 禮記 版心題: 禮記集說
62	자경편 自警編 건희 06368	趙善瑋(中國 宋) 編	木活字本(秋香堂字)	光海君 1(1609)	1冊 四周雙邊 半郭 20.3×14.7cm, 有界, 12行19字,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27.1×18.4cm	刊記: 萬曆三十七年己酉(1609)仲春活字印出于箕城之秋香堂

역사 歷史 History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63	주역전의대전 周易傳義大典 건희 06377	胡廣(中國 明) 等 奉勅纂修	木板本 (中國)	明 初期 以後	4卷2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5.8×16.9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34.2×21.2cm	
64	고려사 高麗史 건희 07104	鄭麟趾(朝鮮) 等編	木板本	朝鮮	6卷2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0.5×15.0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3.2×19.5cm	表題: 高麗史 卷首題: 世家卷第四十二, 列傳卷第四 卷尾題: 世家卷第四十四, 列傳卷第六 版心題: 高麗史卷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高麗史第 九十一, 高麗史第九十二, 高麗史第九十三
65	북정록 北征錄 건희 10640	申叔舟·李克堪 (朝鮮) 編 曹錫文·盧思慎 (朝鮮) 等 撰定	金屬活字本 (乙亥字)	世祖 14(1468)	6卷2冊 四周單邊 半郭 21.6×14.7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28.3×18.5cm	表題·版心題: 北征錄
66	삼국사절요 三國史節要 건희 10620	世祖·成宗(朝鮮) 命編	金屬活字本 (乙亥字)	成宗 7(1476)	2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1.8×14.4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31.7×19.7cm	版心題: 三國史節要
67	이십일도회고시 二十一部懷古詩 건희 09654	柳得恭(朝鮮) 撰	筆寫本	19世紀 추정	1冊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 30.1×21.5cm	表題: 都懷古詩
68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 건희 10697	朱熹(中國 宋) 編	金屬活字本 (大字 丙辰字, 中字 初鑄甲寅字), 木活字 (大字 做丙辰字, 中字 做甲寅字)	明宗在位 (1545-1567) 추정	2卷2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6.5×17.2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下向3花紋魚尾 36.0×22.0cm	表題·版心題: 綱目
69	제왕운기 帝王韻紀 건희 06196	李承休(高麗) 著	木板本	朝鮮 前期	2卷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2.4×15.3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黑魚尾 30.4×18.6cm	表題: 帝王韻紀 版心題: 韻紀

문집 文集 Collection of Works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70	간곡정선옥방옹시집 澗谷精選陸放翁詩集 건희 10475	陸游(中國 宋) 撰 劉辰翁(中國 宋) 選	木板本	15世紀 以後	14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18.9×13.0cm, 有界, 11行20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2.6×16.0cm	表題: 唐詩 卷首題: 名公妙選陸放翁詩 集, 須溪精選陸放翁詩集, 精選陸放翁詩集 版心題: 陸
71	당백가시 唐百家詩 건희 06245	朱警(中國 明) 編	金屬活字本 (甲辰字)	宣祖 3(1570)	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1.8×15.0cm, 有界, 12行20字, 大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0×19.8cm	
72	보한재집 保閑齋集 건희 09226	申叔舟(朝鮮) 著	木板本 (甲辰字 翻刻)	17世紀 以後	5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19.2×14.2cm, 有界, 12行19字, 上下黑口, 內向混魚尾 26.6×17.8cm	
73	분류두공부시 언해 分類杜工部詩 諺解 건희 10732	杜甫(中國 唐) 著 柳允謙(朝鮮) 等 受命諺解	金屬活字本 (乙亥字)	成宗 12(1481)	1卷1冊 四周單邊 半郭 21.9×14.6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2.0×18.5cm	版心題: 杜詩
74	양촌선생문집 陽村先生文集 건희 06332	權近(朝鮮) 著	木板本	顯宗 14(1674) 以前 추정	4卷1冊(缺帙)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4×11.6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黑魚尾 24.0×16.7cm	表題: 陽村先生文集 版心題: 陽村文集
75	어제근팔유군록 御製近八裕昆錄 건희 08714	英祖(朝鮮) 撰	木板本	英祖 45(1769)	1冊 四周雙邊 半郭 20.4×14.6cm, 有界, 6行10字 註雙行, 白口, 上 또는 下 3葉花紋魚尾 32.0×20.3cm	刊記: 敎書館刊印 奎章閣 藏板
76	어제독서록 御製讀書錄 건희 08717	英祖(朝鮮) 著	木板本	英祖 43(1767)	1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5.0×16.2cm, 有界, 5行10字, 白口, 上 또는 下 2葉花紋魚尾 34.0×21.0cm	
77	이재집 頤齋集 건희 09657	曹友仁(朝鮮) 著	木板本	18世紀 後期~ 19世紀 前期 추정	1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1.2×16.7cm, 有界, 10行21字, 白口, 上下2葉花紋魚 尾 31.0×20.3cm	
78	임재주백가의시집 林祭酒百家衣詩集 건희 06365	林惟正(高麗) 著	木板本	1225(고종 12) 또는 조선 1440년 (세종 22) 추정	3卷1冊 四周雙邊 半郭 18.4×15.2cm, 有界, 10行16字 註雙行, 魚尾確認不可 26.5×18.6cm	
79	주문공교창려선생집 朱文公校昌黎先生集 건희 09759	韓愈(中國 唐) 著	木活字本 (庚午字)	光海君 2(1610)	3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3.7×15.9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3葉花紋魚尾 32.8×21.1cm	
80	증간교정왕장원집주분류 增刊校正王狀元集註分類 東坡先生詩 건희 10499	蘇軾(中國 宋) 著	金屬活字本 (甲寅字)	朝鮮 前期	2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4.8×17.2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3.1×21.0cm	刊記: 丁亥四月日改粧主蔡
81	진산세고 晉山世稿 건희 10512	姜淮伯·姜碩德·姜 希顔(朝鮮) 著 姜希孟(朝鮮) 編	木板本	15世紀 以後	4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19.1×13.2cm, 有界, 11行19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6.5×17.0cm	序: 申叔舟謹序 序: 成化癸巳(1473, 成宗 4) 暮春·崔恒敘 序: 蓬原鄭昌孫序 序: 龍集甲午(1474, 成宗 5) 孟春·姜希孟景醇謹敘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82	초사후어 楚辭後語 건희 06397	朱熹(中國 宋) 撰	木板本	朝鮮 前期	6卷1冊 四周雙邊 半郭 21.5×15.0cm, 有界, 11行21字 註雙行,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7.0×18.7cm	原刊記: 建安虞信亨宅重刊 至治辛酉(1321)臘月印行
83	춘정선생문집 春亭先生文集 건희 10504	卞季良(朝鮮) 著	木板本	世宗 24(1442) 추정	3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2.3 x14.9cm, 有界, 11行21字, 上下小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9.5×18.4cm	表題: 春亭集 版心題: 春集
84	포은시고 圃隱詩藁 건희 09927	鄭夢周(高麗) 著	木板本	宣祖 41(1608)	2卷1冊 挿圖, 四周單邊 半郭 22.3×15.5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2-3葉花紋魚尾 33.6×21.0cm	序: 永樂己丑(1409)… 卞季良 序: 正統二年丁巳(1437)… 朴信 序: 皇命萬曆乙酉(1585)… 盧守愼 跋: 正統四年己未(1439)… 男宗誠 跋: 嘉靖癸巳(1533)…柳溥 刊記: 萬曆三十六年(1608) 正月十五日…七大孫應聖謹 刊于黃州兵營

실용서 實用書 Practical Books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85	구급간이방언해 救急簡易方諳解 건희 10536	尹壩(朝鮮) 等 受命撰	木板本 (乙亥字 鰾刻)	16世紀 추정	1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0.7×14.6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6.3×18.5cm	版心題: 簡易方
86	대광익회옥편 大廣益會玉篇 건희 06247	顧野王(中國 梁) 撰 陳彭年(中國 宋) 等 受命撰	木板本	中宗 32(1537) 추정	5卷2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3.7×17.3cm, 有界, 大字10行22字 小字20行30字, 上下大黑口, 內向黑魚尾 31.2×20.8cm	原刊記: 永樂辛卯(1411)菊 節新北軒刊行
87	병학지남 兵學指南 건희 07648	正祖(朝鮮) 命編	木板本	正祖 11(1787)	5卷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2.6×17.9cm, 有界, 11行24字 註雙行, 白口, 上下2葉花文魚尾 34.9×23.4cm	刊記: 丁未新刊 壯營藏板
88	신보휘어 新補彙語 건희 07512	金摺(朝鮮) 纂輯	金屬活字本	17世紀 中期 以後	4卷1冊(缺帙) 四周單邊 半郭 20.4×13.7cm, 有界, 11行30字 註雙行, 白口, 上下2葉花紋魚尾 26.3×16.9cm	
89	신편고금사문류취 新編古今事文類聚 건희 06326	祝穆(中國 宋), 富大用(中國 元), 祝淵(中國 元) 共編	金屬活字本 (甲辰字)	成宗 24(1493)	16卷4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0.4×14.3cm, 有界, 12行19字,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27.0×18.0cm	
90	신편명가지리대전 新編名家地理大全 건희 10474		金屬活字本 (乙亥字)	15世紀 추정	1卷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2.0 x14.8cm, 有界, 9行17字, 黑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9.4×18.5cm	版心題: 地理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91	옥기미의 玉機微義 건희 06204	徐彥純(中國 明) 撰 劉宗厚(中國) 增補	金屬活字本 (大字: 乙亥字, 中字: 甲辰字)	明宗 9(1554)	1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1.8×15.1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黑口, 上下內向1-2葉花紋魚尾 31.1×19.4cm	序: 貞德丙寅(1506)… 汪舜民 序: 正統己未(1439)… 楊士奇 內賜記: 嘉靖三十三年 (1554)七月日 內賜司憲府 執義李瑛玉機微義一件命除 謝恩 右承旨臣李
92	요집 要集 건희 06350		金屬活字本 (甲辰字)	明宗 9(1554) 以前 추정	1冊 四周單邊 半郭 17.7×11.3cm, 有界, 9行16字 註雙行,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22.2×13.7cm	墨書: 甲寅至月裝衣
93	제불세존여래보살존자명 칭가곡 諸佛世尊如來菩薩尊者 名稱歌曲 건희 10699	成祖(中國 明) 御製	木板本	永樂帝 재위 (1402~1424) 추정	1冊 挿圖, 四周雙邊 半郭 28.5×18.0cm, 無界, 16行字數不定,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41.9×26.8cm	序: 永樂十五年(1417) 四月十七日
94	증속회통운부군옥 增續會通韻府群玉 건희 07507	陰時夫(中國 元) 編輯 陰中夫(中國 元) 編註	金屬活字本 (乙亥字本)	16世紀 中期 추정	4卷4冊(缺帙) 四周雙邊 半郭 24.6×15.9cm, 有界, 9行17字 註雙行, 白口, 上下3葉花紋魚尾 34.0×21.3cm	

기타 其他 Otherss

도판번호	명칭	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95	선묘보감 宣廟寶鑑 건희 07114	李端夏(朝鮮) 受 命編	金屬活字本 (戊申字)	英祖 7(1731) 추정	2卷1冊(缺帙)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5.1×17.1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1.6×21.2cm	
96	신묘식년사마방목 辛卯式年司馬榜目 건희 10531		木板本	宣祖 24(1591) 추정	1冊 四周雙邊 半郭 22.5×16.5cm, 有界, 10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3.5×22.0cm	版心題: 榜目
97	좌익원종공신녹권 佐翼原從功臣錄券 건희 06210	世祖(朝鮮) 命撰	金屬活字本 (初鑄甲寅字)	世祖 4(1458)	1冊 四周單邊 半郭 24.9×10.3cm, 有界, 10行17字,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35.7×21.2cm	序: 景泰六年…韓明澮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4집: 전적 귀중본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4 Selected Books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2077.9000 F. 02.2077.9925
www.museum.go.kr

북디자인 편집전문회사 꿈과놀다
04623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9 한아빌딩 304호
T. 02.2277.3986 F. 02.2279.3986

Publish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Tel. +82.2.2077.9000 Fax. +82.2.2077.9925
www.museum.go.kr

Production Design Play with a Dream
04623 HanA B/D, 12-9, Seoae-ro 5-gil, Jung-gu, Seoul, Korea
Tel. +82.2.2277.3986 Fax. +82.2.2279.3986

초판 발행 2022년 11월 30일
First edition November 30, 2022
Printed on

©2022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e use of any contents of this book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Nation Museum of Korea.

ISBN 978-89-8164-248-8 94600
ISBN 978-89-8164-245-7 (세트)
비매품/무료